
水原學研究

第四號



水原學研究所



간행사



| 유병현 |
수원학연구소장
수원문화원장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시의 문화·예술정책 등 장·단기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제안을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 수원지역 전통문화의 재현, 계승, 계발을 위한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수원학연구소가 지금까지의 현황 파악 및 제언 중심의 사업에서 나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지 2차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하여 작년 연구위원회에서 마련된 수원학연구 장·단기 계획을 바탕으로 5월에 수원시 관광산업의 개발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수원학사료총서 작업의 첫 번째 권으로 《조선왕조실록초 현릉원자료집》을 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수원학연구』 4호는 기존의 『수원학연구』와 같이 학술논문과 정책보고서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특집논문으로 “수원의 인물”이라는 주제에 대해 채제공, 조심태, 김홍도, 정약용, 우하영에 대한 논문이 실렸고, 일반논문으로 수원지역 3·1운동과 민족대표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소고, 그리고 부록으로 춘계워크숍 보고서 3편이 실렸습니다. 특집논문으로 기획된 수원의 인물 연구는 학계 권위자에게 각 원고를 청탁하여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수원 관련 인물 논의를 한 자리에 집대성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작업을 통해 범위를 근대 시기로 확대하는 한편 주제의식도 보다 다양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지역 전통문화총서와 같은 학술자료집 간행, 영화역 복원사업과 같은 수원시 문화정책 및 전통문화 축제 연구,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문화교육 사업 등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벌여갈 예정입니다.

올해로 4호 째를 맞이하는 『수원학연구』가 비록 작은 결실이긴 하지만 이 작업들이 바탕이 되어 더욱 지역문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결과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수원학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여 수원학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평소 수원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의 제언 부탁드립니다.

水原學研究



간행사 • 유병헌 (수원학연구소장 · 수원문화원장) 5

기획논문 : 수원의 인물

번암 체제공의 탈주자학적 인간관과 정치관 • 김성운 9

조심태(趙心泰)의 생애와 사상 • 강신엽 39

정조시대 우하영(禹夏永)의 화성발전론(華城發展論) • 최홍규 69

檀園 金弘道の 예술활동과 업적, 그리고 華城 • 이태호 · 박정애 117

수원(水原)과 다산(茶山) • 조성을 149

일반논문

수원지역 3·1운동과 민족대표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소고 • 조성운 169

부록 : 수원시 관광산업의 개발과 발전 방안 세미나 자료

정조의 화성건설 • 박천우 185

수원의 문화관광 인프라 현황과 활성화 방안 • 한동민 199

수원지역 관광상품 개발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김흥식 221

< 휘 보 >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237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241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243

변암 채제공의 탈주자학적 인간관과 정치관

김 성 윤 (경북대학교 연구교수)

머리말	1) 성리학적 정치론의 극복 : 教法一致와 均分論
1. 탈주자학적 인간관과 개방적 학문관	2) 봉당 비판과 下天君主論
1) 「食性說」과 氣數論	맺음말 - 채제공 정치사상의 역사적 위치
2) 개방적 학문관과 화이관의 균열	
2. 현실주의적 정치관과 절대군주론	

머 리 말

樊巖 蔡濟恭(1720~1799, 숙종 46년~정조 23년)은 영조·정조연간에 남인세력의 지주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의 지극한 신임을 얻고 그 의중을 받들어 다방면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정조 후반기에는 수년간에 걸쳐 獨相을 지내면서 신해통공·태학서치·화성축조 등 조선후기 역사에 남을 큰 정책을 입안·추진하여 정조가 득의의 탕평정치를 구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의 역할은 비단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사상(실학·북학·서학·불교)이나 사회·경제(태학서치·서얼허통·신해통공), 문학(풍속시·남인시단·전기문학), 군사(화성·군직개편) 등 조선후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역들에 폭넓게 걸쳐있다. 그러므로 채제공은 정조시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연구대상임을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간 체제공에 대해 연구가 적지 않았지만,¹⁾ 아직도 그의 사상과 정치적 역할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나타난 체제공에 대한 평가를 보면, 「體制內的 民本主義에 속한 실학자군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와²⁾ 「제도개혁보다는 운영개선을 추진한 점진적 개혁가」³⁾ 혹은 「혁명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량을 주창한 진보적 학자(개량주의자)」⁴⁾로 보는 견해가 있다.

1) 박신환, 「번암 체제공의 이단관」, 『동양철학』 13, 2000 (『조선조 유학자의 지향과 갈등』, 철학과 현실사, 2005 재수록).
 권내현, 「번암 체제공의 평안도 인식」, 『韓國人物史研究』 5,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金東哲, 「蔡濟恭의 經濟政策에 관한 考察 - 특히 辛亥通共發賣論을 中心으로 -」, 『釜大史學』 4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0.
 김갑기, 「民族自尊意識과 主體性 研究 - 漢詩에 나타난 先人들의 바른 民族意識 啓導를 위하여 -」, 『한국문학연구』 15, 東國大學校 韓國文學研究所, 1992.
 김갑기, 「번암 체제공의 尊我的 文化意識」, 『教育科學研究』 7, 청주대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1993.
 김문식, 「조선후기 慶南과 嶺南의 교류 양상 - 영양 주실의 한양조씨가를 중심으로 -」, 『韓國思想과 文化』 15, 韓國思想文化學會, 2002.
 김문식, 「蔡濟恭家 소장 正祖의 御筆」, 『書誌學報』 29, 韓國書誌學會, 2005.
 김진호, 「正祖 15年(1791) '長書事件' 과 蔡濟恭」, 西江大 碩士論文, 2002.
 朴光用, 「체제공 - 영조 정조 연간 실시된 탕평정국의 큰 기동을 받친 남인 관료 정치가 -」, 『63인의 역사학자가 쓴 한국사인물열전』 2, 한영우선생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엮음, 돌베개, 2003.
 方威容, 「樊巖 蔡濟恭의 政治思想 研究」, 중앙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5.
 백승호, 「18세기 南人 文壇의 詩會 - 蔡濟恭 · 睦萬中을 중심으로 -」, 『冠嶽語文研究』 2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4.
 백승호, 「번암 체제공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白丞鎬, 「樊巖 蔡濟恭의 文字政治」, 『震檀學報』 101, 震檀學會, 2006.
 辛良善, 「蔡濟恭의 社會經濟思想에 대한 考察」, 『경주사학』 7, 동국대 사학회, 1988.
 유호선, 「번암 체제공의 불교인식」, 『韓國人物史研究』 5,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이승복, 「번암 체제공의 「傳」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신복, 「체제공의 「萬德傳」 연구」, 『한문학논총』 12, 1994.
 이종묵, 「번암이 살던 곳」, 『문헌과 해석』 26, 2003.
 이희수, 「번암 체제공의 記文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5.
 정미숙, 「蔡濟恭과 李鈺의 女性傳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趙 珖, 「樊巖 蔡濟恭의 西學觀 研究」, 『史叢』 17 · 18合輯, 고려대학교 사학회, 1973.
 , 「蔡濟恭의 天主教에 대한 認識」, 『사목』 3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3년 11월호.
 趙成山, 「樊巖 蔡濟恭의 先代家系와 學問淵源」, 『韓國人物史研究』 5,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崔俊夏, 「번암 체제공의 「傳」文學 연구」, 『語文研究』 24, 1993.
 許善道, 「三嘉縣 蔡濟恭撰并書 鳳岩大師碑」, 『韓國學論叢』 9,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7.
 2) 方威容, 앞의 논문, 2쪽.
 3) 朴光用, 앞의 논문, 356~357쪽.
 4) 趙 珖, 앞의 「樊巖 蔡濟恭의 西學觀 研究」, 309쪽; 앞의 「蔡濟恭의 天主教에 대한 認識」, 89쪽.

반면 「문화에 관한한 춘추론적 화이관에서 존모도 물러나 있지 않은 전통고수론자이되 사회일반의 개혁엔 앞장섰던 남인계 개혁주의자」⁵⁾ 혹은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역민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방책을 제시」 했다⁶⁾는 소극적인 평가도 있다. 「선진적인 실학사상과 보수반동적인 전통사상이 복합된 과도기적 온건 · 점진적 개혁가」⁷⁾로 보는 중간적 평가도 있다.

그의 「傳」 문학에 대해서도 실학파의 작품에 속한다는 평가⁸⁾와 지배적 이념의 준수를 교화하기 위한 권력사대부층의 작품에 속한다는 평가⁹⁾로 나뉜다. 대체로 그의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점진적 개혁(온건 개량)이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그 사상적 기반에 대해서는 실학이라고 견해와 보수적 전통이념이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과도적이라고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이처럼 일정한 정설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체제공이 자신의 사상과 정책적 지향에 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만한 저술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연구가 그의 정책이나 작품을 고립적으로 파악하면서 그의 사상 경향과 정치적 지향에 대해 통섭적인 시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에 그다지 주목되지 못했던 그의 정치사상을 조선후기 정치사상의 큰 흐름 속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다방면에 걸친 그의 행적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실학이라는 학문이 당시 조선사회에서 어떠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¹⁰⁾

1. 탈주자학적 인간관과 개방적 학문관

5) 金甲起, 앞의 논문, 80쪽.
 6) 권내현, 앞의 논문, 40쪽.
 7) 辛良善, 앞의 논문, 103~108쪽.
 8) 崔俊夏, 앞의 논문, 305쪽.
 9) 정미숙, 앞의 논문, 201~203쪽.
 10) 체제공의 생애와 정치적 이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박광용, 앞의 논문을 참조 바람.

1) 「食性說」과 氣數論

체제공은 理氣·心性 등 성리학에 관한 문자를 남기지 않았다. 그의 문집인 『번암집』을 보면 그가 당시까지 주류적 학문이었던 性命·義理學에 관련된 학술적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그가 남긴 청류의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계승했으므로 주리론의 입장에 있었으리라 추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食性說」이란 제목의 다음의 글은 그가 오히려 주기적 위치에서 사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① 식성은 타고난다. 그러나 천하 사람들의 식성은 그들의 얼굴만큼이나 다르다. 단 것을 좋아하는 자도 있고, 신 것을 좋아하는 자도 있고, 짠 것을 좋아하는 자도 있고, 담백한 것을 좋아하는 자도 있다. 비록 성현이라도 식성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을 수 없다. (중략) 사람이 태어날 때 오행의 성을 품부받으나 氣로 인해 형체를 갖추기[氣以成形] 때문에 그 품부받은 기의 후박이나 다과에 따라 성 또한 이에 따른다[性亦以之]. 진실로 理라고 하는 한 가지는 의심스럽다[固理也獨怪]. 어려서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면 비단 뽕송하던 얼굴이 변해서 마르고, 검던 머리가 변해서 희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품도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되니 낮과 밤이 상반되는 정도가 아니다. 어렸을 때 단 것을 좋아하던 자가 혹 신 것을 좋아하게 되고, 짠 것을 좋아하던 자가 담백한 것을 좋아하게 된다. (중략) 아! 나는 알겠다.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몸이 크게 변한 것이다. 몸이 변하니 성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략)

② 하늘[天]은 理氣의 주재이다. (중략) 하늘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중략)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성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선을 행하는 자는 권장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치함을 환하게 알게 한다. 근세 이래로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이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자가 천 가지로 몸을 바꾸어 어진 이를 질시하고 나라를 등지니 그 죄가 위로 하늘에 통하나 하늘은 곧 尊榮과 逸樂을 향유케 한다. 착한 자는 義가 있음만 알고 利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나라가 있음만을 알고 그 몸은 돌볼 줄 모른다. 밤낮으로 행실을 닦고 고심하나 하늘은 곧 橫逆을 베풀고 수레에 갖히게 하여 그 몸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늘은 하나인데, 그 성에 고금(의 차이)이 있으니 또한 심히 의심할만 하지 않는가.

③ 하늘이 생긴 지는 오래되었다. 元會를 가지고 미루어보면, 누가 장차 다 하려하나 아직 물러나지 않았다. 하늘의 未는 사람으로 치면 60살이 되는 때

이다. 사람이 60살이 되면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하늘도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늘이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그러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아! 슬프다. 비록 착함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 하늘의 바른 성[性正]이지만, 악을 좋아하고 선을 싫어하는 것도 하늘의 변한 성[性變]이다. 군자는 형체의 요구에도 따르지만 그 바른 [正]을 믿을 뿐이다. 어찌 변한 것으로 인하여 선을 행함에 미리 포기함이 있겠는가.¹¹⁾

다소 길었지만 이것은 체제공의 철학사상적 경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글이다. 그 요지는 사람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식성이 바뀌는 것에 비추어 인간과 하늘의 성도 변한다는 점을 풀어쓴 것이다. 이기·성정을 전문한 것은 아니나 그의 철학사상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①단락에서 ‘氣以成形’·‘性亦以之’라 한 것은 朱熹가 『중용장구』 제1장에서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이라 한 것을 따왔다. 중용장구의 이 구절은 종래 主氣說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주 거론되던 것이다. 체제공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리보다 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신의 주기론적 사유방식을 피력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진실로 리라고 하는 한가지는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주희가 자신의 견해와 같이 곧바로 ‘성 또한 이에 따른다(性亦以之)’라 하지 않고 ‘리 또한 부여되었다(理亦賦焉)’라고 한 것에 의문을 표시한다. 주희는 중용장구에서 “性卽理也”라 하면서 위의 ‘理亦賦焉’의 구절에 이어 “이에 사람과 물건이 태어남에 각기 부여받은 바의 理를 얻음으로 인하여 健順·五常의 德을 삼으니, 이른바 性이라는 것이다(於是 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라 하여 리와 기의 不相離를 전제하면서도 성을 리에 비정하고, 리와 성을 기에 종속시키지 않음으로써 맹자의 性善의 뜻을 부연했다. 이에 반해 체제공은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기에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주희처럼 리와 성을 별도로 내세우는 논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①단락 말미에서 “몸이 변하면 성도 변한다”고 재언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11) 『樊巖集』 권58, 「說」, 食性說. 원래 단락의 구분이 없었는데 필자가 편의에 따라 구분함.

체제공의 주기설은 인간 본성의 문제에서 리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다. 이는 栗谷 李珣의 氣發理乘一途說이나, 경험적 현실에 기본 시각을 두면서 리의 도덕적 속성을 약화시켰던 正祖의 주기설보다도 진일보한 것이며, 丁若鏞의 性嗜好說에 근접해 있다.¹²⁾ 이처럼 기의 움직임과 역할을 중시하는 사고에서 주자학은 상대화될 밖에 없다. 주자학이 도덕적 본체로서의 理개념에 기초하여 제반 이념을 모색한 점을 생각한다면, 그의 주기론은 주자학과는 다른 정치론을 모색하는 출발이 되기도 한다.

②와 ③단락에서 체제공은 인간의 문제를 통해서 하늘을 알 수 있다[知天]는 입장에서 하늘의 성[天之性]까지 논한다. 그 요지는, 사람이 환갑이 되면 성품이 변하듯이 하늘도 세월이 가면 그 성이 변하는데, 지금은 하늘이 사람으로 치면 거의 환갑에 가까워졌으므로 처음의 바른 성[性正]과는 달라진 변한 성[性變]에 따라 인간 세계의 부조리가 횡행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군자는 하늘 본래의 바른 성품에 의지해서 선을 행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체제공의 天道 이해와 논법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체제공이 許穆·李瀾·吳光運·丁範祖·丁若鏞 등 기호남인에서 나타났던 氣數論的 사고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氣數란 기의 運數·運勢를 뜻한다. 기수론은 국가의 흥망성쇠로 대표되는 인간사회의 역사적 진행을 象數易學의 卦變說을 원용하여 ‘氣數之變’으로 이해·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역사운동이 현상계 자체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진행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운리나 도덕과는 근본적으로는 무관하다고 본다. 따라서 ‘天命’이라든지 ‘知天’·‘順天’의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수론은 ‘역사를 도덕과 분리’하고 ‘사실과 가치’를 구분함으로써 역사와 세계를 보는 관점을 보다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¹³⁾ 체제공이 元會로 추리하여 당시의 하늘을 午의

말기로 본 것은 북송대 상수역학의 대가 邵康節의 元會運世說을 차용한 것이다.¹⁴⁾

둘째, 인용문에 나타나는 天은 ‘理氣를 주재’하는 主宰的 天이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고 세월에 따라 성도 변화하는 人格的 天이다. 그리고 ‘尊榮과 逸樂’, ‘橫逆’을 내리는 上帝的 天이기도 하다. 체제공의 이러한 天觀은 주자학의 理法的 天觀을 월등히 뛰어넘은 것이다(체제공의 천관이 갖는 정치성에 대해선 2장의 下天君主論에서 재론).

셋째, 체제공이 천의 개념에서 理法性을 제거한 것은 그가 인성의 개념에서 리를 거론하지 않는 것과 연속되어 있다. 하늘이 오행의 기로 만물을 化生하지만 주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각각에게 따로 불변하는 理(=性)를 부여한 바는 없으며, 인간의 성이란 기 자체의 후박·다과에 따를 뿐이라 본다. 기가 원래 가변성을 가지므로 그는 인간의 성도 가변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인간을 리나 성으로 표상되는 주자학의 도덕적 도그마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의 요구에 따라 욕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기의 다과·후박을 말하고 청탁을 거론하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주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氣稟에 구애되고 人欲에 가리워지므로 清明純粹한 기를 타고나 理를 온전히 보존하는 성인을 모범으로 부단히 博學·審問·謹思·明辨·篤行을 통하여 자기 반성을 거쳐야 하고,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즉 주자학에서 기의 淸濁은 인육의 제거 문제와 직결되므로 聖學을 매개로 하여 국왕의 교화권과 통치권 행사를 제약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체제공 자신은 기적인 수련에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¹⁵⁾ 별달리 操行과 수행을 할 수 없는 평

12) 氣를 중시하는 체제공의 사유는 기호남인 학맥에 영향을 주었던 徐敬德의 唯氣論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의 본체로 太一과 같은 기를 상정하지 않고, 또 理氣의 주재를 天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유기론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그가 理라는 한 글자는 필요 없다고 본 것은 리가 상정하는 도덕적 속성[所當然]에 초점을 둔 것이며, 사물에 내재한 조리[所以然]으로서의 리는 부정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그의 이기론은 주기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3) 기수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정약용의 족부인 海左 丁範祖의 「氣數論」을 들 수 있다(『海左集』 권37). 그는 기수를 불가항력적인 ‘大變’과 인위적 노력에 의해 가변적일 수 있는 ‘小變’

으로 나누어 군왕은 운명을 말하지 않는다는 유교적 입장도 수용하여 있으므로 法家的 ‘勢’ 중심의 철저한 현실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정조도 자신의 처지나 당대 현실을 자주 運數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崔漢綺 또한 본격적으로 기수론을 채용한 바 있다.

14) 元會運世는 1世(30년) → 1運(10世, 360년) → 1會(30運, 10,800년) → 1元(12會, 129,600년)을 말한다. 소강절에 따르면, 午會는 하늘이 처음 열린 子會로부터 75,600년이 흐른 때로, 은·주나라로부터 당·원·송·명이 이에 해당된다(요임금은 이보다 앞선 巳會에 속한다). 未會는 子會로부터 86,400년이 흐른 이후이다.

15) 그의 시에 ‘정신을 모으면 코에서 흰빛이 나온다네(凝神鼻生白)’라는 구절이 있다(『樊巖集』 권5, 「詩」, 宿摩阿衍). ‘鼻生白’은 불교 수행법의 한가지로 코 끝에 숨결이 흰빛을 띠는 것을 보는 것이다. 체제공의 스승인 吳光運도 「夢遊賦」에서 어릴 때 호흡 수련을 한 것으로 적고 있다(『藥山漫稿』 권1, 賦).

민들이 욕구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인성의 고하를 결정하는 청탁의 문제를 제외코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그는 인간을 어떠한 도덕적 규범 속에서 보지 말고 자연 상태로 볼 것을 요청한다.

주자학에서 인성론은 윤리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체제공은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忠孝의 실천윤리를 강조한다. 그가 “하늘의 道는 陰陽일 뿐이며 땅의 도는 剛柔일 뿐이다. 사람은 천지의 정기를 받고 출생한다. 그 사람 된 도리는 오직 충효일 뿐이다”고 한 것은 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天道와 관련된 주자학의 도그마를 거부하고 유학 본연의 실천성에 중점을 두고 재편되던 계층질서의 준거를 忠과 孝悌로 표준화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산림이나 도통·의리에서 집권명분을 찾던 보수집단의 논리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천윤리인 충효를 강조하던 영조의 斯文政策 방향과도 일치한다.

넷째, 철저한 경험적·귀납적 추론 방식이다. 그가 인간의 문제를 통해서 하늘을 알 수 있다[知天]는 입장에서 하늘의 성을 논하는 것은 이러한 사유방식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사람이 환갑이 되면 성품이 변하듯이 하늘도 세월이 가면 그 성이 변한다고까지 추론하는 것에서 그가 천리에 대한 주자학적 이념이나 전제들에서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경험적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자학의 선형적 의리론은 그의 현실주의적 사고에서 배제되고 있다.

체제공이 知行의 문제에서 行(실천)을 더 중요하게 인식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정조 15년 4월에 朝講에서 『중용』을 강의할 때 知를 우선하는 정조의 견해에 반하여, “한 자[尺]만큼의 글을 읽는 것이 한 치를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면서 行을 우선할 것을 주장했다.¹⁶⁾ 기호남인 학맥에서 한 특징으로 나타나던 실천지향성을 체제공이 계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가 “노자와 석가같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중용에 어긋나게 된다”며 현실과 유리된 고원한 진리를 탐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¹⁷⁾

체제공의 이러한 실천지향적 입장에서 입으론 性命과 理氣를 운위하지만 실행이 따르지 못하고, 의리를 내세워 권력욕을 충족하는 당시 유자들의 학풍과 행태에 대한 강하게 비판했다.¹⁸⁾ 그는 충과 효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잘 실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노론계의 의리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깔고 있었다.

체제공은 인간의 욕구를 긍정하면서 인성론에서 리적 측면을 제거하고 성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그가 당시의 신분적 차별에 대해서도 개방적 자세를 견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가 지은 「傳」에는 사족이 아닌 賤民·歌客·奴婢·妓女 등 다양한 신분의 인물이 입전되고 있어 실학파의 「전」 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기지를 발휘하여 남편을 도적으로부터 구원했던 「淸風義婦傳」이나, 제주도의 기생으로 백성을 구휼한 「萬德傳」은 성리학적 신분·윤리관을 넘어서는 여성상을 적극적으로 표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전」이 사대부의 현실인식을 잘 표출하는 문학 장르임을 생각할 때, 체제공이 쓴 「전」은 성장하는 민의 동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사대부층 못지 않은 충의와 효행, 지혜와 지조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으로 충만해 있다. 개방적인 신분관을 갖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작품들이다. 임란 때 아버지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적과의 접전 속에서 아버지를 구하려다 죽은 충신효자 鄭宜藩의 忠孝閣을 세운 일을 기록하면서, 돌아가라는 주인의 명을 물리치고 정의변과 함께 죽은 충성스러운 종 億壽의 旌門이 세워지지 못함을 ‘개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⁹⁾

유형원과 같이 국가체제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실학자들은 신분적·세습적 四民觀을 부정하고 성취형·분업적 사민관을 주장하여 세습신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이 『서경』·『주례』와 같은 六經를 통해 재발견되고 있던 요순삼대의 사회상이었다. 三代之治의 회복에 적극 공감하고 있던 체제공도 이러한 견해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성인의 치세에는 사대부도 하나의 백성이었다”고 이해하거나,²⁰⁾ 관직이라는 공적 영역에서는 신분보다 재능을 위주로 한다는 주장²¹⁾은 이를 보여준다.

18) 『樊巖集』 권57, 「文谷大師碑銘」; 권33, 「海峯集序」.

19) 『樊巖集』 권35, 「記」 贈承旨鄭公忠孝閣記.

20) 朴光用, 앞의 논문, 349쪽.

21) 『正祖實錄』 권32, 15년 5월 임오; 『樊巖集』 권31, 「請太學食堂一名序齒啓」, “夫朝廷之上 以在爲主”.

16) 『正祖實錄』 권32, 15년 4월 30일 갑술.

17) 위와 같음.

2) 개방적 학문관과 화이관의 균열

병자호란 이후 당대 현실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자학이 가진 한계를 직시하고 요순삼대 시대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기호남인 계열의 상고주의적 古學의 전통을 계승한 체제공은 명분과 가치로부터 현실세계로 눈을 돌려 현실주의적 사유와 행동으로 기존의 학문과 정치를 대신하려고 했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그는 이기·성명을 학문의 전부로 알던 당대의 학풍이 갖는 폐쇄성과, 걸은 청렴한 척 하지만 마음은 물욕에 가득 찬 유자들의 행태에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운 것이란 실로 程朱書 몇 권을 섭렵한 것인데도 창창히 그 말만 숭상하여 性命이니, 理氣니 하지만, 마음속에는 명예와 영리가 있을 뿐이라 그 마음을 살펴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²²⁾

요즘 도포를 입고 관을 쓴 유자들은 걸을 때는 느릿느릿하고 앉을 때는 꽃꽃하나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물어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으니 이는 물욕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²³⁾

이러한 유자들의 행태에 비해 불교 수행에 독신했던 승려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닦는 면에서 본받을만한 면이 많다고 보고 수차례 그들의 碑銘을 지었다.

나아가 그는 유교와 불교의 교리를 융회적 차원에서 이해하기도 했는데, 유교의 未發氣象이 불교의 如如한 이치와 같고, 태극은 불교의 一物에 해당하며, 理一分殊는 불교의 一心萬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유교와 불교가 구분이 없다고 하였다.²⁴⁾ 또 정조의 명을 받들어 화성 용주사의 상량문을 짓기도 했으며, 부인 권씨는 불교에 독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⁵⁾ 七長寺의 중을 方外의 벗으로 허여하고, 선산이 있는 죽주의 해월대사에 대해 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그의 불경강의를 듣고

싶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술회하기도 한다. 이처럼 체제공은 일부 승려들에 인정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 가운데 여승 定宥와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²⁶⁾

체제공은 불교뿐 아니라 다른 이단 사상도 많이 수용하고 있었다. 정조와 마찬가지로 王陽明을 높게 평가하여 그를 方遜志와 함께 明의 2대 문장가로 인정했다. 또 老子의 학문은 개인적인 보신만을 꾀하는 이단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를 치국에 잘 활용하여 文治를 이룩했던 漢 文帝는 칭송했다.²⁷⁾ 뿐만 아니라 『도덕경』을 애독하면서 노장의 세계에서 또 다른 경계를 즐길을 술회하기도 했다.²⁸⁾

민간신앙 가운데서도 흑세무민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巫覡은 금하려 했지만, 농사 및 壽福에 관계되는 風神祭나 靈壽星 제사는 찬성하고 권장했다. 서학에 대해서도 그 無君無父와 천당설, 예수 기적설은 반대했지만, 상제가 인간을 굶어 살피본다는 설같은 좋은 면모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체제공의 입장은 가정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단이라도 잘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²⁹⁾ 이러한 사문·이단관은 정조와 일치하는데, 명분이나 가치론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나 교화에 얼마나 하는 효과가 있느냐는 효용성의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현실주의적 태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체제공은 화이관에 있어서도 기존의 전통적 인식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번암집』에 「습忍錄」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는 236수의 시는 체제공이 정조 2년 3월부터 그 해 7월까지 陳奏使로 燕京에 다녀온 132일 동안의 견문과 소회를 일기식으로 쓴 기행시이다. 풍속시풍의 성격이 강한 이 시들은 청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그의 보수적인 화이관을 보여주는 재재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³⁰⁾

「함인록」의 시가 청나라 황제를 可汗·汗酋·胡汗·清汗·單于·胡皇이라고 지

26) 유호선, 앞의 논문 참조.

27) 朴光用, 앞의 논문, 359쪽.

28) 『樊巖集』 권34, 「臥龍瀑記」.

29) 박광용, 앞의 논문, 359~360쪽.

30) 시에 나타나는 청에 대한 멸시는 尊我的 화이론이었으므로 적어도 문화에 관한 한 체제공은 춘추론적 화이관에서 춘보도 물러나 있지 않은 전통고수론자로 이해되거나(金甲起, 앞의 논문, 89쪽), 남인의 입장에서 노론 김창업 이후 조선중화주의를 수용하면서도 북학파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중간단계의 저술로 평가되었다(朴光用, 앞의 논문, 362쪽).

22) 『樊巖集』 권57, 「文谷大師碑銘」.

23) 『樊巖集』 권33, 「海峯集序」.

24) 『樊巖集』 권57, 「霜月大師碑銘」.

25) 朴光用, 앞의 논문, 359쪽.

칭하고, 청의 풍속을 오랑캐의 그것이라고 폄하하고, 명청 교체를 중화문화의 단절로 보면서 청이 조선을 유린한 사실(병자호란)에 적개심을 감추지 않고, 조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등 당시 조선 지식인의 문화적 自尊意識을 일관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³¹⁾ 그러나 그의 대청인식은 노론계와 같이 명분론적 尊華의식(尊華義理論)에 매몰되거나 관념적 자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면도 많았다. 邊城이나 單于臺 같은 명·청간 전쟁 유적지를 지날 때에는 청나라 칸 [汗]의 기개나 팔기군의 군사력은 높이 평가한 반면, 당시 요동 총병으로 산해관에 서 청군의 진출을 막던 吳三桂에 대해선 “옛된 저 어린 오삼계가 소라껍질 기울인들 어찌 바다를 헤아리랴.”라고 형편없이 폄하한다.³²⁾ 그는 기본적으로 명청 교체를 역사상 수없이 반복된 時運 변화의 일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명나라의 패망이 이유가 있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그는 이 연행사에서 崇禎日月에 대한 미련은 시의적절치 못한 명분론이며, 진취일 수도 없는 傷情의 공허한 메아리로 보고 있다.³³⁾

그가 연경에 체류하면서 지은 시는 그 문물의 번성함에 놀라면서 청의 문화적 역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고전서』를 편찬했던 武英殿에 ‘書香이 인다’ 던가, 琉璃廠의 聲價는 ‘七寶에 값한다’며 칭송하고 있다. 한편으론 연경의 모습에 제압되었던지 “북방의 신선 언덕 천하를 통일하여, 영광되고 아름다운 기운 다투어서리네,”라고 읊으며 연경에 도착하기 전까지 야만적이라고 조소하던 청을 칭송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선비에 비유하면서, “홍망의 역사에 어찌 간여하랴, 취해서 오른 서대 눈물만 흐른다.”고 한 것은 이미 청이 문화적 자존심만 가지고는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한 조선 위정자의 비애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³⁴⁾

당시 그의 연행은 정조 원년 건륭황제에게 올린 奏文이 용어와 관련하여 문책을 받자 이를 변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사행이 별다른 부담이 없는 경우였으므로 정조는 그를 정사로 파견하여 그의 식견을 확대하고 문물을 익히게 하려는 의

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李德懋와 朴齊家가 수행원으로 참가하여 이들이 북학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박제가는 使行에서 돌아온 지 약 3개월 만에 『北學議』를 탈고했다. 『북학의』에는 체제공이 “종각 북쪽거리를 더 넓히고 가게 주인이 각각 商號를 정하고 큰 글자로 판매물품의 산지와 종류를 써 붙여서 흥인문에서 승례문까지 면모를 일신시키면 통쾌할 것”이라고 말한 일을 적고 있다.³⁵⁾ 체제공의 이러한 상업 진흥 구상은 연행에서의 견문이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박제가 등이 이용후생의 방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청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선각적인 지견을 갖추어나갈 때 동행한 체제공과의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만치 연경의 상업적 번성은 체제공에게 오랑캐의 사된 문물이 아니라 모방할만한 모델로 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체제공은 연경 체류 중에 洪大容·李德懋·朴齊家 등 조선의 북학론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潘庭筠·李鼎元을 법장사에서 만나 교류를 맺었고, 연경을 떠나면서 이들에게 장편의 시를 지어주면서 깊은 우의를 표하기도 했다.³⁶⁾

연행의 경험은 체제공 자신에게도 청 문물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연경에서 귀국할 때 지은 시들을 모은 「함인록」 하편에서, “도회의 시장마다 모두가 겹꾸밈”이라고 한다던가, “중국의 문물이 이전 시대가 아니”며, 삼대의 모습은 자신의 일행을 그린 朝貢圖에 다 들어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 하지만, 상편에 보이던 청에 대한 감정적 적개심은 일층 누그러진 것이 사실이다. 반면, 동물을 잘 다루는 청의 풍속 속에서 군대의 기율을 연상하는 등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돌아가는 마음」이란 시는 연행의 의미를 스스로 정리한 듯한 느낌이다. 여기에서 그는 “부유함은 부러워할 만하나, 풍속은 전할 만한 것이 없구나.”³⁷⁾ 라고 결론 지었다. 풍속은 조선과도 다르고 중화의 유풍도 없지만, 부유함과 강성함만은 인정

35) 『北學議』內編, 「市井」.

36) 체제공은 시에서 이들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한 뒤에, 교류가 깊었음을 “은밀한 결합 자석처럼 허락되었다”라고 표현하고, “평생의 이 만남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고 술회한다. 「함인록」 상편은 서울에서 연경에 머무를 때까지 지은 것이고, 하편은 연경을 출발하여 돌아와 임금께 보고할 때까지 지은 시를 모았는데, 반정균·이정원과의 작별시가 상편의 마지막에 올라있다(『함인록』, 125~127쪽).

37) 『습忍錄』, 136쪽.

31) 『습忍錄-蔡濟恭 燕行詩-』, 李鍾燦 역주, 一志社, 1995. 이하 쪽수 표시는 이 책으로 함.

32) 『습忍錄』, 「單于臺의 노래」, 98~99쪽; 「아침에 邊城 길에서 들은 이야기」, 82쪽.

33) 金甲起, 앞의 논문, 75~76쪽.

34) 『습忍錄』, 「燕京에서 읊다(其二~其八)」, 119~123쪽.

하지 않을 수 없고 배울만 하다는 것이다. 그의 마음에 북학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돌아오면서 지은 시에서 “천운은 명나라에서 이미 떠났다”³⁸⁾고 읊은 것은 우물 안 개구리 같던 자신과 조선 지식인의 자존의식에 깊은 균열이 생겨났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후 姜沈이 서장관으로 연경에 가게 되자 체제공은 강침의 조부인 三休堂 姜世龜(1632~1703)가 연경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연경은 천하의 대도회지이다. 촉나라의 비단과 南蠻의 구슬이 구름처럼, 안개처럼 모여 들어서 사람의 마음과 눈을 방탕하게 만들기에 족하다. (중략) 선생(三休堂-필자주)의 뜻은 어진 사람이라면 비록 그가 夷狄에 있을지라도 그를 推舉하고자 한 데에 있었을 것이다. 誠吾(姜沈의 字-필자주)는 시험삼아 연경에서 찾아보라. 지금의 이적에도 또한 추거할 만한 인물이 있는가 없는가를.³⁹⁾

삼휴당의 일화를 상기시키면서 이적에도 추거할 만한 인물이 있으니 잘 찾아볼 것을 주문한다. 삼휴당이 연경에서 만났던 이적은 琉球의 사신이다. 그러나 윗 글에서 말하는 ‘지금의 이적’이란 청을 가리키며, 오랑캐로 불리는 청에서도 추거할 만한 문물이나 인물이 있을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신이 진주자로 赴燕하여 반정군·이정원과 교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수행했던 북학과 인물들같이 강침이 청의 문물에 개안하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제공의 대청인식은 보수적인 中華的 自尊意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애초 조선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자존의식이나 청에 대한 복수의지가 곧바로 송시열과 같은 尊明義理論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청의 강성함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던 체제공이 강경한 배청의식이나 모화사상에 경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그의 사상 전반에 명분론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비판정신이 많이 노정되므로 그가 애초 배청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자학적 명분론에 입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요컨대 그에게

38) 『含忍錄』, 「寧遠衛」, 138쪽.

39) 『樊巖集』 권32, 「序」, 送姜誠吾沈書狀赴燕序.

배청은 곧 존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앞서 본 그의 기수론적 사고에 따르더라도 당시는 이미 午會(은·주~당·원·송·명의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었으므로 명 이후의 시대는 새로운 운세 혹은 섭리가 지배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에게 존명은 더 이상 시대적 소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가 연행시에서 崇禎日月 혹은 존명에 대한 미련이 공허한 것이라고 읊은 것도 이러한 그의 시대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대체로 청은 청 나름의 장점이나 특색이 있고, 조선은 조선 나름으로 문화적 장점이 있다는 일종의 개별주체론과 같은 인식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기호남인 계열의 탈주자학적·상고주의적 문화의식에 영향을 받았던 그는 자존심의 회복과 復讎雪恥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강상명분의 강화보다는 부국강병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존명의리론자들이 내세우는 화이론은 경세론적 맥락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바탕 위에 연행 경험을 통해 청의 강성한 현실을 인정하고 배우고 싶은 의지가 생겨났으므로 그에게 화이의 구분은 더욱 무의미해져 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족적 주체의식에서 점차 화이구분의 비현실성을 자각하고 부국강병의 방법을 고민하는 속에서 차후 박지원과 같은 華夷不分論과 박제가·이덕무 등의 적극적인 북학론으로 나아가는 중간단계에 속하면서 일정하게 그 가교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실주의적 정치관과 절대군주론

1) 성리학적 정치론의 극복 : 教法一致와 均分論

조선후기에는 종래 정치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있던 우주론과 윤리론적 맥락을 해체하고, 정치를 하나의 인간의 영역으로 분리시키는 사상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정치와 도덕의 분리’가 나타나고, 주자학의 도덕주의 정치관에 대립하면서 현실주의적·공리적 정치사상이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갔다. 이처럼 정치의 개념과 목적이 변화함에 따라 군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는데, 정약용에게서 극적으로 보이듯이 ‘無爲而化’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有爲之治’의

주체로 군주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갔다.⁴⁰⁾

이러한 정치사상의 변용과정에서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 德治論·修身君主論의 후퇴와 王霸竝用論의 대두이다. 그것은 王霸竝用·王霸一途·寬猛相濟·教法一致·教法相輔 주장으로 표출되었는데, 이들은 왕도와 패도, 교화와 법치의 조화를 주장하는 점에서 대체로 같은 의미이다.⁴¹⁾

체제공은 자주 刑政의 중요성과 기강의 확립을 강조했다. “나라가 나라답게 되는 것은 형정이 있기 때문”이라던가,⁴²⁾ “예약은 형정의 근본이지만, 형정이 아니면 예약만이 시행될 수는 없다”며 教法相輔를 주장했다. 원래 예약형정은 유학 정치론의 기본 요소이지만, 체제공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덕치와 교화를 중시하는 유교의 본령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을 준다.

기강이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통솔하기를 마음이 팔을 쓰는 것처럼 하고 팔이 손가락을 쓰는 것처럼 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팔이 마음대로 부러지고 손가락이 팔에 부러지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강이 서면 그 나라는 흥하고, 기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쇠퇴합니다.⁴³⁾

이처럼 그가 마치 법가와 같은 주장을 한 데에는 당론에 의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기구가 붕당의 수단이 되어 버린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이 깔려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란 모든 계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공리적 인식에서 政令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⁴⁴⁾ 정약용은 종래 德化의 전형

으로 칭송되던 堯舜을 재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감시와 엄혹한 상벌을 행하는 군주상을 이상적 왕정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상정한 바가 있는데,⁴⁵⁾ 체제공의 기강론도 정약용의 견해에 근접해 있다.

체제공이 文武竝進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文獻備考』 「兵考」序文에서

하늘은 만물을 살리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다. 그러나 서리와 눈이 없으면 물을 성숙시킬 수 없다. 나라는 백성을 기르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그러나 무기와 군대가 아니면 백성을 보호할 수 없다. 옛날 성인이 나라를 세우고 임금의 세울 때에 반드시 군대의 제도를 만든 것은 부득이해서 만이 아니다. 대체로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중략)

五衛의 兵制는 대략 고려의 제도를 모방했으나, 장구한 계획은 문과 무가 가지런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이 나라를 세우는 큰 법은 예약만을 오로지 숭상한다. 벼슬아치와 士夫들은 넓은 소매 달린 옷과 높고 큰 갖의 차림으로 (중략) 읽는 것은 詩와 書이고, 강론하는 것은 왕도와 패도의 구별이다. 軍旅의 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마음에 새겨 두지 않을 뿐 아니라 문득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주나라처럼 문화가 빛나고, 송나라처럼 인후함이 무력을 견비할 수 없음은 사리가 본래부터 그러한 것이다. (중략)

이것이 우리 성상께서 兵制를 예약의 다음에 넣으라고 명령한 까닭이다. 그리고 臣 등이 수집 편찬한 것들은 대체로 장래에 나라를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예약과 군사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바이다.⁴⁶⁾

예약과 군사를 수레의 두 바퀴와 새의 두 날개같이 한쪽을 폐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조선의 관리 및 선비가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는 것을 正學으로 여기면서 군사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체제공이 화성축조의 총책임을 맡아 축성방략을 개진한 것도 예약지상주의를 극복한 실학적 사고와 군사적 실무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학자들은 도덕과 수신 위주인 성리학의 관념적 정치관을 국가경영의 원리인

45) 金成潤, 「茶山 丁若鏞의 洪範說 研究」, 『歷史學報』 170, 2001, 47쪽.

46) 『樊巖集』 권32, 「文獻備考兵考序」.

40) 經學부문에서 정치의 본질 혹은 국왕권의 위상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인물은 성호 이익의 제자인 尹東奎이다. 그는 皇極에서의 極을 도덕적 표준으로 보는 주희의 견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金成潤, 「18세기 畿湖南人の 洪範이해 -星湖 李瀛과 邵南 尹東奎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16집, 2001). 영조와 정조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관을 현실화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41) 왕폐비용과 관맹상제에 대해서는 金成潤, 「《홍범연의》의 정치론과 군제개혁론 -葛庵 李玄逸을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영남남인의 실학적 경세론-」, 『大丘史學』 83, 2006, 110~112쪽 참조.

42) 『樊巖集』 권24, 「請赦典勿施私恩劄」.

43) 『樊巖集』 권24, 「請銓長吳載純嚴加責罰 仍乞斥退劄」.

44) 체제공은 우의정으로 특채되었을 때 入相의 변으로 6조를 진언했는데, 皇極을 세울 것, 黨論을 없앨 것, 의리를 밝힐 것, 백성의 어려움을 근심할 것, 탐관오리를 징벌할 것과 함께 국가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주장했다(朴光用, 앞의 논문, 343쪽).

道와 그것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는 政制인 器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道器一體’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체제공이 예악과 군사가 병행하는 것을 ‘하늘의 이치’라고 한 것은 吳光運이 “도덕은 하늘에 근본하고 政制는 땅에 근본하니, 하늘을 받들면서 땅을 몰라서는 안되”고 “성인은 하늘과 땅을 따를 뿐이다”며 道器一體를 주장한 것과 똑같은 논법이다.⁴⁷⁾

체제공이 실학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욕구를 가진 생생하게 살아 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그들의 현실적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정치의 주요 목적임으로 재인식했음은 분명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전 사회구성원에 대한 財富의 균등한 배분(均分)을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치나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인식했다. 다음의 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임금이 글 뜻은 하늘처럼 크고 (宸章天與大)
 다스림의 근본은 道를 존중히 여기네 (皇極道爲尊)
 배부르기 원하는 마음 만인이 본성이니 (願飽皆人性)
 골고루 나누어지소서, 임금의 어진 두루미여 (均分有上樽).⁴⁸⁾

이 시는 정조와 酬唱한 시를 모은 『賡和錄』에 실려 있는데, 정조의 시가 ‘保合하고 大和하여 상하가 함께 간다는 뜻’이 있어 그것을 흠양하면서 지은 답시이다. 정조의 탕평정치가 상하 귀천간 ‘均分’을 통하여 ‘太和’한 至治를 지향하며, 그것이 ‘다스림의 근본이 되는 道’라고 본 것이다.⁴⁹⁾

체제공은 星湖 李瀾의 墓碣銘에서 성호의 경제론을 “위를 털어서 아래를 더하는 것”(損上而益下)으로 요약한 바 있다. 이는 “天道는 남는 것을 털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道德經』의 天補論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위와 아래라는 계층적 의미를 직접 내세웠다는 점에서 均平에 한걸음 더 진전된 면이 있다. 天補論은 당말 농민 전쟁에서 王仙芝가 내세운 구호(‘天補平均’)가 된 사례에서 보듯이 均平의 이념을

함축하고 있다. 조선시대 실학을 대동사회론의 맥락에서 보면 李珥에서 柳馨遠을 거쳐 洪大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구상한 이상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념적 기초가 된 것이 均平이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⁵⁰⁾ 체제공의 정치이념도 실학 정치론의 본류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聖朝의 정사가 “모든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⁵¹⁾ 그가 추진한 정치·사회·경제분야의 경장 또한 궁극적으로 권력의 공공성 회복을 통한 이익의 均分·均平을 지향하는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백성에게 實惠를 주는 정치를 지향했던 그가 관료나 사대부층의 실무능력을 중요시했던 것은 자연스럽다. 벗인 朴師海가 順興의 수령으로 나가는 것을 전송하면서, 文人을 자처하면서 실무를 아전에게 미루고 산수나 즐길 것이 아니라 백성과 국가를 생각해서 인으로써 백성을 사랑하고 지로써 산업을 다스릴 것을 당부한 것에는 정치의 공공성이나 관료·지식인의 책임의식 및 실무능력을 중시하던 그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⁵²⁾

그의 역사적 인물이나 시대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 그는 朝講에서 司馬光=完人論에 불만을 가지고, 정조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반적인 평가를 뒤집는 인식을 표출했다. 사마광과 王安石은 서로 비교할 수도 없다는 유자들의 논의를 ‘정말로 편협한 것’이라 비판하고, 사마광이 좋은 평가를 얻게 된 이유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마치 탐욕스러운 관리의 후임자가 쉽게 청렴하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법이 백성들을 뒤흔든 뒤에 나섰기 때문이며, 구법을 바꾸는 것은 극히 어렵지만 신법을 혁파하는 것은 극히 쉬운 법이니 그가 왕안석보다 뛰어나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⁵³⁾

왕안석·사마광 혹은 신법당·구법당 간의 대립은 동양에서 대표적인 개혁과 보수 의 갈등 사례이다. 그런데 신법당과 구법당의 정치노선은 여말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의 노선과 상통하는 점이 많았고(신법당-급진개혁파, 구법당-온건개혁파), 조선 중기 이후 온건개혁파의 노선을 계승한 사림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주가

47) 金成潤, 「蕩平의 原理와 蕩平論」 『釜大史學』 15·16합집, 1992, 449~450쪽.
 48) 『樊巖集』 권1, 「賡和錄」 ‘三月陪駕宣禧宮承命次御製韻以進’.. 잇구 밑의 주에 “御製....有保合大和上下同流之意 欽誦之餘 敢以是仰贊云爾”라 하고 있다.
 49) 정조도 자신의 정치적 강령을 ‘大同과 太和의 정치’로 지칭하고, 이를 위해 일념으로 자나 깨나 마음에 맺혀 있다고 말한다(『正祖實錄』 권25, 12년 2월 11일 갑진).

50) 金成潤, 「조선시대 大同社會論의 수용과 전개」 『朝鮮時代史學報』 30, 2004.
 51) 『正祖實錄』 권30, 14년 4월 7일 정사.
 52) 『樊巖集』 권32, 「送朴仲涵師海幸順興序」.
 53) 『正祖實錄』 권32, 15년 4월 30일 갑술.

국가사회의 중추세력으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함에 따라 왕안석 소인론과 사마광 군자론이 사림의 보편적 평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상업의 발달 등으로 사회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탈성리학적 정치론이 등장하면서 왕안석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이루어졌다. 대체로 정치의 목적을 도덕성의 제고보다 복리 증진에 두고, 대지주·대상인의 독점을 반대하고 균분을 지향하거나, 이를 위해 국왕이 권력을 집중하여 복리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기를 갈망하는 측에서 왕안석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왕안석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이면에는 공리적 정치사상의 확산이 깔려 있었다.

체제공이 주자학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상적인 시대로 설정하던 宋나라가 아닌 강력한 왕권에 의한 통일국가체제였던 前漢을 국가체제의 기본적인 모델로 상정했던 점도⁵⁴⁾ 그의 탈성리학적·공리적 정치사상의 진전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2) 봉당 비판과 下天君主論

국왕을 정점으로 한 일원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통해 특권층의 권력집중을 완화하고, 성장하던 민의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려고 했던 체제공은 정조와 처음 연석에서 만났을 때 봉당 타파를 서로 도와나가는 첫째 의리로 삼자고 약속한 바 있다.⁵⁵⁾

그는 봉당이 기본적으로 국가를 호위하거나 임금을 높이는 것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데서 생겼다고 보았다.⁵⁶⁾ 그래서 好惡를 가지고 관직을 주거나 빼앗고, 힘 있는 봉당은 모두 착한 사람이고 약한 봉당은 모두 악인이 되고, 史官에는 信筆이 없고, 봉당에서 내세우는 시비도 공정성을 잃었다고 탄식했다.⁵⁷⁾ 동갑으로 친한 벗이었던 丁範祖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봉당이 심해진 원인으로 봉당간 소통의 부족과 폐쇄성에 따른 선입관을 거론했다. 갑에서 난 자는 듣고 보고 물드는 것이 갑이며, 같은 당이면 무조건 좋게 평가하고 다른 당이면 다 나쁘게 평하라는 것이 아버지로

부터 아들로, 형으로부터 아우로 전해지니 시비가 일어나도 공정하게 자기편이 나쁘고 상대가 좋다는 발상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⁵⁸⁾

봉당간 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국왕과 사대부들이 각자 선입관을 버리고 공정하게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다음으로 지금은 옛날과 달리 당으로 군자·소인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죄와 당을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⁵⁹⁾ 이 두 가지는 영조대부터 국왕과 탕평파가 제시한 하나의 원칙이었는데, 노론측은 군자당 개념으로 이에 저항했다.⁶⁰⁾

체제공은 탕평정치를 적극 지지했다. 영조 50년간의 정치에서 가장 훌륭했던 것이 建極의 정치(=탕평)이며, 이는 箕子이후 수 천년 동안 한·당·송나라 임금과 세상 군주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던 것이라 칭송했다.⁶¹⁾ 나아가 그는 국왕에 의한 통일권력, 곧 절대왕정의 구축이야말로 봉당간의 이익 갈등과 국론의 분열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상정했다. 분열을 극복한 ‘하나됨’의 정치, 곧 均平의 一極之治는 그가 추구한 궁극적 정치상이었다.

천하의 근심은 나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삼대의 태평성대에서는 위로는 조정이, 아래로는 민중이, 밖으로는 四海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을 한 가지로 하여 (임금이 세우는-필자) 極에 歸一했다. 이때에는 오직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후세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투는 것은 부귀이다.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반드시 그 이익을 독점하고자 한다. 자기에게 붙는 자가 아니면 비록 一勺의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파급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소위 分朋이란 이름이 있게 되었다.

한·당·송·명 이래로 그 마음에 일어나서 그 정치를 해친 것은 그 근심이 나뉘는 데 있을 뿐이었다. 하물며 사람이 한·당·송·명의 시대에 미치지 못하여 그 해됨이 이보다 백배나 됨이 있음이겠는가. 위에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은 자가 그 利를 독점하고 남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여 均平되게 하

58) 『樊巖集』 권36, 「答丁海左範朝書」.

59) 『正祖實錄』 권26, 12년 12월 26일 계속.

60) 봉당과 탕평에 대한 이론적 공방에 대해서는 金成潤, 「18~19세기 老論學者의 洪範이해와 그 정치적 의미-李敏坤·黃景源·洪奭周를 중심으로-」 『釜山史學』 40·41합집, 2001 참조.

61) 『樊巖集』 권23, 「辭都堂會園筭」.

54) 朴光用, 앞의 논문, 355쪽.

55) 『正祖實錄』 권29, 14년 3월 14일 갑오.

56) 『正祖實錄』 권34, 16년 4월 17일 을유.

57) 『樊巖集』 권5, 「詩」, 史閣曝曬.

도록 하면 속이고 덮음이 또한 술법이 많다. 나뉜다는 것은 본래부터 더할 수 없는 근심이지만 더할 수 없는 어려움도 또 나뉘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⁶²⁾

그에게 나뉘, 곧 갈등과 분열은 정치의 가장 큰 근심거리이며, 그것은 이익과 부귀 때문에 발생한다. 붕당의 발생도 이 때문에 생겨난 정치적 파행 현상이다. 삼대의 태평시대에는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皇極(임금)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⁶³⁾ 후대에는 분열이 심해지고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쇠락해서 조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상을 극복하고, 이익을 조정하며 ‘均’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을 국왕으로 상정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균형을 달성하는 역할을 국왕에게 기대하고, 여기서 절대왕정의 정당성을 용인하고 있었다. 그가 절대왕정을 희구한 사실은 그의 天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정조와의 대담에서

人君도 또한 하나의 천으로서 上天이 만물을 化育한다면, 下天인 군주는 만물을 陶鎔한다.⁶⁴⁾

라고 말한다. 이는 비상한 발언이다. 앞서 「食性說」을 통하여 체제공의 천관이 주자학의 理法天과는 달리 主宰天·人格天으로 변모했음을 살펴보았다.⁶⁵⁾ 여기서는 그 주재적 천을 직접 국왕에 직접 비정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주희는 종교적인 주재천 곧 인격적인 상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만물의 주재자는 곧 理였고, 帝는 이 理의 주재적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주자학에서는 天과 太極, 理는 같은 개념이며, 그것은 毫釐의 作爲도 없다. 인간이 천으로부터 덕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천리인 선천적 이성을 의미했고, 인간은 누구나 덕을 가질 수 있지만 인욕을 극복할 때만 天이 理로서 온전하게 작용한다고

62) 『樊巖集』 권34, 「分湖亭記」.

63) 이를 『書經』 「洪範」에서는 「歸極」이라 표현했다. 인용문에서 「極에 歸一했다」는 것이 곧 歸極이다. 이때의 極은 皇極 곧 임금이 세우는 법도이다.

64) 朴光用, 앞의 논문, 360쪽 재인용.

65) 「東將臺中秋玩月」이란 시에서도 “天公이 달을 내보내곤 자량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한가닥 가느다란 연기도 감히 가리지 못하네” 라고 읊고 있다(『樊巖集』 권1, 「廢和錄」). 여기서 天公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理法的 존재가 아니라 ‘달을 내보내고 자량’ 하는 上帝·天帝와 같은 인격천이다.

보았다. 주자학이 제시하는 윤리적 가치는 이러한 천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인간이 인욕을 극복하고 천과 혼연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품수된 기질이 청명 순수하여 리를 온전히 갖추어 수련을 쌓지 않아도 천과 합일하는 성인을 모범으로 부단한 수양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자학의 천 개념은 현실적으로 성인의 교화를 필수적으로 요청했고, 현실의 주재자인 국왕은 성군이 되기 위해서 신하의 보도를 기꺼이 수용해야 했다. 요컨대 주자학의 범신론적 理法天 개념은 君臣共治의 정치이론을 뒷받침했다.

조선후기에 주자학적 天理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사회적 문제가 등장했고, 군신공치의 이념은 사회경제적 발달로 인해 신료층의 정치적 공조기반이 무너지면서 점차 민과 괴리된 채 일부 권력층의 권력 독점을 보장하는 이론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왕을 실질적인 권력의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구조가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 군신공치의 이념을 재조정하는 속에서 이법천의 도그마를 수정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인격천 개념이 부활했다.

체제공은 이기론을 정치적 사유에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국왕을 태극이 아닌 천에 직접 비정했다. 그에게 있어 국왕은 ‘땅에 있는 하늘’(下天)이며, ‘만물을 陶鎔’하는 존재이다. 이는 오광운이 임금을 理, 신하를 氣에 비정하면서 氣가 판치는 부조리한 시대에 理勝한 탕평을 의도했던 것이나,⁶⁶⁾ 정조가 군주를 태극에 비유하고 국왕이 다양한 臣民의 이익과 능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理一分殊’라는 성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비해⁶⁷⁾ 사유의 형식상 성리학적 군주관에서의 이탈이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체제공이 서학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그 교리 중 ‘상제가 굽어 살피어 사람들의 좌우에 오르내린다는 설’(上帝監臨陟降左右之說)은 좋다고 평가한 것도⁶⁸⁾ 성리학의 천 개념에서 매몰되어 버렸던 인격천(상제)을 재발굴하여 그 정치적 위상을 국왕과 직결시키고자 했던 자신의 의도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정약용에 이르면 국왕은 생사여탈권·경제권·사역권·교육권·상벌권을 한 손

66) 金成潤, 「탕평의 원리와 탕평론」, 『부대사학』 15·16합집, 1992, 448쪽.

67) 李泰鎭, 「정조-유학적 계몽절대군주」 『韓國史市民講座』 13, 1992; 金成潤, 『朝鮮後期 蕩平政治研究』, 지식산업사, 1997, 116~120쪽 참조.

68) 『正祖實錄』 권26, 12년 8월 3일 임진.

에 장악한 상제에 가까운 절대권한의 소유자로 묘사되고,⁶⁹⁾ 왕권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이기·성정과 같은 성리학적 이론틀을 배제하고 육경을 직접 원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제공의 下天君主論은 성리학적 이론체계나 이법천 개념을 활용하여 국왕권 강화를 이론화하던 단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오광운이나 정조의 군주론보다 전진된 것이었고, 상제천 개념을 채택하여 군주를 직접 상제에 직접 비정하는 다산의 군주론에 접근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맺음말 – 채제공 정치사상의 역사적 위치

조선후기는 중세사회 해체기라 불릴 정도로 중세 특유의 사회적 특성들이 본격적으로 변화한 시기이다.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의한 민의 성장으로 인해 농촌사회에서 사족에 대한 농민의 예속도가 낮아졌고, 상업과 도시의 발달은 상인·역관·중인·서얼세력 등의 성장을 가져와 정치사회적 판도에서 토지귀족이 갖던 비중을 점차 약화시켜나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상응하여 조선후기엔 정치와 사상의 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각 붕당이 지주귀족으로서 정치사회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던 붕당정치체제가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균열을 보이는 시기에 명칭교체로 인해 명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정치이념의 붕괴가 덧붙여졌다. 이에 주자학의 중세적 보편주의·세계주의에 기반하고 있던 중화질서라는 명분론적 정치이념의 고수와 변용을 두고 조선 정치세력들 간에 격렬한 대립이 일어났다. 병자호란은 조선의 지식층이 사상적 변용을 모색케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정치사상의 양분화를 촉발시켰고, 이후 진행된 북벌과 예송을 둘러싼 논쟁은 이러한 정치노선의 분기를 표현했다.

병자호란 이후 북벌과 예송을 거치면서 사상계의 한 흐름으로 모습을 드러낸 탈중세적 정치사상은 도덕주의에 반하는 현실주의·공리주의의 색채를 띠었는데, 맹자의 재발견을 통해 그 이론적 근거를 확보했고, 이후 『주례』의 재발견을 거치면서

君臣共治의 이념을 부정하고 통일권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성격의 정치사상으로 발전해갔다.⁷⁰⁾

영조와 정조는 붕당간의 정쟁을 종식하고 정치적 안정과 국가체제의 재정립을 위해 탕평을 표방했지만, 사상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정치사상의 흐름을 대폭 수용하면서 이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君民一體를 내세우면서 사족중심의 국가체제가 아닌 성장하는 민을 아우르는 통일권력을 지향했다.

樊巖 蔡濟恭은 영·정조를 도와 탕평군주의 정치적 지향을 구체화시킨 인물이다. 그가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왕의 신임을 받고 그들의 의중을 구현했던 사실은 채제공과 영조·정조의 정치사상적 지향의 합치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¹⁾

채제공은 理나 性으로 표상되는 주자학적 도그마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을 기의 요구에 따라 욕구를 향유할 있는 주체로 보았다. 그는 거의 唯氣論에 가까운 주기론의 입장에서 인성에서 기와 별도로 理의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 다산의 性嗜好說에 근접해 있었다. 마찬가지로 天의 개념에서도 理法性을 인정하지 않아 그의 天觀은 주자학의 理法天과는 달리 主宰天·人格天의 양상을 띠었다. 인간과 천을 윤리나 도덕으로부터 분리한 그의 사고는 기호남인 계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던 氣數論的 인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기수론은 역사를 도덕과 분리하고 사실을 가치와 구분함으로써 역사와 세계를 보는 관점을 보다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옮겨갔다. 그는 인간을 통해 천을 알 수 있다고 믿어 ‘知天’의 개념에서도 주자학과 달리 경험적·귀납적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채제공은 기호남인 계열의 현실주의적 사고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고, 이 사상은 차후 다산에 이르러 그 정화를 발했다.

그의 실천지향적 윤리관도 현실주의의 색채가 강했다. 노론계의 의리지상주의에 반발하여 충·효를 거의 유일한 윤리적 근거로 삼았고, 知行의 문제에서도 행(실천)에 훨씬 큰 가치를 두었다. 성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인정했던 그는 신분적 차별

70) 이상 조선후기의 정치사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金成潤, 「영·정조시대(18세기)는 한국사의 르네상스였는가: 특집-한국사의 15개 대쟁점」 『韓國史市民講座』 40, 2007 참조

71) 정조가 채제공의 卒記에서 ‘불세출의 인물’로 높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실로 남은 알 수 없고 혼자만이 아는 깊은 계합이 있었다’고 술회하고 있는 것도 그가 얼마나 정조와 정치적 지향 면에서 합일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正祖實錄』 권51, 23년 정월 18일 정축).

69) 金成潤, 「茶山 丁若鏞의 洪範說 研究」, 『歷史學報』 170, 2001, 41쪽.

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했는데, 이는 賤民·歌客·奴婢·妓女 등 다양한 신분의 인물들을 入傳시킨 그의 「傳」 문학 작품에 잘 드러난다. 三代之治의 회복을 열망하면서 “성인의 시대에 사대부도 하나의 백성이었다”고 본 그의 생각은 신분적·세습적 四民觀을 부정하고, 이를 성취형·분업형 사민관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실학자와 닮아 있다.

명분과 가치로부터 현실세계로 눈을 돌려 모든 백성의 복리의 증진을 바랬던 그는 당시 학문의 폐쇄성과 관념성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학문에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다. 승려들의 수행이 당시 유자들보다 낫다고 평하기도 하고, 심지어 유교와 불교의 교리를 융회적 차원에서 이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王陽明·老子·西學·민간신앙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개방적 학문관은 본질주의적 가치보다는 효용성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수신과 교화에 도움이 되면 어떤 것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에서 나왔다.

정조 2년 사신으로 연경에 다녀온 이후 그는 전통적인 화이관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습忍錄」에 수록된 그의 燕行詩는 조선 지식인의 문화적 自尊意識을 표출하고는 있지만, 아울러 청의 문물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하였고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다. 그가 연경에서 만나 교유를 맺었던 潘庭筠·李鼎元은 그의 대청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에는 실학자를 중심으로 정치의 목적을 교화나 도덕성의 제고보다는 민의 복리 증진에 두는 공리적 정치사상이 대두하면서 德治나 修身君主論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속에서 王霸竝用論이 제기되었다. 체제공도 교화와 형법의 조화를 지향하는 教法相輔를 주장하고, 엄격한 통제로 관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기강확립을 매우 강조했다. 또한 문치의 한계를 의식하면서 文武竝進을 주장하고 이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이해했다. 그가 관료의 실무능력을 강조한 것과, 당시 일반적이었던 사마광 군자론과 왕안석 소인론을 거부한 것 또한 효율성의 정치를 지향하는 그의 공리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실학사상의 흐름 속에 있었던 체제공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均分論(혹은 均平論)이다. 그는 성호 이익의 경세론을 위를 털어서 아래를 보탠다는 ‘損上益下’로 정리하고, 富益을 바라는 것은 만인의 본성이므로 국왕이 나서

서 均分을 실현하기를 기원했다. 이를 위해 일원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계의 확립과 국왕의 권력독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국가체제의 典範으로 宋이 아닌 前漢을 상정한 것도 집권적 통일권력의 출현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봉당을 사익 추구로 생겨난 정치적 파행현상으로 보고, 봉당간 소통의 부족이 폐쇄적인 선입관을 강화하여 통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봉당체제가 국왕이 주체가 되어 均平을 실현하는 데에도 방해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독점의 폐해를 타파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균형을 달성하는 역할을 국왕에게 기대하고, 여기서 절대왕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구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주자학의 理法天 개념을 대신하여 主宰天·人格天 개념을 수용하여 국왕을 만물을 化育시키는 上天에 대비되는 下天에 비정하고, 그가 만물을 陶鎔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리학적 군주관에서 탈피된, 새로운 정치원리에 입각한 절대군주론이었으며, 그의 下天君主論은 절대군주론의 이론 형성 과정에서 정조의 太極君主論과 다산 정약용의 上帝的 군주론의 중간에 위치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체제공은 실학자의 정치적 사고, 이론 및 지향을 계승하고 있었고, 대체로 기호남인 계열의 경세론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刑政의 중시, 봉당타파와 부국강병의 지향, 실용적·개방적 학문관은 이전 시기 기호남인의 정치의식과 공통되는 부분이다. 특히 그의 均平論은 柳馨遠과 연결될 수 있고, 충효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윤리의식을 통한 의리지상주의로부터의 탈피는 尹鑰의 孝治論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⁷²⁾ 영남 남인인 葛庵 李玄逸의 경세론이 유형원과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던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실학적 사고와 경세론이 유독 기호남인 계열에서만 발전했던 것은 아니지만,⁷³⁾ 체제공의 경우 선대 학인들의 실학적 사고와 지향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下天君主論같이 이들의 사유로부터 한 걸음 더 진전된 측면도 있었다.

아울러 그의 정치사상은 탕평군주वाद 매우 흡사했다. 그가 영조와 정조의 지극한 지우를 입었던 데에는 정치사상적 합일, 다시 말하여 시대인식과 현실진단, 정

72) 기호남인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정호훈, 『朝鮮後期 政治思想 研究 -17세기 북인계 남인을 중심으로-』, 혜안, 2004 참조.

73) 李玄逸의 경세론에 대해서는 金成淵, 「《홍범연의》의 정치론과 군제개혁론 -葛庵 李玄逸을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영남남인의 실학적 경세론-」 『大丘史學』 83, 2006; 金成淵, 「《홍범연의》의 토지개혁론과 상업론 -갈암 이현일의 경제사상과 그 성격-」 『退溪學報』 119, 2006 참조.

치적 지향, 대책의 방향에서 의식을 공유했던 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실학 혹은 탕평정치의 지향을 현실정치에 적용하여 구현한 실학(혹은 탕평)의 입안자라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사회경제정책이 현실적이고, 제도의 급격한 개혁보다는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한 점이 많은 점 때문에 그를 개량주의자로만 단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는 정책의 입안자이자 국정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비관료층 실학자들과 같이 사고실험이 허용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의 사회경제적 대책들이 궁극적으로는 민리의 보장과 증진을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량과 개혁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그 궁극적 목표상의 차이에 있으므로 당대 현실에 조응했던 정책만으로 그의 정치사회적 지향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파봉당 정책과 전랑통청권 혁파를 비롯한 그의 관료제 개혁은 정치의 효율성 제고와 국왕의 권력집중, 특정귀족집단의 권력완화를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었다. 신해통공발매책이나 銀店개발 등 그가 추진한 경제정책도 실학자들이 강조해 온 ‘貨權在上’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정부(호조)의 관할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상의 왕권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나아가 정조가 노비제를 폐지하는 개혁을 추진할 핵심인물로 그를 지목하고 있었다던가, 정조 말년 그의 지휘 하에 있던 인물들이 토지개혁을 주장하면서 노론계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던 점은⁷⁴⁾ 그를 온건개량의 정책지향자로 평가하는 것이 표면적 관찰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가 실학자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삼대지치의 복구를 지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의 정치사상이 당대 지배구조의 개수·보전에 만족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4) 金成潤, 앞의 책, 220~224, 240쪽 참조.

Abstract

Beonam Chaejegong's Post-Neo-Confucian Views of Humans and Politics

Kim Seong-Yun (Kyungbuk Univ. research professor)

Chaejegong is a politician who left the largest footmarks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He made considerable contribu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artiality policy.

He viewed man as a being who enjoys desires, and this suggests that he broke away from the dogma of neo-Confucianism. He separated humans and the heaven from ethics or morality. He was influenced by the Gisu theory(a theory that the direction of human life and history is determined by the fate of Gi), which was observed characteristically among scholars in the Giho-Namin group.

His ethical view bore a practice-oriented tendency. This is also an expression of realism prevalent in his philosophy. Furthermore, he assumed an open attitude toward class-based discrimination. He was very critical against the being closed and ideological of science in those days. Accordingly, he took an open attitude toward science as well. Such an open view of science originated from his emphasis more on usefulness than on fundamental values.

What is most remarkable in Chaejegong's ideas is his equal distribution theory(a stand advocating the equal distribution of wealth among people). He understood that all human beings desire profits, and wished that the king would take the initiative in realizing equal distribution. His political view as such led him to crave for the appearance of a centralized and unified power. He asserted that the king is the heaven.

In conclusion, Chaejegong's political idea inherited realism, and was similar to that of an impartial monarch. It is a superficial observation to view that his policies remained in moderate improvement. He tried to restore the political society of ancient China in Chosun. In this sense, his political idea went far beyond the ruling system in those days.

Keywords: Chaejegong, realism, taste theory, Gisu theory, absolute monarchism, equal distribution theory, agreement between education and law(a philosophy maintaining the harmony between education and rule by law)

조심태(趙心泰)의 생애와 사상

강 신 엮 (육군박물관 학예실장)

머리말

1. 가계와 생애
2. 신도시의 발전
3. 화성의 축조

4. 군제의 정비

5. 사상의 역사적 위치
맺음말
-

머 리 말

정조는 선고(先考)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신원(伸冤)하고 그 권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수원 화성(華城)을 경영하였다. 정조는 선고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화성을 축조하였고, 이 화성을 통해 자신의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장용외영의 설치에 왕권 강화라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정조는 지리적 요충지인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여 서울의 남쪽 지역을 방어하는 중심지로 삼고자 하였다. 이때 화성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하여 부상(富商)을 화성으로 이주시켜 다양한 혜택을 주기도 했으며, 둔전을 설치하여 농업 발전을 꾀함으로써 화성을 경제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 정조대의 이러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발전상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연구 실적이 축적되어 있다.¹⁾ 이것을 정리해보면 <부록 1>과 같다.

이러한 정조의 정책 시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조심태(趙心

泰)였다. 그는 당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를 주제로 하는 논문은 발표되지 않은 듯하다. 물론 정조의 여러 정책 중에서 그의 활동상을 크게 작든 서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역사적 위치라든가 사상의 특징 등에 대해 전적으로 다루지는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생애와 업적을 검토해보고, 그의 사상이 조선후기에 갖는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의 이러한 노력이 조선후기의 역사상을 정립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 가계와 생애

조심태(趙心泰)는 1740년(영조 16)부터 1799년(정조 23)까지 활동한 조선 후기의 무신이다. 그의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집중(執仲), 시호는 무의(武毅)이다. 그는 유장(儒將)이라 할 만큼 문무겸전하였다. 특히 대자(大字)에 능해서 왕명에 의거하여 편액의 글자를 많이 썼다고 전한다.

그의 고조 조정익(趙廷翼)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하여 좌승지에 추증되고 충숙(忠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의 증조 조유(趙猷)는 1644년(인조 22)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으로 근무할 적에 왕명을 잘 봉행하였다고 해서²⁾ 6품의 실직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그는 경기 수사·전남우수사·경기 수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조부는 조세발(趙世發)이다. 그의 부친 조경(趙敬)은 전라병사·곡산부사·금군

1) 수원 화성 관련 연구 실적은 실로 다양해서 머리말에 게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하여 논문 말미의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2) 『인조실록』 권49, 26년 10월 무신.

선전관 趙猷에게 6품의 실직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수찬 沈之漢이 저물녘에 췌문에 이르렀는데, 췌문이 이미 닫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마침 金虎門이 열렸고 式年 講經試의 시관들이 나왔다. 이때 선전관 조유가 표신(標信)을 받들고 문에 서 있었다. 심지한이 그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려 하자, 조유가 “지금 留門한 것은 오로지 시관들을 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옥당의 관원을 들어오게 하라는 명이 없었으니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서 정원에 가서 고하니, 정원이 조유에게 들여보내게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조유가 끝까지 안 된다고 고집하자 정원이 이에 계품하여 들여 보냈다. 인조는 조유가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한 것을 가상하게 여겨 해조로 하여금 6품의 실직을 제수하여 포상하게 한 것이다.

효종 때 명신 宋時烈도 그의 이러한 근무태도를 높이 평가한 바 있었다.(효종 9년 12월 경진)

별장·통제사·평안도병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사후에는 청백리에 천거되기도 하였다.³⁾

조심태는 영조 16년(1740) 정월 25일에 태어났다. 그는 4세 때 부친상을, 22세 때 모친상을 당했다. 그는 8척 장신인데다가 멋진 수염을 가졌던 미남형이었다. 그는 매우 총명해서 한 번 본 것은 바로 기억하였으며 활쏘기에도 매우 능하였다. 그는 성격이 장중하고 과묵해서 말을 빨리하거나 어지간해서 감정표현을 하지 않았다. 손님을 대할 때에는 공손히 예절을 지켰으며 교만한 기색이 없었다.

그의 부인은 죽산 안씨로서 병사(兵使) 안윤복(安允福)의 딸이었다. 안씨는 그가 병이 위중해서 생사를 기약할 수 없을 때 곡기를 끊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안씨 사후 10일만에 별세하여 수원의 어탄리(魚灘里)에 합장되었다.

그는 2남 3녀를 두었으나 2남 1녀를 잃은 까닭에 족형(族兄) 성태(性泰)의 아들 기(岐)를 아들로 삼았다. 사위로는 선전관을 역임한 유엄(柳嚴)과 사인(士人) 이이(李伊)를 두었다. 그의 양자 조기(趙岐)는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순조 9년), 황해도 병마절도사(순조 13년), 함경북도 절도사(순조 16년), 우포도대장·호군(순조 23년)을 역임하였으며, 서얼 소통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가계는 <부록 2>에서 도표화 하고자 한다.⁴⁾

28세(영조 43, 1767) 때 음보로 선전관이 되었고, 29세 때 무과 을과에 합격해서 정식으로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29세(영조 44년, 1768)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무관직을 두루 거친 다음, 45세(정조 8년, 1784)에 홍충도 수군절도사, 46세(정조 9년, 1785)에 홍충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총용사·수원부사·훈련대장·포도대장·금위대장·어영대장·수원부 유수·한성부 판윤 등을 거쳐 형조 판서에까지 올랐다. 그의 관직 생활을 정리해보면 <부록 3>과 같다.⁵⁾

그도 역시 여타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환로(宦路)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무사 선발과 훈련에 책임 때문에 구속되기도 하였다.⁶⁾ 그는 훈련도감 군사

3) 『정조실록』 권44, 정조 20년 4월 계사.

4) 부록 2.과 관련해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다.

『平壤趙氏』, 『만성대동보』 하, 명문당, 167~174쪽, 1983.

『贈承政院左承旨趙公墓碣銘(并序)』, 『陶谷集』 권15(한국문집총간 181, 민족문화추진회).

『水原府留守贈左贊成趙公諡狀』, 『耳溪集』 권37(한국문집총간 242, 민족문화추진회).

5) 부록 3.은 『水原府留守贈左贊成趙公諡狀』(『耳溪集』 권37 -한국문집총간 242-, 민족문화추진회)와 『정조실록』을 기준으로 도표화하였다.

런 상황이 안일하다고 해서 추고 되기도 했다.⁷⁾ 야간 통행 금지가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그는 성문 밖으로 쫓겨났다가 얼마 후 죽산부(竹山府)로 귀양가기도 하였다.⁸⁾ 그는 정조에게 곧은 말을 하다가⁹⁾ 곤장을 맞기도 하였다.¹⁰⁾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관직을 잘 수행하였다. 특히 수원과 관련된 업적은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는 정조의 지원 하에 수원부의 발전과 인구 증가에 힘썼으며¹¹⁾ 그 결과 수원부의 고을에 민가가 즐비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정조의 신임을 한층 두텁게 받았다.¹²⁾ 그는 2만 관의 예산을 들여 화성(華城)의 둔전(屯田)을 완성하였다.¹³⁾ 그는 화성(華城) 축조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헌 대부(正憲大夫)에 가자되었다.¹⁴⁾ 그는 화성에 봉대(烽臺)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화성 해변의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을 30리로 한정하여 의송산(宜松山)으로 정하는 데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¹⁵⁾

조심태는 정조가 행행할 때나 군사 훈련, 또는 군사 관련 의논이 진행될 때 그 중심부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조가 육상궁(毓祥宮), 연우궁(延祐宮), 선희궁(宣禧宮)에 전할 때, 그는 아들 조기(趙岐)를 거느리고 앞에서 인도하였다.¹⁶⁾ 영숙문(永肅門)에 부근에서 초계 문신의 시사(試射)와 선전관의 강사(講射)를 거행할 때 그는 정조의 명을 받들어 방포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으며,¹⁷⁾ 조정에서 인재 발탁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지손·적손을 논하지 말고 오직 사람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주장하였다.¹⁸⁾

그는 상변군의 질병 치료에 관심을 가졌으며,¹⁹⁾ 철릭 대신 군복 착용이 적절함을

6) 『정조실록』 권32, 15년 4월 을축.
 7) 『정조실록』 권33, 15년 8월 신미.
 8) 『정조실록』 권34, 16년 3월 신묘.
 9) 『정조실록』 권36, 16년 11월 갑진.
 10) 『정조실록』 권36, 16년 11월 병오.
 11) 『정조실록』 권31, 14년 12월 갑인.
 12) 『정조실록』 권32, 15년 1월 신묘.
 13) 『정조실록』 권43, 19년 11월 갑인.
 14) 『정조실록』 권45, 20년 9월 임자.
 15) 『정조실록』 권44, 20년 1월 기사.
 16) 『정조실록』 권34, 16년 3월 기축.
 17) 『정조실록』 권33, 15년 11월 을해.
 18) 『정조실록』 권35, 16년 8월 정해.
 19) 『정조실록』 권37, 17년 2월 기축.

주장하였고²⁰⁾ 표하군(標下軍)의 실태를 각 읍별로 세심하게 조사하여 정비한 후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기영(畿營)에 보내 주기도 하였으며,²¹⁾ 장진부가 삼수부(三水府)와 이웃하고 있어 절후가 일찍 추위지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좌영(左營)과 우영(右營)의 예에 의거하여 다시 봄철 훈련으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주장하였다.²²⁾

정조가 행궁에 거둥하여 양주와 포천의 유생(儒生)을 시취(試取)할 때에도 그는 감독관으로 인재를 선발하기도 했으며²³⁾ 춘당대 시사에서 네 발을 맞춰 구마(廐馬)를 하사받기도 하였다.²⁴⁾ 그리고 정조가 춘당대(春塘臺)에 거둥하여 관서(關西) 지방의 멀리 활쏘는 무사들을 시험할 때에도 그는 봉조하(奉朝賀) 홍수보(洪秀輔)와 함께 있었다.²⁵⁾ 그는 정조의 두터운 신임 하에 금군 운영 문제에 깊이 간여하였다.²⁶⁾ 고 수사 허정(許晶), 고 병사 최명주(崔命柱) 등을 청백리로 추천하였다.²⁷⁾

정조가 황단(皇壇)에 대한 망배례(望拜禮)를 춘당대(春塘臺)에서 거행할 때에도 그는 병자호란 때 순절한 조정익(趙廷翼)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선무사 구관 당상(句管堂上) 직책을 하사받기도 하였다.²⁸⁾ 그는 한성부의 5부(部)·8로(路)의 장책(帳冊)을 다 마감한 뒤에 당상(堂上)들이 함께 모여 입고(入庫)하고, 인구조사 장부를 수정할 때에는 장책입고도록(帳冊入庫都錄)도 똑같이 입계(入啓)토록 할 것을

20) 『정조실록』 권38, 17년 10월 신미.
 21) 『정조실록』 권49, 22년 7월 갑신.
 22) 『정조실록』 권50, 22년 11월 병인.
 23) 『정조실록』 권35, 16년 9월 무신.
 24) 『정조실록』 권36, 16년 10월 무인.
 25) 『정조실록』 권43, 19년 10월 경인.
 26) 『정조실록』 권43, 19년 9월 임신.

병조가 “《大典通編》의 龍虎營 續條를 삼가 상고해 보건대, 禁軍廳에 선천 취재 출신 40인과 부장 취재 출신 15인을 뽑아 소속시킨다는 글만 있을 뿐 수문장 취재 출신 15인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고 중신이 아뢰어 절목을 정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거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금군을 7番禺으로 하는 것으로 말하면 지금은 감소되어 6번으로 하고 있는데, 자리를 정해서 나누어 배정할 즈음에 매번당 선천은 몇 자리를 배정하고 부천은 몇 자리를 배정해야 하겠습니까?”라고 아뢰자, 정조는 “7번이라고 한 것은 옮겨 소속시킨 1번까지 합쳐서 계산한 것이다. 그리고 비율을 나누어 자리를 정하는 것은 有司가 할 일이니, 훈련 대장 및 水原留守와 함께 상의해서 하도록 하라. 《통편》과 靈城의 아뢴 내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자리를 정하고 나서 草記한 뒤에 거행토록 하라.”라고 하교하였다.

27) 『정조실록』 권44, 20년 4월 계사.
 28) 『정조실록』 권47, 21년 7월 무자.

주장하였다. 이것은 한성부에서 판적(版籍)을 보다 엄중하게 보관하여 후세에 자료로 삼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²⁹⁾

그가 정조 23년(1799) 9월 27일에 별세하였다. 정조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특별히 전교를 내렸으며 좌찬성에 추증할 것을 명하였다.³⁰⁾ 그는 무의(武毅)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³¹⁾

2. 신도시의 발전

정조의 수원 발전계획안은 애초에는 수원에 특별 과거를 시행하여 수원 사람들에게 관직 획득의 기회를 주며, 10년간 세금 감면 조치를 취하는 등 부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영우원(永祐園)의 천봉(遷奉) 이후 국왕 등 대규모 인원의 정례적 왕래가 예견되는 가운데, 그 제반 준비와 진행, 원소에의 제함과 행궁의 경호와 유지 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인력 동원의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인구의 집중과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³²⁾

이때 수원부사 조심태는 읍치부양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먼저 수원 거주자를 상인으로 육성한 후 시전 설치를 하고 서울 부상(富商)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부호를 모아 시전을 설립하려 하는 것은 현실성이

29) 『정조실록』 권47, 21년 9월 갑신.

30) 『홍재전서』 권36, 교7, 「前判書趙心泰隱卒教」; 『정조실록』 권52, 23년 9월 임오.

“이 將臣은 임금으로부터 인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직무를 전적으로 맡아 관서지방의 방어 사부터 시작하여 북도와 남도의 병사를 계속 역임하다가 몇 해 사이에 마침내 장수로 승진하였다. 돌이켜보면 수원성을 건설하는 공역에 처음부터 정성을 쏟아 지대한 공을 세웠고, 말을 달리며 군사를 지휘하는 수고는 역사를 놓고보더라도 그 유례를 찾기가 드물었으므로 드높은 간성처럼 크게 의지하고 믿어왔다. 三軍의 생살권을 맡고 판서의 품계에 오른 정도로는 그 노력에 보답하고 공적을 표창하기에 충분하지 못한데 큰 나무가 그리도 빨리 시들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너무도 슬픈 나머지 나도 모르게 목이 메인다. 죽은 판서 조심태의 집에 成服하는 날 제사를 지내주도록 하라.”

31) 『정조실록』 권52, 23년 11월 신미.

32) 수원 신도시 건설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고된다.

최홍규, 「18세기말 화성지방의 변영과 상업진흥책 -특히 정조의 민생대책과 관련하여-」,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박물관, 1998.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그는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생활에 여유가 있고 상재(商材)가 있는 자를 선별해서 읍내에 살게 하며 자금을 빌려주어 장사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원부에서 무변전(無邊錢)을 얻어 원하는 자에게 대여해 주자는 것이었고, 여기에 조포사(造泡寺)인 용주사(龍珠寺) 승려에게도 돈을 분배해서 종이와 신발을 만들게 하자는 수공업 진흥방안도 덧붙이고 있었다.³³⁾

이 제안에 따라 균역청 관하 진흥청의 동 6만 5천 냥을 대부분아 신도시 초기의 시전이 설립될 수 있었다. 이어서 화성 축성을 전후해서는 성내외에 남·북의 장시도 각각 개설되어 상업도시로서의 면모와 도시적 환경을 비로소 갖추 수 있었다. 그리고 정조는 수원 부사 조심태(趙心泰)에게 조경 예산 1천 냥을 지원해주면서 수원부의 발전과 인구 증가에 힘쓸 것을 지시하였다.³⁴⁾ 정조는 득중정(得中亭)에서 여러 장수들과 활을 쏘고 후에 수원부의 고을을 두루 살펴보고 민가가 즐비하고 인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는 수원부사 조심태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기도 하였다.³⁵⁾

아울러 앞으로 전개될 화성 축조와 관련해서 그 예산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의논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조는 시임·원임 대신과 각신 그리고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를 불러 접견하면서 수원성 축조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의 조달 방법을 하문하였다. 그러자 조심태는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두 군영에 속한 향군(鄉軍)을 10년 동안 1개 초(哨)를 줄이면 해마다 근 1만 냥의 돈을 얻을 수 있다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조는 향군에 있어서는 상경하는 폐단이 없어지고 본영으로서는 폐단이 될 근거가 없어지는 일이니, 우선 대강 수효를 충분히 토의할 것을 명하였다.³⁶⁾

이러한 화성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치수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마련과 생산기반시설로서의 제언과 둔전의 조성 등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이미 팔달산(八達山) 아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을 준비하면서부터 정조와 그 신료들은 이 점에 유의하고 있었다. 수원의 하천 상황에 유의하여 성곽 내

33) 『정조실록』 권30, 14년 5월 정유.

34) 『정조실록』 권31, 14년 12월 갑인. 그리고 화성의 조경과 관련해서는 최영진의 「화성성역 당시의 植樹造景에 관하여」(『기전문화연구』 3, 인천교육대학 부설, 1973) 참조.

35) 『정조실록』 권32, 15년 1월 신묘.

36) 『정조실록』 권38, 17년 11월 을사.

의 도심을 통과하는 수원천과 기타 팔달산에서 흘러나온 지천(支川)을 관리하는 여러 조치와 성밖 진목천(眞目川) 등 물줄기를 저수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등 여러 대책이 마련되고 있었다.

우선 화성성역 초부터 장마철이면 상습적으로 범람하던 광고산 대천(大川, 수원천)에 대한 대대적 준설과 제방 및 수로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계기로 외곽에 버려진 넓은 땅을 관개하기 위해서 만석거(萬石渠) 저수지가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자주 범람하던 진목천을 막아 제언을 쌓고 수문과 수갑을 설치하였으며 여기에 모인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여 대규모 농장인 대유둔(大有屯, 北屯)을 설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³⁷⁾

조심태는 이러한 만석거와 대유둔 건설의 구상과 실천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2만 관의 예산을 들여 화성(華城)의 둔전(屯田)을 완성하였다. 이 둔전은 장안문(長安門) 밖 북쪽 들만에 설치하였다. 그는 국가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매입(買入)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개간하기도 하여 두 항목의 논에 1백 석(石)을 파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도랑을 파 물을 대고 제방을 설치해 저수하기 위한 토목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는 매입하는 데 든 비용·새로 개간하는 데 따른 물력(物力), 수확한 수량, 종자와 세곡(稅穀)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양, 둔전 소속 원역(員役)에 지급한 요미(料米), 도랑을 파고 제방을 축조하는 데 지출된 비용 등을 모두 정연하게 구별한 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내영(內營)에 올려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토지분배 계획과 운용 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도 하였다.³⁸⁾

수원에서의 이러한 둔전 경영은 전국 둔전 운영의 표준일 뿐만 아니라 장용영의 운영과 결부되어서도 전국적 모범이 되었다. 정조의 장용영 운영은 둔전제의 이념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둔전의 경작에는 장용영의 군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러나 만연한 중간 수탈에 의해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장용영 둔전의 확대는 일부 지방에서 '경화사부(京華士夫)'의 저항을 받아 장애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37) 화성의 수리시설관 둔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고된다.
 염정섭, 「정조 후반 수리시설 축조와 屯田經營: 華城城役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82, 일지사, 1996.
 최홍규, 「18세기말 화성지방의 변영과 산업진흥책 -특히 정조의 민생대책과 관련하여-」, 『경기사학』 2, 경기사학회, 1998.
 38) 『정조실록』 권43, 19년 11월 갑인.

이에 정조는 수원에서 모범적인 둔전 경영 방법을 강구하면서 둔전 확대의 기반을 닦으려 하였고, 이를 통해 장용영의 강화까지도 이루어내고자 하였던 것이다.³⁹⁾

3. 화성의 축조

정조는 중엽 이후 왕권강화를 위하여 자신의 정치력을 뒷받침해줄 정치적, 군사적 거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화성축조⁴⁰⁾와 행궁의 건립,⁴¹⁾ 장용외영제의 운영 개편과 화성 주둔 등은 왕권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서 화성 관련 사업 전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성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이음을 통해 신도시 건설이 일단 성공한 정조 17년(1793) 1월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킨 전후의 일이었다.⁴²⁾

정조는 영종추부사 채제공(蔡濟恭), 비변사 당상 정민시(鄭民始)·심이지(沈履之)·윤행임(尹行愆)·조심태(趙心泰) 등과 의논해서 수원성 축조 예산과 연출 방법, 책임자, 자재 조달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논을 하였다. 수원성 축조 예산은 30

39) 유봉학, 「정조의 화성건설과 산업진흥책」, 『한국실학연구』 2, 138면, 2000.
 40) 화성 축조와 국방의 의미와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고된다.
 강문식,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한국학보』 82, 일지사, 1996.
 이제실, 「화성의 수성체제에 대하여」, 『수원문화사연구』 창간호, 수원문화사연구회, 1998.
 이달호, 「화성 축성방략과 城制 II」, 『경기사학』 7, 경기사학회, 2003.
 민덕식, 「수원 화성의 축조」, 『年報 15』,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6.
 정연식,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2001.
 정연식,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노영구, 「정조대 화성 축조와 성곽의 특징」, 『18세기 연구』 3, 한국18세기학회, 2000.
 노영구, 「조선 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41) 화성 행궁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박언근, 「수원 화성행궁의 복원을 위한 기초적 연구」, 『홍대논총』 15, 홍익대학교, 1984.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2.
 김준혁, 「수원문화의 중심 화성행궁」, 『수원문화사연구』 6, 수원문화사연구회, 2004.
 42) 『정조실록』 권37, 17년 1월 병오.
 水原府의 호칭을 華城으로 바꾸고 御筆로 현판을 써서 壯南軒에 걸었다. 府使를 留守로 승격시켜 壯勇外使와 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判官 한 사람을 두어 보좌하게 하였다. 壯勇營兵房을 고쳐 壯勇使라 하고, 都提舉를 두어 扈衛大將의 관청을 합해서 그를 소속시켰다.

만 냥에서 50만 냥을 예상하였으며, 그 예산은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에 속한 정번군(停番軍)이 납부하는 돈을 전용하기로 하였다. 책임자로서는 고을을 옮길 때부터 바친 공로가 이미 많았고 또 감독하는 일에도 익숙한 조심태를 수원성 축성의 감동당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수원성 축조에 소용되는 자재는 팔달산(八達山) 건너편의 지역으로 하였는데, 읍과의 거리가 3리에 지나지 않고 석재(石材)가 풍부하면서도 그 품질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다.⁴³⁾

이에 조심태는 수원 축성과 관련해서 먼저 강론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토의 주제는 남벽과 북벽의 석성(石城) 축조여부, 동벽과 서벽의 토성(土城) 축조 여부, 성가퀴와 문루(門樓)와 현안(懸眼)의 적절한 설치, 현안의 설치 등이었다.⁴⁴⁾ 이것은 성을 축조하는 데 필요한 자재량과 예산을 판단하고 축성 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었다. 화성과 같이 산세가 험준하지 않고 들이 평평한 곳에 축조한 성의 경우에는 곡성(曲城)과 문루의 설치 여부가 유사시 외적 방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웅성이 없는 문루와 치(곡성)가 없는 성벽은 그 활용도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루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화려하게 장식할 필요도 있었다.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미고 견고하게 쌓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아도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지만, 겉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적을 방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성루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외인의 보는 사람의 기선을 제압하여 성을 지키는 데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조는 수원 축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조심태에게 명하여 수원에 가서 지형을 살펴보고 그 성터를 정하게 하였다.⁴⁵⁾ 수원성터는 본래 인가가 겨우 5, 6호 밖에 없었던 허허벌판이었으나 정조의 도시계획과 조심태의 노력으로 1천여 호의 민가가 자리잡게 되었다.⁴⁶⁾ 정조는 유형원(柳馨遠)의 성제를 높이 평가하면서 『반계수록보유(磻溪隨錄補遺)』에 게재되어 있는 성제(城制)를 참고하기로 하였다.⁴⁷⁾ 수원성을 축조하는 기간에 가뭄이 들자 그가 기우제를 지내자고 아뢰었으나, 정조는 오히려 민폐를 끼치지 말고 공사의 완급을 조절해서 백성의 원망이 없도록 하였

43) 『정조실록』 권38, 17년 12월 을축.
 44) 『정조실록』 권38, 17년 12월 을축.
 45) 『정조실록』 권38, 17년 12월 을축.
 46) 『정조실록』 권39, 18년 1월 계묘.
 47) 『정조실록』 권38, 17년 12월 정묘.

다.⁴⁸⁾

그리고 정조는 동장대(東將臺)에 나아가 무예를 시험하고 군사를 사열하고 매화포(埋火砲)를 구경한 후에 군기가 확실하고 훈련이 잘된 군사들에게 만족해서 유수 조심태에게 구마(廐馬)를 하사하였다.⁴⁹⁾ 또한 조심태는 정조에게 건의해서 화성에 봉대(烽臺)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화성 해변의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을 30리로 한정하여 의송산(宜松山)으로 정해서 표지를 세우고 금하여 기를 것을 주청해서 자신의 의도를 실현시켰다.⁵⁰⁾

비변사가 수원 유수 조심태의 장계에 의거해서 아뢰자 정조는 화성(華城) 성조(城操)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대조(大操)와 윤조(輪操)를 대략 남한산성의 규례에 따라 하도록 명하였다.⁵¹⁾

화성(華城) 축조가 완료되자 총리 대신인 우의정 채제공에게 대호피(大虎皮) 한 벌을 내리고, 수원 유수 조심태에게 정헌 대부(正憲大夫)를 가자하였으며,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에게 갑옷 한 벌을 하사하였고, 기타 축성 유공자 모두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⁵²⁾

그리고 화성 축조 결과 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가 완성되었다.⁵³⁾ 정조는 화성 유수 조심태에게 화성 축조가 계획의 3배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정성을 들일 가치가 있었고, 이 공사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고자 이 책을 간행하였음을 피력하였다.⁵⁴⁾

그리고 정조는 공심돈이 우리 나라의 성제(城制)에서는 처음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에서 시사한 후 수원부 유수 조심태에게 명하여 그중에 활을 잘 쏘는 자를 뽑아서 활쓰기를 시험하게 한 다음 1등을 한 1인에게 바로 전시(殿試)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하였다.⁵⁵⁾

48) 『정조실록』 권40, 18년 7월 병신.
 49) 『정조실록』 권44, 20년 1월 기사.
 50) 『정조실록』 권44, 20년 1월 기사.
 51) 『정조실록』 권45, 20년 7월 계해.
 52) 『정조실록』 권45, 20년 9월 임자.
 53) 『華城城役儀軌』는 경기문화재단에서 2005년에 국역서를 편찬하였다. 이 국역서는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화성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4) 『정조실록』 권45, 20년 11월 경술.
 55) 『정조실록』 권46, 21년 1월 경오.

이렇게 해서 수원의 화성의 성역은 정조 18년(1794)년 1월의 기공식부터 정조 20년(1796) 10월 낙성연까지 34개월만에 완성되었다. 10년을 예상하고 시작했던 사업을 34개월, 중간에 성역을 중지한 기간 6개월을 빼면 28개월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공기(工期) 단축이었다. 이 기간 중에 사용한 예산은 애초에 계획되었던 예산의 3배가 되는 총 86여만 냥이고, 동원된 연인원은 70만 명이였다. 이러한 대역사는 그만큼 화성 건설을 조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자했다는 말해준다.

이 화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읍성제도를 따르면서도 공심돈·노대·오성지 등 전례에 없던 새로운 방어시설을 충실히 갖추고 있어서 읍성과 방어성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다. 둘째, 이것은 서울 도성처럼 산지대에는 산성과 같이 읍성을 쌓고 그 안에 도시가 형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이것은 석축과 전축을 적절히 조화시켜 고구려 이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성곽 건축 기술을 한층 근대적인 양식으로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넷째, 이것은 국왕 이하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계층이 참여해서 건설한 정조대의 문화적·과학적 역량을 집대성한 역사적인 건조물이다. 다섯째, 이것은 원침(園寢)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성내 중심부에 건립된 행궁을 수비한다는 목적으로 축조되었던 것이다.⁵⁶⁾

4. 군제의 정비

화성 성곽과 행궁이 선친의 권위와 국왕의 정치적 위용을 돋보이게 하는 왕권 강화의 상징물이라면, 정조의 정치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친위 군사력이 바로 장용외영이었다.⁵⁷⁾ 정조 말년의 장용외영은 화성 축조후 국왕의 호위와 화성방어를 담당한 정예의 군사력이자 정조의 전제적 왕권을 안정·지탱케 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56) 최홍규, 『정조의 화성 건설』 제3장, 일지사, 141~143면, 2002.

57) 장용외영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나영일, 『정조시대의 무예』, 서울대출판부, 2003.

배우성, 「정조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 2001.

었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1782년(정조 6) 숙종 때의 제도⁵⁸⁾를 본받아 무예 출신(武藝出身)과 무예 별감으로 장교를 지낸 사람 30명을 가려서 번을 나누어 명정전(明政殿) 남쪽 회랑에 입직하게 하였고 1785년(정조 9)에 이것을 장용위라 호칭하고 20명을 늘렸다.⁵⁹⁾ 이것이 장용외영이 설치된 시초였다. 장용외영은 한성부 도성에 내영을, 도성의 남쪽 외곽인 화성에는 외영(外營)을 두는 내영제·외영제로 일대 확대 개편되었다.⁶⁰⁾

당시 장용군으로 급제한 자는 대오 출신이라 하여 말천(末薦)이나 부천(副薦)되는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장교(將校)들의 자제가 갖가지 방법을 써서 빠질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러자 조심태는 왕궁을 호위하는 장용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의 각 군영에서 대오를 선발하여 추천하는 예와 똑같이 하여, 추천에 구애됨이 없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정조는 장용군이 한성부 군영의 대오들과 함께 추

송찬섭, 「정조대 장용외영 둔전의 설치와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논문집』, 2001.

송찬섭, 「정조대 장용외영의 설치와 운영」, 『한국문화』 24, 서울대학교, 1999.

김준혁, 「정조대 장용외영 설치의 정치적 추이」, 『사학연구』 78, 한국사학회, 2005.

김준혁, 「정조의 《무예도보통지》 편찬 의도와 장용외영 강화」, 『중앙사학』 21, 2005.

배우성, 「정조년간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서울대학교, 1991.

이태진, 「정조-유학적 계몽 절대군주-」, 『한국사 시민강좌』 13, 일조각, 1993.

최홍규, 「정조대의 화성경영과 장용외영 문제 -특히 읍민대책과 관련하여-」, 『경기사학』 창간호, 경기사학회, 1997.

58) 숙종 11년(1685)에 무예 별감 30명을 훈련 도감의 국출신(局出身)의 3개 번(番)에 번갈아 임명한 제도를 말한다.(『정조실록』 권37, 17년 1월 병오.)

59) 『정조실록』 권37, 17년 1월 병오.

60) 장용외영을 장용위라고 한 것은 오위의 한 위를 본받은 것이고, 三部를 설치하지 않고 오사(五司)를 설치하여 서울과 시골에 나누어 둔 것은 <중국> 남방의 군제를 본뜬 것이며, 장용위를 혹은 군사들 속에서 뽑고 혹은 取才하기도 하고 혹은 출신자로 하기도 한 것은 내급위의 局出身을 뽑는 데서 본뜬 것이고, 정원 밖에 무반 집안의 자제를 뽑은 것은 장수 재목을 기르기 위해서이며, 善騎隊를 혹은 말타는 재간을 가진 자를 뽑고 혹은 특별한 기예를 가진 자를 뽑은 것은 馬隊에서 본뜬 것이고, 陞戶軍을 뽑아 올리게 한 것은 훈국에서 본뜬 것이나 7도에 두루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왕도의 近畿를 중히 여겨서이며, 장수를 두고서 관직은 使로 일컫고 문서에는 대장으로 일컫게 한 것은 어영을 본뜬 것이고, 內使를 두고 또 外使를 둔 것은 龍大將과 虎大將을 본뜬 것이며, 중군을 두지 않고 별장을 두어 조련할 때의 호령을 承接한 것은 光廟 때의 左廂·右廂과 肅廟 때의 精抄廳 제도를 이어받은 것이므로 친총을 두지 않은 것은 중국 남방 군대의 옛 제도를 본뜬 것이고, 講書 시험에 『兵學通』을 사용하고 기예 시험에 『武藝譜』를 사용한 것은 英廟와 景慕宮의 유지를 천명하자는 것이며, 내사와 외사가 차는 符信과 密符는 통용하면서 兵符만은 특별히 虎符를 쓰는 것은 잔뜩 성을 내어 으르렁거리는 법에서 뜻을 취함과 동시에 國初의 일을 이어받자는 데서 온 것이다. 대장은 軍色提調를 겸해서 병사에 관한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재용에 대해서는 餉色提調가 주관하였다.

천에 구애됨이 없어야 함을 전교하였다.⁶¹⁾ 장용군을 외도감(外都監)이라 명명하고 대궐과 아주 가까운 곳에 번을 세우도록 한 것은 군사 위엄을 장중하게 하고 군정을 정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정조가 남양에 방어사 진영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조심태는 조정 대신과 함께 남양의 불리한 지정학적 특성을 지적하고 수원이 지금 장용영의 외영(外營)이 되어 있어 요새지로서의 소중함이 전에 비해 더욱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영을 남양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⁶²⁾ 이때 그의 주장은 첫째 대부(大阜)와 영흥(靈興) 두 섬은 해상 방어의 요해지이지만, 남양은 본래 육군(陸軍)의 영장(營將)을 두는 고을이므로 해상 방어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으며, 둘째 방어사의 직책은 한쪽 지방을 방어하는 것인데, 본 남양부는 이미 충용청 전영(前營)의 보병과 기병에 의지하고 있고, 또 유사시 충용사의 절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사 동원에 있어서 긴급히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수용되어 남양부에 방어영을 설치하는 일은 없던 일이 되고 수원부의 입지가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는 장별대와 관련한 군제 정비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정조는 다시 수원 군제(軍制)를 정비하되 반드시 백성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때 정조는 정예화와 숙련도가 군정(軍政)의 요체임을 지적하면서 인원수 보다는 정예한 군사 선발을 위주로 하도록 하였다.⁶³⁾ 이것은 수원부의 마병(馬兵)을 장별대(壯別隊)로 개명하고⁶⁴⁾ 이 부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질적인 변화를 꾀했던 것이다.⁶⁵⁾

그는 본성(本城) 부근의 3개 고을 수령이 동·서·남쪽 성의 협수장(協守將)으로

서⁶⁶⁾ 그 고을이 본성의 속읍(屬邑)으로 정해졌고 병부(兵符)의 우척(右隻)도 본부에 있는 이상 12월에 그들의 전최(殿戢)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정조에게 주청하였다.⁶⁷⁾ 이것은 사체(事體)를 높이면서 군율도 엄중히 하고 또 내영(內營)에서 장교(將校)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 태도를 살펴 포폄(褒貶)하는 것처럼 외영(外營)에서도 균등하게 인사 운영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과천(果川)·시흥(始興)·용인(龍仁)·안산(安山)·진위(振威)의 다섯 고을을 장용외영에 소속시키고, 이 지역의 군정(軍丁)으로서 서울의 각영(各營)이나 각사(各司)에 소속된 자 역시 외영에 소속시켜 절제(節制)할 방도를 찾고 호령도 전일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5지역 군정 가운데 가령 훈국(訓局)의 포보(砲保)나 향보(餉保)의 경우에는 외사(外使)로 하여금 훈국 및 각 해사(該司)를 왕복하면서 편한 쪽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였다.⁶⁸⁾ 이러한 그의 건의는 외영으로 승격된 화성부(華城府)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것은 수원을 둘러싸는 군현이 마치 “물고기 비늘같고 머리뿔 같이” 되어 수원 중심의 환상협수체제(環狀協守體制)를 성립시키고자 한 것이다.⁶⁹⁾

이러한 조심태의 장용외영 강화책은 정조의 왕권 강화를 위한 군제 개혁과 부국 강병책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중엽 이후부터 군제 개혁을 통해 왕권에 저해되는 요인을 제거하면서 기존 5군영에 대한 훈척들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생각과 제반 정책의 전개는 장용영 내·외영제를

61) 『정조실록』 권32, 15년 4월 병진.

62) 『정조실록』 권37, 17년 3월 을묘.

63) 『정조실록』 권38, 17년 7월 정미.

64) 『정조실록』 권38, 17년 7월 갑진.

65) 『정조실록』 권38, 17년 7월 갑진.

비변사가 아뢰었다.

“水原府를 이미 壯勇外營으로 승격시키고 나서는 군사 규정을 일반 고을의 규정을 따라 쓸 수 없기에 內營의 제도를 대략 모방하여 馬兵은 벌써 壯別隊로 편제를 변경하였으니 歩兵도 똑같이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軍制는 정예함을 위주로 하지 병력의 수가 많은 것이 위주가 아닌데, 東伍軍 26개 哨에 태반이 장정이 아닙니다. 13개 초에서 긴장한 장정을 뽑아 正軍으로 승격시켜 따로 부대를 만들고, 그 나머지 13개 초는 낮추어 資保를 만들고 番布를 거두어 正兵을 돕게 함으로써 正戶와 자보가 서로 돕는 뜻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別驍士의 경우는 이미 部와 司의 편제에 넣지 않고 무사들을 격려하고 권장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2백 명으로 정한 정원은 너무 많습니다. 이 역시 그 절반을 줄이고 別軍官이라는 칭호를 붙여 좌·우 대열로 만들어 유수에게 직속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효사를 별군관으로 만들 경우 別將도 자연 줄여야 할 것이니 장별대의 별장으로 별군관의 兵房을 겸하게 하여 관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군제를 변경하였고 보면 將官도 內營을 모방하여 千總 두 자리는 역시 줄여야 되겠습니다. 별장·把總·哨官을 차출하는 규정과, 별군관·장별대를 구별하여 가려뽑는 방법, 都試를 보이고 상을 주는 방도, 보병을 정군으로 올리거나 保人으로 내리는 규정, 방어 임무에 들어갔을 때의 공급과 구제 등의 대책에 대하여 該府로 하여금 節目을 초안하여 本司와 오가면서 수정을 거친 후 재가를 받도록 하소서.”

66) 협수군 체제란 용인·진위·안산의 수령이 화성의 동·남·서성의 협수장이 되고 협수군졸인 수어청 속오군은 용인5초, 진위 3초, 안산의 충용청 속오군 4초 등을 이전하여 소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조실록』 권42, 19년 5월 을해.)

67) 『정조실록』 권43, 19년 11월 갑자.

68) 『정조실록』 권49, 22년 9월 갑자.

69) 장필기, 『현릉원의 조성과 화성방위체계』, 『수원학연구』 장간호, 수원학연구소, 228쪽, 2005.

통해서 왕정과 부국강병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5. 사상의 역사적 위치

현릉원(顯隆園) 천봉(遷奉) 계획이 결정되면서부터 신읍치 팔달산 아래에는 읍민과 관아의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어 행궁·군수고·창사 등의 관아와 민가들이 서둘러 건축되고, 도시 기반 시설도 영건되었다. 정조는 조정의 시책에 기꺼이 호응한 이운행(李雲行)의 공을 참작하여 등용해 줄 것을 명하였고, 그의 선대 분묘 이장 때에는 경기감사에게 장례 물품을 후히 지급할 것을 배려하였다.⁷⁰⁾ 경기도 순영에서는 산주인을 불러모아 토지수용비를 후하게 지급해주었다. 이읍 전까지 63호에 불과하여 보잘 것 없던 팔달산 기슭 아래 일대는 이읍 후 719호에 이를 만큼 그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

조심태의 수원 신도시 계획안과 만석거·대유둔의 시행은 이러한 시대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선의 사회체제, 전통적인 관행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새로운 농업경영론과 농업기술이 신도시 수원에서 실천되었다. 현종 때에 주장된 서유구(徐有矩)의 둔전론은 조심태의 농업경영론과 정조의 구상을 보다 정밀화하고 협동농업론을 더욱 다듬어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¹⁾ 화성 성역과 함께 수원에서 실현된 대규모 수리시설과 최신 영농방법은 정조대의 수원 농업의 범위를 넘어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조선 후기 농업 연구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농학사상사 전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조심태가 주도한 화성 축조 역시 전통과 신기술과의 조화를 이룬 대사업이었다.

70) 『정조실록』 권28, 13년 8월 경신.

“李運行을 등용하도록 명하였다. 운행은 故 처사 李暉의 후손으로, 집이 八達山 아래에 있었는데, 이때 水原의 새 邑治를 팔달산에다 정하였다. 그리하여 향교를 운행의 선영 곁에 세우게 되었는데, 상이 그 소식을 듣고 그의 三世 다섯 분묘가 한꺼번에 모두 옮겨지게 된 점을 가엾게 여기어, 경기감사에게 명하여 장례 물품을 넉넉하게 지급토록 하고, 인하여 운행을 등용하라고 명한 것이다.”

71) 유봉학, 「정조대 정국 동향과 화성 城役의 추이」, 『규장각』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117~118쪽, 1996.

수원의 평지에 읍성을 축조할 것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17세기 중반의 유형원이었다. 그는 수원도호부의 중심지를 평야로 옮기면, 내를 끼고 읍성을 쌓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⁷²⁾ 그리고 성의 축조 방식과 중요성, 활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조때 유성룡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었다.⁷³⁾ 정조가 정약용에게 새로운 성곽 제도를 연구하게 한 것도 화성을 축조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다.⁷⁴⁾ 그리고 정조는 화성이 삼남대로의 요충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축성의 완성시에는 국가에서 제일가는 금성탕지가 될 것임을 확신하였다.⁷⁵⁾

조심태는 화성 축조를 위한 감동당상(監董堂上)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다. 정조는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를 강조하면서 조심태를 화성 축조를 맡긴 것을 매우 만족해 하였다.⁷⁶⁾

화성은 변화해가고 있는 전쟁 양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곽 제도를 완성하려는 정조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화성은 『무비지(武備志)』⁷⁷⁾의 영향을 크게 참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 말기의 요동진(遼東鎭)과 계진장성(薊鎭長城)의 축소판을 재현한 것이었다.⁷⁸⁾ 산성에서 주로 사용하던 내탁(內托) 방식을 화성에 적용하고⁷⁹⁾ 성의 높이를 기준보다 낮추어 적군의 화포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였으며,⁸⁰⁾ 본성의 성벽 위에 공심돈을 축조해서 적의 공격에도 각개 격파되지 아니하

72) 유형원, 『반계수록보유』 군현제, 수원도호부.

“상고하건대 지금의 邑居는 또한 좋다고는 하나 北坪에 비하면 매우 차이가 난다. 북평은 산이 크게 둘러져있고 땅이 크게 평탄해서 판국의 맺힘이 깊고 넓으며 규모가 크고 머니 治所를 설치하고 성을 세우면 이것은 참으로 큰 藩鎭의 기상이고 땅의 안팎으로는 萬戶를 넣을 만하다.”

73) 유성룡, 『서애집』 권14, 「戰守機宜十條」 - 守城.

74)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권10, 시문집, 說, 城說~起重圖說.

이 내용은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 권63, 잡저 10, 『城華籌略』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75) 『홍재전서』 권 168, 일득록 8.

76) 『홍재전서』 권 168, 일득록 8.

“천하의 일은 적임자를 얻어 맡기면 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인재는 다른 시대에서 빌려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어서 화성의 축성을 이미 조심태에게 맡겼으니 내가 어찌 친히 방략(方略)을 일러줄 필요가 있겠는가?”

77) 『무비지』는 명나라 때 모원의(茅元儀)가 17세기 초까지의 중국 역대 병서 2천여 종을 망라하여 집대성한 병서로서 조선이 보유하고 있었던 최고의 병서였다.

78) 정연식,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33쪽, 2001.

79) 내탁이란 성벽의 외벽만 돌을 쌓고 그 내부는 자갈을 채우고 다시 흙을 두텁게 쌓는 방식으로서 포탄의 충격을 흡수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80) 성벽이 높을 경우에는 적군의 화포 공격에 성벽이 파괴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고 돈대⁸¹⁾의 척후, 사격 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⁸²⁾

화성은 이와 같이 국방의 신지식을 활용한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정조의 정치적인 의도도 다분히 담겨 있었다. 축조 기간 중에 있었던 정조의 화성행차는 명목상으로는 모친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경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하는 화성에서 각종 행사를 치름으로써 정조의 재위 20년간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⁸³⁾ 국왕이 직접 화성 건설을 챙기고, 여러 차례 행차를 통해 일반 백성과 접촉하는 등 정조에게 있어 화성 건설은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정조대 왕권 강화의 새로운 모색과 상징이기도 했다.⁸⁴⁾

화성 성곽과 행궁이 선친의 권위와 국왕의 정치적 위용을 돋보이게 하는 왕권 강화의 상징물이라면, 정조의 정치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친위 군사력이 바로 장용외영이었다. 정조 말년의 장용외영은 화성 축조후 국왕의 호위와 화성방어를 담당할 정예의 군사력이자 정조의 전제적 왕권을 안정, 지탱케 하는 실질적인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성의 장용외영은 군제 개편에 따라 전·좌·중·우·후위 등 5위 및 속오위

81) 돈대란 대체로 본성과 떨어져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척후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공격과 방어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둘레 100~300m 내외의 소규모 성곽을 말한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돈대로는 강화도의 54돈대, 남한산성의 2돈대 등이 있다. 돈대와 관련한 조사와 연구실적으로는 『강화도의 국방유적』(강화군·육군박물관, 1999)과 토지박물관의 『남한산성발굴보고서』 시리즈가 있다.

82) 노영구, 「정조대 화성 축조와 성곽의 특징」, 『18세기 연구』 3, 한국18세기학회, 177~180쪽, 2000.

83) 정조의 화성 행차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한영우,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효형출판, 2007.

한영우, 『正祖大王 華城行幸 班次圖』, 효형, 2000.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김준혁, 「수원문화의 중심 화성행궁」, 『수원문화사연구』 6, 수원문화사연구회, 2004.

장필기, 「현릉원의 조성과 화성방위체계」, 『수원학연구』 21, 수원학연구소, 2005.

서종남, 「『화성일기』를 통해 본 궁중회갑연」, 『濼知論叢』 4, 濼知學會, 1998.

한영우, 「正祖의 화성건설과 화성행차」, 『민족문화』 23, 민족문화추진회, 2000.

한영우, 「정조와 화성 -화성건설과 陵幸의 의미-」,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 박물관, 1998.

최홍규, 「정조시대 화성건설의 역사적 의의와 효사상」, 『수원문화사연구』 7, 수원문화사연구회, 2005.

84) 화성 축조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배우성, 「정조의 유수부 경영과 화성 인식」, 『한국사연구』 127, 한국사연구회, 2004.

유봉학, 「정조대 정국 동향과 화성성역의 추이」, 『규장각』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김성윤, 「조선 후기 정조대의 수원 육성과 천도 시도」, 『부대사학』 20, 부산대학교 사학회, 1996.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정병과 성정군으로 구성된 각 위는 수비하는 4대문의 경계에 따라 팔달·창룡·신평·화서·장안위 등의 별칭이 붙여졌다. 이 오위의 전체 명칭은 장락위(長樂衛)라고 하였다.

장락위의 병력 차출은 본부나 속읍, 신·구군을 막론하고 유사시 군정이 집결해야 할 장소를 기점으로 하여 인근 지역으로부터 총정하고 점차 먼 곳으로 확산해가는 진형을 갖추었다. 각 요해처나 취약 지역에도 병력 배치를 원칙으로 했는데, 화성 성곽은 별도의 해자가 없었으므로 성 주위의 북둔이 있는 만석거와 서둔이 있는 축만제를 해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활용케 하였다.

조심태가 주장하는 수원 중심의 환상협수체제(環狀協守體制)는 4유수부를 등근 고리모양으로 연결하는 거점 방어 형식의 수도 방어 체계를 확대개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조 초반의 진관체제적인 자전자수의 고립방어와 남북방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방위체제의 근본적인 개념 변화를 요하는 것이기도 하였다.⁸⁵⁾

조심태의 이러한 장용영 운영 방안은 정조의 왕권강화와 부국강병을 위한 제반 정책 시행에 기여하였다. 정조가 기존의 중앙군영을 약화시키면서까지 화성의 장용외영을 크게 강화한 것은 무엇보다 현릉원·행궁을 비롯한 유사시에 화성을 지키고, 원행 때마다 국왕을 호위하면서 자신의 왕정 개혁을 뒷받침할 친위군영으로 육성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였다. 군사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며 군제와 무예에 출중한 식견을 지녔던 정조는 훈척세력과 연결되어 군정 문란을 빚고 있는 기존의 5군영을 약화시키는 대신 화성에 장용외영이란 대군영을 주둔시켜 육성하고, 자신이 펴낸 『무예도보통지』 등에 의거하여 군사 훈련을 강화하였다.⁸⁶⁾

따라서 정조는 장용위를 화성에 설치함으로써 화성을 방어함과 동시에 왕권을 신장시키고, 화성과 속읍민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과도한 군사의 수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읍민을 위한 특별조치는 농업수리 시설의 설치, 상업번영책 등과 함께 수원 향촌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

85) 장필기, 「현릉원의 조성과 화성방위체계」, 『수원학연구』 21, 수원학연구소, 233쪽, 2005.

86) 정조의 장용영 운영과 『무예도보통지』 편찬 의도 관련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배우성, 「정조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 2001.

김준혁, 「정조의 『무예도보통지』 편찬 의도와 장용영 강화」, 『중앙사학』 21, 2005.

하였던 것이다.

맺음말

조심태는 1740년(영조 16)부터 1799년(정조 23)까지 활동한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서 정조 시대에 주로 활동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수원의 발전과 화성의 축조, 장용영의 설치와 운영 등에서 주목할만한 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는 그가 수원도호부 부사와 수원부 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읍치부양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먼저 수원읍민을 상인으로 육성한 후 시전 설치와 서울 부상의 유치를 병행한다는 제안이었다. 그는 화성 축조와 관련해서 그 예산 조달 방식 시행에도 깊이 간여하고 있었으며 치수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마련과 생산기반 시설로서의 제언과 둔전의 조성 등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

그는 화성 축조와 관련해서 먼저 강론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성곽 축조의 방식과 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성터를 정하고서 화성축조에 착수하였다. 화성의 축조 진행 도중에 있었던 정조의 군대 사열에도 참여하여 신뢰를 쌓았으며, 완공 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가자되기도 하였다.

그는 장용외영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도 기여한 바가 컸다. 화성 성곽과 행궁이 선친의 권위와 국왕의 정치적 위용을 돋보이게 하는 왕권 강화의 상징물이라면, 장용외영은 정조의 정치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친위 군사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정조의 정치적·군사적 기반을 확고히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정조가 기존의 중앙군영을 약화시키면서까지 화성의 장용외영을 크게 강화한 것은 무엇보다 현릉원, 행궁을 비롯한 유사시에 화성을 지키고, 원행 때마다 국왕을 호위하면서 자신의 왕정 개혁을 뒷받침할 친위군영으로 육성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였다. 군사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며 군제와 무예에 출중한 식견을 지녔던 정조는 훈척세력과 연결되어 군정 문란을 빚고 있는 기존의 5군영을 약화시키는 대신 화성에 장용외영이란 대군영을 주둔시켜 육성하고, 자신이 펴낸 『무예도보통지』 등에 의거하여 군사 훈련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심태는 정조대의 여러 정책, 특히 수원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화성 방어와 문화적 향상, 그리고 화성과 속읍민의 군액 축소, 만석거와 대유둔과 같은 농업 정책의 실시, 상업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의 시행 등 수원 향촌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조선의 ‘문예부흥기’라고 일컬어지는 정조 시대의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던 것이다.

〈부록 1〉 수원 화성과 장용영 관련 연구실적 목록

수원 화성 관련 저서·논문

【저 서】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1.
 최홍규, 『정조의 화성 건설』, 일지사, 2001.
 최홍규, 『정조의 화성 경영 연구』, 일지사, 2005.
 한영우,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효형출판, 2007.
 한영우, 『正祖大王 華城行幸 班次圖』, 효형, 2000.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논 문】

강문식,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한국학보』 82, 일지사, 1996.
 김동욱, 「화성축성에 사용된 자재 운반기구에 대해서」,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박물관, 1998.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김문식, 「正祖의 華城 關里祠 경영」, 『정조사상연구』 4, 정조사상연구회, 2001.
 김성윤, 「조선후기 정조대의 수원육성과 천도시도」, 『부대사학』 20, 부산대학교사학회, 1996.
 김성윤, 「정조 탕평정책의 이상과 그 추진과정 -화성육성의 정치적 배경-」, 『18세기 연구』3, 한국18세기학회, 2000.
 김정자, 「正祖代 ‘華城城役’ 연구의 동향과 과제」,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 한신대출판부, 2003.
 김준혁, 「수원문화의 중심 화성행궁」, 『수원문화사연구』 6, 수원문화사연구회, 2004.
 나상집, 「화성 축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8.
 나상집, 「화성 축성의 재료와 기구에 관한 小考」, 『문화사학』 9, 한국문화사학

회, 1998.
 노영구, 「정조대 화성 축조와 성곽의 특징」, 『18세기 연구』 3, 한국18세기학회, 2000.
 노영구, 「조선 후기 城制 변화와 華城의 城郭史的 의미」,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민덕식, 「水原 華城의 築造」, 『年報 15』,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6.
 박언근, 「水原 華城行宮의 복원을 위한 기초적 연구」, 『홍대론총』 15, 홍익대학교, 1984.
 배우성, 「正祖의 留守府 경영과 華城 인식」, 『한국사연구』 127, 한국사연구회, 2004.
 서중남, 「『화성일기』를 통해 본 궁중회갑연」, 『溫知論叢』 4, 溫知學會, 1998.
 성동환, 「顯隆園 遷園과 華城건설을 통해 본 正祖의 風水地理觀」, 『한국사상사학』 17, 한국사상사학회, 2001.
 염정섭, 「正祖 後半 水利施設 築造와 屯田經營; 華城城役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82, 일지사, 1996.
 오주석, 「정조 연간의 회화 -화성과 관련하여-」,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박물관, 1998.
 유봉학, 「‘세계문화유산’ 그 미명과 허실 -수원화성과 창덕궁-」, 『역사비평』 42, 역사비평사, 1998.
 유봉학, 「正祖代 政局 동향과 華城城役의 추이」, 『규장각』 19, 서울대학교규장각, 1996.
 유봉학, 「정조의 화성 건설과 산업진흥책」, 『한국실학연구』 2, 한국실학연구회, 2000.
 유봉학, 「화성(華城)」, 『한국사시민강좌』 23, 일조각, 1998.
 유봉학, 「화성성역과 화성의 문화유산」,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박물관, 1998.
 유봉학, 「華城城役의 역사적 의의와 화성의 문화유산」, 『향토사연구』 9,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7.
 이달호, 「華城 築城方略과 城制 II」, 『경기사학』 7, 경기사학회, 2003.
 이달호, 「화성건설의 노동력 동원과 노동조건」, 『수원학연구』 3, 수원학연구소,

2006.

이제실, 「華城의 守城體制에 대하여」 『수원문화사연구』 창간호. 수원문화사연구회, 1998.

이호락, 「척도운영체계를 통해 본 18세기 화성건축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2, 한국건축역사학회, 1997.

이흥구, 「華城 城郭築造와 御製 및 上樑文의 孝敬思想 小考」, 『畿甸文化』 1, 畿甸 郷土文化研究會, 1986.

장필기, 「현릉원의 조성과 화성방위체계」, 『수원학연구』 21, 수원학연구소, 2005.

정연식,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2001.

정연식,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조병로, 「18세기 華城城役의 物資 確保와 運送實態 -石材·木材 및 鐵物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창간호, 경기사학회, 1997.

최영진, 「華城城役 당시의 植樹造景에 관하여」, 『기전문화연구』 3, 인천교육대학 부설, 1973.

최홍규, 「18세기말 화성지방의 번영과 산업진흥책 -특히 정조의 민생대책과 관련하여-」, 『경기사학』 2, 경기사학회, 1998.

최홍규, 「18세기말 화성지방의 번영과 상업진흥책 -특히 정조의 민생대책과 관련하여-」,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 박물관, 1998.

최홍규, 「국내 세계문화유산의 현황과 복원·보존 방향 -특히 화성의 복원·보존 문제와 관련하여-」, 『수원문화사연구』 6, 수원문화사연구회, 2004.

최홍규, 「성곽연구-화성축성 200주년의 의미」, 『향토사연구』 9, 한국향토사연구 전국연합회, 1997.

최홍규, 「實學者 禹夏永의 華城論」, 『경기향토사연구』 창간호, 경기도향토사연구 협의회, 1997.

최홍규, 「禹夏永의 華城 築城方略論-『觀水漫錄』을 중심으로」, 『기전문화』 9,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92.

최홍규, 「正祖代의 華城經營과 壯勇外營 문제 -특히 邑民對策과 관련하여-」, 『경기사학』 창간호, 경기사학회, 1997.

최홍규, 「정조시대 화성건설의 역사적 의의와 효사상」, 『수원문화사연구』 7, 수원문화사연구회, 2005-12-99

최홍규, 「조선후기 화성축조와 향촌사회의 諸樣相: 正祖代의 水原地方問題와 《觀水漫錄》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0, 국사편찬위원회, 1991.

최홍규, 「醉石室 禹夏永의 향촌사회발전론 -正祖代 향촌지식인의 對華城觀-」, 『한국실학연구』 2, 한국실학연구회, 2000.

한영우, 「정조와 화성 -화성건설과 陵幸의 의미-」,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박물관, 1998.

한영우, 「正祖의 華城건설과 華城행차」, 『민족문화』 23, 민족문화추진회, 2000.

장용영 관련 논문

김준혁, 「정조대 장용영 설치의 정치적 추이」, 『사학연구』 78, 한국사학회, 2005.

김준혁, 「정조의 《무예도보통지》 편찬 의도와 장용영 강화」, 『중앙사학』 21, 2005.

나영일, 『정조시대의 무예』, 서울대출판부, 2003.

배우성, 「정조년간 무반군영대장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서울대학교, 1991.

배우성, 「정조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 2001.

배향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송찬섭, 「정조대 장용영 둔전의 설치와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논문집』, 2001.

송찬섭, 「정조대 장용영곡의 설치와 운영」, 『한국문화』 24, 서울대학교, 1999.

이태진, 「정조 -유학적 계몽 절대군주-」, 『한국사 시민강좌』 13, 일조각, 1993.

최홍규, 「정조대의 화성경영과 장용외영 문제 -특히 邑民對策과 관련하여-」, 『경기사학』 창간호, 경기사학회,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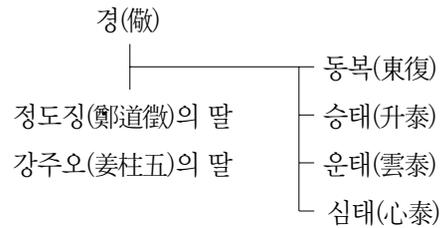
〈부록 2〉 조심태의 가계

1. 시조 : 춘(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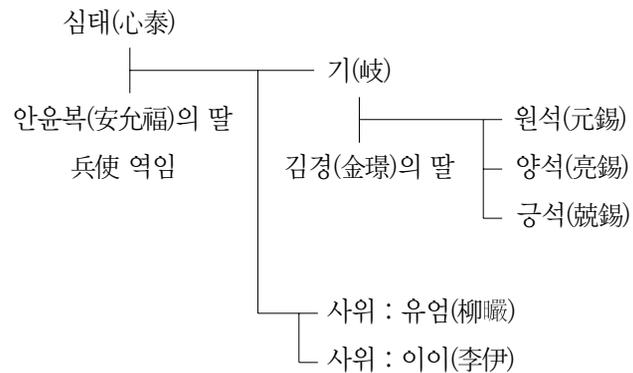
2. 고조 ~ 부친



2. 부친 ~ 본인, 형제



3. 본인 ~ 손자



〈부록 3〉 조심태의 생애와 관직생활

나이	서기	왕력	월일	주요사건/관직
1	1740	영조 16	1. 25	출생
4	1743	19		부친상
22	1761	37		모친상
28	1767	43		선전관(南行)
29	1768	44		무과 을과 합격 / 훈련주부
34	1773	49		훈련정, 전주영장
35	1774	50		내금장, 금위전총
40	1779	정조 3		오위장, 지용천부
43	1782	6		당상선전관내승검별승전
44	1783	7		창성 방어사
45	1784	8	10. 17.	홍충도 수군절도사
46	1785	9	7. 4.	홍충도 병마절도사
48	1787	11	3. 8.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4. 19.	삼도수군 통제사
50	1788	12	5. 25.	좌포도대장
			7. 20.	총융사
51	1789	13	4. 2.	좌포도대장
			7. 11.	수원부사
53	1791	15	1. 17.	훈련대장
			12. 10.	포도대장
54	1792	16	3. 20.	훈련대장
			윤 4. 4.	포도대장
			8. 3.	총융사
			8. 21.	훈련도정
			9. 4.	금위대장
			9. 12.	어영대장
			11. 9.	포도대장
			11. 11.	우포도대장
			11. 23.	동지의금
54	1793	17	2. 26.	어영대장
			6. 24.	훈련대장
			10. 11.	훈련도정
			12. 6.	비변사 당상
			12. 8.	감동 당상

55	1794	18	1. 13.	훈련대장
			2. 26.	수원부 유수
58	1797	21	7. 19.	어영대장
			9. 9.	한성부 판윤
			9. 11.	총융사
			9. 18.	한성판윤
			10. 7.	우포도대장
			11. 8.	형조판서
59	1798	22	4. 27.	행대호군
			9. 4.	장용대장
60	1799	23	9. 27.	별세
			11. 17.	좌찬성 추증
				무의(武毅) 추시

Abstract

Jo Sim-tae's Life and Ideas

Kang Shin-Yeop (Korea Army Museum)

Jo Sim-tae was a military official who worked actively from 1749(the 16th year of King Yeongjo) to 1799(the 23rd year of King Jeongjo), but his main stage was in the days of King Jeonjo. Above all, he was remarkably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Suwon,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and the foundation and administration of Jang-yong-yeong. At that time, he held office as Busa of Suwon Dohobu and of Suwon-bu.

He came up with Eup-chi-bu-yang-chaek, the contents of which suggested cultivating Suwon town people as businessmen and then driving foundation of Sijeon and attraction of Seoul's Busang at the same time. He was deeply involv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budget provision for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and was much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basic municipal facilities and the creation of Je-eon and Dun-jeon as basic facilities for production.

With respect to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he claimed that they should discuss and then decide. He assigned the meaning of the method of castle-wall construction and began to construct Hwaseong after deciding the site for the fortress. He accumulated confidence from King Jeongjo by participating in King Jeongjo's inspection of troops, which occurred in the course of the Hwaseong construction, an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fortress, the title of Jeong-heon Daebu was conferred on him with his dedication recognized.

He was also much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and administration of Jang-yong-oe-yeong. While the citadel of Hwaseong and the visiting palace were the symbols of the strengthening of the royal authority,

which made prominent the authority of the king's father and the political power of the king himself, Jang-yong-oe-yeong was the royal guard power for supporting Jeongjo's political power.

It can be said that his activities made certain contribution to the consolidation of Jeongjo's political and military bases.

The reason why Jeongjo greatly strengthened Jang-yong-oe-yeong even with the existing central military camp, first of all, was that he let it protect Hwaseong including Hyeon-ryung-won and the visiting palace in case of emergency, and cultivated it as the royal guard camp to protect him and support his reform of the kingly politics. As h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ilitary power better than anyone and had outstanding knowledge of the military system and martial arts, he made the existing 5 military camps that decayed in connection with the conservative power, but stationed and cultivated the great military camp Jang-yong-oe-yeong in Hwaseong, and enhanced military drills in terms of Mu-Ye-Do-Bo-Tong-Ji edited by him.

Thus, we can say that Jo Sim-tae played a leading role in various policies at the times of King Jeongjo, especially in policies related to Suwon. Also, it can be noticed that he played a role in the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of Suwon including the protection of Hwaseong, cultural promotion, tax reduction for people living in Hwaseong and neighboring towns, execu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like Man-seok-geo and Dae-yun-dun, and administration of various plans for business development. Such achievements by him als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each field of the society at the times of King Jeongjo, called Joseon's 'Renaissance.'

Keywords: Jo Sim-tae, King Jeongjo, construction of Suwon Castle, agricultural business, the system of ring-form collaborative protection, Hwaseong

정조시대 우하영(禹夏永)의 화성발전론(華城發展論)

최 홍 규 (전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본 연구소 운영위원장)

-
- | | |
|----------------|----------------|
| 1. 생애와 저술 | 2) 小農經營論과 精農思想 |
| 1) 우하영의 문제의식 | 3) 상업적 농업론 |
| 2) 생애와 활동 | 4. 상업진흥론 |
| 2. 華城築城論 | 1) 신도시 화성의 募民策 |
| 1) 華城內城의 축성방략 | 2) 市廛과 場市의 설치 |
| 2) 華城外城의 축성방략 | 3) 상업진흥과 場市育成論 |
| 3) 축성론의 의의 | 4) 浦口상업의 진흥책 |
| 3. 농업진흥론 | 맺음말 |
| 1) 농촌진흥과 『鄉約說』 | |
-

1. 생애와 저술

1) 우하영의 문제의식

조선후기 수원부 출신의 실학자 우하영(禹夏永, 1741~1812 : 자 大猷, 호 醉石室·醒石堂)의 저작과 사상의 개략적인 모습이 1970년대 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처음 소개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의 폭이 보다 확대되고 연구의 깊이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의 일이다.¹⁾ 물론 우하영의 저작 중 일부는 1919년 3월 일제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도서해제』를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고, 국내에는 서울대 규장각도서 <상백문고(想白文庫)> 속에 연기미상의 『천일록(千一

錄』10책²⁾과 별책의 『관수만록(觀水漫錄)』 하,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 등 3종이 유전해 왔으나 학술적인 면에서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경우 1964년 『천일록』이 민족고전의 하나로 초역본(抄譯本)이나마 국역되고, 1983년에 완간된 『조선전사』 중 세편에서는 『천일록』의 농업기술론을 비롯한 농업문제의 선진성을 높이 평가하는 등 조선후기 사회에서의 우하영의 사상과 저작의 사료적 가치에 크게 주목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초 북한사회에서 일기 시작한 농촌경제의 자력갱생 내지 노동생산력 제고를 위한 천리마(千里馬)작업반운동 등과 직·간접의 관련을 갖고 이루어진 점도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 뒤 1970년대 후반 일본의 연구자 미야지마(宮嶋博史)에 의하여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농서로서 『천일록』이 주목된 이후 1980년대 중반 김용섭(金容燮)에 의하여 이 농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남·북한과 일본학계에서는 주로 『천일록』의 농업론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농업문제 인식 또한 단편적이고 일정한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따라서 『천일록』 11권을 비롯한 별책 『관수만록』 하·『수원유생우하영경륜』 등 우하영의 전 저작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검토는 80년대 말 필자의 연구에 의하여 비로소 본격화된 바 있었다. 특히 당시까지 학계에서 우하영이라는 근기지역의 학자가 수원유생일 것으로만 막연히 알려져온 현실에서 그의 가계·향촌·묘소 등이 필자에 의하여 처음으로 밝혀짐으로써³⁾ 그 출신·당색·학맥 등을 고려한 그의 학풍·사상의 전체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하영은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수원 서쪽 남양만(南陽灣)의 주요 포구의 하나인 빈정포(濱汀浦) 부근 칠보산(七寶山) 아래에 위치한 현 화성시 매송

1) 정창렬, 「우하영의 ‘千一錄」, 『실학연구입문』, 일조각, 1973.
 宮嶋博史, 「李朝後期農書の研究」, 『인문학보』 43, 경도대 인문과학연구소, 1977.
 박화진, 「‘천일록’에 나타난 우하영의 농업기술론」, 『부대사학』 5, 1981.
 김용섭, 「‘천일록’의 농업론」, 『동방학지』 50, 1986.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2) 북한 농업출판사에서 抄譯·간행된 『천일록』 범례와 다른 참고문헌을 검토해 보면, 권 11 定都·各道總錄이 수록된 전질의 필사본과 결본이 많은 또다른 필사본 등 2종이 평양측에 소장되었음이 확인되며, 국내에 현존하는 서울대 규장각 <상백문고>본은 권 11이 유실된 채 권 1~10권만이 필사되어 있다.
 3) 최홍규, 위의 책, 42~47쪽.

면 어천리 향촌에서 가난하고 불우한 생애를 보내는 가운데 필생의 작업으로 『천일록』을 집필하는데 주력하였다. 그의 대(對)사회적 활동은 18세기 말 정조의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 축조에서 큰 자극을 받아 정조 20년(1796)의 「병진사월응지소(丙辰四月應旨疏)」와 순조 4년(1804)의 「갑자이월응지소(甲子二月應旨疏)」 등 두 차례의 국왕의 구언(求言 綸音)에 대한 응지소(應旨疏)를 통하여 그의 존재와 경륜이 처음으로 조야에 드러났다. 부국유민(富國裕民)·민생보자(民生補資)의 경륜과 이상이 담긴 그의 시무론의 편린이 정조·순조실록과 『일성록(日省錄)』·『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등 연대기 자료에 등재된 것도 이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의 학문적·사상적 본령은 농업을 비롯한 상공업·광업·어업 등 산업 문제에 있었으며, 풍속·지리·군사·교통운수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에서 향촌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대가 당면한 제문제에 대한 개혁책을 역사주의적 관점과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제안한 전작체계 『천일록』 속에 담겨져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백과전서적인 저술 속에는 16세기 이래 이이(李瑀)·조헌(趙憲)·허엽(許曄)·유성룡(柳成龍)·이수광(李睟光)·유형원(柳馨遠) 등의 시무론적 경제사상과 이익(李瀾)에서 개화(開化)된 근기 남인(近畿 南人)의 중농적 실학 학풍을 수용, 이를 실천적 측면에서 적용하려는 보다 현실주의적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⁴⁾

우하영의 저작 가운데 크게 돋보이는 부분은 첫째, 소농(小農)의 입장에서 농업정책·농업기술·농업경영 등 개혁적인 농업론을 모색하려한 점, 둘째 과거제·군제 및 군정·신분제·전제 및 전정·환정 등 정치·사회제도상의 개혁론을 개진하려고, 셋째 정조대 현안의 역사적 과제로 추진된 신도시 건설과 성곽 축조 등으로 공전(空前)의 변화에 직면했던 자신의 향촌인 화성지방의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화성을 중심으로 한 그의 향촌사회발전론은 정조 중엽에서 말엽에 걸쳐 추진된 국왕 주도하의 대(對)화성 경영 문제와 결부되어 18세기 말 화성 향촌민의 입장과 향촌사회의 변화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크게 주목되는 부분이다. 18세기 말의 신도시 화성경영은 정조가 집권 중반 이후 말엽에 이르는 11년간에 걸쳐 그의 정치적 이상이 담긴 역사적인 사업으로 주력했던 만큼, 정조의 화성정책에 대한 향촌지식인의 반응과 지방사적 측면에서

4) 최홍규, 앞의 책, 15~20쪽.

사회경제적 실효 여부를 가늠하는데도 하나의 지표를 제공해 주리라고 전망된다.

2) 생애와 활동

조선후기 수원지방이 낳은 대표적인 실학자 우하영(禹夏永)은 영조 17년(1741, 辛酉) 음 2월 1일 경기도 수원부 호매절면(好梅折面) 외촌(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의 몰락한 남인계 가문에서 가난한 선비 우정서(禹鼎瑞)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대유(大猷), 호는 취석실(醉石室)·성석당(醒石堂)이라고 하였다.⁵⁾

본관은 단양(丹陽)으로 시조는 고려 현종 때 정조호장(正朝戶長)을 지낸 우현(禹玄)이며, 고려 말 애국적인 무장으로 경상도도원수(慶尙道都元帥)와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판삼사사(判三司事)를 거쳐 조선 태종 초 검교좌정승(檢校左政丞)을 지낸 우인열(禹仁烈, 1337~1403)을 분파시조(分派始祖)로 하는 정평공파(靖平公派)의 24세손이 된다.⁶⁾ 또한 우하영은 조선중기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유성룡(柳成龍)과 동문수학(同門修學)한 성리학자이자 남인의 영수(領袖)로 활약한 우성전(禹性傳, 1542~1593, 호 秋淵)의 직계 7대손이기도 하다. 우성전은 선조 24년(1591) 북인의 책동으로 관직을 한 때 삭탈당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수원현감을 지낸 연고지인 수원지방에서 기의(起義), 의병장으로 김천일(金千鎰)과 함께 수원·강화 등지에서 전공을 세워 대사성(大司成)에 특진된 바 있다.

정평공파를 중심으로 한 단양 우씨 일족이 수원지방에 터잡게 된 것은 우성전의 증조 우수(禹樹, 14세손, 延安府使 역임)대에 이르러 세거지(世居地)인 파주군 내포(內浦) 2리에서 현 매송면 어천리로 이사해온 것이 시초이다.⁷⁾ 특히 16세기 중엽 이후 퇴계(退溪)의 문인으로 천자영매(天資英邁)하여 성리학의 일가를 이룬 우성전⁸⁾ 대부터 이 고장의 사림 명문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하영의 증조이며 우성전의 직계 4대손인 우광적(禹光績, 21세손, 1649~?)은 자가 성홍(聖洪)으로, 품계가 통덕랑(通德郎, 정3품)이었으며, 백씨 세적(世績, 자

聖洽, 1638~1716)과 중씨 홍적(弘績, 증 호조참판) 등 3형제가 있었다. 조부 우택상(禹宅相, 1665~1751: 생부는 世績, 光績에게 입양)은 자가 규경(圭卿)이며 학문이 깊고 정력이 뛰어났던 분으로 참봉을 지냈으며, 정태(鼎台, 1631~?)·정덕(鼎德)·정서(鼎瑞) 세 아들을 두었다. 우하영은 본래 우정서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나 백부 우정태에게 입양 승계자(承繼子)가 되었다.

우하영의 짙막한 자서전⁹⁾에 의하면, 6세 때 어머니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공부자(孔夫子)의 내임(來臨)을 알린 바 있어 어릴 때부터 집안의 큰 촉망을 받았으며, 7세 때 조부에게서 4서 3경 등을 배웠다. 그의 조부는 83세의 수(壽)를 누렸는데, 70세 이후 수통정첨추(壽通政僉樞)의 품계를 받았다. 손자인 우하영은 조부로부터 『사략(史略)』을 배우면서 크게 총명함을 드러냈다. 이 무렵 조부의 명으로 ‘인성수대(人聲雖大) 불여풍성원(不如風聲遠)’이라고 작시(作詩)를 하자 “이 아이의 앞날은 실로 장구하리라”고 인근 장노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1세 때인 영조 27년(1751) 9월 13일 조부상을 당한 데다가 불의의 화재로 조상 전래의 많은 책이 불타버리고 불운까지 겹쳐 한 때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 무렵 백부 우정태(禹鼎台, 자 德休, 1691~?)에게 입양되고, 평산 신씨(平山申氏) 부인과 혼인한 것도 이 시기 전후의 일이었다.

그는 이 시기 남인 가문의 몰락과 집안의 불운까지 겹치는 가운데 향리에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옛부터 성인군자들의 경륜이나 사업도……뜻이 있으면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¹⁰⁾는 포부 아래 15세 때부터 다시 학업에 전념하면서 공령문(功令文)을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해 가을 사마시(司馬試)에 낙방한 것을 비롯하여 전후 과거에 12차례 연속 실패의 고배를 맛보아야만 하였다.

그는 청년기 과시(科試) 실패 후 향촌에서 매우 영락(零落)한 가운데 소농으로 농사를 지으며 학문을 영위하였다. 이때 그는 자서에서 ‘지용신(至翁身) 신익궁(身益窮)’이라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스스로 술회하였다. 중년 이후에도 빈궁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해 저술 『농가총람(農家摠覽)』 속에서, 집안의 장례 비용 때문에 손수 농사짓던 “13두락의 논 전부를 방매(放賣)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만큼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준 것은 세속적인

9) 『천일록』 권10, 「醉石室主人翁自敘」.

10) 앞의 책.

5) 『천일록』 권10, 「醉石室主人翁自敘」.

6) 『단양우씨족보』 권3 靖平公派(목판본).

7) 禹熙成翁(수원시 정자동) 증언

8) 秋淵의 저술로는 『理說』, 『理氣說』 등이 있으며, 동감·동문의 벗 西涯 柳成龍이 跋文을 쓴 『癸甲日錄』이 전해온다.

향촌인들의 모욕과 조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절을 타고난 데다가 자긍심의 소유자였던 그는 이때부터 과거제의 문란과 성리학의 몰시대적 무의미성을 깊이 인식,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중농적 실학 학풍을 계승, 민생 보자(補資)의 실용지학을 탐구하는 데 기울어졌다.

조선왕조의 봉건적인 제도의 모순과 부조리를 깊이 인식한 그는 당시 그 자신이 처했던 정황을 이렇게 술회하였다.

나는 평생에 세리(勢利)의 사귀이 없었다. 세상은 모두 변화하여도 유독 나만 초취(憔悴)하였다. 남들은 모두 의탁하는 곳이 있으나 유독 나만은 기댈 곳이 없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은 마땅하니 모욕하고 멸시할 만한 것이 진실로 내게 있는 것이거니 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에 거리까지 없었다. 그러나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그들과의 사귀를 끊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과 잘 접촉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경조(慶弔)의 예조차도 모두 그만두었다. 그렇지만 산수유람(山水遊覽)은 내 본래부터 좋아하던 것이어서 전국에 걸쳐 나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¹¹⁾

이 무렵 그는 세속적인 데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을 답사·유력(遊歷)하면서 세태를 관찰하고,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적 환경을 고구(考究)하는 데 힘썼다. 특히 각 지방의 지세·토질·물산·도로·풍속 등을 조사하고 군사적 요충(關防), 장시와 농촌 실태, 관제의 편부(便否)와 요역·군역·전세·공납의 경중(輕重), 관리들의 대민(對民) 행정 실태 등을 목도하면서 민생보자(民生補資),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학사상을 구상하는 데 힘썼다.

당시 그 자신이 꿈꾸고 의도했던 원대한 포부는 다음의 술회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일우편방(一隅偏邦)인 이곳에서 나고, 이곳에서 자랐는데, 땅은 불과 수천 리요 신라·고려 이래 역사가 2천년도 차지 않음에도 우리나라의 산천·풍토·민요·속상(俗尙)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물 안에 앉아있으면서,

11) 앞의 책.

담벼락만 바라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그리하여 나는 외관색(外關塞)의 험저(險阻), 도리(道里)의 원근(遠近), 토지의 옥척(沃瘠), 풍기(風氣)의 강유(強柔)로부터 심지어는 병농전수(兵農戰守)의 마땅함, 성향제치(城餉制置)의 요령 등에 이르기까지 깊이 생각하고 세밀하게 고구(考究)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¹²⁾

여기에서 당시 우하영이 지향하고 있던 학문적 관심사는 관념적이고 고답적인 성리론이 아니라 경세치용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용지학, 곧 실학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현실과 민생에 유용한 ‘실용지학’, ‘이용후생학’ 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국부민은(國富民殷)·민생보자의 요체로서 자신이 탐구하고 전념해야 할 학문·사상의 요체임을 깊이 인식했던 것 같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난하고 불우한 삶을 영위하는 민중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형편을 개선시키는 데 크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그러한 생각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누우면 별이 보일 만큼’ 가난하기 짝이 없는 빈궁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처럼 주리고 추운 것을 보니, 온 나라 안에도 나처럼 곤궁하고, 더욱이 역역(力役)과 채찍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생각하고서 뚜렷한 한 가지 생각은 오로지 동포들의 그같은 어려운 처지를 구제하는 데로 미쳤다.¹³⁾”는 술회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그 자신의 가난과 불우한 처지의 체험은 동시대 도처에 산재한 흠고, 배고픈 소민(小民)들과 하나의 공감대를 발견하는 데로 확산되었다.

다음과 같은 우하영의 자술은,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세계에 공감하고 나라안 형편을 개선시키는 여러 방안에 대한 관심과 개혁적 성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거리와 시장에서 물건을 보면 반드시 빈민이 살아갈 방도를 생각하였고, 길가에서 사람을 만나면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단서를 물었다. 그리하여 사방백물(四方百物)의 수시귀천(隨時貴賤)과 하향하읍(遐鄉遐邑)의 요역(徭役) 경중(輕重)을 모두 갖추어 모르는 바가 없게 되었다.……진실로 한 마디의 말, 한 가지의 일이라도 가히 민국(民國)에 도움이 있고, 뒷날에 정치를 돕는 방책

12) 앞의 책.

13) 앞의 책.

이 된다면, 내 일생을 헛되이 보낸 것은 아니라고 매양 스스로 다짐하였다.¹⁴⁾

우하영은 전국을 답사하는 동안 거리와 장시, 신분의 귀천, 외딴 시골 마을 사람들의 요역 경중, 민심의 귀추 등을 관찰하고, 민생과 나라의 도움이 될 만한 경륜 등을 구상하고 헤아리는 것이 살아있는 학문·사상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비록 불우하고 가난했지만 청년시절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충신열사의 의기를 책에서 읽고 크게 격앙되어 천고(千古)의 지사(志士)를 은연 중에 자처하면서 민생의 개선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경륜을 집약적으로 사상화하는 데 시종하였다.

그는 근기(近畿)지방 출신의 선배 학자, 예컨대 이이(李珥)·조헌(趙憲)·이수광(李睟光)·허목(許穆)·유형원(柳馨遠)·이익(李瀾) 등과 유성룡(柳成龍) 등 경세가의 경제치용적 학문·사상을 일정하게 계승하면서, 민본적·중농적 입장에서 국토의 이용과 농업정책·농업기술·농업개혁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또한 현장 답사와 문헌을 통한 고금의 시의(時宜)를 상고, 이용후생의 학에도 관심을 기울여 상업발전·광산개발·어장세 개혁 등 산업진흥론 등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과거제 비판과 과천합일론(科薦合一論), 군제 및 군정·신분제·전제 및 전정·환정(還政) 등 정치·사회제도개혁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18세기 말 일대 변화를 겪고 있던 신도시 화성(華城)의 개발과 행정개편 문제 등 지방사적 시각에서 자신의 향촌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와 개혁론 등 자기 시대의 문제의식을 그의 필생의 역작 『천일록(千一錄)』 속에 담는 데 주력하였다.

우하영은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향촌에 칩거하면서 30여 년에 걸친 노작 『천일록』 11권을 집필하면서 재야의 학자·농촌지식인으로 시종하였다. 그중에서도 농학과 농정, 농민과 농촌 문제에 대한 탁월하고 각별한 인식은 『천일록』 속에 『농가총람(農家總覽)』·『전제(田制)』·『관수만록(觀水漫錄)』(별책의 『관수만록』도 있음)·『어초문답(漁樵問答)』 등과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 등의 저술 속에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18세기 말 수원 향촌에서 백과전서적인 저술 『천일록』 저술에 힘쓰던 우하영의 경륜이 중앙정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나이 56세가 되던 정조 20년(1796, 丙

辰) 4월 정조의 구언윤음(求言綸音)에 대한 응지정소(應旨呈疏)한 데서 비롯되었다. 매송면 외촌 향리에서 농사에 힘쓰며 학문 연구와 저술에 힘을 쏟고 있던 그는 이 해 4월 25일 「병진사월응지소(丙辰四月應旨疏)」와 함께 『천일록』 가운데 요점을 간추려 시무책(時務策) 『수원유생우하영경륜』 13조를 별도로 곁들여 응지정소한 것이다.

그는 이 응지소(應旨疏)에서 “천 가지 의견 가운데서 하나 정도는 혹 쓸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千慮之或有一得也).”라는 생각에서 『천일록』이란 제하의 저술을 진행해 왔음을 밝혀 놓았다. 그의 응지소와 별도의 시무책에 대해서 당시 정조는 좌승지 민태혁(閔台赫)·우의정 윤시동(尹蓍東) 등에게 그 채택 여부를 상의했고, 그 등본을 관계부서와 비변사(備邊司)에서 필사할 것을 하교하였다. 그리고 정조는 약방제조(藥房提調) 심이지(沈瀨之), 좌승지 민태혁 등이 입시(入侍)한 자리에서 우하영의 경륜 중 화성성역(華城城役)에서 취용할 바의 것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가 대사성을 지낸 우성전의 후손이며 지별(地閥)있는 사족(士族)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그의 정소와 시무책에서 보인 경륜이 ‘가상(嘉尙)하다’는 뜻과 함께 축조비답(逐條批答) 5백 여언을 내린 바 있었다.¹⁵⁾

이어서 정조가 서거한지 4년 뒤인 순조 4년(1804, 甲子) 2월 당시 인정전(仁政殿)의 화재로 인해 순조의 구언하교(求言下敎)가 있자, 이해 2월 「갑자이월응지소(甲子二月應旨疏)」를 올렸다. 이 정소에서도 그는 평소에 저술하고 있던 『천일록』 가운데 요점을 뽑아 응지상소한다는 것과 선대왕(先代王, 정조) 때도 정소하여 특별한 가포(加褒)가 있었음을 밝히고, 군덕(君德)에 관한 내용 10조와 시폐(時弊) 10조의 목록을 밝혔다. 이 정소에 대하여 순조는 초야에 있는 선비의 마음이 ‘가상하다’는 내용의 비답과 함께 그 책자를 묘당(廟堂)에 채록할 것을 하교하였다. 그리고 『순조실록』에도 “화성유생 우하영이 소진(疏進)한 책자는 『천일록』인데, 민국(民國)의 사(事)를 조목조목 진술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이때 그의 저술도 함께 바쳐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농촌지식인이자 재야의 학자였던 우하영의 경륜은 그 일부나마 정조와 순조대에 중앙정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마침내 『일성록』·『정조실록』·『순조실록』·『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등 관찬사서에 등재되

15) 『천일록』 권10 「병진사월응지소」, 「취석실주인용자서」, 「甲子二月應旨疏」 및 「단양우씨족보」 목판본 권3 靖平公派: 荒 참조. 현재 이 8쪽 비답지는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禹光成家에 소장되어 있다.

14) 앞의 책.

어 비로소 그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8세기 중엽 우리나라 중서부 남양반도의 일우(一隅) 현 매송면 어천리의 몰락한 남인가문에서 태어난 우하영은 사상사적 측면에서 이이·조헌·이수광·허목 등의 경제론을 일정하게 섭취하면서 유형원·이익의 사상적 계보선상에 위치해 있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실학자들 가운데서 매우 고독하고 특이한 존재였던 그는 18세기말~19세기 초 근기학과 학풍의 후미(後尾)를 특색있게 장식하는 중농적이고 선진적인 실학자·개혁사상가로서의 성좌(星座)를 뚜렷이 차지하게 되었다.¹⁶⁾

생전에 그는 조선중기 남인의 영수로 활약한 7대조 우성전의 유고『계갑일록(癸甲日錄)』의 간행 주역을 맡아 선조의 업적을 현양하는 데 힘썼다. 이때 그는 남인계의 선배 실학자로 안산에 은거하던 만년의 이익(李瀾)에게 이 책의 후서(後序)와 묘갈명을, 그리고 당시 화성유수로 재임하던 채제공(蔡濟恭)에게 시장(諡狀)을, 그리고 이황의 문하에서 동문수학(同門修學)한 서애(西崖) 유성룡(柳成龍)이 「서우경선일록후(書禹景善日錄後)」를 부록으로 붙여 간행하였다. 또한 매송면 속곡리 우성전의 묘 입구에 재건립된 ‘추연선생신도비’에도 이익의 비명(碑銘)에 덧붙여 선조의 업적을 현창하는 데 힘쓴 우하영의 역할이 간략히 기재되어 전해온다.

가난하고 불우한 가운데서도 부국유민(富國裕民)의 드높은 이상과 실용지학을 『천일록』 11권 속에 집약화하는 데 힘쓴 우하영은 마침내 노환으로 순조 12년(1812) 10월 24일 향리인 수원부 호매절면 외촌에서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遺骸)는 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서남향 야산 관옥골에 묻혔다. 부인 평산신씨와 쌍분을 이룬 묘소 주위에는 증조부모·조부모·아들의 묘가 점재되어 있다. 그의 묘에서 불과 500m 가량 떨어진 능골 야산 기슭에는 그의 7대조로 조선중기 단양우씨가 낳은 최대의 성리학자이며 의병장으로 활약한 우성전의 묘가 위치해 있다.

우하영은 후계로서 상연(尙淵, 1767~?, 자 應恢)·상정(尙靖, 1771~1851)·상준(尙俊, ?~?)의 세 아들을 두었다. 그러나 우하영의 직계 후대 역시 특별히 관도(官途)에 나아간 인물들은 거의 없으며, 수원 향촌을 근거지로 소농의 가계를 영위해 가는 가운데 학문적인 성향만은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최홍규, 앞의 책, 41쪽.

우하영의 묘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다가 2003년 4월 7대조인 우성전의 묘와 함께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1호로 지정되었다.¹⁷⁾

2. 華城築城論

화성 축성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정조 14년(1790) 6월 부사직 강유(姜游)에 의해서 수원에서의 읍성 축성과 둔전(屯田) 설치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고, 그의 주장은 비용이 많이 드는 석성보다는 토성으로 축성하자는 토축론(土築論)이었다.¹⁸⁾ 물론 이에 앞서 이미 120여 년 전 유형원의 『반계수록』 보유, 군현제 조에서 수원의 이읍과 축성의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었고,¹⁹⁾ 반계의 경륜이 정조를 비롯한 동시대의 실학자들에 의해 크게 주목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²⁰⁾

그러나 화성 축성과 성제(城制)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은, 정조 16년 겨울 홍문관 수찬 정약용(丁若鏞)이 왕명을 받들어 비로소 이루어졌다.²¹⁾ 다산(茶山)의 성제안(城制案)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시문집 설(說) 속에 수록된 「성설(城說)」과 같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안은 뒤에 『화성성역의궤』 권1 「어제성화주략(御製城華籌略)」의 기본 뼈대를 이루었다.²²⁾ 18세기 말 정조대의 최대의 역사적 건설사업이자 정치적·군사적 의미를 지녔던 이 화성 성역을 앞두고 정조 18년(1794) 1월 국왕은 8도의 수령·방백들에게 성지의 제도를 그려 바칠 것을 하교한 바 있었다. 이때 당시 경상좌도 병마사 윤범행(尹範行)이 상봉한 성지도(城池圖)가 매우 조잡하다고 하여 그 직을 삭탈·문책할 정도로²³⁾ 정조는 온 신경을 화성 건설에 쏟았다.

이읍 후 화성의 축성은 단순한 읍성으로서의 성격이나 어폭보민(禦暴保民)의 취지하의 공격·방어성이라는 국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원유수부가 신흥대도회

17) 최홍규, 『정조의 화성경영 연구』, 일지사, 2005, 251쪽.

18) 『정조실록』 14년 6월 己未.

19) 『礪溪隨錄』 보유 군현제.

20) 『정조실록』 17년 12월 丁卯.

21) 丁奎英 편, 『俟菴先生年譜』, 정문사, 1984, 33~34쪽.

22) 『화성성역의궤』 권1 筵說, 癸丑 3월 10일.

23) 앞의 책, 18년 정월 乙未.

로 전할 수 있는 행정적·군사적 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신도시 화성 발전과 화성 축성을 위한 현책(賢策)의 수립이 정부의 시급한 당면과제였던 시기에 수원 향촌에서 실용지학에 전념하고 있던 우하영은 축성 문제를 『관수만록』 속에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위로는 국왕의 독려하에 축성계획이 현안의 과제로 떠오르던 시점에서, 그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개혁안을 제안하는 가운데, 평소 그가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온 화성 성제와 축성방략에 관한 일련의 그의 견해를 피력하기에 이르렀다.

1) 華城内城의 축성방략

화성의 제도와 축성방략에 대한 우하영의 경륜은 『천일록』 권4 『관수만록』 상편 「축성방략」과 별책 『관수만록』 하 「관방제치삼책(關防制置三策)」속에 그대로 요약되어 있다.²⁴⁾ 그의 견해는 당시 축성 계획이 활발히 논의되던 화성읍성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내성에 관한 것과, 그 이전과 이후에도 실현되지 않은 내성을 보완하고 방어·공격성으로서 그의 독창적인 견해가 담긴 외성에 관한 축성방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하영은 『관수만록』 상편 「축성방략」에서 역사적인 화성성역의 착공을 앞두고 조야간의 논의가 분분한 데 대해, 뚜렷한 주견(主見)과 신념을 갖고 어폭보민(禦暴保民)의 측면에서 축성의 필요성과 방법을 다양하게 제안하였다. 그는 일찍이 임·병 양란 때도 수원지방이 전화(戰禍)를 입지 않고 독성(禿城)과 광교산(光教山)전투에서 역사적인 승첩을 거둔 것은, 천혜의 지리 덕택이기도 하지만²⁵⁾ 효율적인 성수(城守)의 결과라고 생각했으며, 전곡(錢穀)과 갑병(甲兵)의 효과적인 유지·활동도 성수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까닭에 삼남과 기보(畿輔)의 요충·중진이 되는 지역에 읍성을 건설한다는 일은 가장 중요한 급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왕과 조정 중신들 사이에서는 원칙과 화성행궁을 수호하고 읍성으로서 화성을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축성방략을 둘러싸고는 통일된 논의가 없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었다. 혹자

는 성곽 축조에 뒤따르는 경비와 석재(石材)의 어려움을 들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거나, 심지어 읍기(邑基)가 평야에 자리잡고 있어 사면에서 적을 맞는 형세이므로 지형적으로 축성은 불가하다는 논의까지 일고 있었다.²⁶⁾ 이에 대하여 그는 단호하게 일침을 가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옛부터 중국의 성지는 평야를 이용하여 성벽을 가지런히 쌓고 산의 계곡 험로(險路)에 따라 축성했다는 것은 일찍이 듣지 못한 일이라 전제한 다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제가 산성이 대부분이었던 까닭에 이러한 얇은 소견이 제안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재력과 석재난을 들어 성곽 건설을 보류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우하영에 의하면, 축성이란 사소한 이해와 일시적인 편부를 떠나 시행해야 할 국가적 사업이라 전제하고, 그 시행과정에는 비록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절용하고 효율있게 운용한다면 수년간의 재력으로 만세의 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축성 작업임을 상기시켰다. 특히 수원유수부는 유진(留陣)해야 할 갑병(甲兵)의 수요가 많고 민물(民物)이 은실(殷實)하여 전통적으로 한수 이남의 대영·군진이 설치된 까닭에, 축성은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영축(營築)의 방법상 석재난을 예거하고 있는 데 대하여, 중국의 견고를 인용하여 석성·벽성(甃城)만이 능사가 아님을 역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견고성면에서 “돌은 벽돌만 같지 못하며, 벽돌은 흙만 같지 못하다”²⁷⁾는 견지에서, 토축의 대담한 활용이 경비와 석재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그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돌과 벽돌만이 축성의 재료가 될 수 없고, 석축과 토축의 병용과 함께 축회(築灰)의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그 비용의 절용면에서도 그렇지만 견고한 성곽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축(土築)의 경우는 흙을 여러 차례 찼고 다지는 도축(搗築)의 방법으로 하는데, 더욱이 증토(蒸土)와 세사(細沙)를 고루섞어 도축해야 한다는 것이며, “토성의 견고성 여부는 오로지 도축의 공법에 달려 있다”²⁸⁾고 단언하였다.

성제상으로 벽축은 중국에서, 석축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관용해온 축성법이라는 것, 그러나 토축은 옛부터 중국과 한국에서 병용해 온 실용성과 경제성을

26) 앞의 책, 「築城方略」 참조.

27) 앞의 책.

28) 앞의 책.

24)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311~324쪽.

25) 『천일록』 권4 『관수만록』 상편 총론.

동시에 갖춘 제도임을 상기시키면서 도축법(搗築法)의 활용을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조벽지제(造壁之制)」항에서는 중국에서 널리 일반화된 벽돌의 제조법과 축법을 잘 익혀서 이를 활용할 것을 건의하는 등 선진적인 경제가로서 실용지학과 이용후생면에서 개혁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²⁹⁾

축성에 따른 경비 절감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그 요체임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재력은 천강지출(天降地出)의 물이 아닌” 까닭에 국가적 절재와 함께 역부(役夫) 및 무천(賃遷)을 능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했으며, 고가(雇價)만을 앞세운 모군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단언하였다. 그는 게으르고 허약한 무리가 모군(募軍)으로 성역에 종사한다면 무슨 실효를 얻겠는가 자문하면서, 각 도 사찰에서 차출된 승군(僧軍)을 남북총섭(南北總攝)이 각기 스스로 영솔(領率)케 하여 부역시키고,³⁰⁾ 모군의 근만(勤慢)과 우열에 따라 상벌을 시행케 함은 물론, 매패(每牌)에 그 수축(堅築) 여부를 감독시킨다면 능률적인 축성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 것이다. 조직화된 승군의 활용은 일반 민정(民丁)의 급가모군(給價募軍)에 비하여 고가의 절용과 함께 작업 능률면에서도 크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요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상으로 우하영이 『관수만록』 상편 「축성방략」에서 주장한 내용은, 화성성역 직전인 대략 정조 17년 말을 전후한 시기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성성역은 유형원의 『반계수록』에서 선견을 보인 이후, 채제공·조심태 등의 관계 관료들의 계획안과 실학자 정약용의 「성설」 등이 참고되어 정조 18년(1794) 2월 28일 처음 착공하였다. 이후 2년 7개월이 경과한 정조 20년 9월 10일에 완공되고, 1개월 뒤인 10월 16일에는 화성행궁의 낙남헌(洛南軒) 앞뜰에서 화성의 준공을 기념하는 낙성연을 베풀기에 이르렀다.

이후 얼마 뒤인 정조 15년 겨울 왕명에 따라 다산은 김종서(金宗瑞)가 종성(鐘城)에 쌓은 성제를 비롯하여 윤경(尹耕)의 『보약(堡約)』과 유성룡의 성설에 도움을 받아 그 중에서 좋은 방법을 따다가 초루(譙樓)·적대(敵臺)·현안(懸眼)·오성지

(五星池)의 여러 방법³¹⁾을 검토해서 쓴 그의 「성설」을 지어 올렸고, 또 이 건의를 기초로 저술된 것이 정조의 「어제성화주략」이었다. 그러나, 다산의 설계와 실제의 축성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 있었다. 예컨대 다산은 당초에 포루(砲樓) 7, 적루(敵樓) 4, 적대(敵臺) 9, 포루(舖樓) 2, 노대(弩臺) 1, 각성(角城) 7을 설계했었으나, 실제의 축성에는 포루(砲樓) 5, 적대 4, 포루(舖樓) 5, 노대(弩臺) 2, 치성(雉城) 10, 장대(將臺) 2, 각루(角樓) 4, 공심돈(空心墩) 3, 봉돈(烽墩) 1 등으로 대폭 수정·보완되었다.³²⁾

또 화성은 축성재료에 있어서 전통적인 석재와 새로운 성재인 벽돌을 과감히 쓴 것이 특징이다. 석재는 착공 1개월 전에 기적적으로 발굴된 부내 공석면(空石面)의 숙지산(熟知山)을 비롯하여 권동(權洞)의 석록산(石麓山)·팔달산 등지에서 채취·운반해 왔고,³³⁾ 벽돌은 광주(廣州)의 왕륜와벽소(王倫瓦壁所)에서 구워다가 운반해서 썼다. 특히 벽돌의 경우는 성역의 착공 불과 2개월 전인 정조 17년 12월 6일에도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성역의 총지휘자인 채제공과 총감독으로 내정된 조심태조차도 남북변은 석성으로 하지만 동서변은 토축으로 할 것을 보고하고 있을 정도였다.³⁴⁾ 그러나, 실제로 화성 성축에는 석재를 주재료로 쓰고 북문(長安門)·남문(八達門)·서문(華西門)·동문(蒼龍門)의 웅성(甕城)을 비롯하여 공심돈·노대·암문·봉돈·각루·포루 등에는 전재(塼材)가 다수 쓰여져 그 견고성과 함께 건축공학적 면에서 미려(美麗)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성축에 있어서 벽돌에 대한 인식은 일찍이 17세기 『반계수록』에서 처음 나타났거니와,³⁵⁾ 18세기 중엽 연경(燕京)을 다녀왔던 박지원·박제가 등 북학파 실학자들에 의해서 그 선진성과 실용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었다. 연암(燕巖)은 『열하일기』 도강록(渡江錄)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벽돌의 효용성을 설명했고, 북학파의 맹장(猛將) 정유(貞蕪)는 『북학의』 내편(內篇), 벽(壁)조에서 누대·성곽·담장을 비롯하여 교량·분묘·구거(溝渠)·제언 등에 이르기까지 벽돌의 편리함과 유용성

31) 『여유당전서』 제1집 권16, 自撰墓誌銘 集中本.
 32) 앞의 책, 「시문집」 설, 성설 및 화성행궁본 『화성성역의궤』 권1 어제성화주략. 다산은 일찍이 축성에 필요한 8개 조의 籌略, 곧 성역의 分數·材料·濠塹·築基·伐石·治道·造車·城制 등을 상주, 약간의 수정·보완을 거쳐 「성화주략」 속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33) 『화성성역의궤』 卷首 참조.
 34) 『정조실록』 17년 12월 乙丑.
 35)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 성지 조.

29) 이 시기 우하영의 주장에 앞서 石城보다 壁城의 長點을 주장한 선구적인 견해로는 유형원의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 성지 조, 朴齊家の 『北學議』 內篇, 城 조, 朴趾源의 『熱河日記』 渡江錄, 그리고 화성의 계획단계에 참여한 정약용의 「성설」(『여유당전집』, 시문집, 설) 등이 있었다.
 30) 城役의 진행 도중 재정상의 문제로 한때 승군과 民丁徵發에 대한 논의가 신료들 사이에도 있었으나, 정조는 민폐를 이유로 강제징발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화성성역의궤』 권1, 啓辭, 갑인 5월 22일 및 6월 28일, 병진 2월 7일).

을 설명하면서 그 제조와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³⁶⁾ 또한 「성」 조에서는 중국에 보편화된 성곽 축조에 있어서 전축(塼築)의 견고성과 그 축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은 모두 벽돌로 쌓았다. 벽돌은 회로 붙였고, 회를 쓴 것이 너무 얇어서 간신히 붙을 정도였다. 쌓는 방법은 먼저 돌로써 터를 닦았고, 혹은 큰 벽돌을 쌓아 터를 닦기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벽돌을 쌓았는데, 혹은 가로로 혹은 세로로 쌓았으며, 혹은 높히고 혹은 세우기도 하여 내외가 서로 어긋나게 하면서 성 두께대로 다 쌓아 올렸다. 겉과 안 사이에 간혹 흙으로 채우기도 했으나 그 넓이의 3분의 1이 못된다. 그러므로 옛뭉치와 같이 합쳐져 대포를 맞아도 다 부숴지지 않도록 되었다.³⁷⁾

반계 이후 연암·정유 등 실학자들의 성재로서 벽돌에 대한 인식은 다산에게 그대로 수용되었고, 이는 다산보다 21년 연상인 동시대 수원 출신의 실학자 우하영에 의해서 더욱 강력히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정조의 측근으로 총애를 받던 다산의 「성설」에 의해서 마침내 화성에 구체적으로 실용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하영은 당시 다산이 국왕의 측근으로 관계에서 활약한 것과는 반대로, 초야에 묻혀 재야의 학자로 시종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반계 이후 연암·정유 등 동시대 북학과 실학자들의 이용후생지학(利用厚生之學)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나타내면서 축성방략의 하나로 조벽지제(造壁之制)의 효용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진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성곽 벽축(壁築)에 대한 그의 견해가 화성 착공을 불과 1개월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 그 채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시기에 주장된 만큼 벽축에 대한 그의 선견지명과 이용후생 분야에 대한 그의 개명한 식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의 하나이다.

2) 華城外城의 축성방략

36) 『북학의』 내편 벽.

37) 앞의 책, 내편 성.

한편 우하영은 축성방략 문제와 관련하여 특색 있는 견해는, 이미 축성된 내성으로서 화성의 기능·역할과 관방제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성(外城)의 필요성과 그 축성의 실행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앞의 축성방략이 성역을 착공하기 이전 당시 조야에서 논의가 분분하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면, 뒤의 외성의 필요성에 대한 그의 시무책은 성역이 끝난 정조 20년 9월 이전 시기에 파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또한 그것은 이미 축성된 읍성인 내성으로서의 화성의 취약점에 대한, 군사적 견지에서 외성·방어성으로서의 기능을 아울러 갖춘 그 보강책을 마련하자는 경세가다운 원려(遠慮)에서 발상된 것이었다.

먼저 우하영은 『관수만록』 하 관방제치3책에서 “3리 거리의 성과 7리 거리의 관(郭)을 둘러싸고 공격한다”는 맹자의 고전적 견해를 인용하면서 관은 이중성의 외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성곽’이란 본래 내·외성의 이중성을 의미한다고 본 그는

옛부터 평지성에는 반드시 외성이 있었으니, 대개 성이 평지에 있다고 한다. 면 성 안에 허(虛)와 실(實)을 넘겨다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다리를 타고 넘어 오거나 땅굴을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평지에서 쓰기 쉬운 작전이요 도구이다.³⁸⁾

라고 하여, 평지에 성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군측의 유효한 방어를 위해 외성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외성이 없던 남원성(南原城)의 경우 임란 당시 침략군인 왜병이 벚짚·풀·나무 등을 쌓고 성을 순식간에 함락시켰으며, 진주성(晋州城)의 경우도 낮고 평평한 곳을 찾아 같은 방법으로 적병이 넘어왔으니, 여기에서 “더욱 옛 사람들이 평지성에 반드시 외성을 쌓은 깊은 뜻을 볼 수 있다”³⁹⁾고 고전적 의미의 외성축성론을 역설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성역이 완공된 화성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하영에 의하면,

38) 『관수만록』 하, 관방제치3책.

39) 앞의 책.

본부(화성)의 성지(城址)가 남과 북은 모두 평지이며 동쪽은 비록 성이 산기슭을 의지했다고 하나 또한 평지이며, 오직 서쪽 주산(主山)만이 약간 돌기했지만 또한 천험지(天險之地)라고는 말할 수 없다. 대체로 말해서 함께 모두가 평평하고 빈 땅이니, 이는 반드시 외성을 설치해야 할 곳이다.⁴⁰⁾

라고 하여 외성의 설치가 방어성으로서 화성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보강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길임을 주장하였다.

다음에 그는 이 외성의 축성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석축된 화성의 내성과는 달리 토축(土築)으로 쌓아 외적의 공격시 방어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 영축(營築)에 있어서도 힘이 덜 들고 축성재원도 크게 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외성이 있는 곳은 모두 다 토축하였다. 공사에 힘을 덜 뿐만 아니라 적을 방어하는 방면에 있어서도 본시 석성보다 못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화성부의 주위를 돌아다 보면 4천 보가 못된다. 아직 재력의 좋아짐을 기다려 10여만 돈을 들인다면 흙으로 외성을 쌓을 수가 있을 것이니, 만일 쌓을 수만 있다면 바야흐로 완전한 금성탕지(金城湯池)가 될 것이다.⁴¹⁾

우하영은 이미 축조된 화성은 그 길이가 불과 4천 보⁴²⁾에 지나지 않아 외침시 방어성으로서 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에는 많은 난점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능을 보완할 외성을 토축으로 새로 축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 소요비용은 토축임을 감안해서 불과 10여만 냥이면 족하다고 하였다.⁴³⁾ 또한 그는 『관수만록』 하 관방제치3책에 「일부형편전체도(一府形便全體圖)」와 「내외성전체

도(內外城全體圖)」 등 도면까지 제시하면서, 남양(南陽)·양성(陽城)·직산(稷山) 등 주위 현·면의 행정상 지계의 구획과 이미 축조된 화성의 내성 및 그가 창안한 외성의 도면을 통해 유사시 부내외의 지역방어와 그 축성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그가 제안한 외성의 축조는 “내성에서부터 그 지형의 형편에 따라 4, 50보쯤 밖으로 흙을 굳게 도축하여 외성을 쌓아야”⁴⁴⁾ 한다는 것이며, 흔히 우리나라 성제가 외절내이(外截內夷)하는 식인 것은 위급할 때 성에 오르는 데 편리하도록 하자는 뜻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제 이 외성을 쌓는 데는 반드시 안팎이 함께 끊어 깎은 듯이하여 때(莎草)를 입히고 위에 성가퀴(女塼)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한다면, 적이 비록 홍이포(紅夷砲)를 쏜다고 해도 외성을 상하게 하는 데만 그칠 것이다. 또 석성의 경우는 대완연환(大椀鉛丸)을 맞게 되면 많은 돌이 흔들려 무너지지만, 토축은 연환이 부딪친다 하더라도 흙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 것이다. 비록 무너진다 해도 반드시 석성처럼 일시에 흔들려서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 4대문과 암문이 있는 곳에는 모두 간성(間城)을 마련하되 좌우로 나누어 높이 쌓고 가운데로 통행하는 길을 만들며 또한 양면을 구절(俱截)의 제도를 쓰고, 성 위의 양면에는 모두 성가퀴(女塼)를 쌓는다. 만일 적이 외성 한쪽을 파괴하고 들어오면 성첩(城堞) 위에 있던 아군은 바로 붕괴된 것을 버리고 간성첩상(間城堞上)으로 달려들어간다.

그리고 내성의 성첩 군사들과 좌우에서 힘을 합쳐 포와 화살을 쏜다면 적은 지해도 용기도 다 곤궁케 되어 한 놈도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밖에 외성을 수첩하던 병졸들은 전에 자기 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지킨다면, 외성 한쪽이 비록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문득 전체의 성은 완전할 것이니 가히 수성을 위한 만전의 양책(良策)이라고 할 것이다.⁴⁵⁾

여기에서 우하영은 외침을 당할 때 내성과 외성의 작전상 역할을 방어와 공격의 측면에서 실전과 방불하리만큼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앞에서도 임란 당시 남원성과 진주성이 외성이 설치되지 않은 결점으로 인해서 마침내 쉽게 함락되었다는 역사적 선례를 예거한 바 있거니와, 화성의 경우도 효율적인 관방으

40) 앞의 책.

41) 앞의 책.

42) 『화성성역의궤』 卷首에는 山上부분이 2,944보 4척이고, 평지부분이 1,019보 4척, 합계 3,963보 8척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성역 당시의 총연장 4,600보(5,743.56cm) 중에서 문루·포루·포대·공심돈 등 부대시설의 연장 635보 4척(793.69cm)을 뺀 성벽만의 순연장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43) 우하영이 외성을 새로 토축할 때 축성비용으로 예상계산한 것은 기축된 화성의 소요액에 약 8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화성성역 착공 1개월 전인 정조 17년 12월 체제공·조심태 등은 약 30만 냥을 예상했고, 정조는 40~50만 냥으로 완공하도록 하고한 바 있었다(『정조실록』 17년 12월 乙丑 조). 그러나,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금전으로 환산할 때, 京畿會簿米와 기타 구입미를 제외한 총비용은 약 873,517냥 7전 9푼으로 추정된다(『화성성역의궤』 권5, 재용상 구획 조).

44) 『관수만록』 하, 관방제치3책.

45) 앞의 책.

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외성이 설치되어야 할 것을 작전적인 측면에서 주장한 것이다. 또한 외성도 토축의 경우가 석축보다 포환 공격시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의 독창적이고도 실용적인 성제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토축의 경제성과 작전상의 효율성을 예거한 우하영은, 외성의 영축방책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그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만일 영축의 방법을 말한다면, 돌아보건대 지금 내성의 둘레가 3천 7백여 보이니 이른바 외성도 5천 보를 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매 1보에 각기 15냥을 주고 패장(牌將)을 모집하되 10보를 1패로 정하고, 매패에 각기 150냥을 지급해 주도록 한다. 흙을 도축하되 지대(址臺)의 넓이 한도는 3장(丈)으로 하고 성 위의 넓이 한도는 1장 반이 넘게 하며 높이는 3장으로 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제도를 정한다면, 패장배들은 즐겨 따를 것이다. 그러면 5천 보를 쌓는 비용이 응당 7만여 냥이 들 것이다. 또 성 밑 지대 있는 곳에 각기 1백여 보를 한도로 석굴(石窟)을 설치하여 내·외 양성 사이에 장마비를 배출하는 수도를 만들도록 한다. 또 1백여 보를 한도로 치(雉) 하나씩을 세우며, 4대문에는 층루(層樓)는 만들지 말고 다만 든든하고 치밀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려면 여첩(女堞)·수도(水道)·누로(樓櫓) 등의 공사에는 5만 냥 정도를 가지면 넉넉히 마칠 수 있을 것이다.⁴⁶⁾

즉, 그는 외성의 영축방법에 있어서도 외성의 길이는 5천 보 내외, 패장의 책임 하에 모군의 활용, 그리고 외성 시설물의 치밀한 설계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우하영은 이미 정조 20년 9월 10일에 이미 완공된 화성의 내성 둘레를 3,700여 보라고 했는데, 이는 총연장 4,600보 중 문루·포루·포대·공심돈 등의 건물 연장을 제외한 산상 부분 2,944보 4척, 평지 부분 1,019보 4척, 합계 3,963보 8척을 가리키고⁴⁷⁾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외성의 영축에 있어서 내성보다 긴 연장인 5,000보 이내를 제안했는데, 이는 내성의 기준으로 볼 때 그 규모가 작으면 작았지 결코 큰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하영이 상정한 내성과 외성비(外

城比) 3,700보 : 5,000보를 기준으로 할 때, 실제의 내성의 연장은 이보다 긴 4,600보이므로 내·외성비는 당연히 4,600보 : 6,216보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하영은 외성의 축성 방법으로 재용 운영면에서 매일보당 15냥을 지급하고, 10보를 1패로 패장을 모집하여 각 패마다 150냥씩 경비를 지급한다면 공사 진행은 별 어려움 없이 마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외성의 규모면에서 지대의 넓이는 3장, 성 위의 넓이 한도는 1장 반으로, 성벽의 높이는 3장으로 설계할 것을 구상하였다. 외성의 시설물로는 1백 보마다 설치되는 치를 비롯하여 여첩·수도·누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것과 외성의 총 공사비로는 대략 12만 냥을 예산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3) 축성론의 의의

이상으로 우하영이 『관수만록』 하 「관방제치3책」에서 주장한 화성의 외성축성론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 군사상 관방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만일 당시 정조의 깊은 의도가 왕권강화와 혁신정치를 꾀하기 위하여 행정·군사의 거점 도시로서의 화성을 건설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원 천도까지 배려하여 화성을 축성했다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하영의 외성축성론은 원칙적인 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견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수원은 일찍부터 진남(鎭南)의 요충으로 인식되어 온 데다가 임진·병자 양난 때 독성과 광고산전투⁴⁸⁾에서 승첩을 거둔 역사적 유래를 지닌 고장이니만큼, 당시 조야의 일반적인 인식이 남한산성과 함께 국방상 요충, 곧 관방으로서 중요시되고 있었다.

일찍이 선조 25년(1593) 임란 당시 수원 구읍지에서 약 2Km 떨어진 독성산성에서 권율(權慄)이 지휘하는 관군과 김천일(金千鎰) 의병부대의 연계작전으로 승첩을 거둔 이외에도, 삼봉면(三峯面, 현 화성시 봉담면) 상리(上里) 저수지 남쪽에 위치한 '삼천병마골'은 당시 의병부대 3천 병마가 복병했다가 시흥군 수암면 산현리 피흘리고개에 진을 친 왜병들을 덮쳐 몰살시켰다는 전설적인 전승지로 알려져 있다.⁴⁹⁾

48) 병자호란 당시 전라병마절도사 金俊龍이 이곳에서 淸將 楊古利를 비롯하여 청군을 크게 무찔렀다. 許穆 撰 金俊龍碑銘(『國朝人物考』 下, 서울대 출판부, 1978, 918~920쪽.) 참조.

46) 앞의 책.

47) 앞의 註 34) 참조.

이후 광해군 13년(1621) 12월 충청·전라·경상 3도병 3천 명이 수원에 주둔한 적이 있고, 영조 4년(1728) 이인좌난(李麟左亂) 때는 청주가 함락되자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가 먼저 수원에 출진한 적이 있었다.⁵⁰⁾ 이러한 수원의 국방상 관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하영 자신도 “그 백성과 물건의 변화하고 많음이 본시 5천 병마의 지방”⁵¹⁾이라고 스스로 술회할 정도로, 이 고장이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3남과 기호의 요충·중진이라는 관념은 거의 일반에까지 널리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군사상 지형적 여건 외에도 원침 안치와 신읍치 건설, 유수부 승격, 그리고 화성행궁과 화성성역을 계기로 국왕과 특별한 연고를 지닌 행정·군사·산업 도시로서의 수원지방에 대한 관심도 조야를 막론하고 더한층 크게 증대된 것이 현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하영의 화성에 있어서 내·외성방략론이며, 향촌 문제에 관한 일련의 저작들인 것이다.

한편 우리는 화성성곽을 축조함에 있어서 우하영의 화성축성론이 실제 성역에 있어서 얼마큼 구체화되고 반영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리 큰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화성축성이 실현되기까지에는 선대와 당대의 여러 명석(名碩)들의 논의가 두루 참고·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학의 선구자 유형원의 『반계수록』의 경륜에서 촉발되어, 선대의 김종서·유성룡 등의 성설, 중국 모원의의 『무비지』 등이 참고되었고, 특히 계몽군주 정조의 독려 아래 채제공·조심태 등의 관료와 정약용·박제가 등 실학자들의 대담하고 선진적인 경륜, 화공 엄치욱(嚴致郁)⁵²⁾ 등의 기술적 창견 등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성역 주관자의 과학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즉, 계획 당시에는 10년이 걸릴 것을 예상했던 공기를 2년 7개월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다. 특히 다산은 왕명을 받들어 화성성제에 대한 기본계획과 더불어 『기기도설(奇器圖說)』을 참고

49) 광무 3년(1899)간 『수원군읍지』 고적 조 및 『한국지명총람』 18, 한글학회, 1987, 501쪽 참조.

50) 『大東地志』 권2, 경기도, 수원부 典故 조.

51) 『관수만록』 하, 관방제치3책.

52) 훈련도감의 馬兵으로 『화성성역의궤』 권수의 화성전도 1매와 장안문 내·외성도를 비롯한 부분도 설 60매는 그의 제도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성역기간 중 모두 342일 동안 부여하였다. 최홍규 앞의 책 참조.

로 거중기·유형거 등을 제작, 이를 활용함으로써 성역의 공기 단축과 재원 절용에 크게 일조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⁵³⁾

한편 우하영의 화성축성론은 크게 내·외성의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특히 외성축성론은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시대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이라 할 만큼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라는 점에서 그의 독특한 성제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제관은 우하영이 외침시 방어와 공격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군사적 관점에 큰 비중을 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남원성이 당면했던 공격·방어성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취약점을 고려, 그 실효성과 보안책을 마련하려는 역사적인 반성의 의미를 반영한 결과였다.

3. 농업진흥론

1) 농촌 진흥과 『향약설』

조선후기사회가 변동을 겪게 된 것은, 사회신분제의 변화 외에도 상품화폐경제와 농업기술·농업경영의 발전 등 제요인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이에 부수되어 향촌사회 내부에서는 농민분해로 인한 소·빈농층의 농촌 유리(遊離)가 가속화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우하영이 관찰한 대로 각종의 향폐가 표면화되자 이를 위기적 상황으로까지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16세기 후반 해주(海州)·평산(平山) 등지의 읍에서는 울곡향약(粟谷鄉約)이 입정 시행된 바 있으며,⁵⁴⁾ 이것으로 인해 후기사회에 이르기까지 매향(賣鄉)·도차(圖差)의 폐단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향약을 통하여 향폐를 근절시킨 실례를 제시하였다. 우하영이 구상한 향약의 기능은, 향촌사회 내에서 퇴풍(頽風)에 물든 비생산적인 습속을 순화하고 각종 향폐에 대한 정부와 지방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농민의 보호와 농업생산력의 제고하는

53)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137쪽.

54) 울곡은 명종 15년(1560) 『坡州鄉約』에 서문을 쓴 뒤 淸州의 『西原鄉約』, 선조 10년(1577) 해주의 『해주향약』, 그 이듬해 다시 『海州一鄉約束』·『社倉契約束』 등의 향약을 입안, 시행한 바 있었다.

차원에서 또 권농정책이 전제된 농촌공동체의 향촌자치조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향약을 구상, 입안하게 된 것이다.

18세기 말 당시에 농촌지식인 우하영은 문란한 향촌질서와 향폐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에 기강이 있음은 사람에게 혈맥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사람에게 혈맥이 없으면 운동할 수 없고,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제치(制治)할 수 없다.⁵⁵⁾

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향폐에 대한 방지와 해결책으로 국법으로 조목을 엄립(嚴立)하여 준수하도록 수재(守宰)에 의한 강력하고도 공평무사한 대민통제(對民統制)를 촉구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해이·문란된 후기사회의 붕괴적 현상과 이에 부수되어 나농(懶農)과 유희(遊戱)의 기풍이 만연된 농촌공동체를 결속시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킨다는 목표 아래 권농정책과 민습을 교화하기 위한 권농절목(勸農節目)⁵⁶⁾과 향약(鄉約)을 구상·입안하기에 이르렀다.

우하영의 『향약설』은 1780~90년대의 피폐된 농촌사회의 향풍진작(鄉風振作)과 화속책(化俗策)으로 입안된 것으로, 이는 당시 수원향촌에서의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 편제는 충효상면(忠孝相勉)·덕업상권(德業相勸)·예속상교(禮俗相交)·과실상규(過失相規)·환난상휼(患難相恤) 등 5개 조목과 각동절목(各洞節目)·도헌절목(都憲節目) 등 동약(洞約)에 관련된 2개 절목, 그리고 전대(前代) 명현(名賢)들의 향약 논의가 첨부된 부명석의(附名碩議)로 되어 있다. 『향약설』은 첫머리에서 정풍속(正風俗)·득현재(得賢才)의 목표가 여씨향약에서 비롯되었음을 전제하고, 퇴계·율곡·반계의 향약을 계승한 것으로⁵⁷⁾ 밝혀 놓았다. 그러나 그 체제와 내용은 매우 면밀한 것이어서, 종래의 다른 향약과는 달리 충효상면조를 신설, 이를 서두에 넣어 새롭고도 독특한 향약으로 입조하였다. 충효의 권면을 제1조로 삼은 것은 유교적 윤리에 입각하여 군부사(君父師)에 진력(盡力)함으로써 ‘세강속두(世降俗偷)’에 대한 ‘경세상면(警世相勉)’의 방책으로 삼고자 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

55) 『수원유생우하영경문』, 화속.

56) 앞의 책, 務本 및 『천일록』 권2, 「田制」, 附農政.

57) 『향약설』 부명석의는 許曄·趙憲·이황·이이·李後聃·柳馨遠·李海壽 등 전대 諸賢名碩의 향약론을 備記, 향약시행의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을 일별하려 하였다.

다.⁵⁸⁾ 또한 여씨향약 이래 기존 향약의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 등 4개 조목을 변용, 충효상면을 제 1조로 넣고, ‘예속상규’를 과실상규보다 먼저 입조하고 있음은 향약의 제도가 대개 예속(禮俗)·돈풍(敦風)을 빛내려는 뜻에 있고, 또 예속이 이루어진다면 과실이 자연 적어질 것으로 예상한 때문이었다.⁵⁹⁾

우하영은 향약의 약임(約任)에 있어서도 읍(邑)=도헌(都憲) 1인·부헌(副憲) 2인, 동(洞)=동헌(洞憲)·집강(執綱)·공원(公員) 각 1인을 두었으며, 각읍과 각동의 상하이원적인 구조로서 향약을 구상하였다. 먼저 각읍의 약임인 도·부헌은 향규(鄉規)의 예에 따라 교중제회(校中齊會)하여 뽑고, 각동에서는 동헌·집강·공원을 동약의 예에 의거 향촌공동체를 구성하는 대·중·소, 전지역민의 참여하에 선출하는 등 상하일원적인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 상·중·하계의 구성원에게는 반상(班常)을 고려한 신분질서에 따라 합리적인 상별조목을 제시하고 노병자(老病者)와 여성 등에게도 그에 알맞는 별과를 적용하는 등 매우 적절하리만큼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이처럼 우하영은 『향약설』을 통하여, 당시 사회신분제의 해이로 향폐(鄉弊)와 사풍(邪風)이 조장되고 분열되어가는 향촌사회의 붕괴적 양상에 대처, 향약을 향촌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농촌공동체의 협동적 조직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소농민의 입장에서 서서 향민의 고통을 생각하고 대변하려는 그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여기에 농민해체로 인한 소농층의 농촌이탈이 일반화되고, 나농(懶農)과 잡기·유희(遊戱)의 풍조가 만연되는 농촌현실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농촌지식인이었던 그에게는 매우 우려할 만한 비생산적·반(反)농업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향약을 인보(隣保)와 상호(相助)의 미풍(美風)을 진작시키는 향촌사회의 협동적인 자치조직으로 작동시키는 일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소농민의 입장에서 위기에 직면한 소농민경제를 안정시키는 일이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국부(國富)를 도모하는데 기본바탕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우하영은 남양만 부근에 향촌 일우(一隅)에서 몰락한 반족(班族)으로서 소농이지만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가총람(農家總覽)』·『전제(田制)』·『건도 부산천풍토관액(建都 附山川風土·扼)』 등을 저술할 만큼 농업이론에 정통하고 농민생활에 깊은

58) 『천일록』 권5, 향약설.

59) 앞의 책, 향약설, 도헌절목.

이해자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⁶⁰⁾ 것처럼 그가 향약의 입안은 통하여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협업(協業)과 근검역색(勤儉力穡)하는 농촌기풍을 진작시키려 했음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리고 향약이 당시에 표면화되고 있던 각종의 향폐를 제거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일면 통제, 일면 협동이라는 향촌사회 내의 강력한 자치협약기구로서 소농민을 중심으로 한 상·중·하계의 향촌민에게 보익(補益)이 되도록 배려하는 등 민본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2) 小農經營論과 精農思想

『천일록』을 구성하는 『농가총람』·『전제』·『건도 부산천풍토 관액』과 별책 『관수만록』·『수원유생우하영경륜』 등은 조선후기 수원을 중심으로 한 근기지역의 농업기술 수준과 농업경영·농사관행 등을 담은 전문성 있는 농서이거나 농업관련 저술들이다. 특히 『농가총람』은 전국 차원을 목표로 하되 수원지방의 농업특성을 전제로 우하영의 노동집약적인 소농경영론(小農經營論)과 정농사상(精農思想)을 담은 농서이다. 이 농서는 『산림경제(山林經濟)』를 포함하여 기존의 농서들이 『농사직설』이나 『농가집성』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조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18세기 이래의 새로운 농법과 제배기술을 수용, 저자의 체험적 농업론을 농업개혁의 차원에서 극복하려고 한 것이 특색이다.⁶¹⁾ 그 내용면에서 『농가총람』은 경종법·농지이용론·경지법(耕地法)·시비법(施肥論)·제초론(除草論) 등 농업기술면에서 조선시대 농서의 교과서로 널리 인식되어온 『농사직설』의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농학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은 조선전기 이래 17세기 말까지 삼남에 비하여 토지의 비옥도와 농업기술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수도작의 경우 그 토지조건과 제배기술은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⁶²⁾ 따라서 수원지방의 농업생산방식과 농업관행에 크게 불만을 품고 있던 우하영은 『천일록』의 집필을 통하

여 보다 실천적이고 선진적인 농업기술·농업경영·농업정책론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전국에 걸친 산천유력(山川遊歷)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각 지역의 농업실태와 관행을 조사, 자연·인문환경과 선진농업기술을 비롯한 상업적 농업 등 각 지역의 농업지대적 특성과 장점을 소개하였다. 그의 농업지리서라고 할 수 있는 『건도 부산천풍토관액』은 기전(畿甸, 경기)을 중심으로 북관(北關)·서관(西關)·해서(海西)·관동(關東)·영남(嶺南)·호남(湖南)·탐라(耽羅) 등 각 지역의 군현별 민속·농업·생리(生利) 등을 산업지리적 관점에서 생생하게 기술하였다.⁶³⁾

우하영은 이 저술에서 전국의 지역별 농업환경과 관행을 관찰하고 토지의 비옥도와 농사철후의 조만(早晚), 전답의 비율과 재배작물의 경종방식, 제초와 시비·수리문제, 주곡생산물 외의 농가부업 등을 조사하였다. 지역별 농업관행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에도 그 지역에 따른 토성의 비척(肥瘠)과 농민의 근단(勤惰) 여부를 대비시킴으로써,⁶⁴⁾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이 기본요건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농서는 조선후기의 경기지역, 특히 수원지방의 낙후된 농업기술과 경영형태, 척박한 토성, 이양광작(移秧廣作)과 나농(懶農)풍조 등을 개선되어야 할 결점으로 지적·비판하였다.

13두락이지만 수원향촌에서 직접 소농경영을 영위하면서 노동력 투하를 통해 정경세작의 집약농법을 지향하고 있던 우하영이 경험하고 관찰한 수원지방의 농업현실은 결코 발전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많은 문제점을 지닌 고장이었다.

(수원의) 농업은 모두 나농(懶農)이다. 밭에는 보리와 콩을 심는다. 오로지 벼농사에 힘쓰며 광작(廣作)한다. 직파를 적게 하고 주앙(注秧, 이앙)이 많다. 토지는 척박하고 조세는 과중하며, 백성들은 원대한 계획이 없다.……밭은 일우경(一牛耕)이며, 거름을 주지 않고 또 심경(深耕)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이 아주 적다. 농촌에는 부유한 집이 드물다.⁶⁵⁾

우하영에 의하면, 화성부는 토성이 척박하고 이양광작이 성행하며, 전답에 거름

60)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71~86쪽.

61) 최홍규, 앞의 책, 135~202쪽.

62) 최홍규, 『조선후기 향촌사회 연구』, 일조각, 2001, 194쪽.

63)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72쪽.

64) 김용섭, 「천일록의 농업론」, 『동방학지』 50, 1986.

65) 『천일록』 권1, 『건도 부산천풍토관액』, 畿甸, 화성부.

도 잘 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초에 있어서도 올벼(直播)는 2~3회, 양전(秧田)은 1회에 그치는 등 나농광작의 품조가 성행하는 등 수도작의 농업기술이나 농업관행에 문제가 많았다. 밭은 일우경(一牛耕)으로 추맥파(秋麥播)가 중심을 이루고, 콩 그루같이 등 1년 2작이 보통이며, 다른 경기지역이 그렇듯이 도맥(稻麥) 수전 2모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다른 저술에서도 우하영이,

기전 가운데에서도 본부(화성)의 토성 또한 여주·이천·용인·안성 등 열읍보다 떨어지지만 전부(田賦)는 오히려 다른 읍보다 매우 무겁다.⁶⁶⁾

고 지적했듯이, 조세 또한 토질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우하영이 관찰한 바로는 경기지역의 토성은 삼남은 물론 양서(兩西) 지방보다 아래였으며, 여경(犁耕)·제초·분전(糞田) 등에 소홀하고(나농), 특히 문제는 수리와 토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양광작만을 농사로 삼는데 있었다. 따라서 17세기 말 이후 수원지방에서 성행한 이양광작은 강수량이 적당하거나 시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효를 거두지만, 가물 때는 한재(旱災)를 입어 민인들이 유리(遊離)하는 단서가 된다는 것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다.

18세기 말 당시 수원지방에는 만석거(萬石渠)·만년제(萬年堤)·축만제(祝萬堤) 등 대규모의 수리시설이 축조되고, 또 23개를 헤아리는 기존의 중소 제언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진행되고, 화성부를 비롯한 아문둔전도 곳곳에 설치되는 추세에 있었다.⁶⁷⁾ 이러한 수리시설의 축조와 둔전경영, 그리고 농업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양법 중심의 수전농 경작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광작경영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그 문제점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약적인 소농경영론자였던 우하영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양법의 장점인 수확량의 증대와 제초회수의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아니라 나농광작의 폐단, 곧 전체 농업생산력과 직결되는 토지생산성의 저하에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천일록』에서 개선해야 할 농업론으로 거론한 당시 수원지방에서 행하여

지던 나농과 광작의 폐단은,

근래 민심은 힘써 부지런히 농사지를 개척은 하지 않고 오로지 광작하는 것을 농사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몇 식구 안되는 집에서도 모두 수석락의 논을 부친다. 그래서 畝主로 하여금 失利케 하고, 그 자신은 영리를 얻는다. 이는 참으로 요즈음의 큰 병폐이다.⁶⁸⁾

라는 지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양법이 제초회수의 감소와 수확량면에서 선진농법임에는 틀림없으나, 흔히 광작경영으로 1회의 제초로 그치거나, 시비를 게을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력의 쇠퇴로 토지생산성을 떨어뜨려 농업생산력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의 농업개선책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겸병과 광작경영이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소위 겸병자는 1호의 농가가 수삼호분(數三戶分)의 경작지를 병탈(併奪)하여 수삼호의 궁민(窮民)을 경작할 땅조차 없게 만들고 만다.”⁶⁹⁾는 지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소수의 호(戶)에 의한 토지소유나 경작지 독점은 소농민층의 농민분해와 유민화(流民化)의 큰 단서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로써 우하영과 같은 소농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정농사상(精農思想)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나농 광작자나 겸병자류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존재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18세기 말 당시의 농업현실은 비단 신도시 화성지방 뿐만 아니라 타지역 농촌에서도 일반화된 현상이었으며, 토지겸병과 광작농의 성행으로 소농층의 토지이탈과 소농민간의 치열한 차지경쟁을 유발시켜, 정조대에 홍천(洪川)유생 이광한(李光漢) 등의 대전론(貸田論)이 제안되는 계기도 되었다.

이와 같이 우하영의 농업론은 자신의 향촌인 신도시 화성농촌에 대한 성찰에서 그 입론이 비롯되는 등 지역적 특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남을 비롯한 선진농업지역의 농업기술·농업경영을 항상 대비시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고장의 대다수 농민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향촌과 나라의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농업이론가로서의 실천적 의도를 보여주는 증

66) 『천일록』 권4, 『관수만록』 상편, 田賦變通議.

67) 앞의 책, 79~94쪽.

68) 『관수만록』 하, 九日 廣屯尊民之策.

69) 『천일록』 권10, 『漁樵問答』.

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저작 『관수만록』은 이읍(移邑) 후 행정·산업·성곽 축조 등 제문제를 향촌민의 시각에서 다룬 매우 귀중한 자료이거니와, 18세기 말 수원지방의 농업개혁을 위한 시무론도 이 책 여러 곳에 펼쳐져 있다.⁷⁰⁾

조선시대에 있어서 국가재정과 산업의 기본토대는 물론 향촌사회의 주된 생산활동이 농업이었던 만큼 『천일록』이 차지하고 있는 농학사상의 의의는 물론 지방사적 측면에서도 그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농학사적 측면에서 『천일록』의 농업론은 15세기 시흥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의 농업기술체계를 기술한 『금양잡록』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18세기 말 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의 농업형태와 소농중심의 농업경영론을 특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우하영의 농업론은 전국을 대상으로 그 시대 농업문제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지역의 지방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그 이론을 실제 농사현실에 적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방적 특성은 농민경제의 안정화와 향촌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이 고려된, 즉 향토애와 농민의식이 모든 입론(立論)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천일록』의 농업론은 농업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정책·농업기술·농업경영을 포괄하려고 하였다. 또한 입론의 주체를 소농민에 두고, 그 입장에서 농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새로운 농업기술과 합리적인 농업경영의 적용을 통하여 그의 시대와 향촌사회의 농업생산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데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하영의 농업론은 노동생산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토지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즉 소농중심의 집약적인 정경세작(精耕細作)의 정농사상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상업적 농업론

18세기 말의 수원지방은 정조 13년(1789) 읍치를 옮겨 대대적인 신도시가 건설되고, 역사적인 화성 성곽이 축조되었으며, 화성행궁을 비롯하여 관아·객사·향교·군수고·창사 등과 민가·상가들이 서둘러 건축되고, 도로·교량·역참(驛

站)·점막(店幕)·정자 등 대규모의 도시기반시설이 영건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전(市廛)과 남·북장시가 설치되고, 만석거 등 3대 제언이 수축되는 등 도시 규모와 산업기반 시설면에서 공전의 대변화와 도시적 발전을 거듭하였다.⁷¹⁾ 화성부 주위에는 남양·용인·양지·죽산·안성·이천·음죽 등 곡창지대가 점재되어 있고, 각 지방마다 5일장시가 속속 개설되면서 점차 수원은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특히 이곳 장시에는 쌀·어염·소·채소·담배·종이 등의 집산과 교역량이 많았다.

18세기 말 화성이 근대적 상업도시로서 발전하던 시점은 또한 전국 차원에서 상품화폐경제의 진전과 농업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 먼저 쌀과 같은 주곡의 잉여생산물인 상품화되어 가던 시기였다.

……수원부지역 내의 민인들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오로지 농곡에 있다. 농업 중에서도 가장 힘쓰는 것이 화농(禾農)이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것이 모두 쌀이다.⁷²⁾

이것은 당시 수원 향촌에서 주곡인 쌀의 상품화가 대다수 농민들의 주수입원인을 밝힌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화성부 외촌의 농업사정과 경제형편에 대하여 “농곡으로 돈을 마련하는 까닭에 촌간에서 빚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장리뿐이다”라고 밝힌 대목과 일치, 대다수 수원 향촌민들이 미곡의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팔아 용전(用錢)을 마련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시기 농업생산 분야에서 변화발전의 큰 계기가 된 것은 도시 주변 농민들이 채소·담배·고추 등의 작물을 재배, 이를 상품화하면서부터였다. 쌀의 상품화에 있어서 여주·이천지방 농민들은 올벼(早稻)를 재배하여 많은 소득을 올렸고, 용인에서 재배하는 인삼은 ‘용삼(龍蔘)’으로 불리지면서 담배와 함께⁷³⁾ 중부지방 일대의 장시에서 널리 거래되었다. 수원의 도시적 발전과 함께 주변 농촌에서는 시장을 상대로 채소·담배·목면·마포·모시·양잠 등 상업적 농업을 전업(專業)으

71)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235~276쪽.

72) 『관수만록』 하, 十二日 募民興販之策.

73) 이춘녕, 『한국농학사』, 민음사, 1989, 157~188쪽.

70) 최홍규, 『조선후기 향촌사회 연구』, 47~49쪽.

로 삼는 농가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농작현실을 배경으로 우하영은 주곡 외에 배추·무·미나리 등 소채 같은 상업성 있는 농작물의 재배를 권유하는 등 상업적 농업의 필요성을 적극 권장하였다.

대성명도(大城名都) 등 사람은 많고 토지가 적은 곳은 그 자리(資利)하는 방법이 본래부터 허다하다. 수전으로 벼 10두를 뿌리는 땅에 미나리 2두를 심으면 전 10두락의 이(利)를 획득할 수 있고, 한전으로 보리 10두를 심는 땅에 채소 2두를 심으면 백전 10두락의 이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년 이래로 미나리와 채소를 심고 부내(府內) 팔리가는 도하민인(都下民人)이 도로에 이어지고 있다. 대저 치포(治圃)·종근(種芹)을 업으로 삼는 자는 불과 10여 두락의 밭이나 불과 3,4두락 논이면 5,6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보리나 벼를 농사하는 자는 수일경의 밭이나 10여 두락의 논으로도 4,5식구의 식량조차 힘들다. 모두 흙을 갈아먹고 사는 것인데, 획득하는 제가 이렇게 틀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⁷⁴⁾

이로써 ‘인다지협(人多地狹)’의 도시 근교의 농민들이 그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여 벼 대신 미나리·보리·밀 등 도시민의 부식 수요에 알맞는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면, 작은 토지 경작조건하에서도 곡물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상업적 농업의 장려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변화하는 시대현실을 수용하면서 대다수 소농민의 생활방도와 농촌경제의 진흥을 염두에 둔 소농중심의 농업관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우하영은 또한 자영농이 아닌 차지(借地)병작자의 경우에도 농작물의 선택 재배는 경작자의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민전의 경우는 물론 정조 18년(1794) 화성성역 기간에 수축된 장안문 밖 만석거의 수축과 함께 설치된 대유둔(大有屯, 北屯)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당시 화성 부를 지주로 삼고 부(府)의 외촌 농민들에게 주로 분급해 주는 관행을 개선, 신입한 성내 민인들도 둔전 경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작조건을 확대를 제안하였다.

74) 『관수만록』 하, 八日 輕稅勸農之策.

만약 전세를 가볍게 하여 작인들에게 주어 각자 편한 대로 작업을 하게 하고, 올벼를 심든 늦벼를 심든, 미나리나 무를 심든지 마음대로 경작케 하여 편의에 맡긴다면 백성들은 쉽게 따를 것이니, 그것에 의하여 생업을 삼는 자는 1백 농가를 훨씬 넘을 것이다.⁷⁵⁾

이것은 성내 농민들의 자활책도 될 뿐더러 그 재배작물의 종류도 그 자리(資利)에 따라 경작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소농민의 생리(生利)를 위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우하영의 농가부업 또는 상업적 작물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은, 양잠·목면·모시·생강·양봉·돛자리·닥나무·옻나무·대나무 등으로도 그 종류가 확대되었거니와⁷⁶⁾ 다만 담배의 재배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담배가 당시 대청(對淸)무역의 활발한 전개와 구내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그 재배풍조가 과열되어 있었으므로 전국의 ‘양전옥토(良田沃土)가 남초전화(南草田化)’ 하는 농업현실을 깊이 우려한 결과였다. 아무리 수익성 있는 상업적 작물이라 할지라도 기호품인 담배의 과열된 재배로 인하여 농곡의 경작 면적이 감축되고, 아울러 곡물 생산도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금연초(禁煙草)’의 이유였다.

상업적 농업에 적극적인 입론을 펼친 우하영이 다만 담배 재배에 대해서는 “일체 엄금하여 국내에서 그 종자를 영원히 근절시켜야 한다”⁷⁷⁾는 금연초론자가 된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었다. 즉, 담배의 편중된 재배가 일용작물인 쌀과 잡곡의 생산을 감축시킨다는 논리 이외에도 당시 광작농의 확대로 소농층의 토지이탈이 가중되던 현실에 비추어보면, 소농 중심으로 집약적 농업경영론을 주장하고, 향약과 권농정책 등 농촌공동체의 결속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려던 우하영의 농업진흥론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견해라고 해석된다.

4. 상업진흥론

75) 앞의 책.

76) 『천일록』 권8, 『농가총람』 蠶桑說.

77) 앞의 책, 摠覽終.

1) 신도시 화성의 募民策

이읍과 화성성역 후의 신도시 화성부가 상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첫번째의 과제는 그 구성원인 부민(府民)을 모취(募聚)·충원하는 일이었다. 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정부와 당로자들 사이에서 이주와 민생대책을 비교적 상세히 강구하는 가운데, 도시 번영과 발전을 위한 상공업자들의 모취와 육성책을 여러 경로로 논의한 바 있었다.⁷⁸⁾

수원 향촌에서 이읍과 화성성역의 전과정을 목격했던 우하영은 자신의 지역사회가 신흥 대도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지닌 각 산업 분야에 종사할 민인을 먼저 모취하고, 둘째 읍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셋째 교육을 통한 주민교화 등을 신도시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 급무로 꼽았다.⁷⁹⁾ 우하영은 민인모취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화성을 낙토(樂土)로 인식할 수 있는 도시환경의 여건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시책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신도시 건설 초기인 정조 13년(1789)부터 동왕 24년(1800)까지 정조는 11년간에 걸친 화성경영 기간에 화성과 용인·진위·안산·시흥·과천 등 인근 속읍 민에 대한 신·호역과 환곡의 감면, 지방 초시에서 본시에 이르는 문·무과 별시의 시행, 품계의 가자(加資)와 진휼(賑恤) 등 여러 가지 대민정책을 수시로 베풀었다.⁸⁰⁾ 이러한 대민 특별조치에 부수되어, 이읍 초부터 수원부 외촌이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피역(避役)의 무리가 적지 않았던 듯 당시 우하영이 관찰한 대로 그들은 성내 주민들의 신·호역을 침해하거나 외촌에 도망하여 피역하는 것을 능사로 삼고 있었다.

이제 도하(都下)에 유입된 백성들을 살펴보면, 모두 8도에서 피역을 하고자 온 무리가 대부분이다. 지금 만일 본부(本府)에서 성내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신·호역을 추궁하지 말기를 정하여 그 절목을 만들게 하고, 본부의 외촌으로부터 옮겨온 자로 하여금 각기 그 해당 부처에서 바로 부과된

역을 감면시켜 주며, 각 읍으로부터 옮겨온 자는 각기 그 거주하던 곳의 관(官)으로 하여금 바로 그 소정의 역을 감면케 해준다면, 몇 해 안가서 성내에는 민호가 충만해질 것이니, 반드시 땅이 좁아 용납하기 어렵다고 탄식하게 됨이 있을 것이다.⁸¹⁾

이러한 부 관찰하의 외촌이나 타지역 각읍에서 유입해온 민인들에 대한 피역대책은 당시 심각한 행정적·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그 대책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우하영이 피력한 피역대책의 요지는, 일단 부내로 이주해온 민호에 대해서는, 신·호역을 관장하는 해당 관부에서 일단 면역해 주는 방향으로 대민정책을 펼 것을 충고하고 있다. 그가 파악한 바로는, 우수부(留守府) 승격 이후 부의 외촌민 일부는 비교적 유민층(裕民層)임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각종의 명색(名色)을 모면하고자 자신들의 향촌에서 유리된 것이며, 이는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래 각읍과 이주 전의 해당 관아에서 전력(前歷)을 묻지 말고 면역케 하여 부내에 안접(安接)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우하영에 의하면, 우선 이들 무리들은 “형편에 따라 유도하여 성내를 채우는 일이 마땅하다”는 것이며, 성내의 한광처(閑曠處)만 해도 약 1천 호를 채울 수 있는 까닭에 또다른 모민책을 쓰지 않아도 될 묘책이 된다는 것이다.⁸²⁾

한편 우하영은 이러한 모민책과 함께 화성유수는 장용외사(壯勇外使)를 겸직하고 장용외영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군졸(軍卒)·이졸(吏卒)들의 보급원이 매우 빈약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영(京營)의 예에 따라 요포(料布)와 의자(衣資)를 지급해 주는 등 그 우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모민책으로서의 실효는 물론 유수영다운 위용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2) 市廛과 場市の 설치

정조의 대(對)화성 읍민대책이 점차 실효를 거둔 결과, 당시 구읍치가 위치해 있던 용복면(龍伏面)의 민호가 244호(인구 677명)였던데 비하여, 정조 14년 7월 신

78) 최홍규, 『조선후기 향촌사회 연구』, 95~124쪽.

79)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327쪽.

80) 최홍규, 『조선후기 향촌사회 연구』, 101~104쪽.

81) 『관수만록』 하, 一曰 民人募聚之策.

82) 최홍규, 앞의 책, 104~108쪽 및 『관수만록』 하, 一曰 民人募聚之策.

읍치에 이주해온 민호는 팔달산 기슭의 원주민호 63호를 포함하여 도합 719호에 이를 만큼 1년만에 증가된 민호는 3배에 달하였다.⁸³⁾ 또 우하영이 『천일록』을 집필하던, 화성이 완공된 정조 20년(1796) 전후의 시기에 화성부는 성내 1천 호, 성외 1만 5천여 호의 민호⁸⁴⁾를 거느릴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상업도시·행정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 수 있었다.

신도시 수원을 상업도시로 육성·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유통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먼저 상인을 모취하여 전방(廩房)과 장시(場市)를 개설하고, 정부 차원의 상업활성화를 위한 진흥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읍 초기인 정조 14년 2월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에 의하여 상인 모취책으로 시전(市廩)과 장시 설치안이 제안되었는데,⁸⁵⁾ 이것은 바로 서울의 상업자본가 유치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들 부호(富戶)·부상(富商)들에게 자본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기와집 전방을 개설하려고 한 것은 바로 시장의 상설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보(畿輔)의 대도회(大都會)로서 신도시 화성의 도시적 면모와 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수원과 인근지방에 1월 6장의 5일장을 개설한다면, 수원부 중심의 장시의 상설화를 실현, 주민과 상인들이 스스로 모여들어 읍치의 상업적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 해 5월에는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에 의하여 수원 민인을 중심으로 상공업진흥을 위한 읍치 부양책이 제안되었다. 그의 의견은, 전국에서 부호를 모집하여 전방을 설치하자는 제안은 현재의 수원부 물산 형편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우선 부민(府民) 중 자본이 있고 장사 물정을 아는 자를 선정, 그들에게 아문(衙門)에서 6만냥의 자금을 구획받아 3년을 기한으로 상업자금으로 무이자 융자해 준다면, 모민(募民)과 지역사회의 산업진흥을 위해서도 유효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상인들에게는 전명(廩名)을 주지 않고 상업의 종류도 각자의 자유에 맡기자고 하였다. 이어서 조심태는 조포사(造泡寺)인 용주사(龍珠寺) 승려들의 생활이 빈곤하므로 이들에게 자금을 분급하여 종이와 신발을 만들게 하자는 즉 두부·종이·신발 등 수공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출된 바 있었다.⁸⁶⁾

83) 『水原下指抄錄』 권2, 己酉 9월 26일 및 庚戌 7월 15일.

84) 『천일록』 권4, 『관수만록』 상편 및 『관수만록』 하, 三曰 糶糶均便之策.

85) 『정조실록』, 14년 2월 경오 및 최홍규, 『조선후기 향촌사회 연구』, 105쪽.

아무튼 조심태의 수원민인 중심의 제안에 대해서는 채제공과 우의정 김종수(金鍾秀)가 적극 동조함으로써 마침내 균역청 관하 진흥청(賑恤廳)의 돈 6만 5천냥을 대부받아 신도시 초기의 시전이 설립되고, 성내외에 남·북의 2곳 장시도 개설되어 상업활동의 거점으로 도시적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정조 14년 중반기부터 수원부 성내 관문(官門) 밖에 설치된 시전 각전(各廩)은 다음과 같다.⁸⁷⁾

- ① 입색전(立色廩) …… 관문외로(官門外路) 북쪽에 위치. 각종의 비단을 진열.
- ② 어물전(魚物廩) …… 입색전과 통방(通房)되는 곳에 위치. 생선·과일 등을 진열.
- ③ 목포전(木布廩) …… 관문외로 남쪽에 위치. 백목(白木)·저포(苧布)·목화(木花) 등을 진열
- ④ 염급상전(鹽及床廩) …… 소금·상 등을 진열
- ⑤ 미곡전(米穀廩) …… 관문 밖 동쪽에 위치. 백미(白米)·남초(南草)·면자(麵子) 등을 진열.
- ⑥ 유철전(鎗鐵廩) …… 북리 점(店) 중에 위치.
- ⑦ 관곽전(棺槨廩) …… 미곡전과 통방되는 곳에 위치.
- ⑧ 지혜전(紙鞋廩) …… 관곽전 아래에 위치. 정조 15년에 새로 건립됨.

이들 8개의 시전 상인들은 앞의 실록기사로 미루어 부사 조심태가 당초에 구상했던 대로, 장사 수완이 있고 상업자본이 가능한 여유있는 수원의 민인들 중에서 우선 선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각전들은 이읍초기의 사정과 내용을 기술한 『수원부읍지』에 의하면, 정조 14년 중반기 이후에 ①~⑦의 전방이 설치되고, ⑧의 지혜전은 그 이듬해에 개설되었음이 틀림없다. 특히 이들 시전 가운데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소금과 쌀을 취급하는 각전이었다. 이것은 이 고장이 서쪽으로 남양만을 끼고 있고, 동·남쪽으로 곡창지대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시기 관의 절대적 지원을 받고 있던 이들 각전 상인들에게는 도고(都賈)행위를 허용했던 듯, 초기에는 미곡전 상인들의 미곡도고(米穀都賈)로 인하여 이주해온 소민(小民)들의 실리(失利)가 자못 심하여 한때 이주민이 감

86) 『정조실록』, 14년 5월 정유.

87) 연기미상, 『수원부읍지』 시전.

소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⁸⁸⁾ 그러나 수원은 화성성역이 끝나던 정조 20년 국왕의 특교(特敎)로 장안문 밖에 양재역(良才驛)을 옮겨 대규모의 영화도(迎華道)와 역참(驛站)이 설치되고,⁸⁹⁾ 서울과 수원간의 원행(園幸)을 위한 신작로가 닦여지고, 정부의 대(對)화성 상업육성정책 등이 주효하여 점차 서울 주변의 상품유통 중심지로 발전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3) 상업진흥과 場市育成論

정조 14년 중반부터 시전이 설치되고, 정조 20년 화성 축성을 전후한 시기까지 성내외(城內外)에 남·북장시가 개설되어 신도시 화성이 상업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춘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농업이론가로서 신도시의 건설과정을 지켜봤던 우하영은 좌판행상(坐販行商) 등 상업활동으로 생리(生利)를 얻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업의 육성을 통하여 도시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업진흥론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전진적인 관점을 피력하였다. 신도시 화성의 경우, 우하영은 민업을 발전시키고 모민책과 상업활성화의 방책으로 먼저 염상(鹽商)과 미상(米商)이 지역사정에 유리함을 들어, 다음과 같이 그 요목을 구체화하였다.

첫째, 부내 남·북장시 가운데 염리(鹽利)가 가장 큼을 들어 염상의 진흥·육성책을 이렇게 예시하였다.

지금 부하(府下)의 남·북장시를 보면 염리(鹽利)가 가장 크다. 남시장에서는 평시에도 매장(每場)에 매매되는 양이 항상 100여 마리(馱)가 되며, 만약 3·4월 장 담그는 때나, 8·9월 김장할 때면 하루 팔리는 것이 거의 수백여 바리에 이른다. 지금 부내 민인으로서 염상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변(辦)하고, 말을 장만하여 행상할 수 있는 자는 그 자변(自辦)에 맡기고, 진실로 자판할 수 없는 자는 각기 25냥을 주어, 본전으로 삼아 말을 장만하고 소금을 구해서 행상하도록 한다.⁹⁰⁾

88) 『비변사등록』 정조 15년 신해 정월 및 고동환, 「18·19세기 서울 경강지역의 상업발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3, 48~49쪽.

89) 『華城誌』 권2, 郵驛(최홍규, 『수원·화성군읍지』, 307~311쪽).

90) 『관수만록』 하, 十二日 募民興販之策.

여기에서 우하영이 말하는 남시장(南市場, 현 榮洞市場)은 남문 밖에 개설되어 성외(城外)시장이라 불렸으며, 북시장(北市場)은 북문 안 북수동에 설치되어 성내(城內)시장이라 불리면서 각각 4월·9일과 2월·7일에 개시(開市)되던 5일장을 가리킨다. 이중 성밖 남시장에서 거래되는 소금만 하더라도 비수기에는 매장마다 약 200가마, 3·4월 장 담글 때나 8·9월 김장철 같은 성수기에는 거의 1천여 가마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소금이 남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화성부는 서남쪽으로 어염이 풍부한 남양만을 끼고 있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천일염(天日鹽)이 수원장시에 집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장시나 민인들에게 유통·소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⁹¹⁾

특히 우하영이 권장·육성하려고 하는 염상은 좌판·행상 등의 소상공자를 말하며, 이것은 소농·소상인층을 보호하고 자활(資活)시키려는 그의 일관된 민본주의적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소상공으로서의 염상은 자본 능력 여부에 따라서관(官)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되, 본전의 수봉(收俸)은 장사에 일정한 경험과 요령을 얻는 기간인 3개월 후 매월 1냥씩 30개월에 걸쳐 분납케 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할 때 관에서는 1분의 이익을 거두게 되고, 염상 역시 자생(資生)할 수 있어 상호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흥판자(興販者)가 많아지고, 그들이 장시에 전방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때까지 외촌과 타관(他關)의 행상은 금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할 때 염상으로 나서는 읍민 100여 호의 생리(生利)는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려를 하는 이유는, 부하(府下)민인은 지역사정에 밝아 외촌이나 타관의 행상들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며, 또 장사의 모는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실천할 때 성공을 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⁹²⁾

둘째, 부내의 상업을 활성화시키고 민인이 자리(自利)를 얻을 수 있는 방책으로 미상(米商)을 장려·육성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시 수원지방 농민들의 주소득원은 오로지 곡식에만 의존하고, 그중에서 쌀이 주종(主宗)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현재 미상(米商)에 종사하며 재생(再生)하려는 무리가 많음을 고려, 부민중에서 미상을 희망하는 자를

91)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358쪽.

92) 『관수만록』 하, 十二日 모민흥판지책.

모취하여 앞의 염상의 예에 따라,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에게 25냥을 대부해 주어 생업을 삼게 하고, 또 본전의 수납도 역시 3개월 뒤 매월 분납케 하였다.⁹³⁾

셋째, 관전(官錢)을 빌려주는 일은 상업행위로서 부민의 생리(生利)를 보장하고, 부내 장시를 육성시키려는데 있는 만큼 대부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의 예방도 강구하고자 하였다. 관전을 활용하여 민인의 자활과 상업진흥을 꾀하는 일은 장려할 만한 일이나, 특히 각처에서 유입된 신입호(新入戶)의 경우 실리(失利)하면 관전을 갚지 않고 도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견에 따르면, “비록 신입유호(新入流戶)라 할지라도 능히 집을 지어 인접한 연후에 모취에 응하여 상업을 하기 때문에 25냥의 대부금 때문에 도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 “부하(府下)에 5가작통제(五家作統制)를 엄립하여 그중 뿌리가 깊은 실호(實戶)로써 통수(統首)를 삼고, 진출입하는 자를 통자(統首)와 이임(里任)으로 하여금 보고케” 한다면 도망자는 고발되고, 만일 관채(官債)를 갚지 않고 도망하는 경우는 금도소(禁盜所)에서 즉시 체포할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⁹⁴⁾

우하영의 상업관은 앞의 상업적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그 장려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대부분 농촌에서 이탈된 소민층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지역경제의 번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염상·미상 등 소상인의 상행위도 그것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동종의 타지역 상인의 활동을 금하게 한데서도, 그 지역적 특성과 향토애가 잘 드러나 있다.

4) 浦口상업의 진흥책

18세기 말 계획된 신도시로서 화성이 건설되고 상업도시로서 발전하기 이전, 경기지역만 하더라도 서울·개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안성 읍내장·광주 송과장(松坡場)과 사평장(沙平場)·양주 누원(樓院) 등은 수원에 앞서 상업과 시장기능이 훨씬 활성화된 곳들이었다. 이미 그 지역에는 상설적인 전방(塵房)이나 5일장과 같은 정기적인 장시체제가 틀이 잡혀, 농산물·수공업품·수산물 등 매우 다양화된 상품

들이 큰 규모로 활발하게 교역되었다. 또한 이 시기 한강 연안에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경강상인(京江商人)의 도고(都賈)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수상(水上)·육상운수(陸上運輸) 등 교통의 요지와 물화의 집산지에는 장시가 형성된 바 있었다.⁹⁵⁾

한편 수원이 이음 후 중부지역에 있어서 상품유통의 중심적인 상업도시로 성장하게 된 요인 중에는, 삼남의 요로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조건 외에도 정조의 정기적인 원행을 위하여 신설·보수된 노량진과 수원간의 도로 개통, 영화역(迎華驛)과 같은 대규모 역참의 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조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對)화성 산업진흥정책이 크게 주효하였다. 그러한 조건 외에도 수원은 해안지역을 개발 활용할 경우, 보다 규모가 크고 편리한 상품유통의 중심지로서 발전·번영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즉, 신도시 화성은 전국 시장권의 중심지인 서울 남쪽의 부도(副都)로서 도시적 기능을 가진데다가, 서쪽으로는 품질좋은 어염(魚鹽)과 해조류(海藻類)의 산지이자 해상교통로인 남양만을 끼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실제로 화성성역 당시 전국 각지에서 조달된 성재(城材)의 물자유통이 그곳 구포(鷗浦) 등을 통해 운송, 성역을 원활하게 끝낼 수 있었다. 즉, 성역 당시 목재·철물 등의 물자는 병방선(兵防船), 사선(私船) 및 지주선(地主船) 등 선운(船運)에 의하여 운송됨으로써 치목소(治木所)로서의 기능과 함께 성재의 주요 집결지의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볼 때, 우하영이 자신의 향촌 부근에 위치한 남양만의 포구 빈정포(濱汀浦)의 재개발과 번영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포구상업에 대한 또다른 인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을 요한다. 그는 먼저 상업·수산업의 교역과 해상교통운수 발달의 요지가 되는 곳이 배가 정박하는 포구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곳은 옛부터 수륙(水陸, 항구)의 도회지가 되게 마련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신읍치 화성부로부터 30리 떨어진 지점인 남양만의 구포(鷗浦) 빈정촌(濱汀村) 문제를 본격적으로 예거하였다.

(빈정포는) 이전에 부호(富戶)가 많이 살던 때는 전화(錢貨)가 넉넉한 까닭에 어선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각처 상고(商賈)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근

95) 최홍규, 『조선후기 향촌사회 연구』, 110쪽.

93) 앞의 책.

94) 앞의 책.

년 이래로 점차 패촌(敗村)이 되면서 부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능히 선주인(船主人)이 될 만한 업자가 없다. 때문에 해산물을 실은 상선들이 거의 옮겨가 양성(陽城) 옹포(瓮浦)와 광주(廣州) 송호(松湖, 坡)에 정박하게 되니, 이는 사실상 구포에서는 부호로서 능히 선주인이 될 만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만일 부중(府中) 원거인(元居人) 중에서 근간(勤幹)하고 사리를 아는 몇 사람을 택하여 선주인으로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포 빈정촌에 나와 살게 하며, 넉넉히 관전을 대주어 물주로 삼고 그 선박이 와서 정박하는 대로 급가(給價)케 하고 선인(船人)을 상륙시켜 그들로 하여금 지체함이 없도록 해준다. 그리고 물종은 부중(府中)의 어전(魚廬)으로 운반하여 원근의 상고(商賈)들로 하여금 모두 판매케 한다면, 사방에서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반드시 운집케 되어 포구의 큰 도회지를 이룰 것이다.⁹⁶⁾

그에 의하면, 구포의 빈정촌은 옛부터 남양만의 우수한 포구의 하나로서, 수원을 중심으로 중부지방 일대에 어염을 비롯한 수산물 공급지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특히 전성기에는 상선의 출입도 잦고, 자본을 갖춘 유력한 선주인(船主人)들에 의하여 각처 어상(魚商)들과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도회지를 이루었다. 그러나 『관수만록』이 집필되던 정조 20년(1796)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양성 옹포와 광주 송호(파)가 새로운 포구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원거(元居) 부호인 선주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점차 패촌궁항(敗村窮巷)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부내 어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포구 빈정포의 재개발과 새로운 변영은, 신도시 화성의 상업진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부(官府)에서 어선과 뱃사람들을 정박시키는데 편리와 도움을 주는 제반 시설물과 자본을 갖춘 유력한 선주인의 상업자본을 유치하여 이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러한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상운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포구로서 빈정포의 기능을 먼저 회복시켜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대체로 충청도 면천(沔川) 이북에서 경기도 인천 이남 수백여 리 사이에 상선이 정박하는 곳은 오직 옹포·빈정포·송호 세 곳 뿐이다. 그러나 그 지세로 말한다면 옹포는 궁벽하여 한쪽 모퉁이에 있고, 오직 빈정포와 송호의 해

96) 『관수만록』 하, 十四日 濱江船舶之策.

문은 직접 통하니, 대상인들이 장사할 만한 곳이다. 또 경기좌도 각 읍은 어염의 길이 모두 수원부중에 나아가니, 이제 만일 관전을 급채(給債)해 주어 선주인으로 하여금 빈정촌에 나가 머무르게 하고, 부교(府校) 몇 사람을 옹포와 송호에 파견하여 상선의 출입을 금하게 한다면, 그 형세가 자연 빈정포에 모여 들 것이다.

즉, 그에 의하면 충청도 이북에서 경기도 인천 이남에 있어서 주요 포구는 옹포·빈정포·송호 세 곳인데, 그중 남양만의 빈정포는 어선·상선이 정박하기에 편리하고 상업자본가(선주인)들이 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빈정포에 상선 정박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면, 빈정포의 재흥(再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욱이 이곳은 시전과 장시가 개설된 부중(府中)과는 30리 거리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당시 수원부는 경기·서울·충청도 등 중부권에 어염의 유통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빈정포를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 신도시 화성의 상업변영의 한 방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곳의 포구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염을 타지역보다 염가로 판매·공급한다면, 각 지역의 상인들이 즐겨 모여들어 그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아무튼 우하영이 신도시 화성의 상업진흥책과 관련하여 수원을 비롯한 중부 내륙지방에 소금·생선·해조류 등을 유통·공급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 빈정포라는 포구상업에 주목한 것은 매우 특기할 점이라고 하겠다.

맺음말

18세기 말 화성 신도시 건설은 개혁정치와 왕권강화, 문운의 융성을 아울러 추구하던 계몽군주 정조의 정치력과 문화의식을 그대로 표상하는 것이지만,⁹⁷⁾ 이 시대를 살았던 향촌지식인의 화성관(華城觀)이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무론은 당시 향촌민의 입장이나 향촌사회 각 부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데 매우

97)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35~240쪽.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글이 『천일록』을 저술한 수원부 출신의 취석실(醉石室) 우하영(禹夏永)의 방대한 저술 중 주로 화성 관련 부분을 논의에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며, 18세기 말 근기실학(近畿實學)의 학풍과 향촌사회관을 이해하는데도 일정한 의미가 있을 줄로 안다.

첫째, 18세기 말 대표적인 농업이론가의 한 사람이었던 우하영은 『농가총람(農家總覽)』, 『전제(田制)』 부농정(附農政)·『수원유생우하영경륜』 등을 통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부(國富)의 충실화를 기하려면 먼저 농업생산력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본의식(務本意識)의 고취와 강력한 권농정책을 역설한 바 있었다. 그는 이러한 권농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권농관제(勸農官制)의 활성화와 농관(農官)운영절목의 제정·시행을 요청하였다.⁹⁸⁾ 특히 그는 당시 향촌사회에서 일반화된 비생산적인 나농(懶農)과 유수(遊手)의 풍조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징치(懲治)하는 농촌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이된 향촌사회의 결속과 재흥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풍속교화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농촌의 자치조직으로서 향약(鄉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조선 후기 수원 지방의 향약으로 거의 유일한 우하영의 『향약설』은 근기지역 향촌사회의 실상과 농업진흥 문제와 결부되어 그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좋은 단서가 되어준다고 하겠다.

둘째, 농업정책·농업기술·농업경영을 포괄하는 『천일록』의 농업론은 경기지역, 그중에서도 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적 사정을 짚어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17세기 말 이래 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의 경우, 이양법의 수전농 적용이 일반화되면서 호부층(豪富層)의 토지점병과 광작(廣作)의 확대에 의해 소농민의 분해현상을 향촌사회의 일대 위기로 파악, 특히 나농광작(懶農廣作) 현상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소농층의 토지이탈과 토지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나농풍조는 바로 대다수 소농민을 위협하고, 향촌사회는 물론 국가적으로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정농사상(精農思想)에 입각한 집약적 소농경영론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상품화폐경제의 진전과 신도시 화성이 상업도시로 발전하던 시점에서 상업적 농업의 필요성을 적극 권장하기도 하였다. 즉, 그가 『천일록』 도처에서 주곡(主穀) 중심에서 미나리·무 등 도시근교의 채소농업을 권장한 것이라든

지, 담배를 제외한 목면·인삼·생강·닥나무·대나무·옻나무 등 특용작물의 유용성과 상품화를 주장한 것이 그 예이다. 이것도 발전하는 시대현실에 대한 진진적인 관점과 함께, 소농의 입장에서 농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삼았던 그의 농업론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그는 신도시 화성의 변영과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공업진흥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관점을 드러냈다. 특히 그가 화성의 상공업진흥과 소상인층의 자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강조한 박리다매(薄利多賣)의 보편적인 상해위 인식은 근대적인 시장원리에 접근한 것으로서, 중농적(重農的)인 근기학과 실학의 충실한 계승자인 우하영의 상업관이 농업과 대립되는 측면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그는 지역·가문·당색면에서 안산(安山)에서 학문을 영위하던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학풍과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이나 수공업의 지나친 발전을 억제하고 금속화폐의 유통에 부정적이었던 선배학자 성호와 달리 우하영은 상공업에 대한 보다 진진적인 관점을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즉, 그의 상업관은 소민층의 자생(資生)을 보장하고 사회적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족적(補足的)이면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는 보다 열려있고, 선진적인 현실인식의 징표임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것은 자신의 향촌사회가 지니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변화를 거듭하고 있던 18세기 말 신도시 화성의 도시적 변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상업진흥과 장시육성이 필수요건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업관은 우하영이 『관수만록』을 통하여 화성부의 남·북장시와 주변 5일장시에서 거래되는 어염과 미곡, 그리고 미나리를 비롯한 각종 야채 등의 특용작물이 한층 지방적·도시근교적 특성을 갖춘 상업적 작물임을 내세운 견해와도 일정하게 조응(照應)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화성 향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입론은 『관수만록』 중 여러 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이 저작은 정조대의 화성지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향촌민의 입장에서 향촌사회의 농업·상공업 등을 비롯하여 전제(田制)·환곡·군제(軍制)·성제(城制)·풍속·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점에 대한 처방책(處方策)으로서의 개혁론이 개진되어 있다. 특히 소농민·소상인·군교(軍校)·이서(吏胥) 등 소민층의 입장에서 향촌사회의 문제점과 개혁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98) 『천일록』 권2, 「전제」 부농정 및 「수원유생우하영경륜」 무본.

이 시대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던 화성축조 방략에 있어서도 성읍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내성(內城)과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 방어와 공격성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외성(外城)의 필요성을 주장한 토축(土築)의 내·외성 축성방략론(築城方略論)이 그것이다.⁹⁹⁾ 그밖에도 그는 화성성역 후 독성(禿城)의 철이(撤移)와 목장의 파치(罷置)를 통하여 군교·이서층의 요자(料資)를 마련하자는 제안, 민폐와 불편을 주던 화성의 야금제도(夜禁制度)에 대한 개선책, 전부(田賦)·환곡·신·호역 등 3정 문제와 관련한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 둔전의 설치 운영에 대한 개선책, 화성부로 약환이공(藥丸移貢)을 해야 한다는 논의, 보군고(補軍庫)와 보민고(補民庫)의 운영에 대한 개선책 등 18세기 말 신도시 수원사회가 당면했던 제문제에 대한 실로 구체적인 이고도 다양한 시무론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특히 화성 성곽과 장용외영(壯勇外營)의 설치 등 군사도시로서 비중이 컸던 이 고장의 수공업 진흥을 위해서 화약과 연환(鉛丸)의 공물(貢物)을 화성부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인상적이다.¹⁰⁰⁾ 이읍 초기부터 수원의 수공업 발전을 위하여 4천 냥의 금융지원을 통하여 제지(製紙)의 선진지방인 안성(安城)의 지장(紙匠)을 유치,¹⁰¹⁾ 종이 생산을 활성화하려 했고, 실제로 정조대 중엽 이후 이 고장은 종이 생산을 담당하던 조지소(造紙所)가 용주사(龍珠寺)·지곳리(紙串里)·지소동(紙所洞)에 설치되어, 닥나무의 재배도 본격화되었다.¹⁰²⁾ 수원의 이러한 제지 수공업은 수원부의 시전인 지혜전(紙鞋塵)이 설치되기 전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 같다. 우하영이 『건도 부산천풍토관액(建都 附山川風土關扼)』 등에서 특용작물인 닥나무의 재배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당시의 이러한 수원지방의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99)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311~324쪽.

100) 『관수만록』 하, 十三日 藥丸移貢之策.

101) 『비변사등록』, 정조 16년 3월 8일.

102) 최홍규, 『조선후기 향촌사회 연구』, 107~108쪽.

Abstract

Woo Ha young(禹夏永) of the Hwaseong(華城) development plan in Cheongjo(正祖) Period

Choi Hong-Kyu (Kyonggi Univ. ex-professor)

The aim of the construction of the Hwaseong(華城) in the end of a 18 century is reform and strengthen royal authority. The country districts highbrow of the view of the Hwaseong(華城觀) act as spokesman of village peoples. This paper treats Chuisuksil(醉石室) Woo Ha young(禹夏永) who wrote 『Cheonilrok(千一錄)』 and come from Suwon of the assert the end of a 18 century related to Hwaseong(華城).

It carry an important meaning to understand the academic traditions of the end of a 18 century keungisilhak(近畿實學). First, Through the 『Nongachongram(農家總覽)』, 『Junjae(田制)』, Bunongjeong(附農政) Woo Ha young(禹夏永) who representative agricultural industry theoretician collapsed agricultural economy and eplace the national wealth. He dem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Kwonnonggwwanje(勸農官制) and enforce the Nonggwwan(農官).

Especially He puts bounds to Nanong(懶農) and Yusu(遊手) which desultory at that time. In order to reconstruct and unity weakened country districts society, He assert Hyangyak(鄉約) as a self-administration rural community.

Second, 『Chunilrok』 reflect agricultural policy, farming techniques, agricultural management of the Gyonggi province. As generalized transplantation of rice seedlings He criticize the phenomenon of the Nanonggwangjak(懶農廣作).

He assert peasant management as a Jeongnongsasang(精農思想). He

make an additional remark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 prize money economy and construction of the Hwaseong(華城). Especially He unfold his theory for the peasantry, Gungyo(軍校), Yiseo(吏胥)in various ways.

Keywords: Hwaseong(華城), Woo Ha young(禹夏永), Nanonggwangjak(懶農廣作), Cheonilrok(千一錄), Chuisuksil(醉石室)

檀園 金弘道の 예술활동과 업적, 그리고 華城

이 태 호 (명지대학교 교수, 박물관장) · 박 정 애 (전남대학교 강사)

머리말	2) 『園幸乙卯整理儀軌』 판화
1. 김홍도의 예술활동과 업적	3. 현릉원의 용주사와 김홍도
1) 생애와 예술활동	1) 『父母恩重經』 변상도 판화
2) 회화사에 남긴 업적	2) 대웅전 〈三世如來體幀〉
2. 정조의 화성건설과 김홍도	맺음말
1) 〈西城羽獵〉과 〈間亭品菊〉	

머 리 말

옛 화가 가운데 한국회화사를 대표하는 古典樣式의 완성자를 찾자면, 단연 檀園 金弘道(1745~?)가 떠오른다. 그 만큼 우리 땅과 사람, 그리고 대지에서 자라던 식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정확한 묘사력으로 아름답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김홍도는 謙齋 鄭敼(1676~1759)에 이어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정조(재위 1776~1800) 시절에 주로 활동하였고, 영조(재위 1724~1776) 말부터 순조(재위 1800~1834) 초까지 '國中의 화가'로 명성을 날렸다. 그 때문인지 畫員출신이면서도 비교적 많은 公私의 문헌기록에서 김홍도의 이름이 확인된다.

김홍도에 대해서는, 일찍이 고유섭과 김용준부터 1960~70년대 최순우와 이동주까지 미술사적 위치와 예술세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¹⁾ 1980년대 들어 새로운 사료와 작품들이 속속 발굴되었고, 연구도 깊어졌다. 김홍도의 생애와 활동상

이 적잖이 밝혀졌고, 당시 문화계의 위상을 규명하는 노력도 이어졌다.²⁾

지금까지 축적된 ‘김홍도 연구’의 성과를 훑어보면, 새삼 김홍도의 위대함이 부각된다. 먼저 김홍도가 당대의 문화 지형을 결정하는 데 미친 영향이다. 변형과 과장이 심한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을 현장 사생을 통한 사실적 표현으로 변모시켰고, 풍속화를 회화 경향의 중심으로 정착시켰다. 이를 포함하여 김홍도가 이룩한 전 영역의 회화 형식은 그 이후 화가들의 교과서가 되었다.

김홍도를 키워낸 사회 또한 문화적 지력이 탄탄했다. 김홍도는 이른바 ‘제 때’를 만나 천부의 재능으로 예술적 금자탑을 쌓은 셈이다. 18세기 영, 정조대는 양란으로 인한 전후 복구가 완비된 가운데 일시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보였다. 대외적으로는 폐쇄적이었으면서도 對淸·對江戶의 국제교류 속에서 西學이나 西敎 같은 문물의 유입도 새로운 자극이었다. 농업과 상공업 발달에 따른 경제력 성장을 계기로, 부를 축적한 서민층과 中人계층이 새로운 교양인으로 부상했던 시기이기도 하다.³⁾ 김홍도 같은 화원도 문인들과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역관으로 巨富가 된 金漢泰의 후원이 따르기도 했던 것이다.

김홍도와 수원(화성)의 인연은 정조대 최대 프로젝트인 ‘華城 건설’이라는 大役事의 추진과정에서도 확인된다. 화성사업에 소용된 각종 畫役に 김홍도가 참여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김홍도는 《華城春秋八景圖》처럼 화성의 풍광을 그렸다.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위시한 의궤와 기록화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또 정조의 아버지 莊獻世子(1735~1762)의 능원 이전에 따른 능침사찰 龍珠寺의 大雄殿後佛幀畫와 『父母恩重經』 판화 등 다양한 화성 관련 유물들을 거론할 때면 으레 김

1) 高裕燮, 『朝鮮名人傳』 第2卷, 朝鮮日報社, 1939; 『高裕燮全集』 2, 通文館, 재수록, 341~348쪽, 1993; 金瑤俊, 「단원 김홍도: 조선시대 畫界의 巨星」, 『신천지』, 1950. 1~2; 『近園 金瑤俊 全集』 3, 열화당, 재수록, 2001, 91~128쪽 등.
 2) 崔淳雨, 「金弘道の 在世年代」, 『미술자료』 11호, 국립중앙박물관, 1966. 12; 『檀園 金弘道』 韓國의 美 21, 중앙일보사, 재수록, 1985, 189~192쪽; 李東洲, 「金檀園이라는 畫具」, 『우리나라의 옛그림』, 박영사, 1975, 57~114쪽; 이동주 지음, 『우리나라의 옛그림』, 학고재, 재수록, 1995; 李泰浩, 「金弘道の 眞景山水畫」, 『檀園 金弘道』 韓國의 美 21, 중앙일보사, 1985, 201~212쪽; 俞弘濬, 「檀園 金弘道 研究 노트」, 『檀園 金弘道』, 국립중앙박물관, 1990, 109~122쪽; 吳柱錫, 『檀園 金弘道 - 조선적 인, 너무나 조선적인 화가』, 열화당, 1998; 진준현 지음,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외에 많은 논저와 도록이 있다.
 3) 강만길,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7판);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정옥자 외,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참조.

홍도가 언급되곤 한다.⁴⁾ 동시기 화가 중 화성에 남긴 화적이 가장 많은 인물이 김홍도일 것이다.

1. 김홍도의 예술활동과 업적

1) 생애와 예술활동

김홍도의 자는 士能이고, 호는 西湖·檀園·醉畫士·丹邱 등이다. 본관은 김해로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 문인화가 豹菴 姜世晃(1713~1791)에게 그림을 배웠다 하며, 두 사람 사이의 돈독한 우의는 ‘忘年忘位’의 경지로 발전하며 평생 지속되었다.⁵⁾ 김홍도가 圖畫署에 들어간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10대 후반쯤 학생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1765년 21세 때, 영조가 10월에 베푼 행사장면을 담은 <景賢堂受箭圖> 제작에 참여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⁶⁾

이후 김홍도는 화원의 고유 직분에 속하는 御眞 제작에 세 번이나 참여하였다. 그 첫 번째가 1773년(29세) 때 영조어진과 왕세손(정조)의 초상 제작에 참여한 일이었다.⁷⁾ 두 번째는 1781년(37세) 영조어진의 모사와 정조어진 작업이었고, 세 번째는 10년 후인 1791년(47세) 정조어진 제작이었다. 첫 번째는 일반화사로 참여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主管畫師가 아닌 同參畫師 자격이었다. 두 번째는 선배인 韓宗裕 아래서, 세 번째는 후배인 李命基 아래서 어진제작에 참여하였다. 김홍도가 20대부터 40대까지 거의 10년 주기로 어진 제작에 발탁되었으나, 명성과 달리 주관화사로 한번도 선정되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한편 세번 모두 정조 어진과 관련 있다는 점은 김홍도와 정조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홍도는 그림에 숨겨 있는 자로서 그 이름을 안 지가 오래다. 삼십 년쯤 전

4) 오주석, 「정조 연간의 회화 - 화성과 관련하여」,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박물관, 124~137쪽, 1998에서 매우 개략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
 5) 姜世晃, 『豹菴遺稿』 卷4, 『檀園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본 248~251쪽) 참조.
 6) 吳柱錫, 앞의 책, 1998, 94쪽.
 7) 『承政院日記』, 『乾隆三十八年癸巳 正月二十二日壬子 晴…巳時』

에 나의 초상을 그렸는데, 이로부터 무릇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弘道를 시켜 주관케 하였다.⁸⁾

위의 글은 1773년 왕세손 신분으로 초상화를 그렸던 무렵부터 말년까지, 정조의 김홍도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음을 말해준다. 과장이 섞여 있겠지만, 정조는 불시에 김홍도를 호출하곤 해서 그가 '제 집에 있는 날보다 궁 안에 있을 적이 많았다' 고 한다.⁹⁾ 이러한 사정은 김홍도의 30대 이후 畫歷의 면면을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김홍도는 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강세황과 정조를 만난 행운을 밑거름으로, 비교적 탄탄대로 위에서 畫才를 쏟아낸 예술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활동상이 출중했던 만큼 김홍도는 여러 차례 도화서를 떠나 양반직 벼슬에 임명되었다. 1773년 어진도사 후의 장원서별제를 시작으로 사포서별제·와서별제 같은 벼슬을 받았다.¹⁰⁾ 또 지방관으로 1784년 정월부터 1786년 5월까지 2년여 동안은 경상도 안기역의 찰방을 지냈다.¹¹⁾ 1791년의 어진도사에 참여한 공으로 그해 말부터 1795년 초까지 만 3년간 충청도 연풍현감으로 재임하였다. 그러나 중매를 즐기고 아전들에게 가축을 상납케 했으며, 장정들을 동원하여 사냥한 죄과 등으로 결국 불명예스럽게 현감직에서 물러났다고 전한다.¹²⁾ 이는 김홍도가 양반 벼슬아치로서의 자긍심을 과용한 결과이기도 하려니와 당시 여타의 양반층 수령들의 행적을 본뜬 듯하여 흥미롭다. 어찌 보면 자신이 하고픈 대로 행동한 김홍도의 예술가다운 면모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교유관계의 폭이 확장되었음은 물론이요 화풍의 변화도 수반되었다.

김홍도의 회화세계를 일변시키는 계기는 1788년(44세) 정조의 어명에 따라 선배인 復軒 金應煥(1742~1789)과 함께 嶺東과 金剛山 일대의 紀行寫景에 나선 일이다. 이 때 김홍도는 회양에 머물던 스승 강세황과 잠시 조우하기도 하면서 수십 일

에 걸쳐 백여 폭의 草本을 그렸다. 초본을 토대로 絹本彩色 두루마리와 畫帖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당시의 완성본으로 확실시되는 작품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간 동안의 직접적인 실경 체험 이후 眞景山水를 비롯한 산수화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1789년(정조 13) 冬至正使로 예정되어 있던 李性源(1725~1790)이 김홍도와 이 명기를 冬至使行의 일원에 포함시켜 달라고 奏請하여 윤허받은 사실이 주목된다.¹³⁾ 김홍도는 금강산과 관동지역에 이어 왕복 사행길에 평양을 비롯한 關西 일대의 실경을 만났을 것이다. 또한 당시 동아시아의 맹주국이었던 청의 발달된 문물을 접하면서 견문을 넓혔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성원의 일행은 다음해 2월 20일 귀국 보고회를 가졌다. 당시 정사 이성원은 1789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19일까지 북경에서 있었던 일 중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날짜를 밝히며 소상히 보고하였고, 선물로 받은 전쟁기록화 <戰圖> 16폭을 진상하기도 했다.¹⁴⁾ 그런데 김홍도가 이 사행길에 그림을 그렸다가거나 청 회화와의 영향관계 등 김홍도와 관련된 다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성원이 귀국 후 한 달여 만인 4월 1일 세상을 떠났던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¹⁵⁾

교유관계로 미루어 볼 때 김홍도의 행보는 동시기 여느 화가보다도 폭이 넓고 두터웠다. 위로 군왕과 사대부 문인으로부터 같은 처지의 중인과 화원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사대부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림의 주문자로서 김홍도를 찾았고, 지방관 재직 이후에는 詩會雅集을 함께 하는 風流客의 일원으로 만나기도 했다. 우선 南人과 小北 인사들과 친밀했는데, 강세황을 비롯해 鄭範祖(1723~1801), 申光洙(1712~1775)·申光河(1729~1796) 형제, 李用休(1708~1782), 鄭灑(1725~?)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김홍도가 그림 외에 詩書樂 같은 교양을 쌓고 자기 화풍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 李漢鎭(1732~1815), 李德懋(1741~1793), 李光燮(1760년 경~?), 徐常修(1735~1793) 등 北學派 계열 인사들도 포함되었다. 안기찰방 시절인 1784년 8월, 김홍도는 흥해군수 成大中(1732~1812), 관찰사 李秉模

8) 『弘齋全書』卷7, 「謹和朱夫子詩」 “金弘道工於畫者 知其名久矣 三十年前圖眞 自是凡屬繪事 皆使弘道主之”

9) 申光河, 『震澤集』卷9, 「題丁大夫乞畫金弘道」; 吳柱錫, 앞의 책, 1998, 253쪽 주)10.

10) 진준현, 앞의 책, 1999, 21~30쪽 참조.

11) 유홍준, 앞의 논문, 1990, 113~114쪽; 同著, 「察訪시절의 檀園 金弘道」, 『월간미술』 2월호, 중앙일보사, 1995, 74~79쪽.

12) 연풍현감 재직과 관련된 내용은 吳柱錫, 앞의 책, 1998, 182~201쪽; 진준현, 앞의 책, 1999, 51~58쪽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13) 『日省錄』 正祖十三年己酉 八月十四日條 “性源以冬至正使啓言 金弘道 李命祺 今當奉去 元窠無推移之道 金弘道則請以臣軍官 加啓請 李命祺則當次畫師外加定 奉去 從之”; 『承政院日記』, 「乾隆五十四年己酉 八月 十四日丁卯」條; 吳柱錫, 앞의 책, 1998, 170쪽.

14) 『正祖實錄』 권29, 正祖 14년 2월 20일 辛未(영인본 46책 96쪽).

15) 『正祖實錄』 권29, 正祖 14년 4월 1일 辛亥(영인본 46책 117쪽).

(1742~1806), 봉화현감 沈公著 등과 경상도 청량산에 모여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¹⁶⁾ 또 이광섭은 1792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하여 연풍현감을 지내고 있던 김홍도와 이한진, 黃運祚(1730~?) 등을 불러 청주에서 西原雅集을 가졌다.¹⁷⁾

김홍도는 洪愼猷(1722~?)와 馬聖麟(1727~1798), 그리고 松石園詩社 회원인 朴允默(1771~1849) 등 신분적 입장이 같은 閩巷文士들과 친교했다. 1791년에는 그들의 시회 모습을 담은 <松石園詩社夜宴圖>를 그려주었다. 이와 더불어 서화를 애호했던 徐直修(1735~?)나 洪儀詠(1750~1815), 南公轍(1760~1840), 曹允亨(1725~1799) 등도 김홍도의 재주를 인정하고 교유했던 인물에 속한다. 醫官 출신으로 서화와 골동을 수집했던 대수장가 金光國(1727~?)이나 譯官 李敏植(1755~?)과 金漢泰(1762~1823) 등도 적극적인 후원자였다.¹⁸⁾

김홍도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동료 혹은 선후배 화원 화가들 모두 일가를 이루었다. 1788년 금강산 사경에 동행했던 김응환, 초상화로 이름난 卞相璧이나 申漢枰(1726~?) 등의 선배화가가 있는가 하면, 동갑내기 동료화원 李寅文(1745~1822)이나 어진과 초상화를 합작했던 李命基(1756~?)가 그들이다. 이들 속에서 특히 김홍도의 화풍은 18세기 후반 화단은 물론 19세기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시대양식'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다졌다. 그만큼 김홍도는 후배화원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김홍도는 정조 시절 1783년(정조7) 확립된 差備待令畫員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비대령화원제도는 도화서 화원 중 뛰어난 자들을 선발하여 奎章閣에 소속시키고 왕이 몸소 시험하고 관할하면서 중요 繪事를 담당케 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화단에서 내로라하는 화원화가들이 거명되었다. 그런데 정조 재위 기간 동안 치러진 祿取才에서는 단 한 차례도 김홍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정조가 김홍도를 열외의 화가로 대우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의문점도 없지 않다. 순조대 들어서야 자비대령화원으로 差定되었지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¹⁹⁾ 개성김씨나 인동장씨 등 화원 가문의 형성에 따른 힘에 밀렸던 게 아닌

16) 成大中, 『靑城集』 권6, 『靑涼山記』; 吳柱錫, 앞의 책, 1998, 129~133쪽.

17) 李奎象, 『一夢稿』所收『并世才彥錄』, 『書家錄』; 俞弘濬, 앞의 논문, 1990, 115~116쪽.

18) 김홍도와 해당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교유 내용에 대해서는 吳柱錫, 앞의 책, 1998; 진준현, 앞의 책, 1999, 71~107쪽 참조.

가 싶기도 하다.

2) 회화사에 남긴 업적

조선후기, 영·정조 연間は 미술뿐 아니라 역사·지리 등 국학과 실학, 애정소설·사설시조 등의 문학, 서예,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조선풍과 독창성이 두드러졌던 때이다.²⁰⁾ 그 중 회화 분야를 선도했던 인물은 정선과 김홍도이다. 정선이 18세기 전반 영조대의 대표 주자였다면, 김홍도는 18세기 후반 정조대를 평정한 화가였다. 김홍도는 딱히 어느 한 가지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그림 영역에서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다.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초상화와 기록화, 장식화 같은 실용화는 물론이고 사대부 민간의 요청에 따른 각종 감상화까지 두루 섭렵하며 神妙한 경지에 도달한 대가였다. 강세황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고금의 화가가 각기 한 가지 능력을 떨쳤지 두루 솜씨를 겸할 수는 없었는데, 金君 士能은 근래 우리나라에 나서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배워 못하는 것이 없으니 인물, 산수, 신선과 불교그림, 꽃과 과실나무, 새와 벌레, 물고기 등 그림이 모두 妙品에 드는 데 이르렀다. 옛 사람에 비한다 해도 거의 더불어 대항할 이가 없을 것이다.²¹⁾

김홍도가 다양한 제재를 다루면서도 각 부문의 발전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는 점에서 강세황의 상찬에 수궁이 간다. 산수화의 경우, 초기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畫譜를 참조하여 그린 定型山水가 대부분이었으나 1788년에 가졌던 기행사경 체험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 眞景山水의 비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筆墨法도 一新하

19) 姜寬植, 『朝鮮後期 奎章閣 差備待令畫員制』, 『澗松文華』 47, 1994, 50~97쪽; 同著,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을 중심으로』 상·하, 돌베개, 2001; 吳柱錫, 위의 책, 1998, 24쪽 및 216~226쪽 참조.

20) 이태호, 『18~19세기 회화의 조선풍·독창성·사실정신』, 『역사비평』 계간 23호, 1993년 겨울;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교재, 재수록, 1996, 11~39쪽.

21) 姜世晃, 『豹菴遺稿』 卷4, 『檀園記』 “古今畫家 各擅一能 未能兼工 金君士能 生於東方近時 自幼治繪事 無所不能 至於人物山水仙佛花果禽蟲魚蟹 皆入妙品 比之於古人 殆無可與爲抗者” 번역문은 吳柱錫, 앞의 책, 1998, 68~69쪽에서 재인용.



도 1
金弘道, 《疏林明月》, 《丙辰年畫帖》, 1796년, 지본담채, 26.7×31.6cm, 삼성미술관 리움

였다. 김홍도는 18세기 전반 정선에 의해 정형화된 진경산수 화법을 계승하면서 18세기 후반의 新風을 가미하여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정선과 마찬가지로 금강산과 관동지역, 단양 일대의 명승지를 그리는 한편 시야를 더욱 확장하여 《疏林明月》과 같은 평이한 경관까지 화면 속으로 끌어들었다(도 1).²²⁾ 또 과장과 변형을 통해 현장의 감동을 회화적으로 승화시킨 정선과 달리, 김홍도는 시각적 사실성에 근사한 구도와 화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상 재현에 충실을 기하고자 했다(도 2). 이전 시대에 비해 널리 확산된 서양화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도 2
金弘道, 《叢石亭》, 견본담채 91.4×41.0cm, 간송미술관

김홍도는 정선에 비해 치밀한 묘사를 추구하면서도 1795년 작 《乙卯年畫帖》이나 1796년 작 《丙辰年畫帖》에서 볼 수 있듯이 필묵의 농담과 강약을 자유자재로 변주할 수 있는 탁월한 기량의 소유자였다(도 3). 아울러 맑고 해사한 淡彩를 써서 서정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정조대 문예계의 성격을 대변해 준다. 정조가 건설한 신도시 화성의 경관을 대상으로 한 그림이나 판화도 이와 같은 진경산수의 범주에 속한다.

김홍도는 널리 알려진 대로 風俗畫의 예술성을 높였고, 조선 사람의 인물표현의 고전적 전형을 완성시킨 장본인이다. 18세기 전반 尹斗緒(1668~1715)와 趙榮祜(1681~1761) 같은 문인화가에 의해 시도된 당

시 사람들의 일상과 세태를 담은 그림이 김홍도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정조 시절 풍속화는 상업경제의 발달에 따른 中庶계층의 부상을 기반으로 수요가 증대되었고, 규장각 자비대령화원의 녹취재에서 試題로 채택되는 등 상하를 막론하고 관심을 끌었다.²³⁾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檀園風俗畫帖》과 같은 김홍도의 풍속화에는 비스듬히 俯瞰하여 인물의 자세와 동작을 정리한 원형과 사선 구도의 여유로움이 담겨 있다(도 4). 근경에 뒷모습의 인물을 등장시켜 관객의 시선과 일치시키거나 다른 장면으로 이동시키는 동선을 설정했다. 또 성별·계층·연령·직업에 걸맞도록 복식과 자세, 표정 등을 밀도 있게 포착해 냈다.²⁴⁾ 그리하여 당대인들로부터 “세속의 모습을 옮겨 그리기를 잘했는데 …한번 그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신기하다고 외치지 않는 이가 없었다”²⁵⁾ 하거나 “특히 당시 세속의 모습과 양태를 잘 그려 세상에서 俗畫體라 일컫는다. 무릇 정신이 법도 가운데서 자유로이 훨훨 날아다니는 경지”²⁶⁾라는 평가를 받았다.

풍속화와 마찬가지로 인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詩會雅集圖나 道釋·故事人物畫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김홍도는 40대 이전 초기에 주로 풍속화와 함께 신선도를 많이 그렸다. 정조의 명을 받고 궁중의 벽에 《海上群仙圖》 벽화를 그렸다는 기록도 그 연장선상



도 3
金弘道, 《玉筍峯》, 《丙辰年畫帖》, 1796년, 지본담채, 26.7×31.6cm, 삼성미술관 리움



도 4
金弘道, 《씨름》, 《風俗圖帖》 중, 지본담채, 27.0×22.7cm, 국립중앙박물관

23) 강관식, 앞의 책 상, 돌베개, 2001, 243~275쪽.
24) 이태호, 『풍속화』 (돌), 대원사, 1996, 6~39쪽.
25) 姜世晃, 『豹菴遺稿』, 『檀園記又一本』.
26) 李奎象, 『一夢稿』 所收 『并世才彥錄』, 『畫廚錄』.

22) 이태호, 「정선 진경산수화풍의 계승과 변모」, 『한국미술사논문집』 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同著,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재수록, 1996, 83~108쪽; 同著, 「金弘道の 眞景山水畫」, 1985, 204~212쪽 참조.



도 5
金弘道, 《松下仙人吹笙》, 견본담채,
109.0×55.0cm,
고려대학교박물관

에 있다.²⁷⁾ 대개 중국의 역사나 고전, 문학에 등장하는 성현을 주제로 삼은 고사인물화도 말년까지 꾸준히 제작하였다(도 5). 감상용 도석·고사인물화는 양란 이후, 특히 18세기를 전후하여 인기를 얻은 주제였다. 윤두서와 윤덕희 부자, 그리고 沈師正(1707~1769) 같은 문인화가에 이어 김홍도를 거치며 크게 발전하였다. 정조대 자비대령화원 녹취재의 인물화 부문 화제로도 고사와 도석이 상당수 출제되어 당시 화단의 유행을 짐작할 수 있다.²⁸⁾ 김홍도의 작품은 고사와 도석이 섞인 채 한 질을 이루고 있거나 도상이 모호하여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인다. 이는 18~19세기 고사·도석인물화 전반에 걸치는 특징이기도 하다. 도상뿐 아니라 옷주름 표현 같은 세부 기법 면에서도 김홍도의 화법에 기댄 자취가 확인하다.²⁹⁾

김홍도는 花鳥와 翎毛, 魚蟹를 다루는 솜씨도 탁월하였다. 화조화의 경우 초기에 화원체로 꼼꼼하게

묘사하던 경향이 후기로 가면서 여유롭고 시정 넘치는 필묵과 담채의 방식으로 변화하였다(도 6). 이 외에 정조대 간행된 서적의 삽도로 쓰인 관화와 용주사 후불탱과 같은 정통 불화까지도 김홍도와 연관되는 작품으로 논의되는 데서 18세기 후반 화단에서 차지하는 김홍도의 비중을 짐작케 한다.

김홍도의 회화세계는 1788년에 가진 금강산 寫景을 전기로 삼아 50대 이후 말년에는 그때까지 연마해 온 각종 화제를 종합하여 독자적인 畫境을 구축하기에 이른

27) 趙熙龍, 『壺山外史』, 『金弘道傳』; 吳柱錫, 앞의 책, 1998, 252~253쪽 주)8 참조. 『弘齋全書』 권1, 『春邸錄』 1에 실린 正祖의 詩(壁畫)의 내용 역시 神仙圖에 관한 것이어서 英祖代에도 궁중에 신선도 벽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28) 강관식, 앞의 책 상, 2001, 137~243쪽.

29) 진준현, 앞의 책, 1999, 430~527쪽; 李京熹, 『純·高宗時代 道釋人物畫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이태호·박정애·이영열, 『琳田 趙廷奎·小琳 趙錫晉·小亭 卞寬植의 회화』, 『전통회화 명문가 3인전-琳田·小琳·小亭』, 동산방, 2006. 11, 56~58쪽.



도 6
金弘道, 《春鵲報喜》, 《丙辰年畫帖》,
1796년, 지본담채,
26.7×31.6cm,
삼성미술관 리움



도 7
金弘道, 《涉牛圖》, 《丙辰年畫帖》,
1796년, 지본담채,
26.7×31.6cm,
삼성미술관 리움

다. 한 화면에 진경산수·풍속·화조 등 여러 소재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서 그 모든 요소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특유의 조선풍을 창출해낸 것이다(도 7). 또 김홍도 이전의 진경산수에 형식적으로 등장했던 점경인물들이 구체적이고 자상한 일화거리로 표현되었다. 적절한 방식으로 새나 소, 말 등을 배치한 점도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丙辰年畫帖》을 비롯한 50대 이후의 작품들에서 풍속이나 산수 혹은 진경산수라는 경계를 나눌 필요가 없는, 김홍도만의 개성이 창출된 것이다.

김홍도의 회화는 제재와 화풍, 질과 양 면에서 당시 화단의 모범이자 전형으로서 당대 및 후대 화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임치욱·김득신·김석신·신윤복·조정규·장한중·이재관·이유신·김하중·백은배·이한철·장승업 등 ‘김홍도 일파’를 형성시켰다. 한편 일부에서 김홍도의 진작으로 간주하는 금강산 그림을 비롯한 수많은 임모본 금강산 그림들도 김홍도의 위상을 엿보게 하는 증거이다.³⁰⁾ 덧붙여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김홍도의 贋作들이 존재하는 사실은 그의 이름이 지닌 예술사적 무게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0) 박은순, 『금강산도 연구』, 일지사, 1997, 329~352쪽; 이태호,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여운 - 이풍익의 『동유첩』에 실린 금강산 그림들』, 이풍익 지음, 이충구·이성민 옮김, 『東遊帖』,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310~329쪽 참조.

2. 정조의 화성건설과 김홍도

정조 시절의 문화적 업적으로는 규장각 설치와 화성건설을 꼽는다. 정조는 1776년 즉위하던 해 창덕궁 북원에 奎章閣을 설치하여 통치이념을 실현시키는 통로로 삼았다. 학술기관이자 정치기관으로 확장 재정비하여 弘文館과 承政院의 기능을 수렴하게 하였으며, '右文之治'의 실현으로 규장각 抄啓文臣제도를 마련하여 사대부 문사는 물론 서얼과 중서층까지 포용하는 인재등용책을 실천하였다.³¹⁾ 회화사와 관련해서는 규장각 안에 差備待命畫員제도를 만들어 궁중의 중요 圖畫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정조는 중국서적의 수집에 적극 나서는 한편 鑄字所를 왕실의 출판 기구인 校書館에 합속시켰다.³²⁾ 1782년에는 아예 규장각의 外閣으로 편입시켜 壬辰字와 整理字 등 각종 활자를 주조하게 하였고, 적극적으로 판화서 간행을 독려하였다. 그리하여 한국미술사상 '판화의 시대'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하고 수준 높은 판화들이 제작되었다. 이들은 정조가 재위 20년이 되는 1795년, 부친 思悼世子の 顯隆園 展拜와 모친 惠慶宮 洪氏의 환갑잔치를 겸해서 가진 8일간의 화성행차를 시작으로 치세 후반기에 집중되었다.³³⁾

정조는 1794년(정조 18) 정월, 10년 계획으로 화성 신도시 건설이라는 장기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정을 3분의 1로 단축시켜 실제 공사기간 28개월 만인 1796년(정조 20) 10월에 마무리하였다. 당시의 경제력과 문화적 역량이 총 동원된 화성은, 명실상부하게 왕조의 중흥과 왕권 강화의 표상으로서 위용을 드러낸 사업이었다.³⁴⁾ 대규모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정리해 1796년 편찬한 『華城城役儀軌』(1801년 간행)와 1795년의 원행 행사를 정리한 『원행을묘정리의궤』(1797년 간행)를 편찬케 하여 후세에 전함으로써 기록유산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제작된 회화나 판화뿐 아니라 축성과 건축, 그 작업에 쓰인 과학기술 등은 당대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31)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2001.

32) 강혜영, 「朝鮮朝 正祖의 書籍募集政策에 관한 研究 : 奎章閣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33) 李惠敬, 「正祖時代 官版本 版畫 研究」, 『미술사 연구』 제20호, 미술사연구회, 2006, 237~272쪽.

34) 유봉학·김동욱·조성을, 『정조시대 화성 신도시의 건설』, 백산서당, 2001 참조.

화성과 관련된 회화작품은 화성의 경관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과 화성에 전하는 그림으로 나눌 수 있다. 《華城秋八景圖》의 일부로 알려진 김홍도의 〈西城羽獵〉과 〈閒亭品菊〉이나 의궤의 판화들이 전자에 속한다면, 용주사에 전하는 『부모은중경』 원판이나 《花卉圖屏》, 그리고 대웅전 〈三世如來體禪〉이 후자에 포함될 것이다.³⁵⁾ 다른 한편 기록에서만 확인되는 작품도 정조에게 진상되었던 《華城春秋八景圖》와 〈華城全圖〉 등 상당량에 달한다. 이외에도 화성행궁에 쓰였던 「金鷄畫屏」에 대한 李裕元의 아래 글을 보면, 정조의 명으로 그린 김홍도의 닭 그림 이야기가 흥미를 끈다. 이유원이 묘사한 화면의 내용은 〈금계화병〉이 전형적인 일본풍 채색장식화였음을 알려준다.

그림 잘하는 倭人의 작품이다. 단풍나무 아래 노란 국화가 활짝 피어 있고, 난초와 대나무가 간간이 있는데, 바위 위에서 금빛 닭이 아침을 알리니 바다 빛이 아련하다. 이것은 과연 명화로서 정조 임금 때 김홍도에게 명하여 한 벌을 모사케 한 것이 화성의 行宮에 있었다. 그림에 보이는 뜻과 생각은 樂府詩 가운데 〈黃鷄曲〉에서 얻었다.³⁶⁾

1) 〈西城羽獵〉과 〈閒亭品菊〉

김홍도의 화성 관련 대표적인 화적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西城羽獵〉과 〈閒亭品菊〉이다(도 9, 도 14).³⁷⁾ 두 작품은 《華城春秋八景圖》 중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을풍경이니 《화성추팔경도》 8폭 중 두 폭에 해당하는 것일 게다.³⁸⁾ 한편 이 작품의 제작과 그 계기는 『화성성역의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96년에 편찬(1801년 간행)된 『화성성역의궤』 권6 「財用下」에 실린 '사들인 그림병풍 및 당랑

35) 이외에 용주사 소장 《花卉圖屏》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종원, 『수원성 이백년사』, 월간경기, 1994, 30쪽; 『용주사 효행박물관』, 용주사효행박물관, 2005, 94~95쪽에 사진이 실려 있다.

36) 李裕元, 『林下筆記』 卷30, 「金鷄畫屏」; 吳柱錫, 「金弘道の 龍珠寺 〈三世如來體禪〉과 〈七星如來四方七星帳〉」, 『美術資料』 제55호, 국립중앙박물관, 1995, 114~116쪽.

37) 필자는 이 작품의 분위기가 인왕산에서 본 북한산 일대의 풍경과 유사하여 도성을 그린 것으로 착각한 적이 있다. 이태호, 『그림으로 본 옛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6, 147~148쪽.

38) 吳柱錫, 앞의 책, 1998, 256쪽 주)21 참조.

계의 병풍(內入畫屏及堂郎稷屏)의 내용이 그것이다.

사들인 큰 병풍 3좌(비단 바탕에 화성전도를 그린 것 매좌 값이 150냥), 행궁에 설치한 중병풍 2좌(비단 바탕에 화성의 춘추팔경을 그린 것 매좌 값이 50냥)○봄의 팔경은 화산의 상서로운 노을, 버드내의 맑은 연기, 오교의 꽃 구경, 길야의 뽕나무 감상, 신평의 술모임, 대유의 농요, 영화역의 흠어진 망아지, 연꽃 물가에 떠있는 백로이고, 가을 팔경은 화홍문의 흰 비단 같은 물보라, 만석거의 누런 곡식, 용연의 갠 달, 거북바위에 비치는 낙조, 서성의 매사냥, 동대의 따오기, 미로한정의 국화 감상, 화양루의 눈 감상. 이상의 값이 550냥. / 分兒한 큰 병풍이 6좌(비단 바탕에 화성의 전도를 그린 것 값 100냥)○총리대신 1원, 도청 1원, 책응도청 1원, 전도청 1원, 잡물도청 1원, 이상이 각각 1좌), 府上의 큰 병풍이 2좌(1좌는 비단 바탕이고, 1좌는 종이에 그렸는데 그림은 위와 같고 값은 30냥). 이상의 값이 730냥. / 分兒한 중족자 30벌(종이 바탕에 화성전도를 그렸는데 값이 5냥)○감독이 19원, 별간역 2원, 간역 4원, 경감관 5원에게 각각 1벌). 값 150냥. / 도합 1,430냥.³⁹⁾

위의 기록은 화성 건설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그림이 제작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들은 궁궐과 화성행궁, 화성유수부에 올리지거나 대신과 관리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려졌다. 병풍은 대병과 중병을 합쳐 13좌이고, 족자가 30건인데, 이는 다시 재료에 따라 비단과 종으로 나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때 그려진 것으로 확실시되는 작품은 알려져 있지 않다. 『화성성역의궤』에 판화 <화성전도>가 실려 있을 뿐이다(도 8). <화성춘팔경도>는 행궁에 설치한 중병 2좌이다. 春八景과 秋八景을 각각 8폭의 병풍에 그린 것이다. 또 城役に 참여한 화공의 경우 賞典 항목에서 김홍도 화공을 충실히 배운 嚴致郁의 성명만 확인될 뿐 實名이 부재하여 판화의

39) 『華城城役儀軌』卷6, 「財用下」 “內入大扉三坐(納本華城全圖 每坐價錢一百五十兩) 行宮排設中扉二坐(納本華城春秋八景圖 每坐價錢五十兩) ○春八景 花山瑞靄 柳川晴烟 午橋尋花 吉野觀桑 新豐社酒 大有農歌 華郵散駒 荷汀泛鷁 秋八景 虹渚素練 石渠黃雲 龍淵霽月 龜巖返照 西城羽獵 東臺畫鵠 閒亭品菊 陽樓賞雪) 以上價錢五百五十兩 ○分兒大扉六坐(納本華城全圖 每坐價錢一百兩) ○總理大臣一員 堂上一員 都廳一員 策應都廳 前都廳 各一員 雜物都廳一員 以上各一坐) 府上大扉二坐(一坐納本一坐紙本 圖上同 價錢三十兩) 以上價錢七百三十兩 ○分兒中簇子三十件(紙本華城全圖 每件價錢五兩) ○監董十九員 別看役二員 看役四員 京監官五員 各一件) 價錢一百五十兩 ○合價錢一千四百三十兩” 번역문은 『화성성역의궤 국역증보판 하·부록』, 경기문화재단, 2005, 652~653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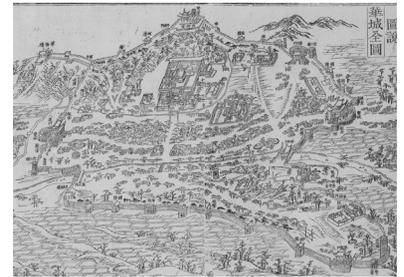
40) 朴廷蕙, 「『華城城役儀軌』의 회화사적 고찰」, 『震檀學報』 제93호, 震檀學會, 2002, 413~471쪽.

밑그림을 제작한 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⁴⁰⁾

<화성춘팔경도>의 여덟 경치는 花山瑞靄·柳川晴烟·午橋尋花·吉野觀桑·新豐社酒·大有農歌·華郵散駒·荷汀泛鷁이다. 또 <화성추팔경도>의 여덟 경치는 虹渚素練·石渠黃雲·龍淵霽月·龜巖返照·西城羽獵·東臺畫鵠·閒亭品菊·陽樓賞雪이다.⁴¹⁾ <서성우렵>과 <한정품국>은 秋八景에 포함되어 있다. 어쨌든 현전하는 <서성우렵>과 <한정품국>은 여백의 畫題나 그려진 내용이 기록과 일치하는 작품이다. 또한 단정한 예서체 화제 아래 “臣弘道”와 “醉畫士印”이라 새겨진 두 과의 인장이 찍혀 있어 진상품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⁴²⁾

<西城羽獵>은 ‘서성에서 벌어진 매사냥’ 장면을 담은 그림이다(도 9). 팔달산 꼭대기에 세워진 西將臺를 중심으로 주변의 광활한 풍치를 담은 한 폭의 진경산수화이다. 서성은 화성의 서문에 해당하는 華西門을 연결짓는 성곽을 가리키는데, 화면의 하부 오른쪽 끝에 그 門樓의 일부가 보인다. 사냥 장면은 팔달산 너머 평원에서 말 달리며 짐승을 쫓는 점경인물들과 서장대 마당에 삼삼오오 모여 사냥을 구경하는 듯한 사대부 복식의 점경인물들을 통해 희미하게 전달될 뿐이다.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팔달산 산마루에 위치한 서장대에서 굽어보면 팔방이 통하여 石城山과 皇橋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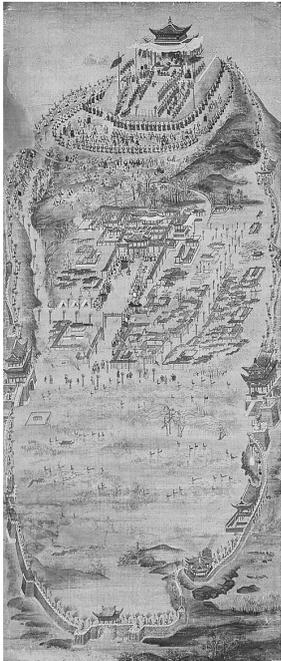


도 8 『華城城役儀軌』중 <華城全圖>, 1796년, 고려대학교도서관



도 9 金弘道 <西城羽獵>, 《華城春秋八景圖》, 1795년경, 건본담채, 97.7×41.3cm, 서울대박물관

41) 수원에 전해 내려오는 八景으로 光教積雪·八達晴嵐(風)·南堤長柳·花山杜鵑·北池賞蓮·西湖落照·華虹觀漲·龍池待月을 든 자료가 있는데, ‘화성춘추팔경도’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李梯宰著, 『水原 八景의 再照明』, 『水原의 옛 文化』, 효원문화인쇄, 1995;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 일』, 효형출판, 1998, 2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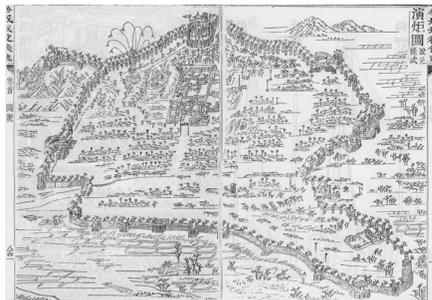


도 10
〈西將臺夜操圖〉, 《華城陵幸圖屏》,
1795년, 견본채색,
151.5×66.4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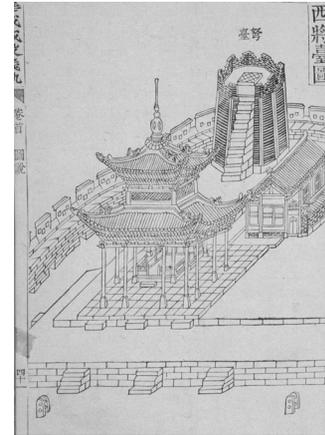
물이 한 눈에 들어오며, 성의 완급과 四壁의 허실이 마치 손바닥 위를 가리키는 듯하다. 또 팔달산 둘레 백리 안쪽의 모든 동정을 앉은 자리에서 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華城將臺”라는 편액은 정조가 내린 大字御筆 중 하나였다.⁴³⁾ 서장대는 군사시설로서 전망대였던 동시에 병사들의 조련장이었다. 1795년, 을묘년 원행시 정조는 親任하여 城操式을 관람하였고, 밤에 거행된 夜操式에도 참석하였다. 당시의 야조식 장면이 《華城陵幸圖屏》 중 〈西將臺夜操圖〉에 옮겨 그려졌다(도 10).⁴⁴⁾

〈서장대야조도〉는 행사기록화답게 서장대를 중심으로 장관을 이루는 화성과 군사 조련식의 성대한 분위기를 효과적인 화법으로 회화화하였다. 〈서성우렵〉과 〈서장대야조도〉, 그리고 『화성성역의궤』의 판화 〈화성전도〉와 〈演炬圖〉(도 11)의 구도가 하나같이 서편의 서장대를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판화의 경우 가로로 넓은 화면에 버들잎 모양의 화성을 압축해서 담았고, 〈서성우렵〉과 〈서장대야조도〉는 종축의 긴 화면을 사용해 서장대의 의미를 배가시켜 준다.

〈서성우렵〉에는 서장대는 물론이고, 장대 뒤편의 서노대, 그리고 군무를 보는 장소였던 3칸의 후당 건물과 2개의 커다란 깃대까지 『화성성역의궤』의 내용이 충실히 재현되어 있다. 이는 圖說 〈서장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도 12).



도 11
『華城城域儀軌』 중 〈演炬圖〉,
1796년, 奎章閣



도 12
『華城城域儀軌』 중
〈西將臺圖〉, 1796년,
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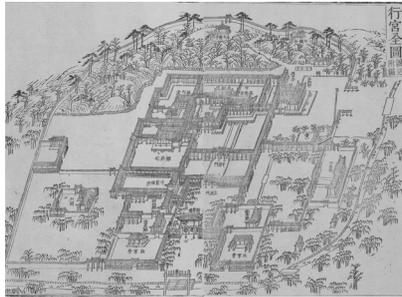
도 13
金弘道, 〈永郎湖〉, 《丙辰年畫帖》,
1796년, 지본담채,
26.7×31.6cm,
삼성미술관 리움



도 14
金弘道, 〈開亭品菊〉,
《華城春秋八景圖》,
1795년경, 견본담채,
97.7×41.3cm,
서울대박물관

김홍도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서장대와 인근 지형을 파악한 결과일 것이다. 〈서성우렵〉은 부감시를 써서 서장대와 성곽 너머 수원 서북쪽 산세의 원경을 아우른 시원한 공간감이 압도적이다. 아련한 첩첩 산 능선의 분위기를 살렸다. 산주름이 멀어질수록 작아져 서양화법에 의한 원근의 차이를 피하였다. 비교적 가는 필선과 연한 淡墨을 쓰되 농담의 변화로 대기원근감을 드러내었다. 산언덕의 주름은 성근 붓맛의 荷葉皴과 미점으로 처리했다. 능선에 줄지어선 소나무의 경쾌한 필치나 하단 언덕의 각진 윤곽선의 바위들도 김홍도의 화법이다. 전체적인 화풍이 간송미술관 소장 《關東八景圖》와 유사하면서도 필묵법이 보다 원숙하고 노련하여 제작시기의 선후관계가 드러난다(도 2).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필묵법이 구사된 1796년 작 《병진년화첩》의 〈永郎湖〉의 산주름 묘법이 〈서성우렵〉에 근사한 것은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도 13).

42) 『檀園 金弘道 -탄신 25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1995, 251쪽 도판해설.
43) 『화성성역의궤 국역 증보판』상, 경기문화재단, 2005, 68~69쪽.
44) 朴廷蕙, 「水原陵幸圖屏」研究, 『美術史學研究』 189, 韓國美術史學會, 1991, 39~40쪽.



도 15
『華城城域儀軌』 중 〈行宮全圖〉,
1796년,
고려대학교도서관

〈開亭品菊〉은 예서체 제목대로 ‘未老開亭에서 국화를 감상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도 14). ‘아직 늙지 않아서 한가함’을 보내는 곳을 뜻하는 ‘미로한정’은, 판화 〈行宮全圖〉에서 알 수 있듯이 奉壽堂 뒤편 언덕에 자리한 육모지봉의 정자이다(도 15). 당시 정자에는 정조의 御製 현판과 諸臣廣進詩 현판 2좌가 있었다고 한다.⁴⁵⁾ 〈한정품국〉 역시 정자에서 국화를 품평하는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변 경관을 포

괄하여 사선으로 부감하였다. 공간운영에서 대각선 구도를 즐겨 썼던 김홍도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화면의 중단은 간소하게 처리한 성곽이 능선을 따라 이어지다 꼭대기의 서장대에서 멈춘다. 하단은 洛南軒의 지붕과 행궁을 둘러싼 담장이 상단의 성곽과 사선으로 평행을 이루며 포치되어 안개 속으로 묻힌다. 중앙의 미로한정을 비껴 흐르는 상하 여백이 화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이다. 차고 비고, 성글거나 뻣뻣한 공간의 안배가 화면 전체에 생기를 부여하면서 주제를 부각시켜 놓았다. 정자 아래 잡목 속에는 홍갈색 담채로 표현된 단풍이 섞여 가을의 풍치가 물씬하다. 〈서성우렵〉과 마찬가지로 대기원근감과 무르익은 필묵 효과가 여실하다. 김홍도의 50대 이후 원숙해진 作風을 보여준다.

한편 洪吉周(1786~1841)가 김홍도의 아들 金良驥(1792~?)가 보관하고 있던 김홍도의 《華封八觀圖》 초본을 보고 쓴 題跋이 전한다.⁴⁶⁾ 그 내용이 신흥사주·대유농가·오교심화·한정품국·길야관상·서성우렵·화우산구·용연제월로 이루어져 있어 춘팔경에서 5폭, 추팔경에서 3폭을 뽑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화봉팔관도》에도 ‘한정품국’과 ‘서성우렵’이 포함되어 있어, 혹 앞서 살펴본 두 그림이 《화봉팔관도》의 일부는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45) 正祖御製와 諸臣廣進詩는 李範善 編, 『水原郡邑誌』, 1899(장서각, No. K2~4251); 『국역 수원부(군)·남양부(군)읍지』, 화성시, 2006, 281~287쪽에 실려 있다.

46) 洪吉周, 『縹緗乙懺』 卷5, 「題華封八觀圖(粉本)後」; 吳柱錫, 앞의 책, 1998, 257~258쪽 주)21 참조.

2) 『園幸乙卯整理儀軌』 판화

『園幸乙卯整理儀軌』는 정조가 1795년(정조 19)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 화성의 부친 묘소를 참배하는 행사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정리한 총 10권 8책의 방대한 의궤첩이다. 정조는 재위 24년간 12회에 걸쳐 사도세자를 모신 화성 현릉원을 찾았다. 특별히 1795년, 을묘년의 園幸은 재위 20주년이 되는 해에 사도세자와 동갑인 모친 惠慶宮 洪氏(1735~1805)의 회갑을 맞는 경사를 기념하여 대대적으로 준비한 행사였다. 당시 ‘國朝初行之禮’ 혹은 ‘慶禮千載初有’라 표현했듯이, 왕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처음 있는 경사로서 많은 역사적 의미를 남겼다.

을묘년 행차는 수행 인원이 1,779명, 말이 779필에 달했고, 실제 동원된 전체 인원은 약 6천여 명이나 된 것으로 추산된다. 마침내 행궁에서 거행된 주요 행사는 향교 大成殿 참배, 낙남헌 문무과 별시 거행, 봉수당 회갑잔치, 현릉원 전배, 서장대 군사훈련 참관, 신흥루에서 백성들에게 쌀 하사, 낙남헌의 양로연, 訪花隨柳亭 시찰, 得中亭 활쏘기 등으로 매우 다채롭고 분주한 일정이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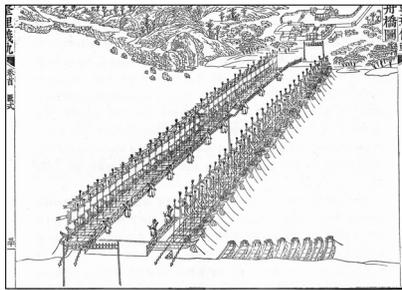
한편 행사를 마친 직후 정조는 주자소에 整理儀軌廳을 설치하여 『월행음묘정리의궤』의 편찬을 추진하였고, 그 해 초본을 완성하였으나 보완 교정을 거쳐 1797년 3월 인쇄를 시작하여 4월에 진상되었다. 총 101부가 인쇄되어 일부는 궁궐에 보관하였고, 주요 참여 관료들에게도 하사하였다. 보통 의궤가 8건 내외로 제작되던 관행을 떠올릴 때 양적으로 파격적이었다. 금속활자인 整理字를 주조해 사용함으로써 대량 출판이 가능했던 것이다. 본문에 앞서는 卷首에 圖式을 따로 묶는 방식도 새로운 편집체제로서 기존의 격식에서 탈피하였다.⁴⁸⁾ 그런데 卷2 「啓辭」 항목에 판화 도식의 제작에 김홍도가 관여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⁴⁹⁾ 아울러 『日省錄』에서 ‘전 현감 김홍도를 군직에 부쳐 상근케 하면서 도설을 담당시켰음’이 재확인된다.⁵⁰⁾ 한편 당시 원행의 내용은 稷屏으로도 제작되었는데, 『월행음묘정리의궤』 卷5 賞典 항목의 「慈宮頒下各站賞典」과 「進饌圖屏進上後施賞」에 공히 畫員 崔

47) 한영우, 앞의 책, 1998;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295~388쪽 참조.

48) 박정혜, 위의 책, 2000, 300~301쪽.

49) 『園幸乙卯整理儀軌』 卷2, 「啓辭」, 乙卯閏二月二十八日條 “整理儀軌廳郎廳 以堂上意啓曰…專管寫校之役前縣監金弘道 令該曹口傳 付軍職 冠帶常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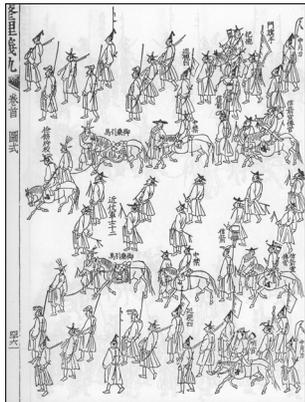
50) 『日省錄』, 正祖十九年乙卯閏二月二十八日條; 吳柱錫, 앞의 책, 1998, 202쪽.



도 16
〈舟橋圖〉, 『園幸乙卯整理儀軌』,
卷首「圖式」, 1795년,
奎章閣

得賢·金得臣·李命奎·張漢宗·尹碩根·許寔, 李寅文 등 7인의 성명이 밝혀져 있다.⁵¹⁾

을묘년 원행을 정리하는 畫役に 참여한 화원은 김홍도의 화풍을 따른 화가들이다. 이는 판화 도설의 밑그림에 나타난 화풍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원행을묘정리의궤』 삽도의 경우 김홍도의 이름만 거론되지만, 관습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여러 화가가 공동으로 완성했을 것으로 생각



도 17
〈班次圖〉 부분, 『園幸乙卯整理儀軌』,
卷首「圖式」, 1795년,
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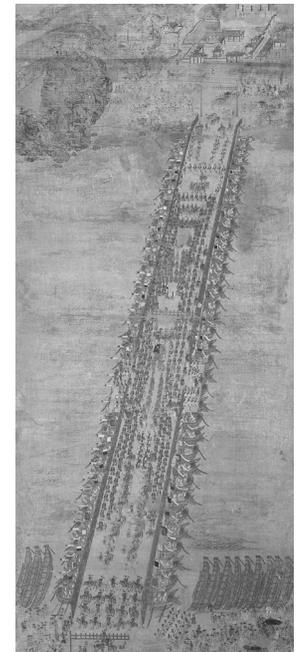
된다.⁵²⁾ 당시 김홍도의 화풍이 일반화된 '도화서 화풍'이었던 사정을 염두에 둘 때, 김홍도의 화풍이 두드러지게 반영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가령 〈舟橋圖〉에서 보이는 원근이 구별되는 사선구도, 산언덕을 처리한 짧은 선들, 각진 주름을 최대한 살린 바위묘법 등은 김홍도의 화풍이자 정조대 화원 화풍의 전형이다(도 16). 〈班次圖〉에 그려진 인물들의 다양한 자세와 생동감 역시 김홍도의 풍속화풍과 상통하는 요소이다(도 17). 이들은 또 18세기 후반 정점에 도달한 판각 인쇄기술을 보여준다.⁵³⁾

『원행을묘정리의궤』 판화 밑그림은 1796년경 완성된 《화성능행도병》의 草稿로도 쓰인 것으로 짐작

된다.⁵⁴⁾ 이들 의궤 圖式과 圖屏에 담긴 그림이 대부분 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화성의 화적으로서도 가치가 높다. 《화성능행도병》의 〈還御行列圖〉와 〈洛南軒放榜圖〉를 제외한 나머지 6폭이 모두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판화에 포함되고, 기본 구성도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계병의 내용이 더욱 상세하고 채색을 더해 성대하지만, 세부 器物이나 墨才, 복식 등도 판화를 참조해서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도 16, 도 18).

3. 현릉원의 용주사와 김홍도

1789년 정조는 楊洲 拜峰山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花山으로 이장하였다. 아울러 수원의 邑治를 '용이 떠오르고 봉황이 춤추는' 명당이라는 八達山 아래로 옮겨 留守府로 승격시켰고, 이름도 화성으로 고쳤다. 정조는 이듬해 현릉원의 陵寢寺刹로 폐사지에 龍珠寺를 중창하였다. 그리고 거의 매년 화성의 부친 묘소로 園幸하는 등 재위 기간 내내 사도세자의 추모 사업에 애정을 쏟았다. 그 배경에 정조의 부친에 대한 추모의 정을 넘어 왕권 강화의 포석이 깔려있는 점은 수도권 남방의 새로운 중심지로 건설한 화성의 맥락과 같다.⁵⁵⁾ 창건주체가 군왕을 위시한 왕실이었던 만큼 용주사 건립에는 八道 각지에서 모아진 시주금이 쓰였고, 여러 지역의 최고 기술자가 동원되었다. 1795년에는 용주사 승려들을 정조의 친위부대인 壯勇營 外營에 소속시키고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僧軍總攝을 관장케 하였다. 또한 전국의 사찰을 專制하는 막강한 위상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⁵⁶⁾



도 18
〈舟橋還御圖〉, 《華城陵幸圖屏》,
1795년, 견본채색,
151.5×66.4cm,
국립중앙박물관

55) 정조는 수도권 정비의 일환으로 서울을 둘러싼 동서남북 요지를 留守府로 승격시켰다. 본래 유부부였던 북쪽의 開城, 서쪽의 江華에 이어 동쪽의 廣州(1795)와 남쪽의 華城(1793)에 유수를 둬으로써 4유수제를 확립하였다. 한영우, 「정조와 화성 -화성건설과 陵幸의 의미」,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박물관, 1998, 78~88쪽.

51) 『園幸乙卯整理儀軌』 卷5, 「慈宮頒下各站賞典」 및 「進饌圖屏進上後施賞」. 이와 관련하여 洪奭周는 「觀華圖整理所稷屏跋」에서 계병이 1796년 병진년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洪奭周, 『淵泉先生文集』 卷20, 「觀華圖整理所稷屏跋」; 姜寬植, 「眞景時代 後期 畫員畫의 視覺的 寫實性」, 『潤松文華』 49,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5, 59쪽.

52) 박정혜, 앞의 책, 2000, 302쪽.

53) 鄭陔模,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板畫史의 研究, 『문화재』 제22호, 문화재관리국, 1989, 12, 96~121쪽.

54) 현재 전하는 《화성능행도병》은 여러 질이며, 세부 내용과 화법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 모두 1796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혜, 앞의 책, 2000, 305~306쪽.

1) 『父母恩重經』 변상도 판화

정조는 『원행을묘의괘』와 『화성성역의괘』 같은 의괘뿐 아니라 종교서적의 발달에도 기여하였다. 김홍도가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용주사본 『父母恩重經』의 간행이 그것이다. 『부모은중경』은 조선시대 가장 인기를 누린 불교 경전의 하나로 왕실을 비롯해 사찰과 민간에서 널리 간행 유포되었다.⁵⁷⁾ 『부모은중경』의 내용은 序分·正宗分·流通分 세 부분으로 나뉜다. 부모의 은혜를 10가지 일로 서술한 정중분의 ‘十恩變相圖’가 『부모은중경』의 핵심이다. 임신으로부터 출산, 양육을 거쳐 성장 후의 보살핌까지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 다음은 자식이 저지르는 불효의 죄와 부모의 은혜가 높고 큼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八譬喻이다.

1796년 봄, 정조는 우연히 「대보부모은중계」를 읽고 감동하여 除夕과 端午에 계를 인쇄해 배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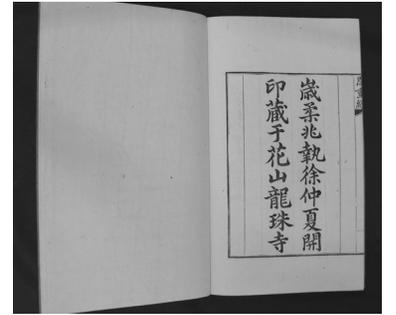
불경은 내가 본래 모르는 것이다. 병진년 봄에 우연히 대보부모은중경의 偈語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생동감 있는 警句와 간절하고도 진지한 내용이 우리 유교에서 조상의 은혜를 갚고 인륜을 돈독하게 하는 취지와 표리를 이루는 점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달 그믐날과 단오의 두 명절에 이 偈를 인쇄해 바치게 하여 門楣에 붙여서, 書雲觀에서 인쇄하여 나누어 주는 부적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어서 다시 게 한 편을 지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계에 경재한 이는 14명이다.⁵⁸⁾

56) 김준현, 「朝鮮後期 正祖의 佛敎認識과 政策」, 『中央史論』 제12·13합집, 中央史學硏究會, 1999, 35~58쪽.

57) 朴桃花, 「朝鮮前中期 佛經版畫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113~136쪽; 李泰浩, 「朝鮮時代 木版本 『父母恩重經』의 變相圖 版畫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 19집, 서지학회, 2000, 219~253쪽; 宋日基, 「韓國本 『父母恩重經』:漢文」의 板本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 19, 서지학회, 2000, 179~218쪽.

58) 『弘齋全書』 권182, 「群書標記」 4, 〈恩重偈廣載軸 寫本〉 “佛乘子所素昧 而丙辰春遇覽大報父母恩重偈 愛其警切剴擊 與吾儒報本篤倫之旨 相表裏 遂命除夕重午兩名日 印進此偈 貼諸楣上 以代雲觀擲頌之禳辟符 復爲偈語一篇 頒示諸臣 廣載者十四人” 원문과 번역문은 신승운 역, 『국역 홍재전서』 18(민족문화추진회, 2000), 203쪽. 이 밖에 『弘齋全書』 권177 「日得錄」 17에 실려 있는 규장각 閣臣 南公轍의 글과 권56 「雜著」 3에서도 정조가 『부모은중경』의 간행을 직접 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주사본의 한문본 권말에도 5월 단오에 경전을 인쇄하여 그 목판을 용주사에 보관케 했다고 밝혀져 있다(도 19).⁵⁹⁾ 또 1814년 주자소에서 편찬한 필사본 『鑄字所應行節目』을 통해 ‘병진년 첩판(동판)으로 은중경 변상도를 내입하였고, 목판으로 한문본과 언해본, 변상도 등을 각각 만들어 용주사에 보냈음이 확인된다. 또 1799년 石板으로 한문본을 조성한 사실과 석재를 原營, 즉 原州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⁶⁰⁾ 주자소에서 1796년 목판과 동판을 간행하여 목판은 즉시 용주사에 보내졌고, 동판은 3년 뒤 조성한 석판과 함께 1802년 용주사에 내려진 것이다. 그 결과 용주사는 세 가지 종류의 원판을 보관하게 되었고, 지금도 현존한다.



도 19
龍珠寺本 『父母恩重經』 卷末 부분,
1796년,
奎章閣

1796년에 간행된 용주사본 『부모은중경』은 한문본과 언해본으로 나뉘지만, 처음부터 변상도 판화는 동시에 쓸 수 있는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또 변상도를 경문과 분리시켜 전반부에 편집함으로써 판화를 한문본과 언해본에 두루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정조 연간에 제작된 각종 儀軌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새로운 방식과 일치한다.⁶¹⁾

용주사본 『부모은중경』에 실린 변상도 판화는 총 14점이다. 이전의 上圖下文式과 右圖左文式 편집이 그림 한 장면당 한 면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각 장면의 오른쪽 상부에 각각의 제목을 縱書하는 형식이며, 如來頂禮圖를 시작으로 十恩變相圖 10점, 八譬喻圖 중 周遶須彌, 그리고 阿鼻墮苦圖, 上界快樂圖로 마무리된다. 일반적인 판본과 비교하면, 八譬喻圖의 7점과 三寶供養圖가 생략되었고, 다른

59) “歲柔兆執徐仲夏開印藏于花山龍珠寺”

60) “恩重經圖 鐵板七板 丙辰造成 內入 經文十三板 圖五板 諺解二十五板 丙辰造成 下送 華城 龍珠寺 … 恩重經 石板二十四板 己未造成 內入 石板 十二板 自原營上來 恩重經用餘封置” 현전 석판본의 간기가 ‘병진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목판 인쇄본을 그대로 밑그림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호권, 「유교이념의 불교적 실현 龍珠寺版 『父母恩重經諺解』」, 『정조대의 한글문헌』, 문헌과 해석사, 2000, 154~155쪽.

61) 朴廷蕙, 앞의 논문, 2002, 414~417쪽.



도 20
〈如來頂禮圖〉,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796년,
22.0×16.0cm,
奎章閣



도 21
〈遠行憶念恩〉,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796년,
22.0×16.0cm,
奎章閣

판본에는 없는 上界快樂圖가 추가되었다.

용주사본은 판화의 도설 방식이나 화풍이 이전의 일반적인 사찰판본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도상의 짜임새나 구도, 세부 묘사가 정교하며, 경문의 내용을 도상하는 방식도 간접적이고 암시적이다. 그 이전 『부모은중경』 변상도가 대체로 종교적 의식을 강조한 반면, 용주사본의 그림에는 여러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며 여운의 효과까지 담겨 있다. 경문을 도해하여 쉽게 전달하고자 한 원래의 취지를 넘어 그 자체로 회화적 완성도를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불화보다 당시의 일반회화에 가깝다는 인상이 든다. 이러한 특징은 우선 용주사본 『부모은중경』 판화가 화원 소관의 주제나 화풍과 밀접함을 방증한다. 특히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화원 김홍도 화풍이 직접적으로 대입될 정도이다.⁶²⁾

우선 구도 면에서 〈如來頂禮圖〉의 왼편 중앙부를 화면 밖으로 열어놓은 채 인물들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식은 〈씨름〉이나 〈서당〉 등 김홍도의 풍속화에 쉽게 발견된다(도 20, 도 4). 일종의 원형 부감법 구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구도이다. 또 감상자의 시선과 일치하는 뒷모습의 인물들을 하단에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화면 속으로 끌어들이는 기법도 김홍도가 정착시킨 화풍에 속한다. 이처럼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내려다보는 시각을 활용하는 구도는 용주사본 『부모은중경』 판화의 골격을 이룬다. 가옥을 무대로 하는 ‘십은변상도’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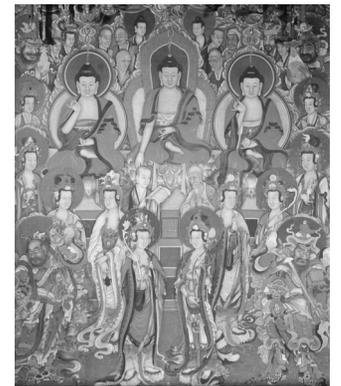
르지 않다.

〈遠行憶念恩〉은 모자의 이별 장면을 한 폭의 산수화로 변안한 듯하다(도 21). 근경의 집으로부터 원경의 산으로 멀어지는 확실한 원근감이나 개울 주변의 언덕과 바위, 물결과 돌의 표현, 수지법 등이 김홍도식 산수화풍이다. 〈周遊須彌〉의 수파 묘나 ‘ㄱ’ 혹은 ‘ㄴ’ 자형 묘선으로 표현한 각진 바위주름 역시 『원행을묘정리의궤』나 김홍도 계열의 금강산도에 적용된 준법이다(도 16). 다양한 부류가 등장하는 『부모은중경』의 인물묘법도 김홍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如來頂禮圖〉에 그려진 나한들의 뒷모습이나 길다란 체구, 옷주름 표현, 그리고 〈生子忘憂恩〉의 侍童의 자세도 김홍도 화풍이다.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감정이 살아 있는 점도 김홍도의 풍속화와 상통한다.

이처럼 정조대 규장각에서 御覽用으로 간행한 용주사본 『부모은중경』 판화에는 김홍도 화풍이 여실히 배어 있다. 능숙한 필치도 그렇거니와 ‘檀園畫風’이 정립된 50대 이후의 작품들과 상통하여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1796년이라는 『부모은중경』의 간행시기에도 부합하여 김홍도가 직접 참여했다는 확신을 뒷받침해 준다. 판화의 양이 14폭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화풍을 유지하는 사실로 볼 때 김홍도가 단독으로 밑그림을 완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대웅전 〈三世如來體幀〉

1790년 창건 당시 용주사에서 불상과 불화 등 전각 내부를 장엄하기 위해 추진한 佛事도 대대적이고 이례적이었다. 後佛幀의 제작에 김홍도·김득신·이명기 등 畫員이 동원된 것도 파격적이다. 용주사 불화로는 〈三世如來體幀〉 외에도 〈七星幀〉과 〈三藏幀〉, 〈甘露幀〉 등이 제작되었다. 그 중 대웅전에 조성된 삼존불의 후불탱인 〈삼세여래체탱〉의 제작자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었다(도 22).⁶³⁾ 〈삼



도 22 〈三世如來體幀〉, 1790년,
견본채색,
440.0×350.0cm,
수원 龍珠寺

62) 용주사본 판화의 화풍과 김홍도 및 조선 후기 회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박정애, 『龍珠寺本 父母恩重經 版畫와 朝鮮後期 繪畫』, 『불교미술사학』 제4집,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6, 161~195쪽 참조.

63) 기존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는 金京燮, 『龍珠寺 大雄寶殿 三佛會圖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24~25쪽.

세여래체탱)의 화면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畫記가 없고, 여타의 부수적인 기록들은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⁶⁴⁾ 가장 먼저 알려진 『龍珠寺蹟記』의 「各項擇日」에 의하면 ‘1790년 2월 19일 터를 닦기 시작했고, 9월 29일 불상의 點眼式이 거행되었다’. 이어지는 「本寺諸般書畫造作等諸人芳躑」는 다음과 같다.

대웅전의 寶榻 後佛幀인 <삼세여래체탱>은 화원 연풍현감 김홍도가 그렸고, 삼장탱은 화원 敏寬이, <下壇幀>은 화원 尙謙이 그렸으며, 칠성각의 <칠성여래사방칠성탱>은 화원 敬玉·演弘·雪順 등이 그렸다.⁶⁵⁾

위의 기록은 1825년 당시 용주사 주지였던 等雲 스님이 정리한 것으로 후대의 傳言에 속한다. 이와 달리 1976년 대웅보전 단집에서 발견된 기록은 건립 당시의 1차 사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상 13년(1789) 기유 10월 7일에 永祐園 梓宮을 점을 쳐 길한 곳인 수원 현릉원으로 옮겨 모셨다. 이듬해 2월 19일 현릉원 동북방에서 2리 떨어진 곳에 원찰을 조영하였는데, 利仁察訪 曹允植이 그 일을 담당하였다. 또한 臣 德諱에게 명하시기를 龍洞宮 小次知 尹興莘과 더불어 불상 조성과 탱화 그리는 일을 감동하라 하셨다. 모든 법당 금구(칠재료·불기·다기·비단·휘장·금동·금구·각종 번·깃발·일산·가마·칠보·복장품·좌복) 등을 궁중에서 하사하셨다. 거듭 영에 따라 관리하고 검수하였던 바 8월 16일 공양을 올리고, 그 일을 시작하여 9월 30일 말은 바 소임을 끝내고 10월 1일 국내 名僧을 초대하여 點眼式을 시행하고 齋를 올렸다. … 尙戒·雪訓·戒初·奉珪 등 20명의 승려가 불상을 조각하였으며, 旻寬·尙謙·性允 등 25명의 畫僧이 탱화를 그렸는데, 지극히 아름답고 당우가 장려했고 존상이 엄숙했다.⁶⁶⁾

64) 석가모니불 대좌 하단에 있는 방제에는 “主上殿下壽萬歲 慈宮邸下壽萬歲 王妃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萬歲”라 써어 있는데, 불화가 조성된 1790년 6월 18일 원자가 태어나 아직 세자책봉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후대에 써넣은 것으로 이해된다.

65) “… 大雄殿寶榻後佛幀 三世如來體幀 畫員 延豐縣監 金弘道 三藏幀 畫員 敏寬 下土丹幀 畫員 尙謙 七星閣 七星如來四方七星幀 畫員 敬玉 演弘 雪順等”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纂輯, 『朝鮮寺刹史料』, 增補校正本, 1911, 60쪽.

66) 원문 및 번역문은 龍珠寺 編著, 『龍珠寺』, 寺刹文化研究院, 1993, 27쪽 및 236쪽 참조.

여기서는 김홍도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용주사사적기』와 달리 불상과 탱화의 제작에 참여한 대표적 승려 이름과 수가 나열되어 있고, <감로탱>이나 <삼장탱>의 화기 내용과 일치한다.⁶⁷⁾ 불상과 더불어 탱화의 감동 임무는 황덕순과 윤홍신이 맡았다. 앞 두자료의 혼선을 보완하는 것이 『水原旨令謄錄』이다.⁶⁸⁾ 1790년 10월 6일 「看役策應裨校吏匠手僧徒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불상 후불탱을 監董한 전 찰방 김홍도와 절충 김득신, 전 주부 이명기와 … 불상조성을 감동한 황덕순, 윤홍신은 … 2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합하여 실제 일한 것이 216일이고 … 화탱변수 승 상겸은 2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합하여 실제 일한 것이 216일이고 … 화원변수 승 민관은 8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합하면 실제 일한 것이 45일이다.⁶⁹⁾

일부 이름자에 오류가 있긴 하지만 1790년 당시에 작성된 관청의 문서답게 보고 내용이 자세한 편이다. 비로소 김득신과 이명기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다. 「庚戌十月初七日」의 기사에서 ‘佛幀의 主管監董 김홍도는 主上의 특별 지시로 正6品 司果 벼슬에 장기 임용되고, 監董 김득신과 이명기에게는 해당 부서에 영을 내려 쌀과 베를 후하게 내려주고, 佛像을 監董한 官屬인 황덕순과 윤홍신, 그리고 상겸과 민관에게는 帖加資 한 시상 내역이 확인된다.⁷⁰⁾

이 시상내역에는 김홍도가 불탱의 주관 감동직을 수행했고, 김득신과 김홍도는 그 아래서 감동직의 소임을 맡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김홍도는 용주사 터를 닦기 시작한 다음날인 2월 20일 연행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1790년 4월 이전 김홍도가 중병을 앓았던 사실이나 김득신이 자비대령화원 녹취재에 참여했던 정황으로 미루어 이들이 용주사에 상주하며 작업했다고 보기 어렵다.⁷¹⁾ 불화

67) 金京燮, 앞의 논문, 1996, 15쪽.

68) 吳柱錫, 앞의 논문, 1995, 93~94쪽.

69) 『水原旨令謄錄』(규장각, 奎1152), 19쪽. “佛像後幀監董 前察訪金弘道 折衝金得臣 前主簿李命基 … 佛像造成監董 黃德淳 尹興莘…自二月十九日 至九月二十九日 合實役二百十六日…畫幀邊手僧尙謙 自二月十九日 至九月二十九日 合實役二百十六日…畫員邊手僧旻官 自八月十二日 至九月二十九日 合實役四十五日”

70) 『水原旨令謄錄』(규장각, 奎1152), 20쪽. 吳柱錫, 앞의 논문, 1995, 93~94쪽.

71) 진준현, 앞의 책, 1995, 609쪽.

제작이 반드시 殿閣의 건립 공사와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고 監董職이었다는 점에서 착공 당일부터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이들이 당시 용주사에 조성된 모든 불화를 감독했는지, 아니면 일부에만 관여했는지 불확실하다.

〈삼세여래체탕〉을 비롯한 용주사 탕화의 畫風으로 볼 때, 실질적인 제작자는 畫僧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에서 김홍도나 도화서 화풍이라는 확신을 주는 단서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나 옷주름의 입체화법이 어색하고, 부푼 듯한 손발 표현도 부자연스럽다. 특히 연화대좌의 푸른색과 흰색의 혼합색 농담표현은 김홍도 당대의 안료와 화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화풍과 관련하여 현재 용주사에 있는 〈삼세여래체탕〉과 도난당한 〈칠성탕〉은 동일한 화승에 의해 그려졌으며 1910년대 새로 그려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용주사는 창건 이후 여러 차례 중수했고, 특히 姜大蓮 주지가 1912년부터 3년여에 걸쳐 추진한 대대적인 중창불사 때 竺衍(1875~1927)을 비롯한 강원도 금강산 일대의 화승들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이다.⁷²⁾ 하지만 현재 상태가 창건 당시의 원본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강대련이 주지로 부임하기 이전인 1911년 2월부터 6월까지 조선에 머물렀던 Nobert Weber가 찍은 흑백사진 속 〈삼세여래체탕〉이 기본적으로 현재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⁷³⁾ 따라서 완전히 새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작품을 어느 때인가 改彩補修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단이나 안료 등 재료에 대한 검증이나 연대추정, 그리고 적외선 촬영 같은 과학적 분석이 요청된다.⁷⁴⁾

72) 金京燮, 앞의 논문, 1996; 同著, 「龍珠寺 三佛會幀의 研究」, 『강좌미술사』 12호, 한국미술사연구소, 1999, 55~96쪽.

73) Nobert Weber, *Im Lande Der Morgenstille*, Verlag von Karl Seidel, Munchen, 1915; 박대현, 『朝鮮關係洋畫誌-西洋人이 본 朝鮮』 하, 호산방, 1996, 620쪽 및 630쪽; 姜永哲, 「조선 후기 龍珠寺 佛畫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16~20쪽.

74) 최근 강영철은 지금까지의 논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방제와 세부 표현에서 改彩 및 보수 흔적을 확인하고 제시하였다. 또 과학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과제의 하나로 꼽기도 하였다. 강영철, 「용주사 대웅보전 후불탱화의 연구 쟁점과 과제」, 『정조시대 문화예술과 효 문화재』 학술발표회 요지문, 조계종 총무원·용주사, 2007. 11. 9, 29~36쪽 참조.

맺음말

단원 김홍도의 생애와 예술적 자취는 김홍도가 조선 후기, 곧 전근대 시기의 전인적 예술가이자 교양인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타고난 천재성도 남달랐지만,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시대를 만나 맘껏 기량을 뽐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김홍도의 예술 활동에서 화성에 남긴 업적은 정조의 '화성'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각별하다. 圖畫 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화가가 김홍도였음이 문헌기록과 전하는 화성 관련 작품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조가 야심차게 추진한 화성 건설은 정치, 사회적 의미뿐 아니라 문화기술의 수준도 높였다. 도시 계획과 건축,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유·무형의 풍성한 유산을 남겼다.

화성을 제재로 그려졌거나 화성에 남긴 김홍도의 필적은 진경산수화·채색장식화·판화·불화 등이다. 먼저 《화성춘추팔경도》에서 떨어진 날폭으로 추정되는 〈서성우렵〉과 〈한정품국〉을 들 수 있다. 18세기 전반 정선이 이룩한 진경산수화의 성과에 이어 정조대 새로운 정형을 확립한 김홍도식 진경산수화의 성격을 대변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다음 김홍도 화풍과 밀접한 『원행을묘정리의궤』나 『부모은중경』 판화의 경우 역사상 가장 수준 높은 인쇄기술에 도달한 정조대의 판화서를 대표하는 역작이다. 그리고 용주사 후불탱은 아직 논란에 쌓여 있지만, 김홍도가 도화서 화원으로서 전통 형식의 틀을 깨는 繪事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모든 작품들이 1790년 용주사 畫役 이후, 주로 김홍도 50대에 접어들어 제작되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김홍도의 50대는 1788년에 가졌던 금강산 寫景을 계기로, 또한 연풍현감을 역임한 이후로 독창적이고 원숙해진 자기화풍이 완연해진 시기이다. 김홍도의 화성 관련 회화 작품들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 특유의 화법으로 조선풍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요컨대 화성 건설은 김홍도가 한국회화의 고전적 전형을 완성해 내는 데 분명 일조하였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artistic activity and achievement of Kim Hong-do, and the fortress of Hwaseong

Lee Tae-Ho / Park Jeong-Ae

Danwon(檀園) Kim Hong-do(金弘道 1745~?) is a representative painter of the late Joseon Dynasty together with Gyeomjae(謙齋) Jeong Seon(鄭澈 1676~1759). He was mainly active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正祖 1776~1800) and was widely known as a 'Painter of the Country'. Kim Hong-do was one of the most accomplished painters in the history of traditional painting in Korea. Beautifully and accurately he depicted the lives of people, and plants and animals of his day.

That Kim Hong-do was an artist and a man of culture is reflected well in his life and art works. Not only was he a natural genius but during an age of social and political stability he was able to exercise his artistic talents to full extent. In the case of Hwaseong(華城) which was constructed under the order of King Jeongjo in 1794, several references to Kim Hongdo can be made. Surviving documents and various works of art confirm that he was a painter who played a central role in producing works related to Hwaseong. As is well known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was promoted ambitiously by King Jeongjo. It had a significant political and social meaning and in the construction of the fortress the cultural milieu of the time was greatly enhanced artistically and scientifically.

Kim Hong-do's paintings and brushworks which in some ways were linked to Hwaseong include True-View Landscape Painting(眞景山水畫), Decorative Painting(彩色裝飾畫), Woodcut Print(版畫) and Buddhist

Painting(佛畫). For example, the paintings titled *'Hawking at West Fortress'*(西城羽獵) and *'Gentlemen Appreciating Chrysanthemum'*(閒亭品菊) are believed to be parts of *'Eight scenes of Spring and Autumn in Hwaseong'*(華城春秋八景圖). They represent true-view landscape painting in the style of Kim Hong-do who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reformed this genre following the achievements of Jeong Seon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In the case of woodcut prints, the *'Wonhang eulmyo jeongni uigwe'*(園幸乙卯整理儀軌) and the sutra *'Bumoeunjunggyeong'*(父母恩重經) were made in Kim Hong-do's style. They are both masterpieces which represent the high level of printing which peake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A painting which continues to attract much controversy is the Buddhist painting titled *'Samseyeoraechetaeng'*(三世如來體幀) which is in the main building at Yongju temple(龍珠寺) located in Hwaseong. Though it was not painted by Kim Hong-do himself, it was probably produced under his direction and as such it exemplifies his attempts to break from the traditional conventions of the Dohwaseo(圖畫署).

Yongju temple was constructed in 1790 and Hwaseong was completed in 1796. For this reason, all of the above mentioned works were produced when Kim Hong-do was in his 50s. This was a time when his unique painting style matured after finishing sketches during his tour of the Diamond Mountains(金剛山) and upon serving his term as a district magistrate in Yeonpung(延豐縣監). His paintings related to Hwaseong are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they embody his unique painting style at a time when he was at his most active. In sum it can be said that the paintings express the uniqueness of Joseon art and capture the flavor of the time(朝鮮風).

Keywords: Kim Hong-do(金弘道), Hwaseong(華城), True-view Landscape Painting(眞景山水畫), Yongju temple(龍珠寺), Uigwe(儀軌)

수원(水原)과 다산(茶山)

조 성 을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본 연구소 연구위원)

-
- 머리말
1. 茶山의 水原 行次
2. 茶山의 利用厚生學

3. 茶山의 水原 關聯 活動
맺음말
-

머 리 말

丁若鏞은 經世致用 학파의 흐름에 속하면서도 利用厚生學을 하여 양자를 결합시켰다. 이렇게 그가 이용후생학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水原 華城 建設에의 참여와 이를 통한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사실 조선후기 正朝대 수원 華城의 건설은 그 기본 구상이 丁若鏞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1792년 부친의 喪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 정조의 명령으로 화성 건설에 관한 전체적 계획을 입안하여 올렸으며 정조는 화성 건설 과정에서 정약용의 계획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또 정약용은 새로운 기구를 설계하고 화성 건설에 실지로 사용하여 작업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모두 그의 실용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초기부터 농업생산력 발전 등 이용후생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朴齊家와 만나 北學派의 학문을 흡수한 뒤에는 기술발전론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技藝論」을 저술하기도 하였다.¹⁾ 정약용이 利用厚生學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北學派 특히 박제가의 영향이 있었지만 정약용 학문에서 이용후생적인 요소가 발전하게 된 것은 북학파의 영향만은 아니다. 국왕 정조는 정약용으로 하여금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星湖學派 자체에도 李瀼 단계부터 이미 서양의 科學 技術에의 관심이 있었다.

정약용이 화성 건설 과정에 참여한 것은 그의 이용후생학을 구현한 것인 동시에 그 자신에게 다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본고에서는 정약용과 水原과의 관련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약용의 利用厚生學의 발전 과정과 그 실현, 수원과의 관련이 정약용 사상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정약용과 수원과의 관련을 그의 水原 行次, 利用厚生學, 水原關聯 活動으로 나누어 고찰한 뒤, 끝으로 화성 건설에의 참여가 이후 정약용 자신의 사상 발전, 혹은 이후 저술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한다.

1. 茶山의 水原 行次

정약용이 수원을 다녀간 것은 대략 6번이라고 생각된다. 정약용이 첫 번째로 수원을 다녀간 것은 1789년(정조 13) 10월 현릉원 천봉 때이다. 이 해 3월 과거에 급제하여 5월 희릉직장에 제수되었으며 奎章閣 抄啓文臣으로 되었다.²⁾ 초계문신으로 재직하는 중 8월 잠시 울산으로 부친을 뵈러 갔다가 돌아왔다.³⁾ 그는 현릉원 천봉과 관련하여 「顯隆園改葬輓詞」라는 시를 지었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顯隆園改葬輓詞」
 灑水纏哀久 珠久卜新宅
 聖心疑厚地 神眼屬前人
 碧海龜龜集 蒼山虎豹陳

1) 정약용의 기술발전론에 대하여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조성을, 「정약용의 기술발전론」, 『과기고고연구』 2, 아주대 박물관, 1997.
 2) 『사암선생연보』, 17~19쪽(쪽수는 정문사 영인본의 것).
 3) 조성을,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혜안, 2004, 67~69쪽.

都民重拭涕 千載憶寬仁
 (後略)⁴⁾

이 시의 뒷부분에서 “碧海龜龜集 蒼山虎豹陳 都民重拭涕 千載憶寬仁”라고 한 것 가운데 “碧海龜龜集 蒼山虎豹陳”은 현릉원의 주변 풍수지리적 환경을 말한 것이고 “都民重拭涕 千載憶寬仁”은 천봉시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는 현릉원 천봉 현장에서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수원으로 출발한 것은 10월 5일이며 6일 과천을 출발하여 10월 7일 새벽 새 묘역에 도착하였고 이날 밤 10시 경에 하관을 하였으며 10월 8일 귀경을 시작하여 이날 밤 과천 행궁에 묵었고 10월 9일 한양에 당도하였다. 따라서 이 시를 지은 것은 1789년 10월 7일이라고 판단된다.⁵⁾ 정약용은 이 기간 동안 10월 7일 수원에 도착하였고 10월 8일 밤 수원을 통과하여 과천으로 갔다고 여겨진다.

두 번째로 정약용이 수원을 다녀간 것은 1790년 29세 해미로 流配갈 때이다. 이때 그는 「暮次水原」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날짜는 대체로 3월 11일로 추정할 수 있다. 3월 10일 漢陽 都城門을 나서면서 지은 「奉旨謫海美出都門作」이라는 시에 “三月十日也”라고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의 시가 「行次銅雀渡」인데 “綾被遠移 仙閣燭”이라는 구절로 보아서 이날 밤은 동작나루에 묵은 것으로 보이며 3월 11일 남태령, 과천, 지지대 고개를 지나 수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暮次水原」이라는 시는 3월 11일 저녁 수원에 당도하여 지은 시이다.⁶⁾ 이날 밤은 아마도 수원에서 묵었을 것이다. 해미로 갈 때 수원에 당도하여 남긴 시 「暮次水原」을 살펴보기로 한다.

「暮次水原」
 客路輕風暮 官樓畫棟明
 閭閻迷舊店 鼓角壯新營
 旅宿懷明主 安居羨野氓
 珠丘瞻密爾 豹虎敢縱橫⁷⁾

4) 『여유당전서』 1, 18쪽(쪽수는 경인문화사 영인본의 것).
 5) 조성을,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70쪽.
 6) 조성을,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72쪽.
 7) 『여유당전서』 1, 19쪽.

위 시는 1790년 3월 11일 저녁 수원의 여관에 묵으며 이 때 수원 읍내의 정경을 읊은 것이다.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눈에 잡히는 듯하다. “鼓角壯新營”이라고 한 것은 이미 전 해에 현재의 위치로 수원부가 이전되어 새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1790년 3월 사면을 받고 돌아올 때에도 수원을 경유하였을 것이다. 그는 해미에서 유배간지 10일 만에 사면되었는데 이 때 해미에서 지은 시가 「在謫中十日特蒙赦旨」라는 시이다. 이 시를 지은 것은 『俟菴先生年報』에 따르면 3월 19일이다.⁸⁾ 그러나 해미에서 돌아올 때 수원을 지나며 지은 시는 없으며 관련된 다른 기록도 없다. 해미에서 올 때 온양에서 묵으며 「溫泉之感」이라는 시를 지은 것이 3월 21일(또는 20일)로 추정되므로 수원을 지난 것은 3월 22일(또는 21일)로 여겨진다.⁹⁾ 해미로 유배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유배가 풀려 한양으로 돌아갈 때에도 당연히 수원을 경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올 때에는 아무 기록도 남기도 않았다. 또 해미를 가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났다고, 특별히 무슨 일을 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없다.

네 번째로는 정약용은 1795년(정조 18년) 34세 윤2월 19일부터 윤2월 26일까지 정조를 호종하고 乙卯遠行에 참가하여 수원을 다녀갔다. 이 정조의 을묘원행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윤2월 19일 아침 : 창덕궁 돈화문 출발
점심 : 노량진 행궁(용양봉저정) 점심 식사
저녁 : 시흥 행궁 숙박
- (2) 윤2월 10일 아침 : 시흥 행궁 출발
저녁 : 화성 행궁 도착
- (3) 윤2월 11일 아침 : 화성(수원) 향교 참배
오전 : 화성 행궁 洛南軒에서 문무과 별시 거행
오후 : 봉수당에서 회갑연 예행 연습
- (4) 윤2월 12일 오전 : 顯隆園 참배

8) 『사암선생연보』, 21쪽.
9) 조성을,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73쪽.

밤 : 西將臺에서 야간 군사 훈련

- (5) 윤2월 13일 화성 행궁의 奉壽堂에서 혜경궁 홍씨 회갑연
- (6) 윤2월 14일 화성 행궁 낙남헌에서 養老宴
- (7) 윤2월 15일 아침 : 화성 행궁 출발
저녁 : 시흥 행궁 숙박
- (8) 윤2월 16일 아침 : 시흥 행궁 출발
점심 : 노량진 용양봉저정에서 점심 식사
저녁 : 창덕궁 도착¹⁰⁾

이상의 을묘원행 기간 동안 정약용은 병조참의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조를 수행하였다. 정약용은 당시 병조참의였으므로 윤2월 11일에 화성행궁에서 있었던 문무과 별시에 당연히 입회하였을 것이고 무과에 대하여는 試官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을묘원행 기간 동안 정약용은 내내 정조를 수행하면서 詩 몇 편을 남겼다. 「奉和聖製奉壽堂進饌」(並序), 「奉和聖製將臺閱武」, 「奉和聖製洛南軒養老」 등이 바로 바로 이 때 지은 시이다.¹¹⁾ 봉수당에서의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열린 것은 윤2월 13일이므로 이를 노래한 「奉和聖製奉壽堂進饌」(並序)는 윤2월 13일작(혹은 윤2월 11일)이고 「奉和聖製將臺閱武」은 윤2월 12일 밤에 지은 것이며 「奉和聖製洛南軒養老」은 윤2월 14일 지은 것이다.¹²⁾ 「奉和聖製將臺閱武」은 윤2월 12일 밤 서장대에서 야간 훈련 때 읊은 것이고 「奉和聖製洛南軒養老」 윤2월 14일 화성 행궁 낙남헌에서의 양로연을 읊은 것이다. 이들 시 가운데 「奉和聖製奉壽堂進饌」(並序)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奉和聖製奉壽堂進饌」(並序)
宮高設 讌新壽星 臨處祝靈春與天

10) 이상 『정조실록』 및 한영우, 『정조의 화성 행차』 (효형, 1998)에 의거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11) 『여유당전서』 1, 29쪽.
12) 조성을,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88~89쪽.

無極期千萬如日 方升始長樂六旬
(後略)

해경궁 홍씨의 六旬을 축하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약용이 다섯 번째로 수원에 온 것은 1795년 가을 金井 察訪으로 좌천되어 갈 때이다. 이 때 그가 한양 도성을 나오고 나서 동작나루를 건넌 것은 7월 26일이다. 그가 지은 시 「有嚴旨出補金井道察訪 晚渡銅雀津作」이라는 시에 7월 26일이라고 날짜가 적혀져 있다. 금정 찰방 시절 정약용은 일기를 적어 『金井日錄』이라고 하였는데 이 『금정일록』은 국왕 正祖의 엄명을 받고 漢陽에서 金井으로 출발하는 1795년 7월 26일에서 시작한다. 이 『금정일록』에 따르면 7월 26일 늦게 동작나루를 건넌 뒤 그날 밤은 남태령과 동작나루 사이에 있는 僧房店에 묵었다.¹³⁾ 僧房店은 『금정일록』에 따르면 청파동에서 20리라고 하였으므로 동작나루를 건넌 뒤, 대략 오늘날 이수교에서 사당 사거리 중간 지점이다. 당시 이 일대를 僧房坪이라고도 불렀다.

다음날 7월 27일 아침 승방점을 출발하여 남태령을 넘어서 수원에 도착한 것은 7월 27일 점심 때이며 이 때 당시 수원유수 趙心泰를 만났다.¹⁴⁾ 이 때 조심태와 나눈 이야기가 『금정일록』에 실려 있다. 조심태는 “어리석은 백성을 효유하는 것은 마땅히 강희제의 『대의각미록』 같이 하여야 하지 형벌을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홍산의 성주산은 청파와 접경 지역인데 산이 싫어 초막을 짓고 숨어 있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대는 이점을 살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정약용은 그 말이 옳다고 대답하였다.¹⁵⁾ 조심태의 이 말은 자신의 견해이기도 하겠지만 국왕 정

조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즉 천주교들을 이치로 잘 깨우쳐 타일러서 교화시키되 형벌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시 정약용은 천주교 문제에 연루되어 좌천되었는데 일부러 청양 부근의 금정으로 보낸 데에는 국왕 정조와 우상 채제공의 의도가 있었다. 정약용이 천주교 문제를 온전히 잘 수습하여 공을 세워 그를 천주교 연루는 죄목에서 벗어나려 하려는 것이 두 사람의 의도였다.¹⁶⁾ 물론 정약용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었겠지만 조심태가 정약용을 위해 이점을 다시 일깨워 준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정약용은 金井에 도착하여 천주교도를 온건한 방법으로 효유하여 공을 세움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받는다.

한편 이 때 수원에 도착하여 지은 시가 바로 「行次水原 恭憶春日陪屬之事 愴然有作」이다.¹⁷⁾ 7월 27일 조심태를 만난 뒤 함께 수원부 성내로 들어가면서 지은 시라고 생각된다. 이 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해 1795년 윤2월 정약용이 乙卯園行 기간 동안 국왕 정조를 호종하고 수원을 방문했던 일을 회상하는 시이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行次水原 恭憶春日陪屬之事 愴然有作」
長安門外建龍旂 衛士從臣盡錦衣
五交勒軍竈鼓動 兩行清道鳳笙飛
慈宮綠醞沾恩遍 君主紅轎拜寢歸
此地經過如昨日 御橋楊柳尚依依¹⁸⁾

바로 장안문에서 을묘원행 당시 현릉원을 참배하고 정조가 紅轎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어제일 같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리가 있는 川邊에 버드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정경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16) 또 이 지역에는 채제공의 일가들인 蔡氏 집성촌이 있었고 木齋 李森煥을 중심으로 한 성호학파의 기호남인 그룹이 있었다. 정약용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이들 세력의 유대를 공고하게 의도를 채제공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약용은 채씨들과 유대를 긴밀히 하는 한편 서암강학회를 주도함으로써 이 지역 기호남인계의 단결을 공고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17) 『여유당전서』 시문집에는 앞서 언급한 「有嚴旨出補金井道察訪 晚渡銅雀津作」이라는 시(7월 26일 작) 바로 다음에 이 시 「行次華城恭憶春日陪屬之事愴然有作」 수록되어 있다.(『여유당전서』 1, 34쪽).

18) 『여유당전서』 1, 34쪽.

13) 『금정일록』 7월 26일, “被嚴旨 除金井察訪 申時發行 歷拜右相 至靑坡 遇李(判書 家煥)叙別 行二十里 宿僧房店”이라고 하였다(『여유당전서보유』 2, 2쪽, 경인문화사 영인본). 이때 당시 우상이었던 채제공을 뵈었고 이가환과 청파동에서 작별을 나누었음도 알 수 있다.

14) 정확하게 말하면 수원부의 북쪽 5리 지점에 있던 橡亭이다. 『금정일록』 7월 27일, “午歇水原府 夕宿振威縣到橡亭(在水原府北五里) 遇留守趙(心泰)叙話”(『여유당전서보유』 2, 3쪽). 당시 수원 유수인 조심태가 북쪽 5리 지점까지 마중을 나온 것은 정약용에 대한 환대였다. 이것은 정약용이 국왕 정조의 충신이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수원 화성 건설에 정약용이 큰 도움을 준 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었기도 할 것이다.

15) 『금정일록』, 7월 27일, “趙曰 曉喻愚氓 當如康熙之大義覺迷 不必用刑戮也.....趙曰 鴻山聖住山 與靑陽接界處 深厓峻嶺 多有結艸龜隱伏者云 令公其察之 余曰諾”(『여유당전서보유』 2, 3~4쪽).

한편 정약용이 金井으로 가던 7월 27일 이 날의 점심 식사는 조심태에게 수원에서 대접을 받았겠지만 『금정일록』 7월 27일 자에 “夕宿振威縣”이라고 하였으므로¹⁹⁾ 이날 밤 수원에서 묵지 않고 이날 오후 수원을 출발하여 振威에서 묵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한편 이날 7월 27일 수원을 지나면서 華城 甕城의 五星池를 보고서 「華城五星池記」라는 글을 지었다. 이 글에서 오성지는 문루가 화공에 의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 구멍이 橫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약용이 실제 시공 과정에 참여하여 감독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정약용이 수원을 경유한 것은 1795년 12월 24일이다. 금정 찰방으로 좌천되어 갔다가 몇 개월 만에 상경하려는 명을 받고 한양으로 가는 길에 들른 것이다. 『금정일록』에 따르면 12월 23일 牙山 지역의 要路院에 숙박하였으며²¹⁾ 12월 24일 요로원을 출발하여 이날 수원 지역의 柳川店에 묵었으며 다음날 12월 25일 새벽 유천점을 출발해 40리를 가서 과천 지역의 갈산점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²²⁾ 이 때에는 수원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기록도 없으며 시를 남기지도 않았다. 그는 아주 서둘러 한양으로 갔기 때문이다. 『금정일록』에 따르면 정약용은 12월 25일 葛山店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30리를 가서 동작나루를 건너 그날 당일 明禮坊의 집에 도착하였다.²³⁾

2. 茶山의 利用厚生學

조선 후기 실학은 일반적으로 經世致用 학파, 利用厚生 학파, 實事求是 학파로 나

19) 『여유당전서보유』 2, 3쪽.

20) 『금정일록』에 “行四十里 歇平澤縣 行五十里 宿曲橋(牙山新昌之界) 到葛院遇李兄 同宿”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7월 28일 아침 진위를 출발해 40리를 가서 평택현에 도달한 것이다. 『여유당전서』 시문집에 앞서 7월 27일 자의 시로 언급한 「行次華城恭憶春日陪履之事」 바로 다음에 「次平澤縣」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21) 『여유당전서보유』 2, 34쪽.

22) 『여유당전서보유』 2, 35쪽.

23) 위와 같음.

뉘어 이해되고 있다.²⁴⁾ 사실 이 가운데 실사구시 학파는 하나의 독자적 학파를 구성한다기보다는 실학 전체의 학문적 방법론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실학파는 크게 경세치용 학파와 이용후생학파로 나눌 수 있겠다. 경세치용 학파는 당시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 제도 개혁을 추구하였다면 이용후생 학파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상공업 및 기술 발전 등에 주목하였다. 계보적으로 보면 경세치용학은 대체로 磻溪 柳馨遠에서 시작되어 星湖 李瀼을 거쳐서 丁若鏞에게 이르는 畿湖南人係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용후생학은 洪大容, 朴趾源, 朴齊家 등 老論係 실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지하듯이 이 노론계의 이용후생학은 당시 중국으로부터 발전된 기술을 수용하자는 것이므로 북학파라고 하였다.²⁵⁾

그러나 기호남인계 실학에서도 이미 성호 이익이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정약용 단계에 이르러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후생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실용화하고자 하였다. 정약용이 이용후생학을 습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용화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정조대 수원 華城 건설과 관련하여, 그가 성곽과 문루 설계의 전반을 기획하고 각종 기구를 설계한 것이다.²⁶⁾

24) 이우성, 「실학연구서설」, 『실학연구입문』, 일조각, 1973.

한편 실학의 유파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조성을, 「‘조선후기실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상사입문』, 서문문화사, 2006.

25) 물론 북학파라고 하여 국가 제도의 개혁을 구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홍대용은 「임하경론」에서 토지개혁을 포함하여 국가제도 전체의 개혁에 대한 개략적 구상을 밝혔고 연암 박지원도 「한민명전의」라는 글에서 토지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 점에서 북학파와 기호남인계의 경세치용학을 모두 실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토지개혁의 존재 유무를 갖고서 실학자 여부를 정하는 경향이 종래 있어 왔으나 최근에 토지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제도 등 국가제도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을 한 분들도 실학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조성을, 「포저 조익의 개혁사상」, 『한국실학학회 2007년도 9월 학술대회 논문집』). 이렇게 되면 대동법을 추진한 김육도 당연히 실학자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며 균역법을 추진한 홍계희도 실학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조익, 김육, 홍계희 등은 관료의 입장에서 재정과 민생의 안정 두 측면에서 조세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이들을 “관료적 실학자”라는 범주로 부르거나 한다. 나중 대원군의 호포제 실시는 이런 개혁론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6) 북학파의 사상은 박제가를 통해 정약용에 전해졌다. 정조 20년(1796) 10월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에서 서적을 교정하게 된 정약용은 박제가와 등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정규영 찬, 『사암선생연보』, 71쪽). 이리하여 1797년(정조 21) 6월 규장각에서 박제가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을 때 박제가에게서 직접 『北學議』를 빌려 보았으며(『함주일록』, 6월 25일, “歷訪朴(齊家) 觀北學議”, 『여유당전서보유』 2, 52쪽). 뒤에 『마과회통』을 지을 때에도 자료의 도움을 박제가에게서 받았다(『중두설』, 『여유당전서』 1, 시문집). 또 『牧民心書』 등을 보면 박지원의 『熱河日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여

기술 발전 문제와 관련된 정약용의 처음 글은 1790년(정조 14) 29세 때 정조의 策問에 대한 답변으로 올린 「農策」이다.²⁷⁾ 그러나 여기에서는 수리 기구의 이용과 파종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일반적 관점에서 언급하였을 뿐²⁸⁾ 당시 우리 농업 실정과 관련된 농업 생산력 발전 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 발전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한 것은 구체적으로 논한 것은 1798년(정조 22년) 37세 때 올린 「應旨進農政疏」이다. 여기서는 고랑과 이랑의 개선, 우수한 종자의 선정, 농기구의 개량, 수리 개선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정약용은 1799년(정조 23)에서 1800년(정조 24) 무렵 저술된 「技藝論」(1·2·3)에서는 기술 발전과 인간의 역사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조리 정연하게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²⁹⁾ 「기예론」(1)에서는 우선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인간이 기예(기술)를 갖춘 점에 있으며 이런 까닭에 동물에 비해 취약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³⁰⁾ 또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힘이 聖人 한 사람보다 나으므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기술이 보다 정밀해지며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차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고 이것을 필연적인 형세라고 하였다.³¹⁾ 이런 인식은 당시 중국의 기술이 우리보다 발달되어 있고 따라서 중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었다.³²⁾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北學論”이라고 할 수

유당전서, 6, 12쪽) 『열하일기』 역시 박제가를 통해 빌려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정약용은 박지원과 동시대에 살았으나 이 실학의 두 거장은 서로 만나 본 적이 전혀 없었다. 정약용의 수원 화성 및 각종 기구의 설계가 박제가와 만남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약용의 이용후생학은 북학파의 영향을 받기 전에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제가를 매개로 한 북학파의 만남을 계기로 자신의 과학기술 발전론에 보다 확신을 심화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7) 정약용의 기술발전론 전체적으로 검토한 논문으로는 앞서 언급한 조성을, 「정약용의 기술발전론」이 있다.

28) 『여유당전서』 1, 175~176쪽.

29) 「기예론」(1·2·3)의 『여유당집』, 잡문 전편의 배열 순서로 보아서 「田論」(1799)보다는 뒤에 있으며 「신라론」, 「고구려론」(1800 추정) 등 보다는 앞에 있다. 따라서 「기예론」(1·2·3)의 저술 시기는 1799년에서 1800년 사이로 추정된다. 「기예론」(1·2·3)은 정약용이 1797년 6월 박제가의 『북학의』를 접한 뒤 이를 충분히 소화하여 자기 사상으로 만든 뒤 저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조성을,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260쪽).

30) 『여유당전서』 1, 226쪽, “天地於禽獸也 予之爪 予之角 予之硬蹄 予之齒 予之毒 使各得而獲其欲 而禦其所患 於人也 則裸柔脆 若不可以濟其生.....以其有知慮巧思 使之習爲技藝 以自給也”

31) 위와 같음, “人彌聚則其技藝彌精 世彌降則其技藝彌工 此 勢之不得不然者”

32) 위와 같음, “中國之新式妙制 日增月衍 非復數百年以前之中國 我且漠然不相問 唯舊之是安 何其懶也”

있다. 이런 이론적 정리는 정약용이 利用厚生學의 발전에 기여한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정약용이 이렇게 북학론을 전개시키게 된 데에는 박제가의 『북학의』의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학론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완성한 것은 정약용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리하여 정약용은 경세치용학과 이용후생학을 종합할 수 있었다.

끝으로 정약용의 이용후생학의 형성과 발전에는 정조의 영향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화성 건설을 제대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지식, 토목 기술과 관련된 지식이 습득되어 있어야 한다. 정조는 화성 건설 계획이 있기 전에 정약용이 이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정조는 정약용이 장수의 재질도 겸하여 갖고 있음을 알고 그를 앞으로 장수의 재목을 기를 생각으로 정조 11년 당시 26세의 성균관 유생이던 정약용에게 병서인 『兵學通』을 하사하기도 하였다.³⁴⁾

아울러 1789년(정조 13년) 정약용은 28세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바로 그 해 겨울 舟橋司에 배치되어 한강에 주교를 건설하는 임무를 맡았다.³⁵⁾ 이를 통해 정약용은 토목 기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조가 정약용으로 하여금 화성 건설의 전체 계획을 입안하고 화성 건설을 위해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게 한 것 자체 역시 이용후생학을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정약용이 이용후생학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박제가 등의 북학파와 국왕 정조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³⁶⁾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약용

33) 「기예론」(3)에서는 利用厚生을 위해 필요한 여러 기술은 후대에 나온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고루함을 벗어나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여 직접 利用厚生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여유당전서』 1, 227쪽, “利用厚生 之所須 百工技藝之能 不往求其後出之制 則未有能破蒙陋而興利澤資也”).

34) 『사암선생연보』, (정조) 11년 8월 23일, 14~15쪽, “比較置高等(在家應教表 御考 滿篇 批) 八月津試 比較高等 命入對於重熙堂 坐之石榴樹下.....小頃 承旨洪仁浩 袖一卷書出 密傳下教 曰知汝兼有將才 故特賜此書 異日有如賊東詰者 起汝可出戰也(時嶺東有鄭鎮星金東詰之獄) 歸而視之 乃‘兵學通’也” 화성 건설의 기본 계획안인 정약용의 「城說」 및 기타 군사 관계 저술을 보면 그가 군사적 지식에 매우 통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군사적 지식을 축적하는 데에는 다른 兵學의 도움도 받았겠지만 兵學의 기초 지식을 이 『兵學通』을 통해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병학통』을 정약용에게 하사한 것은 그를 무신으로 키워 장래 병권을 맡기려고 한 정조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약용은 기술과 군사 문제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자신이 무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35) 『사암선생연보』, (정조) 13년, 겨울, 20쪽, “冬有舟橋之役 陳其規制 事功以成”

36)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익의 단계에서부터 성호학과 자체에 이미 그러한 요소가 내재하여 있었으며 성호학과에 속하는 李基讓이 청나라에 갔다가 攪車와 같은 새로운 기구를 구입하여 조정에

이 利用厚生學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데에 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수원에서의 화성 건설과 관련하여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성곽 부속 시설들의 건설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구를 설계한 일이다.

3. 茶山의 水原關聯 活動

정조대의 華城建設은 1789년(정조 13년) 10월 사도세자의 묘소인 永祐園을 당시 水原府가 소재하고 있던 花山으로 이장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1762년(영조 38) 壬午禍變으로 비명으로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는 경기도 양주 배봉산(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뒷산)에 묻혔다. 이 묘소를 垂恩墓라고 하였는데 1776년(영조 52년) 영조가 서거하자 왕위에 오른 정조는 생부인 사도세자를 莊獻世子로 높이고 수은묘를 永祐園으로 높였다.³⁷⁾ 정조는 즉위 초 수은묘라는 명칭을 영우원으로 고칠 때부터 吉地를 택하여 이장할 뜻을 품고 있다가 1786년(정조 10년) 朴明源 등으로 하여금 지세를 살피게 하였다. 이에 묘소의 지세가 좁고 불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리하여 1789년(정조 13) 7월 移葬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수원 花山으로 이장이 결정되어 이장과 산역이 이 해 10월에 완료되었으며 새 묘소의 명칭을 顯隆園이라고 하였다.³⁸⁾

새 이장지로 결정된 곳은 바로 당시 수원부 읍치가 소재하던 곳이었으므로 이 곳으로 이장하기 위해서는 수원부 邑治의 이전이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1789년(정조 13) 7월 영우원 이전 결정과 더불어 수원부를 팔달산 아래로 옮길 것이 결정되었

바치자 국왕 정조는 이를 본따서 제조해 전국에 보급할 계획을 세운 일도 있었으며 정약용은 『經世遺表』 利用監 조에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렇게 북학과, 정조, 성호학파의 영향을 토대로 정약용은 자기 나름의 이용후생학을 이룩하였다.

37) 최홍규, 「정조의 현릉원 천봉과 이름 대책」, 『정조사상연구』 창간호, 1998, 81쪽. 현릉원 천봉의 과정에 대하여는 위의 논문 외에 유봉학, 「정조대 정국동향과 화성 성역의 추이」(『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이 참고된다. 특히 유봉학의 논문은 현릉원 천봉과 화성 건설의 정치적 의미를 살피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38) 최홍규, 앞의 논문, 83~87쪽. 『정조실록』 관련 부분을 따르면 이 해 7월 하순에 산역이 시작되었고 顯隆園이라는 명칭이 8월 9일 정해졌다. 8월 12일 원래 묘소인 영우원에서 작업이 개시되었고 8월 20일 영우원에서의 전배 예가 행해졌다.

다. 신읍치로 결정된 팔달산 아래로의 수원 邑民 이주와 관아의 이전 작업은 이 해 7월 하순부터 본격화되어 9월말까지 행궁, 군수 창고 등의 관아와 민가들이 서둘러 건축되었으며 도시 기반 시설도 건설되었다.³⁹⁾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약용은 이때에 정조를 수행하여 현릉원 천봉에 참여하였다.

한편 신읍치로 수원부를 이전하면서 정조는 수원을 대도회로 육성하고자 계획하였다.⁴⁰⁾ 이런 대도회 육성 계획과 더불어 화성 건설이 계획되었다.⁴¹⁾ 화성 건설 계획은 1790년(정조 14) 6월 姜游가 처음으로 제기하였으며 이어 1791년(정조 15) 정월 愼基慶에 의해서도 주장되었다. 1793년(정조 17) 1월 정조는 수원에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고 華城이라 명명하여 축성 의지를 시사하였으며 이 해 12월 화성 건설 계획을 밝혔다.⁴²⁾ 화성 건설은 그 완공까지 원래 10년을 예상했던 것이지만 계획을 밝힌 이후 작업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1796년(정조 20) 10월 불과 2년 10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정조가 계획 발표에 앞서 수년 전부터 정약용 등 여러 신하들을 시켜 사전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약용은 화성 건설 계획의 발표에 1년 정도 앞서 1792년(정조 16년) 겨울 정조의 명령에 따라 화성 건설 계획안을 올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89년(정조 13년) 겨울 舟橋司의 일을 잘 수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특별히 정약용에게 이 일을 정약용에게 맡겼을 것이다.⁴³⁾ 이 계획안은 「城說」이라는 제목으로 『與猶堂全書』에 수록되어 있다.⁴⁴⁾ 「성설」은 화성의 성곽 건설을 전체적으로 어떻

39) 최홍규, 위의 논문, 95~96쪽.

40) 이에 대하여는 최홍규, 앞의 논문, 제3장 〈신도시 변영책과 대읍민 대책〉(99쪽 이하) 및 유봉학, 앞의 논문 제4장 〈대도회의 구상과 농업진흥책〉이 참고된다. 유봉학은 대도회의 구상 외에 수원을 자족적 신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농업진흥책까지 언급하고 신도시 건설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다만 정약용이 참여한 것은 현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화성 건설 가운데 주로 성곽 및 문루 그리고 포대, 망루 등과 같은 성곽 및 부속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것이었다.

41) 이에 대하여는 최홍규, 「정조대 화성성역의 경과」, 『정조사상연구』 창간호, 1998 및 유봉학, 앞의 논문이 참고된다.

42) 유봉학, 앞의 논문, 161~163쪽.

43) 『사암선생연보』 33쪽, (정조) 16년, “冬承命 進水原城制 上曰 己酉冬 舟橋之役 某陳其規制 事功以成 其召之 使之私第 陳陳城制”

44) 『여유당전서』 1, 280쪽 이하.

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城說」에 이어 정약용은 「甕城圖說」, 「砲樓圖說」, 「懸眼圖說」, 「漏槽圖說」, 「起重圖說」, 「總說」에서 화성 건설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차례로 다룬 것은 다시 정조의 명을 받고 나서였다.⁴⁵⁾

성설에서 화성 건설 전체와 관련되는 문제를 1. 分數, 2. 材料, 3. 壕塹, 4. 築基, 5. 伐石, 6. 治道, 7. 造車, 8. 城制의 8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 分數와 관련하여 당시 華城 성곽의 길이를 대략 3천 6백보, 높이를 2장 5척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모든 석재와 기술자, 인부, 비용을 산출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材料에 대하여 성벽을 토성으로 하느냐, 돌로 하느냐, 벽돌로 하느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아직 우리 실정으로서 벽돌을 굽는데 익숙하지 못하며 회와 흙은 잘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로 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정약용이 아직 北學派의 견해를 수용하기 이전 단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북학파는 벽돌 사용을 주장하였다. 셋째 濠塹과 관련하여서는 성곽은 안과 밖에서 동시에 쌓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안쪽에서 산을 의지해 쌓도록 하되 호참을 성과 너무 가깝지 않게 하고 거기서 파낸 흙을 성을 쌓는데 이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築基와 관련하여서는 城地에 구덩이를 파고 자갈로 기초를 다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伐石에 대하여는 석재를 캐오는 자리에 석공을 파견하여 이동 무게를 감소시키고 또 돌의 크기도 용도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며 한 수레에 싣는 숫자를 일정하게 하여 전체 수요량에 미리 맞추어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治道에서는 공사를 위해 수레가 다니는 길을 먼저 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학파 수용 이전 단계에 이미 수레 사용을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造車에서는 공사를 위해 수레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수레 제조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미 이 단계에서 수레 제조법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城制란 성을 쌓는 방법을 의미한다. 성이 잘 무너지지 않고 또 적이 잘 기어오를 수 없도록 성의 높이를 3등분하여 나누어 1등분 단계에서는 조금씩 들여서 쌓고 3등분 단계에서는 조금씩 내어 쌓아서 가운데가 들어간 형세로 축성하도록 하였다.

이 「城說」에서는 웅성이나 망루, 누조와 같은 것에 대하여는 미처 언급하지 못하고 柳成龍과 명나라의 茅元儀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만 하였다. 그러나 이 「성설」을

45) 『여유당전서』 1, 210쪽 이하.

올리자 정조는 다시 웅성, 포루, 현안, 누조, 기중기에 대한 설명을 빨리 강구하도록 명을 내리고 참고서로 『奇器圖說』을 내려 주었다. 이리하여 정약용은 「甕城圖說」, 「砲樓圖說」, 「懸眼圖說」, 「漏槽圖說」, 「起重圖說」, 「總說」 등을 지어 올리게 되었다.⁴⁶⁾

「甕城圖說」에서 정약용은 성문을 방비하기 위해 웅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성문의 다락은 화공을 당하기 쉬우며 성문은 평지에 있으므로 성문이 함락되면 적이 바로 쳐들어 올 수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성문에는 웅성을 만들고 작은 문을 하나씩 두도록 하였다. 이에 의거해 수원 화성의 건설시 성문에는 모두 웅성을 두었다.⁴⁷⁾ 원래 웅성에는 문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나 문을 하나로 만든 것은 『堡約』을 따른 것이다. 문을 두 개 만드는 것은 큰 성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⁴⁸⁾

「砲樓圖說」에서는 포루와 같은 여러 樓나 臺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부속물로서 雉를 만드는 점에서 이들이 모두 같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유성룡의 戡守機宜에 근거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치와 포루를 만드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 밖에 중국의 茅元儀와 郭子章의 설을 인용하여 砲樓 외에 敵樓, 敵臺, 鋪樓, 弩臺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砲樓는 북문 좌우에 각각 하나씩, 남문 좌우에 각각 하나씩, 장대 남쪽에 두 곳, 서문 남쪽에 하나로 하여 도합 7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적루는 북문 좌우에 하나씩, 남문의 좌우에 하나씩 도합 4곳에 두도록 하였다. 적대는 남문과 북문 좌우에 각각 하나씩, 동문과 서문 좌우에 각각 하나씩, 동곽문의 북쪽에 하나로 하여 도합 9곳에 두도록 하였다. 鋪樓는 북문의 서쪽에 하나, 동문의 북쪽에 하나 도합 2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노대는 장대의 북쪽에 하나를 세우도록 하였다. 끝으로 角城을 동암문 북쪽에 둘, 동곽문의 남쪽에 둘, 동문의 남쪽에 둘, 서문의 북쪽에 둘로 하여 도합 7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懸眼圖說」에서는 懸眼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현안이란 적을 감시하기 위해 성벽

46) 『여유당전서』 1, 210쪽. 「웅성도설」 210~211쪽, 「포루도설」(적루, 적대, 포루, 노대 포함)은 211쪽, 「현안도설」은 211~212쪽, 「누조도설」은 121쪽, 「기중도설」은 21~214쪽, 「총설」은 214쪽에 실려 있다.

47) 현재 복원되어 있는 화성의 각 성문에는 모두 甕城이 있다. 「웅성도설」 말미에서 아래에 그림이 있다고 하였으나 현존 『여유당전서』에는 그림이 없다. 아래의 다른 도설도 마찬가지이다. 그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화성성역의궤』를 참조해 보면서 해야 할 것이다.

48) 『여유당전서』 1, 211쪽.

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을 말한다. 종래에도 타안이라 하여 이런 장치가 있었으나 전면만을 작은 구멍으로 보는 것이어서 성벽 아래 가까이 접근한 적을 살피기는 어려웠다. 懸眼 제도는 치에 설치하여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적의 접근을 막고 성벽 아래의 적을 감시할 수 있는 구멍도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밑을 감시하도록 둔 구멍은 평소에는 배수로로 활용하지만 전시에는 이를 통해서 적을 창으로 공격할 수도 있으며 적이 성벽을 타 넘어 왔을 때에는 함정의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이 현안에 대하여 「현안도설」의 말미에서 그 설치에 대하여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그림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알 수 없다.⁴⁹⁾

「漏槽圖說」에서는 적병들이 성문을 불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漏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정약용은 성문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 종래에는 쇠붙이로 감쌌으나 너무 얇아서 쇠가 뜨거워지면 속의 나무가 쉽게 불탄다고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누조를 설치하여 물을 뿌려야 한다고 하고 呂坤의 『實政錄』에 의거해 五星池를 만들어 漏槽로 하도록 하였다. 오성지란 모양이 돼지 구유와 같이 생긴 것으로 길게 성문의 길이와 맞게 설치하여 적병이 성문을 태우려고 하면 불을 내리 쏘고 또 창, 화살, 돌 쇠뇌 등으로 밑을 공격할 수도 있게 한 시설이다. 다만 화성의 성문에는 옹성을 설치하여 정문에는 적이 접근할 수 없으므로 오성지는 옹성의 문 위에만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누조도설」 말미에 그 제도가 아래 그림에 자세하다고 하였으나 역시 그림이 남아 있지 않다.

「起重圖說」에서는 석재를 구하기보다 운반하기가 더 어렵다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중국에서는 이미 前漢 시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리하여 정조가 하사한 『奇器圖說』의 起重에 관련된 것 가운데 그림이 정밀한 제8조, 제10조, 제11조 중 당시 우리의 기술로는 만들기 어려운 제10조의 것은 빼고 제8조와 제11조를 참조하여 架, 橫梁, 滑車, 轆轤, 簾에 대해 그림을 그려 설명한 뒤 마지막에 전체 모습인 全圖를 그려 넣었다. 그림이 있는 점에서 다른 도설들과 다르다. 架는 A자 형으로 다리를 4개 만들고 그 위에 들보인 가로대를 설치한 것이다. 橫梁은 架의 바로 밑에 설치되어 도르래인 滑車를 걸 수 있게 고안되었다. 활차는 바퀴와 축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바퀴의 재질은 나무이지만 축의 재질은 강철로서 모가 지

게 하여 바퀴와 꼭 물리게 하였다.

轆轤는 簾의 하부에 가로로 설치되어 상부의 鼓輪에서 감겨져 오는 밧줄을 감도록 하였다. 즉 簾은 상부의 고륜과 하부의 녹로로 구성되었다. 녹로의 축 양쪽 끝에 십자형의 손잡이가 달려 돌리도록 고안하였다. 全圖의 그림과 설명에 따르면 簾을 架의 양쪽에 하나씩 설치하고 架의 가로대 밑에 횡량을 달은 뒤 횡량에 활차 4개를 달고서 아래쪽에 다시 횡량과 활차 4개를 설치하여 위의 활차와 연결되게 하였다. 다음으로 아래의 횡량에 무거운 물건을 매달며 위의 양끝 두 활차에 걸린 줄이 양쪽의 고륜으로 연결되고 고륜에 감겨 돌아 다시 녹로에 연결되는데 양쪽 녹로의 십자형 손잡이를 돌리면 무거운 물건이 들어 올려진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總說」에서는 위와 같이 활차를 사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이점으로 사람의 힘이 덜 들며 무거운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위와 같이 하여 이루어진 기구에 대하여 起重架라 부르고 이것은 여러 기종가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즉 아이의 힘으로 수만 근을 들어올릴 수 있는 기종가도 만들 수 있으나 화성 건설에 사용되는 석재는 그다지 크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니 굳이 그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새로운 기계 설계와 기술 개발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이 이와 같은 축성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좋은 기구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정약용은 위에서 보았듯이 이 단계에서 『기기도설』을 하사받는 등 다시 정조의 도움 아래 새롭게 자신의 利用厚生學을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이런 속에서 구체적으로 화성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화성 건설에는 토목 기술에 대한 지식 및 군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정약용은 1787년(정조 11) 이미 성균관 유생 시절 정조로부터 『兵學通』이라는 兵書를 하사받아 군사 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 정조 13년에는 한강에 舟橋를 설치하는 일을 맡음으로써 토목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었다. 여기에 다시 『기기도설』 신기술이 전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북학파의 영향을 받기 전이었다.

화성건설 계획의 수립 및 관련 기구 설계 외에도 정약용은 수원과 관련된 두 가지 일을 행하였다. 첫째 앞서 언급한 한강 舟橋 설치에 참여한 것도 수원과 관련된

49)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성성역의궤』를 조사해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 즉 정조 13년(1789) 10월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 화산에 옮길 때에 정조가 직접 거동하였는데 이 때 한강에 舟橋가 설치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해 10월 5일 서울을 출발하여 10월 6일 과천을 출발하였으므로 한강의 주교를 건넌 것은 10월 5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한강 일대 京江 상인들의 배가 이용되었다. 정약용이 舟橋 설치의 일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일에 참여한 것을 가리킨다.⁵⁰⁾ 현릉원 천봉을 위해 정조가 수원으로 행차하기 위해 한강에 주교를 설치하는 작업 가운데 정약용이 그 설계를 담당한 것이다. 한편 『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가 현릉원 천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은 10월 8일인데 이날 밤은 과천 행궁에서 묵었다. 따라서 한강을 건넌 것은 10월 9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에도 역시 舟橋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둘째 수원과 관련하여 정약용은 화성 건설과 관련된 일을 서류로 정리하는 작업에 참가하였다. 즉 그는 1795년 을묘원행에서 돌아온 뒤 정조의 명으로 그간 화성 성역과 관련된 일들을 정리하는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華城整理通攷』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⁵¹⁾ 이 『화성정리통고』 편찬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 「植木年表」이다. 정약용은 이에 대한 발문으로 「跋植木年表」를 썼는데 여기에서 “是年夏 爲言者所賺 秋謫金井”이라고 하였으므로 1795년 7월 금정으로 좌천되어 가기 전 「植木年表」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²⁾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약용의 수원 행차는 6번이다. 첫 번째는 1789년 10월 顯隆園 천봉 때이

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790년 봄 3월 해미로 유배갈 때와 해미에서 돌아올 때이다. 네 번째는 1795년 윤2월 乙卯園行 때이고 다섯 번째는 1795년 7월 금정 찰방으로 좌천되어 갈 때이며 여섯 번째 1795년 12월 금정에서 한양으로 돌아올 때이다.

둘째 정약용은 기호남인계 실학자이므로 크게 보아 經世致用 학파의 흐름에 속하지만 국왕 기호남인 자체에 내재해 있던 利用厚生學的 요소를 발전시키는 한편 및 박제가를 통해 북학파의 사상을 흡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또 여기에는 국왕 정조의 영향도 있었다. 이리하여 정약용은 경제치용학과 이용후생학을 종합할 수 있었다.

셋째 정약용은 1789년 현릉원 천봉을 위해 한강에 舟橋를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넷째 정약용은 위해 화성 성곽과 관련 시설의 설계 및 기구 설계를 하여 화성 건설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다섯째 정약용은 화성 건설과 관련하여 『화성정리통고』 작업에 참여하여 화성 건설 사업을 록으로 정리하는 일을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식목연표」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수원과의 관련 작업이 정약용의 사상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정약용이 화성 건설 사업에 정약용이 참여한 것은 그로 하여금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더욱 높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그가 강진시절 『牧民心書』, 『經世遺表』 등을 저술할 때 기술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고 기술발전론을 전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리하여 『경세유표』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체계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 기구로서 利用監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경세유표』 속에 그는 수도의 도시 계획으로서 「匠人營國圖」를 작성해 넣는데 여기에도 화성 건설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50) 『사암선생연보』에 의하면 이 해 겨울에 舟橋의 계획을 만들어 실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20쪽, (정조) 13년, 겨울, “冬有舟橋之役 陳其規制 事功以成”).

51) 『여유당전서』 1, 29쪽, “駕自華城回 至三月 臣在奎瀛府 撰整理通攷”. 을묘원행에서 돌아온 뒤 1795년 3월 정약용이 『화성정리통고』 편찬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2) 『여유당전서』 1, 298쪽. 또 이 「발식목연표」에서 “乙卯春 命開書局 撰整理通攷...命臣鏞撰次 既受命 上授植木簿...其刪繁就約 務從明白 勿令過一卷”이라고 하였으므로 『화성정리통고』 작업의 일환으로 「식목연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Suwon(水原) and Tasan(茶山)

Cho Sung-Eul (Humanities Division at Ajou Univ.)

First, Tasan visited Suwon six times.

Second, Originally Tasan belonged to System-reformist School but he absorbed Production-increase School's arguments and synthesized them.

Third, Tasan built a boats bridge for his king in the Han River.

Fourth, Tasan designed the Hwaseong Fortress(Suwon Castle) and made convenient machines to build it.

Fifth, after the Hwa-seong Fortress had been completed, Tasan wrote the "Report on the completion of Hwa-seong Fortress".

In addition, Tasan's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Hwa-seong Fortress, had much influence on Tasan's works in late period.

Keywords: Suwon, Tasan, System-reformist School, Production-increase School(이용후생학과), Hwa-seong Fortress(화성), Tasan's works in late period(다산의 후기 저작), Report on the completion of Hwa-seong Fortress(화성정리통고)

수원지역 3·1운동과 민족대표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소고

조 성 운 (경기대학교 강사, 본 연구소 연구위원)

머리말	3. 형량을 통해서 본 ‘민족대표’와 수원
1. 일제시기 수원지역 3·1운동 연구사	지역 3·1운동의 참여자의 비교 분석
정리	맺음말
2. 수원지역의 3·1운동과 ‘민족대표’	

머 리 말

수원지역은 구한말 이래 민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지역이다. 구한말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일제하에서는 3·1운동을 비롯하여 1920년대 이후 청년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은 시기와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수원지역의 3·1운동은 그 규모나 격렬함에서 대표적인 것이었다.

수원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는 대부분 장안면과 우정면의 시위와 제암리사건에 편중되어 지리적으로 혹은 ‘제암리사건’이라는 이슈에 편중현상이 심하였으나 최근 송산면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편중현상이 감소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수원지역 3·1운동 연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기독교와 천도교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비교적 많이 제출되었다는 점이다.¹⁾ 이렇게 보면 수원지역의 3·1운동연구는 주로 일제에 대한 저항사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항의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3·1운동의 배경이나 일제의 탄압이라는 지배정책의 관점을 상실하게 되어 3·1운동에 대한 입체적인 조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원지역 3·1운동 연구에서 이러한 측면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곧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적거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수행됨으로써 이른바 ‘민족대표’로 상징되는 중앙과의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수원지역의 3·1운동은 ‘민족대표’와 관련 없이 처음부터 농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경기도지방의 3·1운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제기되었다.²⁾ 그러나 필자는 수원지역 3·1운동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민족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 깊이있게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 하에 필자는 본고에서 수원지역의 3·1운동과 ‘민족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문 상에 나타난 수원지역의 3·1운동 관련자들과 ‘민족대표’의 형량을 비교함으로써 3·1운동 과정에서 ‘민족대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일제시기 수원지역 3·1운동 연구사 정리

최근 경기도지방의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3·1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고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3·1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안성 3·1운동기념관과 화성 제암리의 3·1운동순국기념관은 이 지역의 3·1운동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기념관이 설립된 지역에서

는 자기 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사 혹은 향토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던 ‘향토사가’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해당 지역의 대학 혹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학자들이 지역사라는 새로운 분야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수원지역의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최근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로 3·1운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3·1운동의 전후시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민진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개항 이후 3·1운동 이전까지의 연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는 자료상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 연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최근 수원지역 3·1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수원문화원과 화성문화원이 3·1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02년 한국민족운동사학회와 화성문화원이 주최한 학술회의는 수원지역의 3·1운동사연구를 활성화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이에 자극받은 수원문화원이 2003년과 2004년에 계속해서 3·1운동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더욱이 화성시에서는 2003년에 『화성지역 3·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원지역 3·1운동사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이외에도 수원대학교 동고연구소에서는 경기도지방의 3·1운동을 다루면서 「화성 화수리항쟁의 역사적 성격」(박환)을 비롯해 용인(이상일)과 개성의 3·1운동(박수현)을 발표하였다. 수원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 1) 조병창, 「수원지방을 중심한 3·1운동소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 2) 노천호, 「수원지방 3·1운동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3) 이정은, 「화성군 우정면·장안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
- 4)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회사연구』 7, 1997.
- 5) 최홍규, 「수원지방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3·1독립운동과 민족정

1) 수원지역 3·1운동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1장에서 상세하게 하기로 한다.

2) 이지원, 「경기도지방의 3·1운동」,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332쪽.

기], 1996.

- 6)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출판사, 1983.
- 7) 성주현, 「제암리의 3·1운동」, 『신인간』 통권480호, 1990.
- 8)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민족운동」, 『경기사론』 4·5 합집, 2001.
- 9) 홍석창, 『수원지방의 3·1운동사』, 왕도출판사, 1981.
- 10) 홍석창, 『감리교회와 독립운동』, 에이맨, 1998.
- 11) 홍석창, 『1893-1930 수원지방 교회사 자료집』, 에이맨, 2001.
- 12)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2001.
- 13) 서굉일, 「화성지역의 항일운동」, 『화성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화성시, 2002.
- 14) 박환, 「송산면의 3·1운동」, 『화성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화성시, 2002.
- 15) 이정은, 「장안·우정면 3·1운동과 그 성격」, 『화성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화성시, 2002.
- 16) 수원지방의 3·1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의 양상, 『화성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화성시, 2002.
- 17) 김창수, 「3·1독립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수원문화원 주최 3·1운동 84주년기념 학술심포지움 발표문, 2003. 2. 27.)
- 18) 김권정, 「수원지방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와 동향」, 『수원지방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2003.
- 19)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인의 역할」, 『수원지방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2003.
- 20) 김세영,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천도교의 항일독립운동」, 『상명사학』 8·9, 2003.
- 21) 이동근,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한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 22) 서굉일, 「화성지역 3·1운동의 지방사적 배경」,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 한신대학교출판부, 2003.
- 23) 화성시, 수원대학교 박물관, 『화성지역 3·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2003.
- 24) 박환, 「경기도지역 3·1운동의 연구동향과 전망」(『김세환 3·1운동 기

념비 건립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수원문화원 주최, 2004. 2. 27)

- 25) 조이제, 「김세환의 생애와 종교」, (『김세환 3·1운동 기념비 건립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수원문화원 주최, 2004. 2. 27)
- 26) 조성운, 「수원지역 사립학교의 성장과 김세환」, (『김세환 3·1운동 기념비 건립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수원문화원 주최, 2004. 2. 27)
- 27) 김권정, 「김세환과 기독교민족운동」, (『김세환 3·1운동 기념비 건립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수원문화원 주최, 2004. 2. 27)
- 28) 박환, 「수원지역 민족운동사연구 동향」(『수원학 어떻게 할 것인가』, 수원문화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발표문, 2004. 11. 4)
- 29) 조성운, 「『매일신보』에 나타난 경기지방의 3·1운동과 일제의 대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 30) 박환, 『경기지역 3·1 독립운동사』, 선인, 2007.

먼저 2002년 ‘화성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화성시와 한국민족운동사학회가 주최한 학술회의에는 「화성지역의 항일운동」(서굉일), 송산면의 3·1운동(박환), 「장안·우정면 3·1운동과 그 성격」(이정은), 「수원지방의 3·1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의 양상」(최홍규) 등 4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서굉일은 화성지역의 민족운동을 개괄하였고 박환은 송산면 사강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3·1운동을 일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그는 이 논문에서 운동 관련자의 후손들을 비롯한 여러 명의 증언을 이용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정은은 기존의 자신의 논문(『화성군 우정면·장안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며 최홍규는 천도교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3·1운동을 살핀 후 1920년대 이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단체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한편 수원문화원이 2003년에 주최한 학술회의에는 「3·1독립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김창수), 「수원지역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와 동향」(김권정), 「수원지역 3·1운동과 천도교인의 역할」(성주현), 「1920년대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동향」(조성운)이 제출되었다. 김창수는 이 글에서 3·1운동 연구사를 개괄한 후 수원지역의 3·1운동 연구에 다양한 시각을 원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권정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3·1운동 무렵의 수원지역 기독교의 개황을 서술하면서 수원지

역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조직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수원지역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였는가를 인물 중심으로 서술하여 3·1운동 이후의 수원지역의 기독교 동향을 파악하는데 기여하였다. 성주현은 천도교적인 입장에서 수원지역의 3·1운동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수원문화원이 주최한 2004년의 학술회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金世煥의 활동을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는 '민족대표 48인'³⁾ 중의 1인으로서의 김세환에 대해 정리한 최초의 학술회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는 박환이 「경기도지역 3·1운동의 연구동향과 전망」, 조이제가 「김세환의 생애와 종교운동」, 조성운이 「수원지역 사립학교의 성장과 김세환」, 김권정이 「김세환과 기독교 민족운동」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였다. 박환은 경기도지방의 3·1운동을 수원지역의 3·1운동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는 3·1운동사의 연구를 20세기 3·1운동의 연구 동향, 수원지역 3·1운동 연구 동향, 화성지역 3·1운동 연구 현황, 안성지역의 3·1운동 연구 동향, 용인지역의 3·1운동 연구 동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화성지역의 3·1운동을 다시 제암리와 수촌리를 중심으로 한 희생중심의 연구, 우정면·장안면·송산면을 중심으로 한 항쟁중심의 연구, 3·1운동 관련 자료와 3·1운동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의 연구는 경기지방 3·1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은 돋보이나 경기지방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수원시와 화성시를 분리하여 설명함으로써 현재의 행정구역에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화성시는 3·1운동 당시에는 수원군의 일부였고 현재에도 수원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른 서술보다는 당시의 행정구역이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조이제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김세환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그는 밀려선교사의 기록을 토대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서술함으로써 김세환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였다. 조성운은 수원상업강습소(화성학원)와 삼일학교를 중심으로 한 김세환의 교육활동을 살폈다. 이 글에서 그는 화성학원의 사례를 통해 김세환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과 교육운동의 중심인물로 파악하였다. 김

권정은 김세환의 민족운동을 '기독교민족운동'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그의 활동이 기독교민족주의에 바탕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성주현은 천도교의 시각에서 서술한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에서 제암리사건의 희생자를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23명이 아니라 37명이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였다. 그의 연구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서술된 이덕주의 「3·1운동과 제암리사건」과 서로 보완하면서 제암리사건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세영은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천도교의 항일독립운동」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천도교관계자의 후손들을 인터뷰하여 논문 작성에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다만 구술자료에 의존할 때 발생할 지도 모를 선조에 대한 '미화'와 '왜곡'의 가능성을 기존의 연구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사료 비판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서평일은 「화성지역 3·1운동의 지방사적 배경」에서 수원지역의 3·1운동을 전개양상, 의식과 이념, 1910년대 화성지역 민중운동의 조직과정, 화성지역 3·1운동의 지도부, 민중의 처지와 사회경제적 조건을 밝혔다. 이 논문은 수원지역 3·1운동의 전반적인 발생조건과 전개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지도부 및 민중의 의식까지도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박환은 『경기지역 3·1 독립운동사』에서 경기지방의 3·1운동을 서술하면서 기존의 수원지역의 3·1운동 관련 논문을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지역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수원지역 3·1운동의 발생계기로서 민족대표와의 관련성을 천착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제의 탄압에 대해서도 조성운의 연구(29) 외에는 전혀 없다. 여기에서 보듯이 수원지역 3·1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민족대표 등 중앙과의 관계에 대한 구명과 일제가 수원지역 3·1운동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밝힘으로써 수원지역 3·1운동에 대해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2. 수원지역의 3·1운동과 '민족대표'

3·1운동의 성격규정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민족대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민족대표'의 역할을 긍정하는 주장, 부정

3) '민족대표 48인'이라는 용어는 수원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민족대표 33'인 외에도 서명을 하지 못한 15인을 함께 부르는 용어라 이해된다.

하는 주장,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주장 등으로 나뉜다. 긍정론자는 ‘민족대표’야말로 3·1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지도자라고 주장하며, 부정론자는 민족자결주의에 환상을 품고 독립운동을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두려워하여 일제에 투항하였고 비폭력을 내세움으로써 운동의 실패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제한적 긍정론자들은 3·1운동을 초기의 기획, 준비 단계와 후기의 민중화 단계로 구분하여 초기에는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주장하였다.⁴⁾

‘민족대표’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와 같다면 수원지역의 3·1운동 전개과정에서 ‘민족대표’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을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수원지역의 3·1운동에서는 ‘민족대표’의 역할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원지역의 3·1운동은 처음부터 농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분명히 수원지역의 3·1운동의 초기에는 김세환과 이병헌 등 ‘민족대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활동한 인물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감리교인인 김세환은 ‘민족대표’ 48인 중의 1인으로서 YMCA의 간사인 박희도의 권유에 의하여 1919년 2월 10일경 3·1운동의 준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충남북과 수원지역의 책임자가 되어 활동하였다. 그의 활동에 의해 3·1운동에 참여하게 된 인물은 해미의 金秉濟, 수원 남양교회의 董錫璣, 수원 종로교회의 任應淳, 오산교회의 金光植, 이천교회의 李康백(일명 李康雨) 등이었다.⁵⁾ 또한 그는 수원상업강습소(화성학원)과 삼일학교의 교사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수원상업강습소 2회 졸업생인 김노적과 보조교사였던 박선태와 같은 제자 혹은 후배를 통해 청년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 본다.

다음으로 李炳憲은 수원지역 동학, 천도교의 지도자인 李敏道의 장남으로서 1920년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의 회장이 되었으며⁶⁾ 천도교 수원교구의 傳教師, 講道員, 典制員, 金融員을 역임하였고 3·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 손병희의 부름을 받아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한 후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3월 16일 수원에 내려와 북수리의 천도교당에서 김종모, 안중환, 안중린, 홍종각, 김상근 등과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⁷⁾ 바로 이 회의는 이병헌이 지방교구 자체의 부

담으로 독립운동을 계속 추진하라는 천도교 중앙 본부의 지시를 전달한 회의였다. 따라서 이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과 이들과 연합한 한학자 이정근 등에 의하여 이후 장안면과 우정면의 3·1운동이 지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세환과 이병헌 등 ‘민족대표’와 관련을 갖고 있었던 인물들의 활동은 수원지역 3·1운동이 점차 격화되면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농민층의 자발적인 진출과 관련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장안면과 우정면의 시위에서는 여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장날을 이용한 군중 동원의 방식과는 달리 장날과는 관계없이 구장들이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하여 관공서를 파괴, 방화하고 일인 순사를 처단하는 등 조직적이고 공세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⁸⁾

이상과 같이 보면 수원지역의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도 그 초기에는 ‘민족대표’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원의 사례를 보면 운동의 초기에는 ‘민족대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운동이 전개되면서 ‘민족대표’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구장들이 운동의 전면에 나선다던가 송산면 사강리에서 시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민족대표’와의 관련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⁹⁾

3. 형량을 통해서 본 ‘민족대표’와 수원지역 3·1운동의 참여자의 비교 분석

앞절에서 보았듯이 수원지역의 3·1운동은 초기에는 ‘민족대표’와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었으나 후기에는 농민층이 중심이 되어 운동을 전개한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이 운동의 주도층이 변화하게 되는 것은 민족독립에 대한 ‘민족대표’와 농민층의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운동의 방법도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는 3·1운동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민족자결주의

7) 이 중 홍종각과 김상근은 1920년대 이후 수원지역 민족운동에서 천도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성장하였다.

8) 이정은, 앞의 논문, 75쪽.

9) 송산면의 시위는 3월 1일 고종의 국장에 참석하고 돌아온 洪孝善에 의하여 만세소식이 전해지면서 洪효선과 洪冕玉(일명 洪冕) 등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역사문제연구소 민족해방운동사연구반, 『민족해방운동사』, 역사비평사, 1990, 147~148쪽.

5) 「김세환 신문조사」(1919. 3. 18), 홍석창, 앞의 책, 292쪽.

6) 「水原郡宗理院沿革」, 『천도교회월보』 191, 30쪽.

및 비폭력주의에 대한 농민층의 반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차는 결국 운동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민족대표’가 제시했던 비폭력주의의 원칙이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장안면과 우정면의 시위에서는 주재소 및 면사무소를 포위한 후 투석하고 곤봉으로 문을 파괴하고 뒤에 방화반은 방화하고 살해반은 일본인 순사를 타살하기로 하였으며¹⁰⁾ 송산면의 시위에서는 노구찌순사를 타살하였던 것이다.¹¹⁾ 이렇게 보면 수원지역의 3·1운동에서는 ‘민족대표’의 비폭력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제의 재판부가 ‘민족대표’에 대해 적용한 법률과 수원지역민에 대해 적용한 법률은 다른 것이었다. 먼저 일제는 ‘민족대표’에게는 보안법, 출판법 위반 및 소요죄이라는 법률을 적용¹²⁾한 반면에 수원지역의 송산면민에게는 보안법 위반 및 소요, 살인죄를 적용하였고,¹³⁾ 장안면과 우정면민에게는 보안법위반, 소요, 살인, 방화죄를 적용하였던 것이다.¹⁴⁾ 결국 적용된 법률을 보면 ‘민족대표’에게 적용된 것보다 수원지역민에게 적용된 법률이 더욱 무거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민족대표’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수원지역민들의 투쟁이 격렬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족대표’와 수원지역민이 일제의 재판부로부터 받은 형량도 차이가 난다.

‘민족대표’는 최고 징역 3년에서 최하 징역 1년에 처해지고 있는 반면에 장안면과 우정면민들은 징역 15년부터 징역 1년, 송산면민들은 징역 12년부터 6개월에 처해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족대표’와 수원지역민이 추구한 운동의 방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대표’와 수원지역민(농민)의 계급적 기반과 이념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민족대표’에 대해 계급적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한 연구에 따르면 ‘민족대표’ 33인이 중인이라는 신분, 근대적 지식인, 상공업 종사자들로서 근대적 시민계급이었다고 한다.¹⁵⁾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연구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을 다시 독립청원 입장의

10) 국사편찬위원회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 245쪽.

11) 大正 9年 刑上 第79號, 「洪冕 등 19명에 대한 判決文」.

12) 大正 9年 刑控 第398號, 第399號, 「孫秉熙 등 47명에 대한 判決文」.

13) 앞의 「洪冕 등 19명에 대한 判決文」.

14) 大正 9年 刑控 第527號, 「金賢默 등 27명에 대한 判決文」.

15) 김영모, 「3·1운동의 사회계층 분석」, 『아세아연구』 12-1. 참조 바람.

예속자본가, 독립시위 입장의 민족자본가 상층, 독립쟁취 입장의 민족자본가 하층으로 구분하였다.¹⁶⁾ 하지만 이 주장은 아직까지 시민계급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부에서 계층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족대표’를 이와 같이 근대적 시민계급, 혹은 자본가라고 보면 이들이 어떠한 이념 하에서 운동을 계획하고 전개하였는가 하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흔히 3·1운동은 일선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국내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외부적인 요인에만 주목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일제에 의해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입업령, 광업령, 동척 등을 통해 경제침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농민층의 몰락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조선 사회 내부에서는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 초기에 ‘민족대표’들의 투항주의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은 농민층을 이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원지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운동이 전개되면서 점차 농민층이 중심이 되어 운동을 전개하게끔 된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수원지역민(농민)들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였을까. 이를 ‘민족대표’와 마찬가지로 계급분석을 통해 알아보자. 장안면과 우정면의 시위에 참여하여 재판을 받은 27명 중 면장인 金賢默을 제외한 26명이 모두 농민이었으며 송산면의 시위에 참여한 29명의 주요 관련자의 경제상황을 극빈 6명, 곤란(약간 곤란 포함) 12명, 보통 4명, 풍족(유복 포함) 5명, 미상 2명으로 분류하였다.¹⁷⁾ 그리고 직업은 대부분이 농업이었고 학력은 대체로 서당에서 2, 3년 공부하거나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수원지역의 시위군중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식민지 사회의 하층민으로서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19년 4월 이재민 상황을 시찰한 경기도장관이 서울에 돌아와 “송산면, 마도면 방면은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고기잡이를 하는 백성인데 반은 농사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 땅을 농사하는 자는 거의 없고 모두 소작인뿐이므로 구차한 백성이 많다.”고 한 지적은 이를 말해준다.

이렇게 보면 수원지역민들과 ‘민족대표’의 사회경제적인 위치는 분명히 다를

16) 안병직, 「3·1운동에 참가한 사회계층과 그 사상」, 『역사학보』 41. 참조 바람.

17) 박환, 앞의 글, 154쪽.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위치에서 볼 때 이들은 3·1운동을 각기 자신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러한 입장차는 운동의 형태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원지역의 3·1운동에서는 '민족대표'의 구상과는 달리 처음부터 면사무소, 주재소를 습격, 방화하고 일본인 순사를 살해할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농민층에 대한 소요죄, 방화죄, 살인죄 등을 적용한 일제의 판결은 한편으로는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수원지역의 시위군중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밝혀둔다.¹⁸⁾ 이는 일제가 수원지역 3·1운동의 격렬함과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암리 학살사건에서 보듯이 야만적인 탄압, 살인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지역의 3·1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다.

첫째, 수원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처음부터 농민이 운동의 중심이었다는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김세환과 이병헌의 활동에 주목해야 수원지역 3·1운동의 초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수원지역 3·1운동의 초기 단계에는 '민족대표'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세환과 이병헌이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는 구체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수원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민족대표'가 제시했던 비폭력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던 이유이다. 수원지역에서는 운동의 시작부터 폭력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일제의 탄압에 맞선 수세적인 개념이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조직적이고 공세적인 개념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수원지역의 3·1운동이 폭력적이고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앞에서 보았던 경기도장관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수원지역 농민층이 이미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몰락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운동이 처음부터 격렬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개되었다고 본다.

셋째, 일제가 수원지역 3·1운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일제는 내란죄를 적용하려고까지 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암리 학살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원지역의 3·1운동은 김세환과 이병헌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와 천도교의 세력이 민족대표와 연락하면서 각각 기독교회와 천도교회, 그리고 수원지역의 사립학교를 근거로 주도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18) 大正 8年 特豫 第2號, 『高等法院豫審判事意見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1, 353쪽.

Abstract

The Short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3·1 Movement in Suwon Area and a National Representative

Cho Seong-Woon (Kyonggi Univ. Lecturer)

3·1 Movement in Suwon Area was developed featuring the important facts, here's what they are:

First, We have to think twice the assertion that peasants were the center of this Movement during 3·1 Movement process in Suwon Area. That is, we can understand enough an early stage of 3·1 Movement only when focusing on activity of Kim Se-whan and Lee Byeong-Heon. There was the influencing power of "a national representative" at an early stage of 3·1 Movement. In relation with this, I want to emphasis on the fact that we need an effort to find out concretely what kind of role Kim Se-whan and Lee Byeong-Heon took during 3·1 Movement in Suwon Area

Second, we have to focus on the reason that nonviolent suggested by 'a national representative' was not kept during 3·1 Movement process. The aspect of violence revealed in Suwon area for the first of the Movement. And this was not passive conception just defending the oppression of Japan but scrappy and systematic conception on the projecting stage. Like this, we can say that 3·1 Movement in Suwon Area developing at the violent and scrappy direction shows, as we know through the reference from the Chief of Gyeonggido province, the fact peasant class in Suwon became bankrupt under the reign of Japanese colony. So, I think this Movement was developed in the violent and aggressive way for the jump

Third, we must consider Japan recognized 3·1 Movement in Suwon

Area seriously. Then, Japan tried to apply rebellion for them. As previously mentioned, it can be considered such Japan behavior included intention to justification of Jearmri slaughter incident

Keywords: 3·1 Movement, National Representative Suwon

정조의 화성건설

박 천 우 (장안대학 관광레저경영계열 교수, 본 연구소 연구위원)

-
- | | |
|-------------------------|-----------------|
| 1. 용릉 | 4. 화성행궁 |
| 2. 용주사 | 5. 화령전(사적 115호) |
| 3. 화성성곽(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
-

1. 용릉(隆陵)

용릉은 조선 제 21대 영조의 둘째 아들이며 정조(1752~1800)의 생부인 사도세자(추존 장조)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경의왕후)의 능이다. 정조는 1789년 양주 배봉산에 있던 부친의 묘를 화산으로 이장하였다. 원래 이름 현릉원은 ‘현부(顯父)에 융성하게 보답한다’는 뜻이다.

현릉원 자리는 花山이요, 이 고을은 柳川인데 華인이 聖人(혹은 왕)을 축복했다는 뜻을 취하여 이 성을 화성이라고 이름지었다. 花와 華는 통하여 화성은 화산이라는 뜻이고 8백 개나 되는 봉우리들이 한 멧부리를 둘러싸 보호하는 형상이어서 (화성이라는 이름은) 마치 花瓣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8년 1월 15일)

용릉의 형국은 화심형(花心形)이다. 화산의 중심인 씨방자리는 꽃이 개화하려고

중심부터 밀치고 난 다음 옆으로 꽃잎을 벌려주는 힘의 원천이다. 용릉은 바로 그 화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펼쳐진 사초지는 꽃잎에 해당한다. 밀치는 화심(씨방)의 힘을 혈(穴)이라는 구멍을 통하여 받으려는 것이다. 여주의 세종대왕릉, 서오릉의 덕종릉, 화산의 용릉은 모두 꽃 모양의 왕릉이기에 쌍릉을 피하여 단릉이나 합장릉의 양식을 택하고 있다. 마곡사에도 화심형의 군왕지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묘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화산이 사도세자의 묘소로 낙점 받게 된 이유는 이곳의 풍수 형국이 화심형인데도 정조가 반룡농주(盤龍弄珠)형이라고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반룡농주형이란 한가로운 차림새(盤)의 용(龍)이 앞에 놓여있는 여의주(珠)를 희롱(弄)하는 모양을 말한다.

정조가 이곳의 형국을 반룡농주형으로 선포하자 대신들은 이를 부정할 수 없었다. 영의정 김익은 앞산에서 여의주 봉우리를 보았다며 정조를 기쁘게 했다. 그래서 대신들은 용의 구슬의 형체와 디자인·조경문제를 의논하였고, 정조는 능의 좌향을 여의주 봉우리에 맞추어 잡으라고 하였다. 용릉 천장 당시 정조는 부근의 갈양사를 원찰로 지정하고 크게 중수하여 낙성식을 올렸는데 그날 밤 여의주를 물고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 후 갈양사를 용주사로 개명하였다.

실제 용릉 앞에는 여의주 봉우리가 없으며 반룡농주형도 맞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정조는 선친의 묘를 천장한 후 반룡농주의 지기를 보완하고자 현릉원 주위 다섯 군데에 여의주에 해당하는 인위적인 소봉을 만들었다. 그 소봉의 위치는 세류동 비행장 안에 있었던 응봉, 만년제 가운데 섬, 조금고개 근처 논, 용릉 남서쪽, 현릉·건릉 재실 지나 건릉 입구에 있었다. 이중 현재 용릉 남서쪽 여의주 봉우리만 남아 있다.

정조는 용릉 남서쪽에 인공 연못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연못의 형태가 특이하게 둥근 원모양이다. 동양사상에 따르면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하늘 기운을 땅 그릇에 담는다는 뜻이다. 결국 둥근 연못을 만든 것은 여의주봉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화성 방화수류정의 용연 역시 이곳과 똑같은 원형 연못으로 반룡농주형에 대한 정조의 고집을 알 수 있다.

정조가 용릉을 반룡농주형으로 고집한 이유는 왕위에 등극하지 못하고 죽은 아

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였다. 즉 풍수형국을 반룡농주형이라 고집하고, 용릉 원찰인 갈양사를 용주사로 개명하였으며 앞쪽에 여의주 봉우리 다섯 개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화성의 창룡문, 용머리의 방화수류정, 용연, 유난히 용처럼 특이하게 뻗어가면서 축성시킨 동쪽 성벽들도 모두 같은 목적에서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용릉 문인석 금관에는 다른 왕릉에서 볼 수 없는 봉황을 그려 넣었다. 용과 봉황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왕이 되지 못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한을 풀어주려는 정조의 강한 효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정조의 특별한 배려로 조성된 현릉원은 어느 왕릉에 비할 수 없이 격을 높게 만들었다. 용릉 뒤쪽의 배산은 송림을 배경으로 하여 경사지 밑부분 3면에 곡장을 두르고 이 곡장 안에 봉분을 놓았다. 곡장은 풍수적으로 살기를 띤 바람이 봉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봉분 밑 부분은 12각의 병풍석을 둘러 보호하고 병풍석의 중앙면석에는 12방위의 십이지신상을 해당방위에 맞게 양각했다. 이 십이지신상은 모든 방위의 외침으로부터 왕릉을 보호하라는 의미로 새겨 넣었다. 십이지신상을 새긴 병풍석은 세조의 광릉 이후 없어졌다가 한동안 다시 쓰였다. 효종의 영릉(寧陵) 천봉 때 다시 폐지되었지만 정조는 이를 어기고 병풍석을 만든 것이다.

봉분은 석호 4기와 석양 4기가 밖을 향하며 호위하고 있다. 석호는 능을 지키는 수호신이며, 석양은 사악한 것을 피한다는 의미와 함께 명복을 비는 뜻을 담고 있다. 추존된 왕릉은 일반 왕릉과 차등을 두기 위하여 석호와 석양의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하므로 용릉은 석호와 석양이 각각 2기씩이고 건릉은 각각 4기씩이다.

봉분 바로 앞쪽에는 혼유석(일반인의 묘에서는 상석이라고 한다)이라 불리는 돌이 있다. 혼유석 아래에는 귀면 모양을 새긴 고석이 혼유석을 받치고 있다. 혼유석 좌우에는 망주석 1쌍이 있다. 망주석은 먼 곳에서 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로서 영혼이 자기의 유택(능)을 찾아오게 하는 안내 역할을 한다. 이 망주석에는 상상의 동물인 세호가 새겨져 있다. 세호는 밤에 눈이 잘 보이기 때문에 뱀이나 새 등으로부터 봉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장명등 좌우에는 문인석 1쌍이 석마를 대동한 채 서 있고, 그 아래에는 왕이 위협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장검을 빼들고 서 있는 무인석 1쌍과 석마가 있다. 추존된 왕릉에는 무인석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용릉에 무인석을 만들

어 세웠다는 점과 봉분에 병풍석을 화려하게 조각하고 치장한 점등에서 왕릉으로 승격시키고자 한 정조의 효심을 엿볼 수 있다.

봉분에서 무인석까지는 거의 평평한 지형을 이루다가 무인석부터 정자각까지는 심한 경사를 이루는데 이 경사진 부분을 사초지라 한다. 사초지 중간쯤에 평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영혼이 오르고 내릴 때 잠시 쉬었다 가도록 만든 것이다. 사초지의 끝부분에 정자각이 있다. 정자각은 원래 봉분 정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용릉의 정자각은 왼쪽으로 비껴 서 있다. 그 이유는 뒤주 속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가 능에서라도 답답하지 않도록 앞을 가로막지 않은 것이다. 정자각은 제향을 지내는 건물이며 정자각 뒤편 서쪽에는 제향 시 사용한 축문을 태워 묻는 방형 모양의 석함인 예감이 있고, 동쪽에는 비를 안치하기 위한 비각이 있다. 비각 아래에는 제기·제물 등을 준비하는 수복방이 있다.

정자각 정면으로는 참도가 깔려 있다. 참도는 임금이나 다니는 어도와 망인이 다니는 신도로 나뉜다. 용릉의 참도는 다른 능과 달리 두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는 폭이 넓고 그 아랫단 왼편에도 정자각까지 넓게 박석을 깔아놓고 있다. 참도가 시작되는 곳부터는 신성한 곳을 알리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고 홍살문 오른쪽에는 왕이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절을 하고 들어가는 장소인 배위가 있다.

용릉이 다른 능과 다른 점은 첫째, 봉분이 장릉에서와 같이 모란·연화문을 새긴 병풍석을 두르고 있다. 둘째, 인석(引石)이 꽃봉오리모양이다. 셋째, 장명등이 조선 전기의 팔각장명등과 후기의 속중·영조 연간에 등장한 사각장명등의 양식을 혼합하여 구름무늬를 다리에 새기고 대석에 꽃을 새겨 새로운 양식을 창조했다. 넷째, 난간석을 생략하고 방위표시를 하기 위해 꽃봉오리 모양의 인석에 문자를 새겨 넣었다. 다섯째, 추존된 왕릉임에도 불구하고 무인석을 만들어 세웠다.

용릉 석물의 특징 중의 하나는 병풍석·인석·장명등이 모조리 꽃문양들로 치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용릉의 형국이 화산(꽃피)의 씨방인 화심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석물에도 꽃문양을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조대의 문운 융성과 실학의 분위기가 반영하고 있는 용릉의 석물은 19세기 이후의 능 석물(陵石物)의 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용릉에서는 능의 석인을 사실적으로 다듬어 가슴에 파묻혔던 목을 나오게 하여 답답하지 않으며, 문인석의 조각도 종래까지 흔히 쓰던 복두(머리수건)대신 금관을 쓰고 있다.

2. 용주사

용주사는 용릉의 능사(陵寺)로 1790년(정조 14)에 창건되었다. 조선 제 22대 왕인 정조가 용주사를 창건하게 된 것은 28세의 젊은 나이에 뒤주에 갇힌 채 8일 만에 숨을 거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였다.

용주사에는 정조의 애뜻한 효심이 담겨있는 부모은중경판이 있다. 정조는 보경스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대한 설법을 듣고 이를 간행하였다. 설법에 감동한 정조는 부친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절을 세울 것을 결심했다. 먼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옮겨 현릉원이라 하고, 보경스님을 팔도도화주로 삼아 옛 갈양사 터에 절을 짓기 시작하였다. 전 국민으로부터 받은 시주 8만 냥으로 4년간의 공사 끝에 1790년 절이 완공되는 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 정조는 절 이름을 용주사로 정했다.

이 절은 전국 5규정소(승려의 생활을 감독하는 곳) 중의 하나가 되어 승풍을 규정했으며, 팔로도승원을 두어 전국의 사찰을 통제했다. 또한 일찍이 31본산의 하나였으며, 현재는 대한 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로 60여 개의 말사·암자를 거느리고 있다.

용주사 일주문을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용주사사적비, 왼쪽으로 강대련선사비가 있다. 강대련(1875~1942)은 용주사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사에 오점을 남긴 인물이다. 1911년 용주사의 주지였던 강대련은 불교진흥회, 조선사찰 30본산 연합사무소 등 친일 불교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1919년 10월 사이토 총독에게 효과적인 조선통치를 위해 일본 승려와 우리 나라 양반자제들과의 결혼 또는 우리나라 승려와 일본 귀족간의 통혼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때부터 조선총독부는 조선불교 말살정책으로 승려들을 대처승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친일행각으로 강대련은 불문(佛門)에서 영원히 추방당했다.

강대련은 한용운 등에 의해 명고출송(鳴鼓出送: 파계승의 비행을 적어 등에 붙인 다음 북을 치며 거리에 나가 못 사람들에게 환속 당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중벌)까지 당하게 된다. 천보루 동쪽으로 종루 벽면에 검정 목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강대련이 주지를 맡고 있을 때 서울의 문인 목객들이 와서 기념 휘호한 것들을 모아 판각해 놓은 것이다. 한때 강대련의 화려했던 단면을 보여주는 이 목판은 용주사를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수행처로 삼고 있는 스님들에게도 두고두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는 선대의 색다른 유산이다.

삼문각을 들어서면 오층석탑을 앞에 둔 천보루가 다가선다. 아래층은 모두 돌기둥을 쓰고, 2층 누각에 누마루를 돌린 천보루나 좌우로 줄행랑을 단 삼문, 그리고 천보루 좌우에 ㄱ자형으로 연결된 나유타료와 만수리실들은 여느 사찰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이다. 사도세자 현릉원의 재궁(齋宮)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궁궐에서 쓰는 건축기법을 많이 썼다. 즉 궁궐 건축에서 사용되는 돌기둥, 행랑채, 난간, 처마의 이음새 등이 그것이다.

장대석의 석축은 4개의 단으로 대지가 조성되었다. 첫 번째 단이 외삼문이고, 두 번째 단이 천보루와 나유타료, 만수리실이다. 세 번째 단이 대웅보전이고, 네 번째 단이 시방칠등각(칠성각)·제각 등이다. 이러한 석축은 조선시대의 일반사찰에서는 거의 만들지 못하였고, 적어도 궁궐이나 관청과 같은 국가공사에서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용주사 조영이 나라의 주관아래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천보루의 우람한 돌기둥 사이를 넘으면 대웅보전 앞에 다다른다. 팔작지붕의 네 귀퉁이에 활주가 받쳐져 있는 대웅보전은 한눈에 보기에 도 정성을 다해 단단하게 지었음을 느낄 수 있는 정면 3간의 목조건물이다. 기단과 초석은 장대석 기단에 방형과 원형의 이중초석으로 되어 있어 당시 일반 사찰이 잡석 기단에 자연석 주초를 쓰고 있는 점과 크게 대조된다. 기단 상면을 전돌로 깎아 지붕의 취두와 용두, 학과 용을 새긴 막새기와 등에서 관 건축의 특색이 강하게 나타난다. 보통 장대석 기단과 이중 초석은 관청 건축에서도 비교적 격이 높은 건물에만 사용되었다. 대웅보전은 사원건축으로서 일반적 보편성과 아울러 궁궐건축의 특수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특히 대웅보전 정면 계단 대우석의 비운문(飛雲文)·삼태극·모란문은 일반 사찰의 연화문·당초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융릉 정자각 대우석, 화성행궁 봉수당의 대우석과 똑같은 문양이다. 같은 시기에 같은 솜씨 같은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웅보전에는 세 분의 부처님 뒤에 있는 후불탱화가 유명하다. 당시 연풍현감이던 단원 김홍도가 7일 동안 기도를 올린 다음 그렸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탕화 중 유일하게 서양화의 음영법을 도입하여 그렸다. 대웅보전 오른쪽에는 천연기념물

제10호 지정된 회양목이 한 그루 서 있는데, 이 나무는 정조가 심은 것이다.

서쪽의 범종각에 있는 용주사 범종은 국보 제120호로 봉덕사 신종(국보 제29호),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3대 범종 중의 하나이다. 종신에는 신라 제46대 문성왕 16년(845년)이라 새겨진 글씨가 보이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에 음각한 듯하고, 용이 한 발을 들고 있는 용뉴의 모습이며 다소 경직되어 있으면서 귀엽기까지 한 비천상 및 삼존상 등 종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용주사의 상징적인 유물로는 부모은중경판이 있다. 목판 54매, 동판 7매, 석판 24매가 있는데 목판은 1796년 정조의 명으로 간행하였고, 동판과 석판은 1802년 순조가 하사한 것이라고 한다. 대웅보전 동쪽에 부모은중경판을 복각하여 건립한 은중경탑도 이러한 용주사의 정신을 보여 주기 위하여 최근에 건립한 것이다.

이밖에도 부처님의 자비로 백성을 깨우치고자 하는 염원과 사도세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아 정조가 손수 지은 불교식 가사체 어제봉불기복계(御製奉佛祈福揭)와 창건 당시 하사한 금동향로, 청동향로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곳의 보물이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노론의 음모에 휘말려 생목숨을 잃어 가는 것을 지켜본 정조는 노론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성리학적 체제에 환멸을 느껴 수원에 성을 쌓아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다. 화산으로 아버지 묘소를 옮기고 화성을 쌓은 후, 자신도 왕세자가 15세가 되는 1804년에 전위하고 화성행궁에 와서 여생을 보내려 했던 정조지만 세자 나이 11세인 1800년에 급서하여 아버지 곁에 묻혔다.(건릉은 정조의 능이다)

3. 화성성곽(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정조는 화산 아래(지금의 용릉자리)에 있던 수원의 구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조선 최초의 신도시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화성과 화성행궁을 건설함으로써 완벽한 개혁과 효심의 실천 공간을 만들었다. 화성이 정조의 개혁정치의 꽃으로 불리며 효심의 정신적 본향으로 인식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화성

성곽은 1794년(정조 18)부터 1796년(정조 20) 9월 10일까지 26개월간의 공사로 건설되었으며, 화성행궁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되었다. 성곽의 총 길이는 5.7km 이고, 성안의 총 면적은 39만 여 평이다.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음은 화성이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보존해야할 인류의 공동문화유산이라는 뜻이다.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성곽의 과학적 설계에 있다. 화성은 군사적인 측면을 대단히 강조하여 건설하였다. 성벽의 높이는 4~6m로서 평균 5m내외이고, 높이 약 1.2m 너비 4m의 성가퀴를 쌓았다. 성가퀴에는 총안을 3개씩 만들었는데 중앙에는 근총안, 좌우에는 원총안을 두었다. 또한 성가퀴의 간격을 좁게 하고 반마름모꼴로 만들어 병사들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방어와 공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성의 성벽 쌓기는 매우 독특하다. 기존의 성곽들은 대부분 돌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쌓는 전통적인 6합 쌓기 방식을 썼다. 그러나 화성은 이 방식 대신 크고 작은 자연석을 완벽하게 짜맞춤하여 쌓았는데 조금의 틈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성벽 쌓기를 한 점은 놀랄만한 점이다. 자연석 짜맞춤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화성의 성벽은 위로 올라가면서 중간의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홀 규(圭)자 형태로 쌓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적병이 쉽게 성에 기어오를 수 없어서 더욱 방어에 유리해졌고 이는 기존의 성곽들과 비교할 때 상당한 진전이다.

화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성곽과 달리 곳곳에 많은 치(雉)를 설치하여 방어에 완벽하도록 한 점이다. 그리고 치성 위에 대포를 쏠 수 있는 포루(砲樓)와 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포루(舖樓)를 갖추었다. 또 주요 지점에는 루(樓)·문(門)·대(臺)·돈(墩)을 설치하였으며 사대문 앞에 벽돌로 만든 옹성을 두어 문루를 보호하였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미적인 부분이 강조되었다.

포루(砲樓)의 예만 보더라도 성벽의 모서리를 각이 지게 한 것도 있고 곡선으로 처리한 것도 있다. 또 지붕도 성 안에서 보았을 때 맞배지붕인 것도 있고 우진각지붕인 것도 있다. 치성이 8개인데 그 모양이 모두 제각기 다르다. 동일치는 전체적으로 직각이고, 동이치는 완만하며, 동삼치는 입구는 완만하고 안쪽은 직각이다.

특히 동북각루인 방화수류정은 화성 구조물 중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

다. 정조 자신조차 너무나 기교를 부렸다고 할 정도로 독창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다. 각루 아래 용연과 더불어 한 폭의 풍경화를 이뤄냄으로써 전쟁을 대비한 성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조는 수원에 장용영의 외영을 설치하고 인근 다섯 읍의 군병을 수원에 입속시키는 방어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는 화성을 군사요새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다.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데는 성곽 자체의 과학성, 건축미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고 보존해온 후손들의 노력과 정성도 한 몫 했다. 화성성역의궤라는 성역보고서를 통해 완벽한 복원을 시도했음은 물론 자칫 현대인의 편리함만을 위해 복개되려던 수원천의 복개를 시민의 힘으로 막음으로써 남수문이 복원될 수 있는 기틀을 남겼다. 이 점 유네스코 실사단이 상당히 높게 평가한 점이며 계속 진행 중인 화성성역화작업 과정에서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성곽 전체의 시설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문루 4개

장안문(북문), 팔달문(남문), 창룡문(동문), 화서문(서문)

② 적대 4개(문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설물)

장안문(북서적대·북동적대), 팔달문(남서적대·남동적대-복원안됨)

③ 장대 2개(군사를 지휘하고 훈련하던 곳)

화성장대(서장대), 연무대(동장대)

④ 노대 2개 (오방색/흑·백·적·청·황색 깃발로 적의 위치를 알림)

서노대(화성장대 옆), 동북노대(창룡문 옆)

⑤ 암문 5개(비밀통로)

동암문, 북암문, 서암문, 서남암문, 남암문(복원 안됨)

⑥ 수문 2개(수원천을 가로질러 놓은 수문)

북수문(화홍문 - 7칸 수문), 남수문(9칸 수문 - 복원 안됨)

⑦ 공심돈 3개 (적의 움직임을 보면서 총과 대포를 쏠 수 있는 시설)

서북공심돈, 동북공심돈, 남공심돈(복원안됨)

⑧ 치성 8개 (성벽 밖으로 나와있는 시설물로 성벽에 올라오는 적을 공격하는 시설물)

서일치, 서이치, 서삼치, 동일치, 동이치, 동삼치, 남치, 북동치

⑨ 포루(砲樓 - 대포를 쏘는 시설물) 5개

남포루, 동포루, 서포루, 북동포루, 북서포루

⑩ 포루(舖樓 -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곳) 5개

서포루, 동북포루, 동일포루, 동이포루, 북포루

⑪ 포사(舖舍 - 적의 위협을 행궁에 알리는 시설물) 3개

서남포사, 중포사(복원 안됨), 내포사(복원 안됨)

⑫ 각루 4개 - 성의 모서리진 곳에 있어서 적의 움직임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곳

서남각루(화양루), 동북각루(방화수류정), 서북각루, 동남각루

⑬ 은구(隱溝) 2개 - 성 안의 물을 빼기 위한 시설

남은구(복원 안됨), 북은구(복원 안됨)

⑭ 성신사(城神祠) - 성을 지켜주는 성신(城神)의 사당

1796년(정조 20) 봄 화성성역이 완성 되는대로 성신의 사당을 먼저 세우라는 정조의 명에 의해 7월 11일 공사를 시작하여 9월 1일 완공한 건축물이다.

⑮ 봉돈 1개 -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로 연락하는 통신 시설물

용인의 석성산과 서해 바닷가 흥천산을 연결하는 시설물이다.

4. 화성행궁

행궁이란 왕이 항상 머물며 국사를 주관하는 본궁과 달리 전란, 휴양, 능원 참배 등으로 지방에 행차할 때 임시로 거처하는 행재소(行在所)로 사용하는 곳이다. 화성행궁은 정조가 화산의 현릉원 참배 목적 외에 장차 화성에 내려와 노후를 보내기 위해 대규모로 건설하였다. 즉 정조는 세자가 15세가 되고,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칠순이 되는 1804년(갑자년)에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화성으로 은퇴한다는 이른바 '갑자년 구상'을 입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기적 정국 운영 구도를 실현 시켜 나가고자 화성 건설을 계획하였고, 화성의 중앙부에 화성행궁을 건설하였다.

화성행궁은 1789년(정조 13) 수원 신읍의 관아로 건축된 이후 이듬해인 1790년 약 340칸의 관아가 완성되면서 행궁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이후 1794년(정조 18)

화성성역과 더불어 각 건물을 증축하거나 재배치하여 576칸의 매우 큰 규모로 조성되었다. 규모가 이처럼 큰 것은 전적으로 왕의 행차만을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수원부 유수의 집무처로 사용하다가 왕의 행차가 있을 때 행궁으로 사용하는 복합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화성행궁을 건설한 후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1795년(을묘년) 이곳에서 베풀었다. 화성행궁(華城行宮)이란 편액은 정조가 직접 쓴 것이다. 화성행궁은 정조가 양위 후 거처할 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신평루, 좌익문, 중앙문의 3문 형태를 취하고 주거와 행사를 위한 각종 건물과 휴식을 위한 부대시설에 이르기까지 매우 웅장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건설하였다. 행궁 각 건물의 당호는 중국의 역대 제왕의 고사에서 차용하여 정조가 직접 명명하였다. 당호의 의미만 되새기더라도 정조가 화성과 화성행궁 건설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신평루(新豐樓)는 화성행궁의 정문으로 신평이란 이름은 일찍이 한나라 고조가 '풍' 땅은 '새로운 또 하나의 고향'이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했다. 정조에게 있어서 '화성은 고향과 같은 고향'이라는 의미이다. 좌익문은 중앙문 앞에 있으며 '좌익은 곧 곁에서 돕는다는 뜻'이다. 내삼문을 바로 앞에서 도와 행궁을 지키는 중삼문(中三門)이다.

중앙문은 궁궐 건축의 삼문 설치 형식에 따라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을 바로 앞에서 지키는 역할을 하는 내삼문이다.

봉수당(奉壽堂)은 화성행궁의 정전 건물이자 화성유수부의 동헌 건물로 장남헌이라고도 한다. 1795년 정조는 이곳에서 혜경궁의 회갑연 진찬례를 거행하고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어머니의 만년의 수(壽)를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로 봉수당이라는 당호를 지었다.

미로한정은 행궁 후원에 만든 정자이다. 그 뜻은 '장래 늙어서 한가하게 설 정자'라는 뜻이다. 즉 세자에게 양위하고 난 후 화성으로 가리라는 뜻이 담겨있다.

남군영과 북군영은 장용외영의 기마병이었던 친군위가 좌,우열로 각 100명씩 입직 숙위하는 건물로 신평루 좌, 우에 있다.

서리청은 문서의 기록 및 수령, 발급을 담당하는 아전인 서리가 사용하는 건물이다.

비장청은 관찰사나 절도사 등 지방관이 데리고 다니던 비장들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외정리소는 원래 정리소로서 을묘원행 때 각종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관이었다. 화성 성역이 끝난 후 외정리소라 하여 임금 행차시 행사준비를 담당하는 관청이 되었다. 외정리사는 화성유수가 겸직하였다.

유여택(維與宅)은 관아의 별당으로 평상시 화성유수가 거처하다가 정조가 행차시 머무르며 신하를 접견하는 건물이었다. 이 이름은 『시경』 중에서 ‘주나라가 천명을 받아 나라를 크게 하고 집을 주었다’ 는데서 따온 것으로 정조의 입장에서 화성유수를 임명하여 내려 보내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경룡관(景龍館)은 장락당 출입문으로 ‘경룡’이란 제왕을 상징하는 큰 용을 뜻하는 것으로 당태종이 거처한 궁궐이름에서 따왔다.

장락당(長樂堂)은 행궁 내당이며 1795년 을묘원행 중 혜경궁의 침전이었다. 혜경궁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던 정조는 한나라 태후의 거처였던 장락궁의 이름을 따와 편액을 직접 써서 걸었다.

복내당(福內堂)은 행궁의 내당으로 ‘복은 안에서 생겨난다’ 는 뜻이며 정조가 행차시 머물렀던 곳이다.

집사청은 궁궐의 액정서(임금의 붓, 벼루, 열쇠, 각종 설비, 비품관리)와 같이 잡다한 사무를 보던 집사들이 사용하는 건물이었다.

낙남헌(洛南軒)은 행궁 별당으로 일제강점기에도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건축물이었다. 낙남헌이란 이름은 후한의 광무제가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궁궐 이름을 ‘남궁’ 이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혜경궁의 회갑을 기리는 을묘년 양로연이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득중정(得中亭)은 활을 쓰기 위한 준비처로 정조가 이 정자에서 활을 모두 맞히고 이를 기념하여 득중정이라고 하였다. 원래 득중정은 ‘활을 쏘아 맞으면 제후가 될 수 있고 맞지 않으면 제후가 될 수 없다’ 는 구절에서 ‘득’ 자와 ‘중’ 자를 따서 붙였다.

노래당(老來堂)은 낙남헌과 득중정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 중에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원래 ‘늙은 것은 운명에 맡기고 편안히 거처하면 그곳이 고향이다’ 라는 백거이의 시에서 따왔다.

우화관(于華官)은 화성유수부의 객사이다. ‘우’ 는 향하여 간다는 뜻이고, 화는 화성이란 뜻으로 우화관은 곧 한양에서 화성유수부에 공무를 간 사람들이 머무는 집이란 뜻이다.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별주는 행궁의 수라청으로 사용원 소속의 외청이다.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내포사는 화성행궁 뒷담 안 왼쪽 기슭 미로한정의 북쪽에 있다. 원래 포사는 치위에 있으며 포루가 되고 성안에 있으면 포사가 된다. 봉돈, 중포사, 서남포사에서 각종 신호를 받아 화성행궁에 보고하는 기능을 한다.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화성행궁은 1993년 수원시의 화성행궁 복원 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체화되어 1996년 복원이 시작되었고 2002년 1단계로 전체 576칸 중 482칸을 복원하였다. 앞으로 2010년까지 모든 건축물을 최종 복원할 예정이다. 현재 정조시대의 화성행궁에서 행해졌던 각종 의례를 재현하여 조선시대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5. 화령전(華寧殿, 사적115호)

화성행궁 바로 옆에는 화령전이 있다. 1801년(순조 원년) 정조의 유지를 받들어 세운 정조의 영전이다. 영전은 보통 제사를 모시기 위해 신위를 모시는 사당과 구별되는 건물로 선왕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살아있을 때와 같이 봉안하는 곳이다.

화령전은 화성에서 ‘화’ 자를 따고, 『시경』 국풍 주남 『갈담』의 마지막 구절 ‘돌아가 부모에게 문안하리라(歸寧父母)’ 에서 ‘령’ 자를 따서 붙였다. 곧 화령전은 순조가 선왕 정조를 찾아가 문안을 여쭙는 묘전각이란 뜻이며 편액은 순조가 직접 썼다. 화령전은 정조가 간소하게 하던 뜻을 받들어 전관을 화성부 판관이 겸하였으며 화성유수가 제조를 맡았다.

화령전은 용마루, 기둥, 섬돌, 지도리 등 각 건물 역시 정조의 성덕을 본받아 간소하게 하였고 화령전 안의 배설도 창덕궁 주합루를 본받아 단집을 설치하지 않고 앞에 함자(閤子)를 설치하였다.

화령전은 조정에서 간인한 서적들을 다섯 곳의 사고(史庫), 홍문관, 화성행궁 등과 함께 봉안하던 중요한 곳이었다. 역대 국왕들은 이곳에서 현릉원과 건릉을 오갈

때 제향을 올렸다. 현재 정조의 어진은 1992년 새로 만들어 봉안한 것이다.

운한각(雲漢閣)은 정전으로 정조의 어진을 봉안하는 건물로 봉안각이라고도 한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단층 팔작지붕 건물로 정조의 영전인 만큼 격식이나 부재의 사용이 궁궐의 전각에 못지않다.

운한은 은하수를 말하는데 『시경』 대아 탕지십 『운한』 첫 구절에 ‘환한 저 은하수가 하늘에 밝게 둘러있네’ 라고 한테서 따왔다. 이 시는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는 시로서 기우제를 지낼 때 불러졌다. 정조의 혼백이 나라의 어려움을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붙여졌으며 현판 글씨도 순조가 직접 썼다.

건물 앞에는 제사 때 사람들이 모여 서고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월대(月臺)가 마련되어 있으며 월대 앞에는 세 군데에 계단이 있다. 그중 가운데 계단은 혼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옆 받침돌인 우석(隅石)에는 천계를 상징하는 구름 모양이 새겨져 있다. 운한각의 정면 문틀 위에는 거북 문양을 새긴 발이 감겨져 있어 희귀하다.

수원의 문화관광 인프라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 동 민 (수원시 전문위원)

1. 문화자원은 관광자원이다.	내용
2. 수원의 문화자원	4. 마무리
3. 수원의 문화관광 자원 개발 방향과	

1. 문화자원은 관광자원이다.

문화자원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유·무형의 자원이 지칭하듯이 문화자원의 범위와 종류는 건물이나 집, 사람, 장소나 역사 문화유적, 장인적 기술, 전통산업 등 실로 다양하다.

문화자원은 입지 비대체성(立地 非代替性), 배태성(胚胎性, embeddedness), 전통성(傳統性)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입지 비대체성은 특정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속성, 즉 지역적 편재(偏在)성을 지칭한다. 지역은 국가 등 넓은 범위일 수도 있고 마을 등 좁은 범위일 수도 있다. 다른 지역에도 무수히 많은 자원이라고 한다면 차별성이 사라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화자원이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구할 수 없고 특정한 지역에만 존재할 때 이를 ‘완전히 영역화(fully territorialized)되었다’라고 하는데, 문화자원이 특정지역에 영역화될 수록 입지 대체성은 작아지게 된다.

배태성은 문화자원이 특정한 지역의 역사나 문화, 삶 등에 체화되어 있는 속성을

지칭한다. 이것은 문화자원이 특정한 지역에 뿌리내리고 존속되어 올 수 있는 착근의 근거로서 특정한 지역의 생활습관이나 전통기술, 삶 등의 문화자원의 전승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특수한 지역적 환경이다. 특수한 지역적 환경에 체화된 배태성은 다른 지역이 그러한 자원을 지닐 수 없는 차별화 요인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전통성은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체득, 계승되어 온 속성을 지칭한다. 독특한 생활양식이나 관습, 기술, 조업방식 등에 내재되어 전해내려 오는 역사성을 지칭한다. 물론 문화자원에서 역사성이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 측면도 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그러한 자원을 창조하는 것도 굳이 문화자원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력하고 의미있는 문화관광이 되려면 그곳에만 있는 독특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통한 오감을 통한 만족이 되어야 한다.

이에 문화자원은 자연자원으로부터 인문자원, 보이는 자원에서 보이지 않는 자원, 제품화 자원에서 관광화 자원 등 다양하다. 또 문화자원의 다양성만큼이나 많은 유형화가 가능하다. 자원의 형태, 내용, 개발주체, 산업화 패턴, 브랜드화 여부 등에 따라 다각적인 유형화가 가능하다.

우선 자원의 형태에 따라 유형의 자원과 무형의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의 문화자원은 물리적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원이 해당된다. 역사·문화 유적, 유명 인사의 생가, 소설이나 영화의 무대, 미술관이나 공연장 등 해당된다.

무형의 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지역 고유의 민속이나 생활풍속, 가요 및 민담, 지역축제, 음악 등이 해당된다.

유형의 자원과 무형의 자원은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무형의 자원은 유형의 자원을 생산,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모티브가 되기 때문이다. 또 유형의 자원을 생산, 활용하는 과정에서 무형의 자원이 축적, 계승, 발전되는 경향이 강하다. 유형의 자원 활용의 결과가 무형의 자원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¹⁾

2. 수원의 문화자원

1) 김현호, 『문화자원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활용 및 개발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4.

1) 수원의 역사문화 자원

수원시는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농경생활체험이나, 자연체험 등의 환경관련 체험활동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문화·역사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표〉 수원시 문화유산 현황

구분	종별	명칭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6)	창성사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 팔달문, 화서문, 퇴우이선생진적, 채제공 초상화, 박유명 초상화
	사적(2)	화성, 화령전
	중요민속자료	수원 광주이씨월곡택(이병원가옥)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도 도당굿
도지정 문화재	경기도유형문화재(4)	지지대비, 팔달문동종, 봉녕사 석조삼존불, 봉녕사 불화
	경기도기념물(8)	노송지대, 김준용장군 전승지 및 비, 심온선생 묘, 화성행궁지, 팔달사지석묘군, 아담스기념관, 수원축만제, 수원 여기서산 선사유적지
	경기도문화재자료	수원향교
	경기도무형문화재(3)	승무 살풀이춤, 소목장, 단청장
향토자산	수원시향토유적(19)	항미정, 거북산당, 수원역대 목민관 송덕비군, 창성사지, 미륵당, 정유선생 묘, 여기서산 선사유적지, 꽃빛 계사유적지, 고색동코잡이놀이밧도당, 이의동길마재줄다리기, 버드내 산제당, 벌말 도당굿밧도당, 동래정씨 약사불, 만석거(일왕저수지), 숙지산 화성 채석장, 화성관련 표석 일괄, 전주류씨 효자정문, 옛 수원문화원 건물, 옛 부국원 건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팔달문 동종을 경우 팔달문 문루에 걸려 있어 일반인들이 관람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팔달문동종은 원래 '만의사 대종'으로 화성이 축성되고 난 이후 성문을 열고 닫는 파루를 위하여 동종이 필요함에 따라 만의사의 동종을 옮겨 온 것으로 추정된다. 1790년 용주사가 증창되고 팔도의 으뜸사찰로 위상을 격상하면서 수원의 오랜 전통과 사격을 유지하였던 만의사를 대신함으로써 범종도 화성 안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원래 동종은 종로 십자로 종각에 있었으나 1911년 8월 종로의 지형이 낮아 종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하여 팔달문 루상으로 옮겼다.²⁾ 이후 ‘팔달문동종’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성사 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의 경우에도 광고산 창성사터에서 1965년 6월 9일 매향동 13-1번지로 이전되어 비각 안에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성과 관련된 유물로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여도 비각 안의 탑비를 자세히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수원 문화재 상세현황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보유 종별	소유자 (보유자)	소재지	지정 년월일	관리단체 (의무자)	비 고
보물	14	창성사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	1기	국유	팔달구 매향동 13-1	63.01.21	수원시	이사
	402	팔달문	1동	국유	팔달구 팔달로 2가	64.09.03	수원시	
	403	화서문	1동	국유	팔달구 장안동 25-2	64.09.03	수원시	
	585	퇴우이선생진적	8엽	사유	국립중앙박물관	75.05.01	국립박물관	
	1477-1	채제공 초상화	1점	사유	화성박물관(예정)	06.12.29	수원시	
1489	박유명 초상화	1점	사유	역사박물관(예정)	06.12.29	수원시		
중요 민속 자료	123	수원광주이씨 월곡택	1과	사유	장안구 파장동 383	84.01.10	이용승	
경기도 기념물	19	노송지대	일원	국유	장안구 파장, 이목, 송죽	73.07.10	수원시	
	38	김준용장군 전승지 및 비	일원	국유	장안구 상광교동 산1-1	77.10.13	수원시	
	53	심은선생 묘	1기	사유	영통구 이의동 13-10	79.09.10	청송심씨종중	
	65	화성행궁지	일원	국유	팔달구 남창동 6-2외	72.07.03	수원시	
	125	팔달산지석묘군	4기	국유	팔달구 교동 산3-1	91.10.12	수원시	
	175	아담스기념관	1동	사유	팔달구 매향동 110	01.01.22	삼일학원	
수원시 향토 유적	1	항미정	1동	국유	권선구 서둔동 251	86.04.08	농촌진흥청	
	2	거북산당	1동	사유	팔달구 영동 43-2	86.04.08	영동시장변영회	
	3	수원역대목민관송터비군	37기	사유	장안구 이목, 정자, 송죽동	98.09.17	수원시	
4	창성사지	1기	사유	장안구 상광교동 산41	86.04.08	수원시		

2) ‘수원경종을 옮겨달아’ 『內報』, 『신한민보』, 1911. 9. 6.

5	미륵당	1동	사유	장안구 파장동 23-11	86.04.08	이석재	
6	정유선생묘	1기	사유	영통구 하동 408-1	90.01.04	은양정씨종중	
7	이목동 출토 석곽묘	1기	사유	장안구 이목동 242-3	06.12.26	수원시	
8	꽃피 제사유적지	일원	사유	팔달구 화서동 688-4	98.09.17	수원시	
9	고색동코잡이놀이및도당	1동	사유	권선구 고색동 381-4,13	03.11.27	수원시	
10	이의동길마재줄다리기	-	사유	이의동 길마재 지역	03.11.27	-	
11	버드내 산제당	1동	사유	권선구 세류3동156-62	03.11.27	수원시	
12	별말 도당굿및도당	1동	사유	권선구 평동 31-14	03.11.27	최영근	
13	동래정씨 약사불	1좌	사유	팔달구 화서동 산43	06.12.26	수원시	
14	만석거(일왕저수지)	일원	사유	장안구 송죽동 239-2 등	06.12.26	수원시	
15	숙지산 화성 채석장	일원	사유	팔달구 화서2동 산41	06.12.26	정주환 등	
16	화성관련 표석 일괄	5기	사유	장안구 파장동 산53 등	06.12.26	수원시	
17	전주류씨 효자정문	2기	사유	권선구 금곡동 618-2	06.12.26	수원시	
18	옛 수원문화원 건물	1동	사유	팔달구 교동 74-1	06.12.26	수원시	
19	옛 부국원 건물	1동	사유	팔달구 교동 93-7	06.12.26	박충래	

현재 세류동 도당은 버드내 산제당으로 명칭 변경 및 광고산의 이고선생 묘, 이의동 안동김씨 묘역, 상주황씨 묘역, 및 무예24기를 향토유적으로 새롭게 신규지정 신청 중이다.

2) 수원의 생활문화 자원

(1) 전통 생활민속

이의동 길마재 줄다리기

고색동 코잡이놀이

장치기놀이

장치기는 오늘날 필드하키와 비슷한 경기로서 삼국시대 이래 행해진 격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열레공놀이라고도 하며 양반 사회의 격구가 민속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1931년 수원청년동맹 주최로 양감면 용소리에서 민족의 봉기와 대동

단결의 공동체 결성을 목적으로 전국의 32개 팀이 참가하여 전국얼레공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경기에 참가한 사람과 구경 온 사람이 수천으로 너무 많아 장소를 황구지리로 옮겨 경기를 하였다고 한다. 이 놀이는 승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의 체력단련과 마을 주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3) 관광, 여가 문화자원

(1) 관광자원

- 광교산 : 다양한 등산코스과 질 좋은 약수터로 인해 등산객이 늘고있는 수원의 주산이다
- 원천유원지 : 각종 놀이시설과 호수에서의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의 레저를 즐길 수 있다.
- 수원화성 :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 재래시장 :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 화서시장
- 아름다운 화장실 :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통해 위생과 관광상품으로 연계
- 수원갈비 : 수원의 대표적 먹거리
- 수원명주 : 용지대월, 불휘, 광교산 생막걸리

(2) 관광시설

- 갈비업소 : 본수원갈비, 신라갈비, 연포갈비, 삼부자갈비, 가보정 등
- 향토음식점(한식업소)
- 유원지
- 숙박업소(관광호텔)
- 화성행궁

(3) 관광코스

대부분 화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티투어의 경우에도 화성과 화장실 및 KBS드라마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관련】

서장대 → 화서문 → 화홍문 → 연무대 → 봉돈 → 팔달문 → 남문재래시장
△소요시간 : 약 2시간(도보)

【아름다운 화장실】

장안문 → 장안공원 화장실 → 효원공원화장실 → 연무정화장실 → 반딧불이 화장실
△소요시간 : 2시간(전용버스 ☎ (031) 251-0467)

1일코스 수원화성 → 수원갈비 → 용, 건릉 → 용주사

2일코스 수원화성 → 수원갈비 → 용, 건릉 → 용주사 → 1박 → 민속촌 → 에버랜드

(4) 여가시설

수원종합운동장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 수원월드컵경기장

(5) 문화기반시설

㉠ 박물관

경기도농업기술원내 농업교육과학관 / 농촌진흥청내 농업과학관 / 잠사박물관 / 효행기념관 / 국토정보지리원 지도박물관 / 경기대박물관 / 아주대박물관 / 경희대 혜정박물관

㉡ 미술관

수원미술전시관 / 갤러리(그림시, 눈, 사임당)

㉢ 도서관

중앙도서관 / 선경도서관 / 영통도서관 / 경기도립도서관

㉣ 공연장

경기도 문화의전당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 수원시민회관 / 야외음악당 /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㉓ 영화관·정보문화관

㉔ 수원문화원

3. 수원의 문화관광 자원 개발 방향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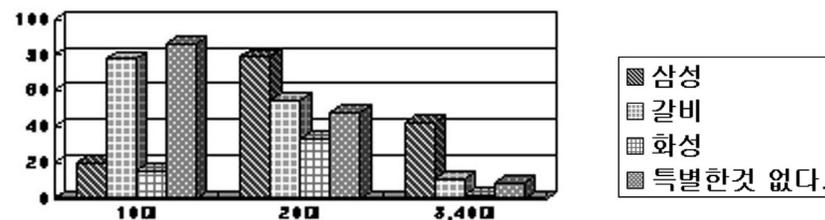
1) 수원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원의 도시 특성으로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향후의 수원의 소망을 담고 있다.

- 지리적으로 중부권 핵심의 교통도시
- 기능적으로 서해안 발전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 도시
- 산업적으로 나노, 바이오, 디지털 등 첨단산업 기반도시
- 전통적으로 서계문화유산 華城이 있는 역사와 효의 도시
- 문화적으로 월드컵 개최도시이자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있는 도시
- 경제적으로 쾌적하고 싱그러운 녹색 환경의 도시

그러나 여타 지역민들이 수원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수원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10대의 경우 수원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원갈비를 꼽고 있다. 이에 비해 20·30대의 경우 삼성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다음으로 갈비 및 특별한 것이 없다는 순이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상대적으로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는 관광자원으로 역사문화 유산이 지닌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수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삼성, 갈비, 화성은 커다란 자산이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수원=삼성이라는 연관은 삼성의 기업이미지와 산업기술적 측면에서 수원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삼성과 수원시가 유기적으로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기업을 표방하는 삼성이 수원이라는 지역적 태반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삼성이라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원갈비는 전국적 지명도를 획득한 유력한 관광자원이다.

그러나 수원갈비는 비싸다. 수원사람들조차 1년에 몇 번 맛보기 힘든 고가의 상품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수원양념갈비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쇠고기를 구워먹는 먹거리가 아닌 종합적인 우리의 전통적인 食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대한 지원과 활용이 수원시 관광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화성에 대한 홍보와 지명도는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성곽으로 화성이 아닌 종합적 문화로서 화성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실상 화성은 전통연희와 전통음식, 전통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이다. 정조시대의 時代村으로서 화성 안의 전통 산업적 工房거리와 場市 등을 배치하고 가꾸어 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원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조사를 통한 자원화를 고민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수원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무엇일까?

● 수원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 안성천 문화권의 시작인 물의 도시(매홀·물골·수원, 수원천)

- 선사시대 이래 유구한 역사의 도시(고인돌 · 제사유적 · 집자리 유적)
- 한성백제 시대 5부(部) 가운데 서부(西部)였던 수원
- 경기도의 중심 도시(수부도시, 도청 소재지)
- 세계문화유산 華城이 있는 문화 관광의 도시
-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 중심(수인선 · 수려선 · 경부선 · 경수산업도로 · 1번국도)
- 한국농업의 1번지(축만제 · 만석거, 농촌진흥청 · 농대)
- IT, BT, NT 등 최첨단 산업의 도시(삼성전자, SK)
- 100만명이 넘는 전국 유일의 기초자치단체

수원은 큰 하천이 없지만 나름의 역사와 내용을 갖는 소하천이 잘 발달하여 있다. 이를 수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활용해야 한다. 생태적 자연하천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상당한 역사시대를 수원은 현재의 화성시와 평택시 등을 지역적 근거로 존재하였다. 선사시대 및 삼국시대의 유물과 유적들은 현 수원시 관내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동시에 옛 수원의 지역적 연관을 근거로 한 관광자원 개발을 해야함을 보여준다.

화성 건설 이후 새도시 수원에 대한 기반시설- 화성, 화성행궁, 만석거, 영화정, 축만제, 8부자 거리, 성신사, 사직단 등 -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복원과 더불어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 노력을 해야 한다.

수원은 정조 이래 한국 농업과학기술의 총본산이다. 한말에는 권업모범장 및 수원고등농림학교가 위치했고, 해방 이후에는 농업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한국농업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청의 상당한 문화자원을 수원시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느낌이 강하다.

수원은 2002년 월드컵의 개최도시로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 무형의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1) 수원의 상징 만들기

수원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성 남사당놀이, 양주 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고성오광대놀이, 북청사자춤 등 지역을 브랜드화한 무형의 놀이문화가 각광을 받고 있다.

전통시대 각 지역의 웅만한 마을들마다 줄다리를 비롯한 두레패들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놀이문화가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업적 도회지에서 전승되는 놀이문화가 없었기 때문인가?

수원을 대표하는 놀이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성문화제 때 진행되는 농행차연시는 형식상 거리 행진을 관람하는 형태로 일반 시민들이 동참하고 즐기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민단체나 동별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신명나는 축제의 즐거움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원을 대표하는 무형의 자산은 수원갈비, 수원 화랭이굿, 무예24기, 화성행궁의 전통연희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원이 상당히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들이 제작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부산시의 부산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목포시의 목포의 눈물 등 나름으로 도시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노래들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수원을 상징하는 노래를 적극적으로 지원, 활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수원을 노래한 것으로 다음이 있다.

〈수원의 노래〉 작사 유달영, 작곡 이흥렬, 1953.

〈수원 처녀〉 작사 이용일, 작곡 백영호, 노래 이미자, 1972. 시공모 당선작(200만원)

〈푸른지대 로맨스〉 작사 김진일, 작곡 선영, 노래 은방울자매, 1973. 6. 1. 지구레코드공사

〈내 고향 8경〉 작사 안익승, 작곡 선영, 노래 은방울자매, 1973. 6. 1. 지구레코드공사

〈호반의 西湖〉 작사 홍한희, 작곡 선영, 노래 은방울자매, 1973. 6. 1. 지구레코드공사

- 〈江없는 고향〉 작사 김순식, 작곡 선영, 노래 은방울자매, 1973. 6. 1. 지구레코 드공사
- 〈띄우는 마음〉 작사 김유순, 작곡 선영, 노래 은방울자매, 1973. 6. 1. 지구레코 드공사
- 〈花山の 봄〉 작사 안익승, 작곡 선영, 노래 양미리, 1970년경. 레코드 미취입
- 〈수원성〉 작사 임병호, 작곡 이상길, 교향곡, 1983.
- 〈우리의 수원〉 작사 박효석, 작곡 변훈, 1984. 6.

수원을 주제로 불렸던 노래목록이다. 수원의 지역적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할지라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노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1970년대 만들어졌고 이후 체계적인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2) 水原八景의 재조명 및 확장

조선시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각 지역별로 그 지방의 특징적 표상이나 포괄적 개관이 되는 「제영(題詠)」 편목의 시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 「제영」의 의미는 시작품처럼 작자가 임의로 시제를 붙여서 읊던 시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정해진 혹은 주어진 하나의 제목만을 붙여서 읊는 시가를 뜻한다. 각 지역에 따른 다른 모든 물상과 왕화를 대상으로 하여 읊은 시가가 곧 「제영」이랄 수 있다. 따라서 「제영」을 그 지역의 특징적 표상 또는 포괄적 개관이라고 하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다. 요컨대 시가 형식을 통하여 그 고을의 표상을 노래하고 개관을 집약 하자는 데에 「제영」 작품의 수록이나 탐방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옛부터 선조들은 이름난 풍물이나 빼어난 경치를 즐겨 찾고 그 곳에서 안주하기를 꿈꾸었다. 인걸은 지령(地靈)으로 말미암고 물화(物華)는 하늘이 내린 보배로 인식했던 것이다. 선조들의 문화적 표상들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음미하고 물상의 흥함과 폐함의 때를 따져 보는 것도 현대적 삶을 사는 우리로서는 하나의 역사·문화적 관광의 커다란 의미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전통은 지역의 경승이 빼어난 곳을 뽑아 8경, 10경, 12경 등으로 부르며 완상하게 했다. 이는 중국의 소상(瀟湘) 8경 등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도 국도(國都) 8영, 한성8영(漢城八詠), 한성10영, 남산8영, 마포팔경, 용산팔경, 지리산

팔경, 단양팔경, 영주(瀛州) 12경 등으로 부르며 시인·묵객을 불러 모으는 명승지를 만들었다.

정조 당대에 수원 春八景·秋八景을 꼽았다. {華城城役儀軌}의 춘·추팔경 가운데 추팔경에 서성의 매사냥과 화양루의 눈오는 감상이 팔달산과 관련되어 있다. 정조의 사랑을 받았던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 '한정품곡' 과 '서성우렵'의 그림이 남아 있다.

정조의 고임을 받았던 위백규(魏伯珪, 1727~1798)의 {存齋集}에는 華城十詠이 실려 있어 춘팔경·추팔경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³⁾

춘·추8경과 화성10영이 수원팔경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즉 ①광고적설(光教積雪) ②팔달청랍(八達淸嵐) ③남제장류(南堤長柳) ④화산두견(花山杜鵑) ⑤북지상련(北池賞蓮) ⑥서호낙조(西湖落照) ⑦화홍관창(華虹觀漲) ⑧용지대월(龍池待月)이다.⁴⁾

즉 눈 쌓인 광고산, 팔달산의 산아지랑이, 남제의 긴 버드나무, 만석거의 연꽃 감상, 서호의 해지는 멋, 화홍문 7칸 시원한 물줄기, 용지의 달맞이 등이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자연생태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관광자원은 현재적 삶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 아름다움은 인공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삶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어야 한다. 삶 자체가 풍부한 문화여야 한다.

자연스런 삶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높은 문화적 자부심과 문화적 격조가 있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3) 기념물의 자원화

현재 수원의 기념물 가운데 동상은 정조대왕 동상 2개(지지대, 팔달산), 팔달산 중턱의 강감찬(姜邯贊) 장군 동상(1972. 5. 4. 제막, 애국조상건립위원회),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구내에 심산 김창숙선생 동상(心山金昌淑先生銅像, 1990), 신평동 선경도서관내 최종건(崔鐘健, 1995) 동상, 만석공원 국회의원 이병희(李秉禧,

3) 魏伯珪, 『存齋集』 권8, 詩, 1875년 간행.

4) 華虹觀漲, 龍池待月, 西湖落照, 八達淸嵐, 光教積雪, 華山躑躅, 南堤長柳, 北池賞蓮 등이 쓰였다. '시조 水原八景', 『조선일보』, 1925. 12. 18~12. 20.

2000) 동상과 인계동 나혜석 거리의 나혜석 좌상이 있다.

〈표〉 수원의 기념물과 기념비

기념물 명칭	위치	건립일자	건립사유	건립주체
밀리선생 송덕비	매향동 110	1937.	송덕	수원유지, 학부모
대한민국 독립기념비	매향동 동공원 팔달동 산1-1	1948. 8. 15 1969. 10. 15	독립기념	유근홍, 이상훈 등 수원시민
공군용사 고성조 공적비	팔달동 산1-1	1951. 7	공군정찰대	공군
층훈탑	매향동 13-1	1956. 8. 1	호국영령 추모	
현충탑	매향동 13-1	1989. 3. 16		
현충탑	인계동 1128	2005. 5.		
6.25참전기념비	남창동 산1-1	1965. 9. 28	건국순국위령탑	
난파노래비	팔달동 산1-1	1968. 10. 15	홍난파 기념	
강감찬 동상	팔달동 산1-1	1971. 6. 29		애국조상건립위원회
삼일독립기념탑	팔달동 산1-1	1969. 3. 1	민족의 얼 상기	3·1동지회
프랑스 참전 기념비	파장동 31-2	1974. 10. 3 1989. 3. 16		국방부
대한민국어린이현장	팔달동 산1-1	1975. 5. 5	어린이의 참뜻	
자연보호현장	팔달동 산1-1	1978. 1. 4	자연의 중요성	
화성복원정화기념비	영화동 349	1979. 9	화성복원기념	
시민현장비	매교동 산3-5	1980. 4	시민현장	
화성기적비문	영화동 349	1991. 11	화성성역의궤	
효원의 종 기념비	팔달동 산1-1		효원의 종 건립	
세계문화유산화성	팔달동 산1-1	1999. 12. 26	문화유산기념	
나혜석 좌상	인계동		나혜석 기념	나혜석 상
정조대왕 동상	팔달동 산1-1	2003. 7. 1	정조대왕 기념	

水龍水利組合碑, 治山治水碑, 乘松記念碑, 밀리선생 송덕비, 우성현(禹成鉉) 선정비 등 근대시기에 제작된 기념비 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

(4) 근대문화유산의 발굴과 확장

○ 종교기관

영국성공회(1907) - 팔달선원 - 종로교회 - 천주교성당 - 수원포교당 -기독교

신교회(1909)

○ 학교

신평학교(수원공립보통학교) - 매산학교(수원소학교) - 삼일학교 - 화성학원(수원고)

○ 일제의 흔적들

수원신사 터 - 수원사 - 서본원사 - 대각사 - 고야산 법륜사 - 동산농장 사무실 - 산본여관 - 무진회사(옛 문화원) - 부국원

○ 성안 살림집

장준식 가옥(사랑방손님과 어머니) - 양성관 가옥(99칸) 터 - 8부자 거리 - 설경동 가옥 - 나혜석 생가

○ 화성권번 터 - 우시장 터 - 화춘옥(원조 수원갈비)터

(5) 수원을 대표하는 근대 인물들 발굴하기

㉓ 문화예술인

시인 - 홍사용(洪思容, 1900~1947)

소설가 - 박승극

음악가 - 홍난파(홍영후)

미술가 - 나혜석(羅蕙錫)

㉔ 독립운동가

김세환, 김노적, 임원빈, 용현식, 나석균, 박선태, 유성구, 이병억, 이선경

(6) 독립운동 사적지의 활용

독립운동가들의 생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함께 독립운동의 현장을 되살려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발굴된 인물과 장소에 대하여 기

넘비, 유허비, 사적비 등을 통해 명소화해야 한다.

○ 독립운동의 현장

용두각 - 도립병원 앞 - 팔달산 - 서호 - 김세환 기념비 - 팔달산 3·1운동기념비 등

5) 우리의 일상적 삶에 대한 애정과 신뢰

(1) 주위의 일상을 자원으로 만들자

㉗ 팔달산 다시 보기

팔달산과 이 산에 위치한 팔달공원은 수원시민의 가장 친근한 휴식처로, 호젓한 산책로와 함께 정상에까지 차도가 나 있다. 팔달공원은 수원성 보수와 때를 같이하여 지정되었다.

팔달산 산마루에 오르면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함을 안겨 주고 성벽을 따라 나 있는 길은 연인들의 산책로로도 알맞다.

정상인 서장대(西將臺)에서 도청쪽으로 내려오면 3·1운동을 기리는 기념비가 둘 서 있고, 그 옆길로 내려오면 용담 약수터가 있다. 약수터 옆엔 한국 현대 음악의 선구자인 흥남파의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너비 1.5m, 높이 3m의 화강암으로 된 비의 상부에는 난파의 동판 초상화가, 아래엔 ‘고향의 봄’ 노래판과 악보가 새겨져 있다. 이 노래비는 수원이 고향인 난파의 공적을 추모키 위해 1968년 10월, 탄생 70년을 맞아 화흥문화제 때 세운 것이다.

휴게소 근처엔 고려 명장 강감찬의 기마상이 있다. 팔달산의 높은 기슭을 뒤로하고 손을 높이 들고 달리는 모습이 너무도 믿음직스럽다.

팔달산은 수원의 중심부에 위치에서 이름 그대로 팔방(八方)으로 길이 이어지는 산이다. 또 우리말 이름 ‘밭달’ 그대로 수원시의 머리(으뜸)가 되는 산이기도 하다. 팔달산은 수원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이다.

수원향교 - 수원신사 터 - 고인돌 - 3·1운동기념비 - 팔달산 浮石所 - 흥남파 노래비 - 강감찬 장군 동상(성신사) - 병풍바위(靈泉) - 병막(病幕)

○ 수원천변의 신앙 공간

종로교회 - 천주교성당 - 기독교신교회 - 수원포교당 - 심인당(진각종) - 점집들 - 거북산당 - 윗버드내 장승

○ 버드내, 오목내, 먼내 등 수원의 수변공간 적극적 활용

○ 수원의 오래된 노포(老鋪)들 찾기

포목점 - 만물상 - 대장간 - 목공소 - 이발관 - 도장집 - 시계점 - 떡집 - 술집

㉘ 지명의 자원화

춘향전에도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전라도로 내려가는 여정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지지대’와 그 일대의 땅이름들이 나온다.

“...남태령, 과천, 인덕원 중화하고(점식을 먹고) 갈미, 사근내, 군포내, 미륵당 지나 오봉산 바라보고 지지대를 올라서서 참나무정이 열린 지나 교구정 돌아들어 ...팔달문 내달아 상류천, 하류천, 대황교, 진개골, 떡전거리 중화하고...”

서울을 떠나 수원쪽 1번 국보를 따라가면 수원시 입구에 작은 고개가 나타나고 길가에 키가 큰 노송들이 우거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곳이 지지대(遲遲臺)와 노송지대이다.

수원의 능행차는 정조의 13번의 원행 이후 역대 임금들의 필로(蹕路)였다. 필로를 따라 장승과 정자 등이 멋들어지게 서 있었다. 이에 대한 복원을 통해 지역 명소화해야 하며 능행차연시를 좀더 우아한 그림과 관람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정조의 필로와 장승 및 정자

지지현(미륵당 短亭) - 괴목정교 - 일용리(장승) - 여의교(진목정교) - 만석거(영화정) - 기하동(장승) - 대유평 - 관길야 - 장안문 - 행궁 - 팔달문 - 매교 -

상유천(삼거리, 장승) - 만화현(장승) - 건장동(장승) - 하류천(長亭) - 황교 - 옹봉(장승) - 대황교(短亭) - 유침현(장승) - 안녕리(장승) - 유근교 - 만년제 - 능원소 동구(陵園所洞口, 장승)

장승을 세워야 할 곳으로 지지대 고개, 기하동, 윗버드내, 만화현, 건장동, 옹봉, 유침현, 안녕리, 능원소 동구 등이다.

정자(亭子)를 세워야 하는 곳으로 미륵당, 하류천, 대황교 등이다.

특히 지지대 장승은 전국을 대표하는 장승으로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고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변장쇠가〉를 살펴보면 전국의 장승들에게 통문을 발하는 대목이 나온다.

“통문 한 장은 진관천 공원이 맡아 경기 삼십사관, 충청도 오십사관, 차차전케 하고, 한 장은 고양 홍제원 동관이 맡아 황해도 이십삼관, 평안도 삼십이관 차차전케 하고, 한 장은 양주 다락원 동관이 맡아 강원도 이십륙관, 함경도 이십사관 차차전케 하고, 한 장은 지지대 공원이 맡아 전라도 오십륙관, 경상도 칠십일관 차차로 전케 하라.”

즉 지지대 장승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총괄하는 장승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 수원의 딸기밭과 포도밭 되살리기

한 동안 수원을 상징하는 표어는 ‘孝園의 도시 수원’ 이었다. 효원의 어원과 어의에 대하여 논란이 있겠지만 ‘효와 전원의 도시’ 라는 의미에서 ‘효원의 도시’ 로 명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효는 정조의 아버지 장헌세자에 대한 효성에 따른 화성과 신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 전원의 도시는 급격한 도시개발 이전 수원이 갖고 있었던 목가적 전원풍경에서 기인한다. 수원농대 인근의 푸른지대의 넓은 딸기밭은 서울에서 기차타고 데이트를 즐겼던 청춘남녀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효원의 도시 수원이라는 슬로건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용도폐기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효와 전원이라는 두 축 가운데 하나인 목가적 풍경을 지닌

환경의 급격한 변화 탓이다. 전원의 생태적 이미지는 사라지고 추상적 孝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을 뿐이다.

‘효원의 도시 수원’ 이라는 슬로건에는 적어도 수원의 지향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Happy Suwon’ 은 지역적 정체성이 전혀 녹아 있지 않은 무미건조한 슬로건으로 서울의 ‘Hi Seoul’과 쌍벽을 이룬다.

㊤ 상무의 전통 되살리기

수원은 尙武의 전통이 강했던 고을이다. 전통시대 수원의 군읍지 등에 수원의 인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武人들이다. 이는 수원의 역사지리적 특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원의 武風을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 한국무예학교 설치

- 24기를 비롯한 전통 무예(택견)를 체계적으로 교육
- 중국의 소림사와 버금가는 관광상품화

○ 무예관련 영화 및 드라마 유치

4. 마무리

문화유산 관광은 자칫 둘러보기식 관광이 되기 쉽다. 관광자 입장에서는 지역문화 체험기회 특히 진짜(authenticity)를 경험하고 맛보고 싶어 한다. 문화는 화려한 그릇 그 자체가 아니라 그안에 담긴 맛깔스런 음식이다. 따라서 화려한 시설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과 기념품, 이벤트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관광상품이 단기적으로는 틈새시장(niche market)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관광시장(mass market)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한다.⁵⁾

5) 강신겸,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CEO Information』, 제333호(2002), 삼성경제연구소

첫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대상지를 조사하여 선정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이용관리에 대한 기준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관광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자원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는 기초적인 DB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문화자원 활용의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조직을 구성하여 문화자원의 조사, 발굴은 물론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자료를 갱신하고 이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의 문화자원을 통한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국제적 수준의 관광휴양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급관광호텔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일정한 하드웨어적 시설과 편익이 이루어져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넷째,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외양적인 화려함보다 전통과 삶속에서 우리나라는 문화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한물 지나간 퇴락한 전통처럼 보이는 유교적 時祭조차 이제는 또 다른 문화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점이다. 경상도 지역의 문중조직이 살아있는 것에 비해 경기지역은 개발로 인하여 조선시대 대표적 분묘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의 경우 광고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의동이 개발되고 있다. 이의동은 광고산 주택이 흐르는 곳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심온선생 묘와 정유선생 묘 그리고 향후 향토유적으로 지정될 안동김씨 묘역, 상주황씨 묘역 및 이장되는 혜령군 묘 등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중별 시제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지역을 단위로 하는 문화향수 및 지역축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을 매개로 하는, 마을단위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역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야 문화가 살고 관광자원이 생동감있는 것이 된다.

24기 무예의 경우 전문적인 사범들의 시범에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것은 수원시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아침 저녁으로 수련함으로써 축적된 건강함과 생동감이 효과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여섯째, 무형의 자산을 문화상품으로 적극 발굴하고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되

어야 한다.

결국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축적된 문화적 생황 자체가 변하지 않는 문화자원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과 의식적 문화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참고자료

권태준,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정치의 지방화」, 『환경논총』, 제32권(1994).
 김선기, 「향토자산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 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3).
 김성진, 「일본 우키하의 청정마을 키우기」,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 153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김춘식·남치호, 「세계 축제경영」, 서울: 김영사(2002).
 김현호, 「지역의 브랜드 마케팅」, 『지역경제 새싹이 돋는다』, 전영옥 외, 삼성경제연구소(2003).
 김현호, 「지역자원의 브랜드화 : 레몬으로 세운 신비한 동화의 나라, 망풍」,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 157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김형국, 「고장의 문화관측: 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살 길」, 학교재(2002).
 문화관광부, 「한국의 지역이벤트」(2001).
 문화개혁시민연대, 「2003 축제평가 보고서」(2003).
 성주인(2000), 「인사동의 장소상품화에 대응한 정체성 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소영(1999), 「지역문화의 장소마케팅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인사동을 사례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전영옥,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이슈페이퍼』, 삼성경제연구소(2004).
 전영옥 외, 「지역경제 새싹이 돋는다」, 삼성경제연구소(2003).

수원지역 관광상품 개발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김 홍 식 (경기개발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장)

머리말	3. 수원시 도시관광 활성화 방안 및 개선 방안
1. 관광시장의 환경변화와 여가문화관광 트렌드 전망	맺음말
2. 수원시 관광상품 개발현황 및 문제점	

머 리 말

관광행태가 다양화되고 관광욕구가 다변화됨으로써 관광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소규모적이고 소극적, 기호적 성향이 강해지고 소프트웨어, 휴먼웨어(humanware)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관광객의 인식의 변화와 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더욱 복합화 되고 전문화된 관광상품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원시의 관광상품 개발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외의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을 매개로 한 산업간 복·융합화는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잠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관광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옴으로써 관광산업의 재도약 및 신활력 창출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 수원시의 관광상품 개발과정에서의 개선사항과 도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수원 화성 관광과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선방안 등을 각각 제시하고, 끝으로 수원시 지역 브랜드에 대한 통합된 관점에서 수원시 관광브랜드 개발의 필요성과 지속성과 통일성을 갖고 지속적인 관광마케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원시 관광수요를 신장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 관광시장의 환경변화와 여가문화관광 트렌드 전망

1) 국내외 관광시장의 환경변화 전망

전세계적인 대규모 경제블럭(economic bloc)의 형성, 주5일제 근무제 및 수업제의 확산으로 여가시간의 증대, 동아시아 시장의 급속한 성장 등 문화관광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 관광시장의 변화전망은 향후 수원시가 관광상품의 개발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1) 활동지향적 관광의 증가

과거 관광목적지 기반적 관광활동(destination-oriented tourism) 보다는 활동지향적 관광(activities-oriented tourism)의 증가로 인해 단순한 목적지 개발 보다는 철저히 관광상품 위주로 관광패턴이 변화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활동지향형 관광상품의 개발을 본격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략적 타겟 마케팅의 중요성 증대

중국은 세계관광의 주요 배출시장을 넘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관광의 거대한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고, 인도 또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관광시장

의 주요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친디아(중국과 인디아)가 세계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최대 관광송출국가인 일본과 함께 이들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타겟 마케팅(strategic target marketing)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서비스 투어리즘의 본격 등장

서비스 투어리즘(service tourism)이 본격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추세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소득수준의 향상, 문화수준 및 다양해진 소비욕구는 점차 문화관광 소비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4) 각국 및 지역간 협경의 중요성 증대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국가 및 지역관광 홍보예산 등의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관광시장을 대상으로 한 역내 국가간 협력,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내 지자체간 협력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등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협경(Cooperation)’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고, 주요한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협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5) 관광경험의 질 중시 중심 관광으로의 전환

양 중심의 대중관광시대에서 관광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질 중심 관광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맞춤형 관광상품의 등장과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는 관광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

(6) 비즈니스 관광시장의 빠른 성장

순수 관광시장보다는 비즈니스 관광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여성 비즈니스 관광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이어서, 감성관광상품과 문화관광상품 및 의료관광상품 등 과거에 비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관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이들 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화관광상품의 개발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7) 소규모 컨벤션 관광시장의 성장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세계 컨벤션 시장에서의 아시아 국가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아시아 국가간에 컨벤션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NGO의 비중확대에 따라 소규모 컨벤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고려할 때, 컨벤션 시설 확장에 치우친 양 중심의 정책에서 동북아 컨벤션 허브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중심의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공략한다는 측면에서 소규모 컨벤션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8) 젊은 시니어의 관광시장 참여 확대

인구고령화와 ‘젊은 시니어(young senior)’ 계층의 관광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젊은 시니어의 특징은 풍부한 개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을 위한 적극적 소비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65세 미만의 젊은 시니어들의 관광시장 참여확대는 웰빙관광(wellbeing tourism), 소프트 어드벤처(soft adventure), 문화유산 관광(heritage tourism)에 대한 새로운 수요확대를 유발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관광상품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추세 진전

3차산업인 관광산업을 농업, 의료, 실버 등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연계하여 기존 산업간의 복·융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즉, 관광을 매개로 한 산업간 복·융합화는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잠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관광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옴으로써 관광산업의 재도약 및 신활력 창출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의료관광(medical tourism)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인 의료관광은 현재 세계 많은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식품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2) 웰빙 관광(wellbeing tourism)

웰빙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관광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의미하며, 보양, 의료 및 미용 등 건강증진 관광, 자연 휴양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 전통음식 시식, 조리를 포함한 먹거리 관광, 전통문화, 농어촌 및 사찰 체험을 통한 체험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을 포괄하는 개념의 관광이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3) 농촌관광(green tourism)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며, 도시민에게는 휴식, 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품판매, 가공산업, 숙박·음식물 서비스 등 소득원을 제공하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방안을 추구하는 그린관광이 현대 관광의 새로운 추세로 부상하고 있다.

(4) 스포츠 관광(sports tourism)

개인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신체적 활동을 하거나 관람하거나 또는 그런 활동과 관련된 매력물을 좋아하는 레저중심의 활동이 스포츠 관광 또한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추세의 진전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관광활동이다.

(5) 음식 관광(food tourism)

각 지역의 현지 농수산물 및 특산물 등의 대량화, 규격화를 통해 관광객에게 보다 지역의 고유음식을 쉽게 접하게 함은 물론, 음식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관광코스에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음식 관광도 복·융합화의 주요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6) 영화관광(movie tourism)

영화·드라마와 관광을 연계시켜 세트장, 촬영지 등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으로,

유비쿼터스 관광(ubiquitous tourism)은 미래의 공간에 있어서 관광과 정보기술이 접목되는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주5일 근무제 및 수업제의 확산에 따른 문화관광 산업의 트렌드 변화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수업제의 확산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일반대중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는 7가지 트렌드(FREEDOM) 즉, (i)주5일제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Family), (ii)휴식과 오락을 선호(Recreation), 체험형 소비의 일반화(Experience), 학습의 기회증가(Education), 역동적인 참여형 관광의 증대(Dynamics), 야외활동의 강화(Outdoor) 및 매니어의 활동 활발(Mania) 등의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Family	Recreation	Experience	Education	Dynamics	Outdoor	Mania
가족과의 유대강화	휴식과 오락 선호	체험형 관광 소비의 일반화	학습의 기회 증가	역동적인 참여관광 증가	야외활동 강화	매니어의 활동 활발

즉, 주5일제는 고객계층을 확대하고, 체류시간을 증대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 수원시 관광상품 개발현황 및 문제점

1) 관광상품 개발현황 및 문제점

수원시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원은 효원의 종 타종, 국궁활쏘기 체험, 봉수거화, 장용영 수위의식, KBS 드라마센터,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등 7가지가 있다. 또한 수원시를 거점으로 운영 중인 경기데일리 투어버스는 5가지 투어코스가 개발되어 있다. 먼저 제1코스는 농촌체험 및 현장학습코스로서 수원역을

출발하여 농촌체험, 이천세계도자센터를 경유하여 수원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말한다. 제2코스는 효와 전통문화의 향기를 따라서 관광코스로, 수원역 - 한국민속촌 - 용주사 - 용진릉 - 화성행궁 - 화홍문 - 방화수류정 - 수원역을 연계한 전통문화관광코스를 말한다. 제3코스는 한국도자의 숨결과 역사 속으로의 기행코스이다. 즉, 수원역 - 명성황후생가 - 목아박물관 - 신록사 - 세종대왕릉 - 이천세계도자센터를 돌아보는 관광코스이다. 제4코스는 평화와 통일의 현장 속으로 라는 주제로 운영 중인 관광코스이다. 수원역을 출발하여 장단콩마을, 제3땅굴·도라전망대, 일산호수공원, 서오늬를 경유하여 수원역으로 돌아오는 평화안보관광코스를 의미한다. 제5관광코스는 서해바다와 함께 하는 환경여행 관광코스가 있다. 수원역 - 원평허브농장(허브비누만들기) - 제부도 - 평택항홍보관 - 향만안내선탑승 - 산업단지 - 수원역을 잇는 해양관광과 체험관광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말한다.

지역의 특산물과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관광특산품으로는 수원의 소·돼지고기를 소재로 한 소불고기양념, 수원돼지갈비양념, 수원갈비양념 등 3종이 특산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술을 소재로 한 특산품(불휘)은 6종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캐릭터상품으로는 화성넥타이, 옥열쇠고리, 화성책갈피(북마크) 등 37종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수원시는 수원시를 거점으로 하여 인근 지역의 유명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광자원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고, 지역특산물인 갈비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소재가 단조롭고 조잡한 측면이 있어 산업연관효과가 높고 시스템산업인 관광산업의 특징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원시의 관광코스는 수원시를 기·종점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체류관광을 유도하지 못하고, 경유형 관광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관광객의 증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관광산업 부문의 복·융합화 추세와 국내외 관광시장 환경의 변화전망과 새로운 관광추세에 따른 관광수요의 고급화·차별화·세분화된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2) 수원화성 관광의 현황 및 문제점

(1) 관광수요 측면

2005년 수원시 전체 관광객 수는 총 230만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수원화성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90만명(내국인 67만명, 외국인 2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수원시 통계연보, 2006; 수원화성사업소 내부자료, 2006). 수원화성 관광객은 가족 단위 나들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4~5월과 지역 대표축제인 화성문화제의 개최시기인 10월에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화성 관광객의 주된 방문목적은 가족나들이(38.6%), 문화유적 답사(34.7%), 자녀교육(24.4%), 휴식 및 산책(22.0%), 경관감상(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이 당일 관광객(95.1%)이었으며 수원화성의 체류시간은 평균 3.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광패턴, 관광루트, 교통체계 등 관광흐름(Travel) 측면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은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하며, 성곽주변에 마련된 주차장으로부터 걸어서 성곽유적을 관람하고 있고, 수원화성 내 팔달산과 장안문, 연무대를 잇는 3.2km 구간에는 화성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수원화성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대표자원·장소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성곽유적과 최근에 복원사업이 진행된 행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의 관광흐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성곽유적의 일부 구간(화서문 ↔ 장안문 ↔ 화홍문 / 방화수류정 ↔ 연무대)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수원화성 도시 내부로의 유기적인 연결과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원, 프로그램, 축제, 쇼핑, 숙박, 안내 등 관광목적지(Destination) 측면

①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수원화성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은 성곽유적과 행궁, 팔달산, 수원천 등이다. 팔달문(남), 장안문(북), 화서문(서), 창룡문(동) 등 4대문과 성곽의 성루는 인근 주민과 방문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로서 수원화성 역사도시의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의 근

간이 되고 있다. 수원화성 성곽유적에서는 일반 방문객들을 위해 효원의 종 타종, 국궁 활쏘기와 같은 체험관광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에 복원된 화성행궁에서는 장용영 수위의식, 무예 24기 공연, 궁중·전통문화 체험, 상설 공연 등이 운영되고 있다.

② 축제

수원화성의 대표적인 축제는 화성문화제(10월), 수원화성국제연극제(8월)이며 그 밖에도 궁중음식축제(5월), 성안 사람들의 음악축제(5월), 효의 성곽순례(5월),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8월)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축제와 이벤트의 소재나 테마가 성곽유적, 효, 실학 등 18세기 역사와 전통문화에 편중되어 있으며, 지역주민과 민간 전문가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③ 쇼핑

수원시가 인구 백만명의 대도시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수원화성의 구도심의 상업적 중심기능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18세기 수원화성 신도시의 탄생과 더불어 발달한 팔달문 재래시장은 패션잡화, 포목주단, 식품 먹거리 등의 상품이 특화되어 있다. 수원시는 팔달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쇼핑활동과는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④ 숙박 인프라

현재 수원화성 방문객 대부분의 관광형태는 반나절 코스의 경우형 관광으로서 수원화성 내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머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원화성은 수도 서울과 국제공항 도시 인천에 인접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이러한 대도시의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수원화성 내부의 기존 숙박시설은 주로 여관이나 여인숙이어서 내·외국인 관광객이 체류하기에는 시설이 매우 노후하고 주변 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관광안내

수원화성 성곽유적과 행궁, 팔달문 재래시장 주변에 설치된 관광안내소는 시설 규모가 협소하고 외관 디자인의 통일성과 식별성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이나 이용빈도가 낮은 실정이다. 다행히 올해 2007년 3월 25일 행궁 앞 광장에 수원화성 홍보관이 개관하게 됨에 따라 수원화성 관광안내와 홍보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원화성에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70여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도시이미지, 인지도, 홍보 등 관광마케팅(marketing) 측면

수원시는 백만명의 인구, 경기도청 소재지, 농업진흥청 소재 농업연구 중심지, 1번 국도와 경부선 철도가 관통하는 교통 중심지 등 국내 대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첨단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는 수원시는 첨단이동통신 기술개발의 메카로서 도시 브랜드가 향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원화성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종종 다른 행정구역과의 혼동을 가져오기도 하며, 성곽 유적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로 인해 낙후되고 정체된 구도심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다. 현재 수원화성의 홍보마케팅 활동은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전략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 수원시 도시관광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

1) 수원시 전체 도시관광(urban tourism) 활성화

(1)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

수원시의 관광의 특성은 전형적인 도시관광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수원화성을 거점으로 한 관광자원간의 네트워크의 강화와 경유형 관광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류형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관광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문화관광의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강화가 수원시 관광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기존의 수원시 관광이미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수원시 관광이미지의 창출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정책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원시의 도시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오감 체험이 가능한 문화관광 요소를 제공(4F·4E)할 수 있는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즉, 즐길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등 4F(Fun·Fashion·Food·Fan)와 체험, 교육, 위락 및 생태를 소재로 한 4E(Experience·Education·Entertainment·Ecology) 등 새로운 추세와의 결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쇼핑, 비즈니스 및 오락기능을 한자리에 집적하여 집객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쇼핑 몰 등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즉, 쇼핑에 집단적 놀이문화를 결합한 도시엔터테인먼트 센터(Urban Entertainment Center)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

다른 한편으로는, 수원시 도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수원시 관광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관광상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의 기본개념은 먼저, 볼거리(視), 들을거리(聽), 내음거리(臭), 먹을거리(味), 느낄거리(觸) 등 인간의 오감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개념의 축인 체험의 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체재시간의 길이와 계절, 일상과 비일상(축제 및 이벤트)에 따른 개념으로 축으로서 시간의 축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인접지구와 연계한 이용자의 취미, 기호별로 테마가 있는 탐방을 할 수 있는 소프트한 개념의 축인 테마의 축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수원시 도시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수원화성의 도시관광 활성화 방안

(1) 관광시장 세분화 및 차별화 전략 등 관광수요측면

향후 2020년에는 약 310만 명(내국인 250만명, 외국인 62만명)의 관광객이 수원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수원화성 내 주요시설별(성곽, 행궁, 박물관 포함) 수요예측결과를 토대로 할 때, 2020년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수는 약 2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수원시의 관광마케팅 전략은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모두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간주하고 유치전략과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관광수요 측면에서의 수요 증가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수원화성 관광객 시장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각 시장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내국인 시장은 가족단위 관광객, 학교단체 및 수학여행, 소규모의 문화유산 답사활동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족단위 관광객의 경우에는 주로 교육목적의 주말 방문이 많아 재미와 체험을 더할 수 있는 관광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동호회나 학회, 대학 등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현장을 찾는 답사 방문객들은 전문지식과 상세한 해설, 지역 고유의 음식과 문화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시장은 국적, 여행목적, 여행형태, 관심분야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방문객의 경우 95% 이상이 여행·관광 목적이며, 지적욕구와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국인의 경우 업무 목적의 방한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문화와 위락시설,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또한 방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큰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비즈니스 여행객, 국제회의 참가자, 개별 여행자(FIT), 한류 매니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2) 성곽 내부도시로의 확산 및 체류형 관광촉진 등 관광흐름 측면

세계적인 역사도시는 대체로 관광활동의 시작과 종착 지점이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기념물과 같은 도시의 주요 문화시설과 공공광장, 공원, 가로 등을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계획하게 된다. 도시 내 핵심 관광매력물들은 주로 도보 권내에 분포되어 있거나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수원화성 관광의 시·중점은 최근 복원된 화성행궁과 새로 조성 중인 행궁 앞 광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8년 완공 예정인 화성박물관, 역사도시의 경관을 조망하며 산책하게 될 팔달산 회주로, 자동차 매연과 소음이 없는 보행자의 천국으로 탈바꿈하게 될 팔달로, 도시 내부를 관통하여 흐르며 문화와 상업 활동의 중심이 될 수원천은 미래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의 핵심적인 관광매력이 될 것이다. 또한 화서문로와 행궁 앞길, 복수문 옛길, 팔부자길 등의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역사문화의 거리, 쇼핑문화의 거리로 새롭게 조성되어 수원화성 성곽 주변에만 머물고 있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도시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걷고 싶고, 걷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기존의 화성열차 운행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성곽 내 외부의 매력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역사유적의 문화적 활용, 기반시설 및 서비스 등 관광목적지 측면

수원화성 성곽유적과 화성행궁은 단순한 역사공간이 아니라 현대인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또 다른 문화공간이자 문화시설로 전환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장안공원 성벽을 배경으로 창작 연극공연과 설치미술 전시회가 연중 개최되고, 화성행궁은 조선의 궁중문화를 전파하는 중심지로서 궁중역사와 풍습, 놀이, 예술, 음식, 과학 등 다양한 궁중 문화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행궁 앞 광장은 수원화성 주민들의 일상적인 쉼터이자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통해 거주민과 문화예술인,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원화성이 기존의 경유형 관광지에서 숙박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야간문화관광 이벤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팔달산과 화홍문 방화수류정, 용연, 수원천 등 화성의 아름다운 도시야경 명소들을 홍보하고 팔달문 야시장, 팔부자길, 수원천변을 중심으로 한 쇼핑관광, 심야 마라톤 영화 투어, 박물관·미술관 야간 개방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관광코스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수원천의 콘크리트 옹벽 일부를 철거하여 사면 녹지로 조성하고 수변 산책로 데크(deck), 환경조각, 분수 등을 설치하여 도시의 문화상업 활동의 중심 하천으로 되살려야 할 것이고, 전통이 있는 팔달문 재래시장과 주요 관광명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보행자 동선과 화성열차 운행노선을 확대·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원화성이 기존의 경유형 관광지에서 숙박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관광숙박시설 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적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전통양식의 외관과 서비스를 갖춘 한옥체험관이나 고급전통호텔 유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궁 앞 광장에 새로 조성된 수원화성 홍보관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방문객 센터로서 수원화성 역사도시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능적 역할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관광코스, 문화이벤트, 교통수단, 쇼핑명소, 향토음식, 숙박시설 등 수원화성 여행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정보와 예약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4) 도시매력 홍보 및 전담조직의 확대개편 등 관광마케팅 측면

수원화성의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자원, 수려한 도시경관, 아름다운 자연환경, 재정비된 인프라 등과 같이 다양한 도시매력 자원들을 활용하여 관광마케팅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또한 수원시 차원에서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The 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의 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관련 국제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현행 수원시화성사업소를 ‘수원화성세계유산센터(가칭)’로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원시 관광브랜드 가치(brand value of tourism) 창출을 위한 개선방안

외래 관광객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통한 일관된 이미지 배양이라는 차원에서 관

광의 브랜드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광의 브랜드화는 관광산업에 대한 내외국인 소비자의 인식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으로 자연, 풍속, 유적 등 다양한 관광거리에 이름을 붙여하여 이를 각종 마케팅수단을 통해 전달하고 결과평가를 통해 장기적 자산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말한다.

맺 음 말

수원시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통합된 관광브랜드와 관광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전제로 한 대외 관광브랜드 가치의 창출은 필수적이다. 기업마케팅 활동에서 개별 브랜드의 상품광고와 기업브랜드 광고를 하듯이, 수원시도 개별캠페인뿐만 아니라 수원시 관광브랜드 및 수원시 마케팅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이미지가 관광산업 발전의 키워드가 되고 있음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월드컵 축구대회의 개최와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으로 수원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 대한 새로운 지역이미지 창출을 위한 통일된 마케팅활동과 수원시의 지역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수준의 통합된 관광홍보 및 캠페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직 수원시 관광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수원시, 수원문화와 관광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원시 관광브랜드, 즉 수원시의 관광상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국가나 지역들이 관광브랜드를 통해 자국과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홍보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개선책으로는 기존의 수원시 홍보 슬로건으로 지정된 “HAPPY SUWON”이라는 지역 브랜드와 통합된 관점에서 관광브랜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즉, 수원시의 지역 관광브랜드는 지속성과 통일성을 갖고 각개 전투가 아닌 총력전으로 문화관광부문의 새로운 추세를 흡인할 수 있는 관광브랜드 가치를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수원시의 기존 지역 이미지와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이미

지를 창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된 수원시의 관광브랜드 개념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수원시 지역브랜드 개념인 “HAPPY SUWON”은 수원시 관광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고, 수원문화·관광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상징하는 관광브랜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와 수업제의 확산에 따른 문화관광산업의 트렌드 변화인 FREEDOM을 향유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목적지로서의 새로운 관광브랜드 개념인 PREMIER(Peaceful·Recreation·Entertainment·Medical·Innovation·Education/Experience·Refresh)의 이미지 창출을 통하여 도시관광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문화관광의 콘텐츠 등이 정비된다면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관광허브로 도약할 것이다.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수원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수원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하며 수원지역학 연구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8조에 명기된 사업
2. 수원지역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용역
3. 각종 학술회의 및 국, 내외 학술 교류
4. 정기 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 구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제6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소장
- 2. 운영위원 약간 명
- 3. 연구위원 약간 명
- 4. 상임연구원
- 5. 연구보조원 약간 명

제7조(자격 및 임면)

- 1. 연구소장은 수원문화원 원장이 당연직 소장으로 겸임한다.
- 2.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면한다.
- 3.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소장이 임면한다.
- 4.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직무)

- 1.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3.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면한다.

제11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서면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전송이나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본 연구소의 정관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연구위원회

제14조(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면한다.

제15조(회의 소집)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 1. 연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항
- 3. 연구도서 간행, 학술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정 및 회계)

-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수원시 지원금과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수원문화원 회계처리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자료 수집비, 활동비, 회의비, 기타 수당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수원문화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0조(재정보고) 연구소장은 사업 및 회계에 관하여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준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규정과 문화원 정관에 준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회 보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성명	소속	자택주소		전화	핸드폰		비고
		직장주소	이메일				
유병헌	수원문화원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62번지	031-254-5162	011-710-5162	president@suwonsarang.com	연구소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 2-1번지	031-244-2161				
최홍규	경기대 사학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 128/701	031-242-6795	011-319-0211	namgokchoi@naver.com	운영위원장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4-6	031-249-9169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 건영 113/601	031-702-9413	011-774-9413	pabalo@hanmail.net	운영위원 연구위원장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4-6	031-249-9168				
조성을	아주대 사학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대우아파트 109/503	031-222-6091		eul@madang.ajou.ac.kr	운영위원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031-219-2850				
박 환	수원대 사학과	서울시 동작구 사당 3동 대림아파트 5/103	02-3477-0731	017-268-3569	hwpark@suwon.ac.kr	운영위원 연구위원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 산 2-2	031-220-2346				
박천우	장안대학 관광레저 경영계열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살구 현대A 723/601	031-258-8856	017-768-8856	pcwjangan@hanmail.net	운영위원 연구위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460 장안대학	031-299-3294				
김대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백설마을 주공 561/103	031-268-4157	010-4739-4157	kimdk@history.go.kr	운영위원 연구위원	
		과천시 중앙동	02-500-8343				
정일동	수원대 사학과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삼성7차아파트 702/801	031-304-1064		idchung@suwon.ac.kr	연구위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031-220-2349				

성명	소속	자택주소	전화	핸드폰	비고
		직장주소		이메일	
정형지	오산대학교 양과			011-9709-3402	연구위원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17번지	031-370-2648	bwhje@hanmail.net	
김현선	경기대 국문학과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현대2차 아파트 206/1405	02-3272-3970	018-356-9108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031-249-9108	y3k@kyonggi.ac.kr	
장필기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	수원시 영통구 매탄 2동 197동남빌라 5-303	031-213-6951	019-9158-5870	연구위원
		과천시 중앙동	02-500-8346	jpk@history.go.kr	
이세형	수원문화원이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씨미트빌A 215/1501		011-9732-5136	운영위원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 울곡관 209 수월발전연구센터	031-219-1732 fax)219-1737	lsh3111@hanmail.net	
최홍규	수원 미협 자문위원			011-744-2392 fax)256-5917	운영위원
		수원시 팔달구 교동 56-2	031-256-4917		
김철규	수원문화원이사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보은맨션 806호	031-243-0053	019-212-4119	운영위원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031-233-3028	nomih@hananet.net	
조성운	경기대학교 강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3	017-726-1686	choseongwoon@hanmail.net	연구위원
김준혁	수원시청 학예연구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0-0	016-309-9847	jhkim1789@suwon.ne.kr	연구위원
박희정	수원문화원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롯데아파트 1/201	031-247-7005	011-304-7081 fax)253-0740	사무국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 2-1번지	031-244-2161	ing@suwonsarang.com	
최자운	수원학연구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61-196 2층		016-721-0296	상임연구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2-1번지	031-244-2161	jauni@hanmail.net	

취보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 1 〉 제목, 목차, 필자명

1. 게재논문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2. 章 --> 1. 2. 3. / 節 --> 1) 2) 3) / 項 --> (1) (2) (3).
3.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4.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 2 〉 본문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한자로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 3 〉 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4 〉 각주

1.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2. 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 ① 한국사,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고려사학회, 100 101쪽, 1998.
 - ② 한국사, 『역사연구』, 『한국사학보』 1, 1960 ; 『역사의 사회사』, 한국출판사,

재수록, 100쪽, 1998.

③ 한국사,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1997.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와 같이 처리

사료 인용

⑤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高麗史』 권76, 百官1 贊成事(아세아문화사영인본 상책 107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원문 이용은 “”로 표시)

『世宗實錄』 권9, 世宗 6년 5월 庚子(국편 영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로 표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⑥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 5 > 주의 사항 : 영문 초록, 주제어 첨부

1. 맺음말 뒤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2. 영문초록에는 필자의 영문 이름과 논문의 영문 제목을 반드시 기재한다.
3. 주제어는 5개 이상을 선정하여 맺음말 뒤에 첨부한다.

수원학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 조병로(경기대 사학과 교수, 수원학연구소 연구위원장)

위 원 : 정일동(수원대 사학과 교수, 수원학연구소 연구위원)

조성운(경기대학교 강사, 수원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철규(수원문화원 이사,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박희정(수원문화원 · 수원학연구소 사무국장)

간 사 : 최자운(수원학연구소 상임연구원)

水原學研究

第 四 號

인 쇄 2007년 12월 15일

발 행 2007년 12월 31일

발 행 인 유 병 현

편 집 인 조 병 로

발 행 처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산 2-1

TEL : 031-244-2161~3

제 작 풍광 : 031-211-7784

비매품

이 책자는 수원시의 지원에 의해 제작된 것임.

